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이문건 『양아록(養兒錄)』에  
나타난 격대교육(隔代敎育)의  
교육적 의미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문혜경

2018년 8월



# 이문건 『양아록(養兒錄)』에 나타난 격대교육(隔代敎育)의 교육적 의미

지도교수 양진건

문혜경

이 논문을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문혜경의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8년 8월





Educational Significance of  
Alternate-Generation Education  
in Lee Mun-Geon's *Yangarok*

Hye - Kyung Moon

(Supervised by professor Jin-Geon Y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Education.

2018.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In-Hoi Lee, Prof. of Education

Thesis director, Dae-young, Kim, Prof. of Education

Thesis director, Ji-Yeon Lee, Prof. of Education

Thesis director, Hyeon-Jeong Kim, Prof. of Education

Thesis director, Jin-geon Yang, Prof. of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 이문건 『양아록(養兒錄)』에 나타난 격대교육(隔代教育)의 교육적 의미

문혜경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지도교수 양진건

본 연구는 묵재(默齋) 이문건(李文楨)의 『양아록』을 분석하여 조선시대 격대교육의 교육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인간형성’의 기본을 가정이 담당하였다. 이에 조부(祖父)와 부(父)는 자녀가 5세가 되면 교육을 위해 직접 책을 만들거나 일반 동몽교재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쳤다.

이에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조선시대의 보편적으로 활용되었던 동몽교재를 분석하여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내용(태교(胎敎), 보양(保養), 효(孝), 예절(禮節), 성역할(性役割), 가문의식(家門意識), 권학(勸學))과 방법(모방(模倣), 역행(力行), 예시(豫示), 체벌(體罰), 여질(慮質), 독서(讀書))을 추출하였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연령별 발달시기에 따른 교육이 특징이었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발달이론 및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발달 시기를 네 단계(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로 구분하였다. 이를 토대로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발달시기에 따라 『양아록』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고찰하였다.

『양아록』에서 격대교육은 발달에 따라 같은 내용과 방법일지라도 단계적으로 심화되고 차별화되었다. 영아기는 적절한 환경조성과 양육자의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유아기에는 본격적으로 침식을 함께 하며 강요보다는 자유롭고 너그러운 태도로 손자를 교육하였다. 아동기에는 사대부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 심리적 절제와 절도를 강조하면서, 할아버지가 교육에 적극성을 띠게 된다. 이 시기에 할아버지의 ‘고식적인 사랑’이 수봉의 양육과 교육에 문제로 표면화되고, 이문건의 성찰적 사고에 의한 교육행위의 교정으로 이어졌다. 청소년기에는 조손간이 대립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렇게 양육의 한계상황에 다다르자, 이문건은 배움의 주체는 손자임을 수용하면서 관조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양아록』의 격대교육 특징은 교육내용적 측면과 교육방법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내용적 측면에서는 보양과 가문의식에 집중하면서 일상 규범의 체득을 통한 근본교육 및 인성교육에 힘썼다는 것이다. 가문의 내력으로 인해 모든 내용에 심신의 수양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교육방법적 측면에서는 영유아기에는 자유롭게, 아동기에는 구체적인 계획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청소년기에는 손자의 자발적 변화를 기대하며 ‘내려놓음’으로 전환하였다. 격대교육의 의미는 육아 및 교육의 지향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손자의 자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양육자로서 객관적 관점을 견지하는 태도로 귀결된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정교육의 복원, 양육을 위한 세대와 사회의 연대 필요성 및 영유아교육의 방향성 제시라는 교육적 의미가 도출되었다.

핵심어 : 양아록, 가정교육, 격대, 격대교육

# 목 차

|                                   |           |
|-----------------------------------|-----------|
| 국문초록 .....                        | i         |
| <b>I. 서 론 .....</b>               | <b>1</b>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1         |
| 2. 연구 문제 .....                    | 6         |
| <b>II. 연구방법 .....</b>             | <b>8</b>  |
| 1. 가정교육의 내용 .....                 | 13        |
| 2. 가정교육의 방법 .....                 | 15        |
| 3. 연령별 발달시기 .....                 | 17        |
| <b>III. 조선시대 가정교육 .....</b>       | <b>22</b> |
| 1.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개념과 형태 .....        | 22        |
| 1) 가정교육의 개념 .....                 | 22        |
| 2) 가정교육의 형태 .....                 | 23        |
| 2.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내용과 방법 .....        | 25        |
| 1) 가정교육의 내용 .....                 | 25        |
| 2) 가정교육의 방법 .....                 | 31        |
| 3. 조선시대 가정교육으로서의 격대교육(隔代教育) ..... | 35        |
| 1) 격대교육의 개념 .....                 | 35        |
| 2) 격대교육의 특성 .....                 | 37        |
| 3) 격대교육의 사례 .....                 | 38        |
| 4. 조선시대 격대교육 전형으로의 『양아록』 .....    | 39        |
| 1) 이문건의 생애와 『양아록』 .....           | 39        |
| 2) 『양아록』의 전체적 내용 .....            | 44        |

|   |            |
|---|------------|
| 3) 『양아록』에 관한 선행연구 .....                   | 46         |
| <b>IV.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의 내용 .....</b>      | <b>50</b>  |
| 1. 태교(胎敎) : 손자를 기원하다 .....                | 51         |
| 2. 보양(保養) : 손자의 성장과 치병에 힘쓰다 .....         | 53         |
| 3. 효(孝) : 입신(立身)을 강조하다 .....              | 68         |
| 4. 예절(禮節) : 절제를 중심에 두다 .....              | 75         |
| 5. 성역할(性役割) : 남자의 처세를 가르치다 .....          | 89         |
| 6. 가문의식(家門意識) : 가문재건의 과업을 전수하다 .....      | 99         |
| 7. 권학(勸學) : 군자인(君子人)을 지향하다 .....          | 114        |
| <b>V.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의 방법 .....</b>       | <b>126</b> |
| 1. 모방(模倣) : 본모기를 보이다 .....                | 127        |
| 2. 역행(力行) : 실천을 중용하다 .....                | 131        |
| 3. 예시(豫示) : 미리 제시하다 .....                 | 134        |
| 4. 체벌(體罰) : 회초리로 훈육하다 .....               | 139        |
| 5. 여질(慮質) : 자질을 고려하다 .....                | 145        |
| 6. 독서(讀書) : 수신을 독려하다 .....                | 149        |
| <b>VI.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의 특징 .....</b>      | <b>154</b> |
| 1. 교육내용적 측면 .....                         | 155        |
| 2. 교육방법적 측면 .....                         | 161        |
| <b>VII.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의 교육적 의미 .....</b> | <b>166</b> |
| 1.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정교육의 복원 .....               | 166        |
| 2. 양육을 위한 세대와 사회의 연대 필요성 .....            | 168        |
| 3. 바른 인격형성에 중점을 두는 영유아기 교육의 방향성 .....     | 171        |
| 4. 양육자(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              | 173        |

|          |     |
|----------|-----|
| VIII. 결론 | 176 |
| 참고문헌     | 183 |
| Abstract | 205 |

## 표 목차

|                                       |     |
|---------------------------------------|-----|
| <표 1> 「동몽교재」 - 조선시대 가정교육 내용 .....     | 13  |
| <표 2> 「선행연구」 - 조선시대 가정교육 내용 .....     | 14  |
| <표 3> 조선시대 가정교육 내용 분석틀 .....          | 15  |
| <표 4> 「동몽교재」 - 조선시대 가정교육 방법 .....     | 15  |
| <표 5> 「선행연구」 - 조선시대 가정교육 방법 .....     | 16  |
| <표 6> 조선시대 가정교육 방법 분석틀 .....          | 17  |
| <표 7> 「발달 시기별 단계」의 구분 .....           | 19  |
| <표 8> 「양아록」 격대교육 내용의 발달 시기별 분석틀 ..... | 20  |
| <표 9> 「양아록」 격대교육 방법의 발달 시기별 분석틀 ..... | 21  |
| <표 10> 이문건 가계 .....                   | 40  |
| <표 11> 이문건 연보 .....                   | 42  |
| <표 12> 「양아록」의 전체적 내용 .....            | 44  |
| <표 13> 「양아록」 격대교육 내용의 발달 시기별 분석 ..... | 50  |
| <표 14> 「태교」 내용 .....                  | 51  |
| <표 15> 「보양 - 신체운동발달」 내용 .....         | 54  |
| <표 16> 「보양 - 건강과 안전」 내용 .....         | 59  |
| <표 17> 「효」 내용 .....                   | 70  |
| <표 18> 「예절」 내용 .....                  | 78  |
| <표 19> 「성역할」 내용 .....                 | 91  |
| <표 20> 「가문의식」 내용 .....                | 101 |
| <표 21> 「권학」 내용 .....                  | 115 |
| <표 22> 「양아록」 격대교육 방법의 발달 시기별 분석 ..... | 126 |
| <표 23> 「모방」 내용 .....                  | 127 |
| <표 24> 「역행」 내용 .....                  | 132 |
| <표 25> 「예시」 내용 .....                  | 135 |
| <표 26> 「체벌」 내용 .....                  | 140 |

|                                       |     |
|---------------------------------------|-----|
| <표 27> 「여질」 내용 .....                  | 145 |
| <표 28> 「독서」 내용 .....                  | 150 |
| <표 29> 「양아록」 격대교육 내용의 발달 시기별 정리 ..... | 156 |
| <표 30> 「양아록」 격대교육 방법의 발달 시기별 정리 ..... | 161 |

## 그림 목차

|                      |    |
|----------------------|----|
|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 | 21 |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조선은 유교에 근거한 우리 전통의 중핵이 형성되고 확립된 시기로서, 우리 문화의 체(諸)요소 중 많은 부분에 근간을 이루고 있다(박평식, 2013: 337). 조선은 50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 외우내환(外憂內患)을 겪으며, 한국사에서는 처음으로 교육 전반에 걸쳐 교육제도와 운영의 원칙을 세우고 정착시킨 시기이기도 하다(이원호, 2002). 조선의 정부와 관료들은 지식교육과 전인교육이 함께 공유되어 명실상부하게 사회교육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낼 수 있도록 성리학적 사범정신(師範精神)을 교육사상과 제도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성리학적 사범정신은 500년 조선왕조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고, 유교를 건국이념으로 삼은 한(漢) 왕조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교육문화를 남겨놓았다(김용재, 2004: 234). 따라서 500년 이상을 지속한 조선시대의 교육은 우리 교육의 뿌리(이은지, 2014)이자, 전통시대 교육의 정수라 할 수 있다(신명호, 2005). 따라서 현재의 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의 교육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의 교육은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일깨우는 것을 중시하였다(최봉영, 1998). 또한 국가의 경영이 성리학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간형성’의 기본을 가정에서 담당하였다(이계학 외, 1994; 정정기, 2012: 1). 이에 따라 대가족이 일상적 가정의 모습이었던 사회에서 아동교육은 자연스럽게 가족을 중심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특히 선비들은 예(禮)에 적합한 행동을 아동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조부모, 부모, 교사 등을 통해 체득하게 함으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실현하려 노력하였다(류점숙, 2003). 따라서 부모나 조부모는 아이들의 신체 건강뿐 아니라, 성격과 가치관, 행동을 형성하고 아이가 자신에 대한 관점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Reasoner & Lane, 2007: 17).

조선시대의 교육은 사람의 몸과 마음에 대한 인식, 즉 인간관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신명호, 2005: 37). 올바른 인간형성을 위해 전통시대의 어른들은 모범을 보이면서 항상 자녀들을 관찰하고 가르치며 ‘가통(家統)’을 형성해가도록 교육하였다(조남욱, 2016: 64). 당시 가정교육에 있어 부모와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이들이 조부모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순형(2000)은 조부모가 손자녀의 교육을 담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설을 제시한다. 그 중 ‘아동의 심리적 측면의 교육 효과를 고려한 조치’라는 점을 가장 타당한 설명으로 꼽았다. 그 이유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욕심이 앞서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다.

또 조선시대에는 부모-자녀 간 연령차가 적었기 때문에 서로 심리적 겨루기와 경쟁심이 발생하여 비교육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맹자도 부모-자식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육적 폐단을 설명하면서 무엇보다도 유가(儒家)에서 가장 중시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해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sup>1)</sup> 반면, 조부모는 자애로운 심정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아동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가 육아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조부모가 손자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교육하는 격대교육(隔代教育)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자녀를 낳아 부모가 직접 가르치지 않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일 수 있다는 일종의 배려였다(김용재, 2005: 429).

그런데 현재 심각해지고 있는 가정해체의 실상은 가정의 기능이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가정교육의 부재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정철영, 2015). 이러한 가정의 위기는 역설적으로 가정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지금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원초적인 인간관계의 학습이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주의적이며, 이기적 사고가 기본이 되는 인간관계를 주로 형성하게 되었다(김명운, 2012). 이는 현대 가정에서 자녀에게 사회 경제적 측면의 지원보다는 가족 구성원 간의 밀도 있는 의사소통과 부모와의 친밀감, 가족 구성원들의 적절한 관심 등이 더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고정자, 2003; 조현주, 2017).

이와 함께 한국인 4명중 1명만이 친조부모 및 친손자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1) 『孟子』 「離婁 上」: 公孫丑曰: 君子之不教子 何也? 孟子曰: 勢不行也 教者必以正 以正不行 繼之以怒 繼之以怒 則反夷矣. ‘夫子教我以正 夫子未出於正也’ 則是父子相夷也 父子相以 則惡矣. 古者易子而教之 父子之間不責善 責善則離 離則不祥莫大焉.

통계는 가족의 범위가 협소해져 가고 있음을 반증한다(현용수, 2013). 이런 가운데 세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세대 차이는 그 사회가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신호이다. 어린 세대가 어른처럼 되는 것에 자부심을 갖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이미 연속성과 안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사회에서 어린 세대와 어른들은 모두 상실감을 겪게 된다(Lidelloff, 1985: 217).

이에 반해 조선시대의 노인은 집안의 의사결정을 하는 어른으로 존경과 효도의 대상이자, 가정을 지탱하는 중심이었다. 신체적 노화로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 할 수는 없었지만, 가족구성원의 정신적 지지대 역할을 하였다. 부모에게는 육아와 교육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존재였고, 손자녀에게는 애착과 내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존재였다. 손자녀를 향한 전폭적인 사랑에 기반한 관계맺음은 어린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장래의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조손관계에서 손자녀에게 베푸는 조부모의 사랑, 양육, 수용심은 사회적 책임이 면제된 자연적인 형태로서, 그 어느 사람이나 기관에서도 제공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Kornhaber & Woodward, 1981; 구혜진, 2017: 20에서 재인용). 즉 양육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조부모는 손자녀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고, 손자녀도 조부모의 가르침에 쉽게 순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은 조손의 관계가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돈독해짐을 뜻한다. 이들은 침식을 같이 하면서 나이를 뛰어넘어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조부모들은 손자녀의 자질을 파악하여 일용지사의 기본예절을 중시하였다. 어려서부터 관계의 예절을 모범을 통해 가르치기 때문에 더 잘 배울 수 있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보다는 행동을 모방하는데 더 유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정교육의 본질은 일상적인 모든 것이 교육 행위이며, ‘삶이 곧 교육’(Dewey, 1916)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은 인간 사회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교육 공동체이다. 왜냐하면 사랑과 호의가 가정의 생활 원칙이고, 교육 및 인격형성의 능력은 가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배양되기 때문이다(박일영, 2000). 따라서 가정에서 훌륭한 육아와 교육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선한 본성이 심어지고, 이 본성이 선한 소질로 발현된다(Platon, 천병희 역, 2016).

미래사회는 문화와 정신과 부드러움이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이 된다고 한다.

미래학자들은 통합적 사고를 중시하는 미래사회에서 시스템 통합적인 교육과 함께 휴머니즘에 기반한 가치 지향적 교육이 절실함을 역설하고 있다(신지은 외, 2009). 이러한 사회에서 노인세대는 기술 발달에 따른 적응력과 정보능력의 학습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미래사회에서 노인세대는 삶에 대한 거시적 안목과 도덕적 가치관을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유능한 자원이 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노인세대의 강점은 오랜 세월 경험을 통해 배움으로써, 그들 자신을 확장시켰다는 것이다(Rogers, 1980). 때문에 그들은 인생에 지혜를 주고, 위기의 상황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인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통찰력이 생기고 여유로워지며, 결정에 더 심사숙고해진다. 이것은 경험이 짧고 패기로 가득찬 젊은 세대와 구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신지은 외, 2009: 116). 따라서 격대교육은 어린 세대와 어른들의 거리를 좁히고 인간성 및 인간관계의 회복이 요구되는 미래 사회(김미라, 2012)에 인간적 자질을 전수할 수 있는 교육 형태로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 속에서 성인(聖人)을 기르는 격대교육의 전형이 조선중기 한 사대부의 일기에서 발견된다. 그것이 묵재(默齋) 이문건(李文楗, 1494-1567)의 『양아록(養兒錄)』이다. 『양아록』은 할아버지가 16년간 손자가 성장해감에 따라 기록한 것으로, 현존하는 최고(最古)이자 유일한 육아일기이다. 과거나 현대에도 할아버지가 육아일기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다. 더구나 16년 동안 육아 과정을 꼼꼼히 기록한다는 것은 더더욱 흔치 않은 일이다. 시대적으로도 남자의 육아 참여에 대해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조선시대 양반가의 남자, 그중에서도 할아버지의 육아모습을 직접적이고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양아록』의 역사적·교육학적 가치가 남다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문건이 육아일기를 쓰던 상황이다. 그는 유배인의 신분이었다. 정치적·사회적으로 고립된 가운데 가족의 동반이 그나마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유배인으로서 자녀들의 죽음과 질병, 특히 장애로 온전치 못한 아들은 이문건으로 하여금 가문몰락의 위기감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켰다. 그러한 가운데 유배지에서 손자를 얻게 된 것이다. 이문건은 손자의 육아와 교육을 노년기 자신의 사명으로 인식하였다. 『양아록』에서 자신이 육아과정을 기록하는 이유를 표면상으로는 손자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전하고자 함이라고 밝힌다. 그러

나 이문건이 『양아록』을 기록한 본질은 손자 이수봉(李守封, 1551-1594)을 통해 가문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하는 열망이다.

이렇게 이문건이라는 한 개인이 조선사회에서 요구하는 가문을 위한 과업완수의 저작(著作)인 『양아록』이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자료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이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현실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오히려 『양아록』의 의미와 가치를 제한하는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점과 함께 ‘16년간의 기록’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수봉의 16년간의 성장과정은 조선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넘어 발달에 대한 인식과 양육자의 교육관을 다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의 추적은 할아버지와 손자 각자의 삶과 성장의 질적인 변화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환경과 경험의 유형,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고의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육아과정에서 보여주는 이문건의 발달에 대한 지식은 그의 삶을 통해 터득한 실천적 지식이다. 이것이 그의 뛰어난 관찰력과 노인이라는 시기와 접목되어 교육의 효과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의 교육적 자세는 노인의 경험과 여유, 인생을 보는 긴 안목이라는 세대적 특징과 개인적으로 쌓은 경험과 지식, 그리고 신체의 변화가 응축되어 자연스럽게 구축된 것이다. 여기에서 격대교육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양아록』을 다룬 연구들(강수연, 2015; 김영선, 2014; 김은경, 권대원, 2014; 문혜경, 양진건, 2017; 백혜리, 2001; 양진건 외, 2013; 이상주, 1996; 이석주, 2015; 장정호, 2011; 정시열, 2013; 조은숙, 2014)은 한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성장 과정에 대한 16년간의 종단적 기록이라는 특성의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격대교육의 의미를 부각하는 연구(문혜경, 양진건, 2017; 양진건 외, 2013)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육의 내용을 언급하면서도 육아 및 교육의 과정이 발달 수준에 따라 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한 시도는 없다.

기본적으로 성리학은 단계적 교육과정으로서 소학-대학 계제론(小學-大學 階梯論)을 전제한다. 이는 연령에 따라 교육내용을 구분하여 『소학』은 아동(8-15세), 『대학』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단계이다(신창호, 2011; 황금중, 2002). 이는 연령에 따라 배움의 내용과 방법을 달리하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

한다. 이러한 단계적 학습은 유교의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의 정신에 따른 것이다(선우미정, 2017). 『소학』과 『대학』은 도의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도달하는 사다리와 같다(방진희, 2008). 유학자인 이문건이 손자를 양육하고 교육함에 있어 이러한 과정을 실천했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때문에 『양아록』을 ‘격대교육’이라는 기준으로 연역하여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김동렬, 2008)을 추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할아버지의 16년간에 걸친 장기 실천기록이라는 줄기의 뿌리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발달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면서 발달시기에 따라 교육의 질적인 측면의 변화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문건은 그의 표현대로 반편이 된 외동아들을 대신하여 16년간 손자를 양육하였다. 가문 번성을 열망하며, 가족 간의 연대를 통해 손자를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성동(成童)으로 키웠던 것이다. 이문건은 이렇게 손자의 육아와 교육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다. 가정교육의 한 형태인 격대교육에서도 분명한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의 설정 하에 단계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점은 이문건이 손자의 양육에 있어 발달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틀을 통하여, 이문건의 『양아록』을 분석하고, 격대교육의 교육적 의미를 밝히는 데 있다.

## 2. 연구 문제

조선시대의 가정교육은 연령을 구분하여 교육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이문건이 손자를 교육한 내용과 방법을 연령별 발달 시기에 따라 시행한 교육적 노력의 과정을 밝힘으로써, 그 교육적 의미를 드러내는 일은 역사적·현재적 관점에서 볼 때 의미 있는 작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아록』을 분석하여 격대교육의 교육적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어떠한가?

둘째,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발달 시기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의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이념사학의 기초를 구축한 마이네케(F. Meinecke)는 모든 역사가 인물사라는 점을 전제한다. 국가생활만을 대상으로 삼는 협의의 정치사학적 한계에서 탈피하여 보다 넓은 역사적 세계로 시야를 확대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입장은 생산적 정신이라 부르는 인격성의 이념만을 추적함으로써 정치적 이념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비판적 입장은 참된 역사란 교체 불가능한 개성의 역사라는 역사주의적 전통에 기인한 것이다. 역사적 개성은 정신이 역사의 생산자인가, 아니면 역사의 기능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왔다. 역사적 세계에서 개성의 발견은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민족에 관계된다고 보고 역사적 구체성을 요구했던 것이다(양진건, 1991b: 11-12). 이것은 다시 사상사 연구의 경직성에 대한 종합적인 비판으로 사고와 사회, 또는 역사적 현실과의 연관관계(Dilthey, 1883)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즉 인간의 정신은 그의 사회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양진건, 1991b).

이에 본 연구는 『양아록』을 통해 이문건의 격대교육을 결과 시킨 사회적 조건의 영향력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원전(text)과 상황(context)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이분법을 당연시하는 것의 탈피를 요구한다. 또한 앞으로의 교육사상 연구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지니고 있는 교육에 관한 생각을 탐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이 제기되고 있다(팽영일, 2013)는 점도 염두에 둔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사상 연구는 자연적인 과정(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의 일환으로서 일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 관한 연구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즉 교육사상 연구는 그 시대의 교육이 무엇을 뜻하였으며, 어떤 방법에 의거하여 실천되었는가를 탐구하여,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교육의 구조와 방향의 모색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팽영일, 2013: 221).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한 형태인 격대교육을 이문건의 『양아록』을 통해 고찰하여 그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문건이 조선시대 유학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으로서 손자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방



법으로 실천했는가를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탐구를 위해 방법적 측면에서는 문헌에 대한 고찰이 중심이 되는 실증적 방법과 해석학적 접근이 중심이 되는 철학적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첫째, 실증적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양아록』은 총 49편으로 구성된 시문과 산문형식의 일기이다. 손자의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1편이 태어나기 전, 32편이 영유아기(출생-7세), 12편이 아동 및 청소년기(8세-16세)에 기록되었고 4편은 시기불명이다. 이렇게 『양아록』은 시기적으로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양아록』은 이상주(1997)의 국역을 기본 텍스트로 하면서 이문건의 『목재일기』를 교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역사적 사실성과 객관성 확보 및 맥락 파악을 위해 활용한 『목재일기』는 이문건이 1535년(중종 14) 11월 1일부터 1567년(명종 22) 2월 16일까지 31년간을 기록한 생활일기이다. 그러나 중간에 11년 11개월이 결락되어 실제 남아있는 기록은 17년 8개월분이다. 『목재일기』에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일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생활사(출산풍속, 육아, 자녀교육, 교유관계, 관직생활, 유배생활 등)를 세밀하게 담고 있다. 그래서 일상·문화·개인 중심의 내용 및 교육사·여성사·심성사 등에서도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목재일기』에는 수봉(숙길), 숙희, 숙녀, 숙복 등 4명의 손자녀들이 등장한다. 그 중에서도 수봉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목재일기』중 1535년 11월부터 1557년까지의 일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국역본을 활용할 것이다. 이후 수봉이 16세가 되는 1566년까지의 일기는 국사편찬위원회의 1차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양아록』과 『목재일기』를 통해 나타나는 이문건의 삶과 육아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교육적 자세와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이문건의 격대교육의 교육적 의미를 추출하여 현대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볼 것이다.

둘째, 철학적 방법으로는 해석학적 접근을 사용할 것이다. 해석학에는 의미의 표현, 해석, 이해가 내포되어 있다(신백경, 2008). 해석학적 접근은 전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있는 것을 ‘새롭고’, ‘다른’ 해석과 이해의 과정을 통해 접근(손승남, 1998; 최명선, 2005)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지평에서 과거의 지평에서 성립한 『양아록』의 의미 내용을 재창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양천수, 2009). 따라서 『양아록』을 기존의 연구(강수연, 2015; 김영선, 2014; 김은경, 권대원, 2014; 문혜경, 양진건, 2017; 백혜리, 2001; 양진건 외, 2013; 이상주, 1996; 이석주, 2015; 장정호, 2011; 정시열, 2013; 조은숙, 2014)와는 다른 새로운 해석, 즉 다른 이해의 과정을 통해 격대교육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해석학적 접근을 통해 『양아록』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지평과 과거의 지평이 만나 융합해 가는 과정(양천수, 2009)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자신을 발견하고, 동시에 교육의 방향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해의 폭을 확장하기 위해 『논어(論語)』, 『동의보감(東醫寶鑑)』, 『맹자(孟子)』, 『예기(禮記)』, 『중용(中庸)』, 『효경(孝經)』 등을 함께 사용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학교교육과 일치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조선시대 동몽교육서로 널리 활용되었던 『소학(小學)』, 『명심보감(明心寶鑑)』, 『동몽선습(童蒙先習)』, 『격몽요결(擊蒙要訣)』, 『사소절(士小節)』, 『계몽편(啓蒙篇)』도 첨가하여 『양아록』의 의미 해석 및 이해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격대교육이 시행된 예는 『송자대전(宋子大全)』,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퇴계집(退溪集)』을 중심으로 한국고전번역원의 국역 자료를 활용하여 고찰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어떤 근거로 추출되었는지, 이와 관련하여 『양아록』의 특수성은 무엇인지, 왜 발달 시기별로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통해 분석의 틀을 명료화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교재로 활용되었던 동몽교재들의 교육내용과 방법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분석하여 발달이론을 통한 분석틀/framework)을 구축하고자 한다.

조선은 가정-학교-사회-국가에서 사람다운 삶의 추구라는 동일한 삶의 원리로 작동되었다(송수진, 2016: 103). 그리고 가정과 국가가 기르하고자 하는 인간상이 일치하였기 때문에(유한구, 1996) 가정교육 내용의 상당부분이 학교 및 사회교육으로 시행되었다(최정원, 2015). 아동들은 가정이나 사숙(私塾)에서 글자해독 및 유학적 윤리·도덕에 대한 초등과정을 습득하였다(박영태 외, 2009). 교재는 대부분의 경우 집안 어른이나 훈장의 형편에 따라 결정되었고(권정원, 2012), 동몽교

재는 가정에서는 자녀교육서로, 학교에서는 초학도들을 위한 교재로 활용되었다. 교재로 활용되어졌다는 것은 이미 교육내용과 방법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하나의 교재가 아닌 여러 교재에서 비슷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발견한다면 이는 당대의 일반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을 확인하는 일이 된다(정무곤, 2010: 138). 이에, 조선시대에 널리 활용되었던 동몽교재를 선정하여 가정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아동교육은 문자입문서로서 『천자문(千字文)』에서 시작하여, 유학 입문서로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소학』을 학습하게 하였다(김향은, 2003; 류점숙, 1984; 박연호, 1990; 신창호, 2011; 윤완석, 2011; 장정호, 2006; 조기제,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몽교재 대다수가 일상생활의 법칙과 삶의 원리를 깨우치는 유학교육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을 보면 조선시대 아동교육의 핵심이 문자교육보다는 예의 실천을 강조하는 윤리·인격교육이었음을 알 수 있다(김미라, 이미림, 2017; 김애자, 2003; 김향은, 2003; 송순, 이진인, 1994; 신창호, 2011; 우남희, 1999; 이희재, 2007).

조선시대 널리 활용되었던 동몽교재를 선정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류점숙(1984)은 문자교재는 『천자문』, 『훈몽자회』, 『신증유합(新增類合)』을, 교양교재는 『소학』, 『명심보감』, 『격몽요결』을 선정하였다. 우남희(1999)는 『천자문』, 『동몽선습』, 『계몽편』, 『동몽수지(童蒙須知)』, 『명심보감』, 『소학』, 『사소절』을 가정과 서당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교재로 선정하였다. 김향은(2003)은 유학교육서인 『명심보감』, 『소학』, 『동몽선습』, 『격몽요결』, 『사소절』을 선정하였고, 이후 김향은(2007)은 전통사회의 부모역할과 자녀지도의 원리를 고찰하기 위해 앞의 동몽서에 『예기』를 더하였다. 그리고 이희재(2009)는 문자교육을 위한 교재로 『천자문』, 『유합』, 『훈몽자회』를, 문자겸 교양교재로는 『사자소학(四字小學)』, 『추구(推句)』, 『계몽편』, 『동몽선습』, 『격몽요결』, 『명심보감』, 『소학』이 주요교재로 활용되었다고 하고 있다. 또 조기제(2011)는 『천자문』, 『동몽선습』, 『계몽편』, 『명심보감』, 『소학』을 조선시대 동몽들의 보편적 교재로 보았다. 류인욱(2012)은 『소학』, 『명심보감』, 『동몽선습』을, 최정원(2015)은 자녀교육에 활용되었던 고전으로 『논어』, 『소학』, 『격몽요결』, 『사소절』을 선정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고

찰하였다. 이상익(2016)은 조선시대 주요 동몽교재로 『소학』, 『동몽선습』, 『격몽요결』을 꼽고 있다.

이렇게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교재로 여러 가지 동몽교재가 활용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소학』 2), 『명심보감』 3), 『동몽선습』 4), 『격몽요결』 5), 『사소절』 6), 『계몽편』 7)을 분석의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천자문』은 유학서라기보다는 문자교육서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 
- 2) 『小學』: 조선시대 전 시기를 통해 가장 널리 활용된 초학교재이다. ‘생활예절’의 습득을 목적으로 교육내용에서는 오륜의 도리가 효도로 수렴된다는 점을 밝히고, 실천을 강조한다. 따라서 가정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밝히는데 가장 적절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소학은 내편과 외편으로 나뉜다. 내편은 소학교육의 취지와 방법을 열거한 「입교」, 오륜의 이치와 실천방법인 「명륜」, 몸가짐에 관한 「경신」, 옛 성현의 말씀과 행적을 살핀 「계고」이다. 외편은 선현의 말씀을 소개한 「가언」과 훌륭한 행실을 소개한 「선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明心寶鑑』: 공자의 유교적 가르침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어린이들의 심성과 도의심을 계발하기 위한 교훈서이다. 큰 틀에서 ‘수양’을 지향하면서 ‘권선’을 강조하며, 현실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쉽게 제시하고 있다. 유학의 근본사상을 담고 효를 구체적 덕목으로 삼고 있어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고찰하기에 적절하다. 내용은 「계선」-「천명」-「순명」-「효행」-「정기」-「안분」-「존심」-「계성」-「근학」-「훈자」-「성심 상·하」-「입교」-「치정」-「치가·안의」-「존례」-「언어」-「교우」-「부행」-「증보」-「팔반가」-「속효행」-「염의」-「권학」 등의 전 2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 4) 『童蒙先習』: 가숙(家塾)에서 일가자제를 가르칠 목적으로 편찬한 가훈서(家訓書)이다. 교육의 기본인 오륜(五倫)을 열거하고 그 뜻과 해석을 하여 가정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고찰하기에 유용하다. 또한 경본사말(經本史末)의 학습원칙을 준용하여 서문-오륜-총론-역사의 순서로 기술함으로써, 유학의 교육과정을 철저하게 반영하고 있다. 효를 중심으로 삼강오륜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 5) 『擊蒙要訣』: 성리학에 입문하는 초학도들의 기반을 잡아 주기 위해 어리석고 어두운 점을 없애버리는 요긴한 비결을 담은 것이다. 소학류의 책으로 일상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실천해야 할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율곡은 이 비결의 중심에 「立志」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내용은 「입지」-「혁구습」-「지신」-「독서」-「사친」-「상제」-「제례」-「거가」-「접인」-「처세」 등 전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율곡은 초학자들에게 처음부터 뜻을 확고히 세우고, 배움과 실천을 병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6) 『士小節』: 한국의 소학이라 불리며, ‘선비 또는 선비 가정의 작은 예절’을 말한다. 자신과 집안의 법칙을 삼기 위해 저술한 가훈서이자 수신서이다. 소학과 달리 조선시대의 가정과 교육을 실제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보여주기에 적절한 교재이다. 내용은 남자의 예법(士典), 부녀자의 예절(婦儀), 어린아이 규범(童規)로 구성되어 있다. 방법적 측면에서는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의 입장을 취한다. 실천을 중시하는 방편으로 사례제시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 7) 『啓蒙篇』: 인간이 주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오륜에 기반하여 효와 예절, 수신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는 점이 가정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살피기에 적합하다. 내용은 「수편」-「천편」-「지편」-「물편」-「윤리편」-「수신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가정교육의 내용

이렇게 선정하여 분석한 동몽교재에서는 다양한 교육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양, 효, 예절, 성역할, 가문의식, 권학 등 6가지의 교육내용이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태교의 경우에는 『소학』과 『사소절』에서만 다루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몽교재에 나타난 교육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동몽교재」 - 조선시대 가정교육 내용

| 동몽교재 | 편찬 시기 | 저자        | 태교 | 보양 | 효 | 예절 | 성역할 | 가문의식 | 권학 |
|------|-------|-----------|----|----|---|----|-----|------|----|
| 소학   | 1187  | 주희<br>유청지 | ○  | ○  | ○ | ○  | ○   | ○    | ○  |
| 명심보감 | 1305  | 추적        |    | ○  | ○ | ○  | ○   | ○    | ○  |
| 동몽선습 | 1541  | 박세무       |    |    | ○ | ○  | ○   | ○    | ○  |
| 격몽요결 | 1577  | 이이        |    | ○  | ○ | ○  | ○   | ○    | ○  |
| 사소절  | 1775  | 이덕무       | ○  | ○  | ○ | ○  | ○   | ○    | ○  |
| 계몽편  | -     | 작자<br>미상  |    | ○  | ○ | ○  | ○   | ○    | ○  |

본 연구에서는 태교를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내용으로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태교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은 조선시대 『소학』의 위상 때문이다. 조선왕조가 건국된 이후 『소학』은 『가례(家禮)』와 함께 예를 실천하는 기준으로 가정과 교육기관은 물론 관리의 시험과목에까지 포함될 정도로 중시되었다(정정기, 2012). 때문에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가장 널리 활용되었고, 성인들에게도 성리학적 이상론을 현실화하기 위한 교재로 강조되었다. 그리고 『소학』이 태교로부터 가르침을 시작하는 것으로 볼 때, 태교를 교육의 출발점 및 원형(原形)으로 인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김병희, 2012; 조현주, 2017).

태교는 모든 사물에는 본말시종(本末始終)이 있다는 유학적 세계관과 ‘근본을

바르게 하고 시작을 신중히 하는' 정본신시(正本愼始)라는 유학의 원리와의도 맞닿아 있다(장정호, 2005). 이이(李珥, 1536-1584)는 『격몽요결』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조선시대의 태교를 성리학적 입장에서 본격적으로 전개한 중심인물이다. 또 조선시대에는 임신과 출산이 국가 운영의 인적 기초가 된다고 하여 태교를 중시하였고(김성수, 2014), 『양아록』에서도 기원으로서의 태교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이상주, 2015).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태교를 비롯하여 보양, 효, 예절, 성역할, 가문의식, 권학이 가정과 학교의 교육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 가정교육에 대한 연구(김영옥·백혜리, 2000; 류점숙, 1992; 2003; 박균섭, 2010; 박영순, 2003; 선우미정, 2017; 우영희, 1991; 이순형, 2000; 하수경, 2003)들은 조선시대의 인물이나 종가의 종손, 그리고 유학교재와 윤리문자를 분석하여 가정교육의 내용을 살폈다. 이 연구들 중에서 박균섭(2010)은 보양, 효, 예절, 성역할, 가문의식, 권학으로 앞서 조선시대 동몽교재의 교육내용을 분석한 결과와 거의 동일하다. 이에 박균섭(2010)의 연구를 기준으로 다른 연구들과 비교하여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선행연구」 - 조선시대 가정교육 내용

| 기준: 박균섭(2010) | 보양 | 효 | 예절 | 성역할 | 가문의식 | 권학 | 비고 |
|---------------|----|---|----|-----|------|----|----|
| 우영희(1991)     |    |   | ○  | ○   | ○    | ○  |    |
| 류점숙(1992)     |    |   | ○  | ○   |      |    |    |
| 김영옥·백혜리(2000) | ○  |   | ○  | ○   | ○    |    | 태교 |
| 이순형(2000)     |    | ○ | ○  | ○   | ○    | ○  |    |
| 류점숙(2003)     |    | ○ | ○  | ○   | ○    |    |    |
| 하수경(2003)     |    | ○ | ○  | ○   |      | ○  | 태교 |
| 박영순(2003)     |    | ○ | ○  | ○   | ○    | ○  |    |
| 선우미정(2017)    | ○  | ○ | ○  |     |      | ○  | 태교 |

이상의 연구를 고찰한 결과 박균섭(2010)의 연구에 태교를 포함하면, 앞서 동몽교재에서 분석하였던 것과 같과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하게 될 가

정교육의 내용은 태교, 보양, 효, 예절, 성역할, 가문의식, 권학으로 포괄할 수 있으며, 분석틀은 <표 3>과 같다.

<표 3> 조선시대 가정교육 내용 분석틀

| 태교 | 보양      |        | 효 | 예절 | 성역할 | 가문의식 | 권학 |
|----|---------|--------|---|----|-----|------|----|
|    | 신체운동 발달 | 건강과 안전 |   |    |     |      |    |
|    |         |        |   |    |     |      |    |

## 2. 가정교육의 방법

『소학』, 『명심보감』, 『동몽선습』, 『격몽요결』, 『사소절』, 『계몽편』 등 선정된 동몽교재에서 교육방법을 분석했을 때, 모방, 역행, 예시, 체벌, 여질, 독서 등의 교육방법이 추출되었다. 동몽교재에 나타난 교육방법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동몽교재」 - 조선시대 가정교육 방법

| 동몽교재 | 편찬 시기 | 저자        | 모방 | 역행 | 예시 | 체벌 | 여질 | 독서 |
|------|-------|-----------|----|----|----|----|----|----|
| 소학   | 1187  | 주희<br>유청지 | ○  | ○  | ○  | ○  | ○  | ○  |
| 명심보감 | 1305  | 추적        | ○  | ○  | ○  | ○  | ○  | ○  |
| 동몽선습 | 1541  | 박세무       |    | ○  |    | ○  |    |    |
| 격몽요결 | 1577  | 이이        | ○  | ○  | ○  | ○  | ○  | ○  |
| 사소절  | 1775  | 이덕무       | ○  | ○  | ○  | ○  | ○  | ○  |
| 계몽편  | -     | 작자<br>미상  | ○  | ○  |    |    |    | ○  |



다음으로 조선시대 가정교육을 살핀 선행연구(김영옥·백혜리, 2000; 류점숙, 1992; 2003; 박군섭, 2010; 박영순, 2003; 선우미정, 2017; 우영희, 1991; 이순형, 2000; 하수경, 2003)에서 교육방법도 고찰하였다. 이 연구들 중에서는 가장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박영순(2003)의 연구가 동몽교재와 공통적인 교육방법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방법을 추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5> 「선행연구」 - 조선시대 가정교육 방법

| 기준: 박영순(2003) | 모방 | 역행 | 체벌 | 여질 | 독서 | 서간 | 비고 |
|---------------|----|----|----|----|----|----|----|
| 우영희(1991)     | ○  | ○  |    | ○  | ○  |    | 예시 |
| 류점숙(1992)     | ○  | ○  |    | ○  |    |    | 예시 |
| 김영옥·백혜리(2000) | ○  |    | ○  | ○  |    |    | 예시 |
| 이순형(2000)     | ○  |    |    | ○  | ○  |    |    |
| 류점숙(2003)     | ○  |    |    |    |    |    | 예시 |
| 하수경(2003)     |    | ○  |    |    |    |    |    |
| 박군섭(2010)     |    | ○  |    |    | ○  | ○  |    |
| 선우미정(2017)    | ○  | ○  |    |    |    |    | 예시 |

이상의 연구를 고찰한 결과 박영순(2003)의 연구에 예시를 포함하면, 종합적으로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방법은 모방, 역행, 예시, 체벌, 여질, 독서, 서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서간의 방법은 동몽교재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선행연구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서간의 방법은 과거공부나 결혼, 입사(入仕), 유배 등 물리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정교육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었음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하게 될 가정교육의 방법은 서간을 제외하고 모방, 역행, 예시, 체벌, 여질, 독서로 포괄하여 분석틀은 <표 6>과 같다.



<표 6> 조선시대 가정교육 방법 분석틀

| 모방 | 역행 | 예시 | 체벌 | 여질 | 독서 |
|----|----|----|----|----|----|
|    |    |    |    |    |    |

### 3. 연령별 발달 시기

조선시대 가정교육은 성별에 따른 교육과 함께 연령별 발달시기에 따른 교육이 특징이다(김근희, 황해익, 2007; 김명운, 2012; 김영옥, 백혜리, 2000; 선우미정, 2011; 우영희, 1991; 이순형, 2000; 최종찬, 2013; 하수경, 2003). 『양아록』에서도 이문건은 손자의 연령에 따라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이문건이 육아과정에서 수봉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법도 일정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를 『양아록』이 기록된 16세까지로 규정하고, 교육단계는 네 단계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조선시대 성인에 진입하는 관례(冠禮)가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해졌는데(백두현, 2006; 이순형, 2000; 최준하, 2016; 하중현, 1994), 그 가운데 수봉이 16세에 관례를 행했다는 점과 선행연구에서도 15~16세의 시기를 동몽기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단계를 구분하고 있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2단계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3~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양재(1995)는 교훈서를 분석하여 아동기를 15세경으로 규정하고, 아동의 연령기대를 규명하였다. 구체적 훈육이 시작되는 3세와 성별에 따라 안과 밖으로 실질적 분할이 행해지는 10세를 각각 이전시기와 구별되는 경계를 이루는 의미 있는 시기로 분석하고 있다. 안경식(2005)은 동몽시기의 교육을 가정교육기(1-8세)와 소학교육기(8-15세에서 20세 사이)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아동기를 세 시기로 구분한 연구는 백혜리(2001; 2004)의 연구이다. 백혜리(2001)는 『양아록』에서 아동기를 16세까지로 정의하면서 세 시기(1-6·7세, 8-10세, 11-16세)로, 이어서 목재일기를

분석(백혜리, 2004)하여 14세까지를 역시 세 시기(1-5세, 6-10세, 11세 이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류점숙(1989), 유안진(1990), 이희재(2009), 김미라(2012)는 네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류점숙(1989)은 유아기(乳兒期, 0-3세), 유아기(幼兒期, 3-7세), 동몽전기(童蒙前期, 7-10세), 동몽후기(童蒙後期, 10-15세)로 구분하였다. 또 유안진(1990)은 조선시대를 포함한 전통시대의 교육단계를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으나, 출생 이후는 네 단계가 된다. 아동을 사고의 틀에 따라 감각 및 동작 훈련단계(0-3세), 무릎학교단계(3-5세), 자발적학습단계(5-7세), 성역할단계(7-13세)의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희재(2009)는 15세까지를 아동기로 규정하고, 시기는 영아(嬰兒, 태어나 얼마 되지 않은 아이), 소아(小兒, 3세까지), 동자(童子, 4-10세), 성동(成童, 11-15세)으로 구분하였다. 김미라(2012)도 영아기(嬰兒期, 1-3세), 유아기(幼兒期, 3-7세), 1수준 아동기(1水準 兒童期, 7-10세), 2수준 아동기(2水準 兒童期, 10-13세)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의 차이는 영유아기의 구분 유무가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를 『양아록』이 기록된 16세까지로 규정하면서, 교육단계는 영아기와 유아기를 분리하여 네 단계로 제시하고자 한다.

영유아기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영아기와 유아기는 발달에 있어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영아기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의 시기로, 특히 신체운동능력 및 언어발달이 급속히 일어난다. 이는 성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던 상태에서 스스로 기고, 앉고, 서고, 걸을 수 있게 되고 울음, 몸짓, 초보적 언어가 출현하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나타난다(안경숙 외, 2016). 이에 반해 유아기는 인지적 성장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정신적 표상에 의한 사고를 할 수 있으며, 상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언어사용 능력이 급속히 발달하여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면서 확장된 대화 가능해진다(이기숙 외, 2017). 이러한 발달의 차이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도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도 영아기에는 표준보육과정(0세-2세)을, 유아기에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분리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영유아의 발달적 차이가 반영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발달심리학자인 피아제(J. Piaget, 1972)와 프로이드(Garcia, 1995),

에릭슨(Erikson, 1950) 등도 영아기와 유아기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김경철 외, 2017; 신창호, 2012). 이들은 영유아기에 발달적 특성과 발달과업에 분명한 차이를 제시하며 구분하고 있다(권혁내, 1985; 김영옥, 2014; 정옥분, 2012; 2016; 천은영, 김경신, 2014; Kail, 2009). 피아제는 4단계로, 프로이드는 5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에릭슨은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어감에 따라 전생애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짐을 상정하면서 8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들 발달심리학자들은 제시하는 단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구분하는 시기는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아록』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분석함에 있어 0-4세를 영아기(0-만 2세), 5-7세를 유아기(만 3-5세), 8-12세를 아동기(만 6-10세), 13세-16세를 청소년기(만 11-14세)로 세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시기별 명칭은 문헌과 선행연구에서 통일되지 않아 현대 발달단계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와 발달심리학자 및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달 시기별 단계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발달 시기별 단계」의 구분<sup>8)</sup>

| 선행연구                | 피아제<br>(J. Piaget)    | 프로이드<br>(S. Freud) | 에릭슨<br>(E. Erikson)     | 국가수준<br>교육과정         | 본 연구             |
|---------------------|-----------------------|--------------------|-------------------------|----------------------|------------------|
| 영아기<br>(1-3세)       | 감각운동기<br>(0-2세)       | 구강기<br>(0-1세)      | 신뢰감 대<br>불신감<br>(0-1세)  | 표준보육<br>과정<br>(0-2세) | 영아기<br>(0-4세)    |
|                     |                       | 항문기<br>(1-3세)      | 자율성 대<br>수치감<br>(1-3세)  |                      |                  |
| 유아기<br>(3-7세)       | 전조작기<br>(2-7세)        | 남근기<br>(3-5세)      | 주도성 대<br>죄책감<br>(3-6세)  | 3-5세<br>연령별<br>누리과정  | 유아기<br>(5-7세)    |
| 1수준 아동기<br>(7-10세)  | 구체적<br>조작기<br>(7-12세) | 잠복기<br>(6-12세)     | 근면성 대<br>열등감<br>(6-11세) |                      | 아동기<br>(8-12세)   |
| 2수준 아동기<br>(10-13세) | 형식적<br>조작기<br>(청소년기)  | 생식기<br>(12세 이후)    | 정체성 대<br>역할혼동<br>(청소년기) |                      | 청소년기<br>(13-16세) |

이상에서 동몽교재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가정교육의 내용(태교, 보양, 효, 예절, 성역할, 가문의식, 권학)과 방법(모방, 역행, 예시, 체벌, 여질, 독서)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연령별 발달 시기도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양아록』의 격대교육 내용과 방법을 연령별 발달 시기에 따라 분석하는 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동몽교재와 기존연구에서는 보양의 경우 보호의 측면에서 비교적 간단히 다루고 있지만, 『양아록』에서는 ‘신체운동발달’측면과 ‘건강과 안전’의 측면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문건은 영유아기 손자의 성장과 질병, 안전사고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보양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유아기는 신체발달과 건강 및 안전의 부분이 생명과도 직결되며 이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양아록』의 영유아기 기록의 풍부함은 내용을 세분화하여 정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의 내용에서 보양을 신체운동발달과 건강과 안전을 구분한 후 연령별 발달 시기에 따라 분석하는 틀을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양아록」 격대교육 내용의 발달 시기별 분석틀

| 내용<br>시기         | 태교 | 보양     |        | 효 | 예절 | 성역할 | 가문의식 | 권학 |
|------------------|----|--------|--------|---|----|-----|------|----|
|                  |    | 신체운동발달 | 건강과 안전 |   |    |     |      |    |
| 영아기<br>(0-4세)    |    |        |        |   |    |     |      |    |
| 유아기<br>(5-7세)    |    |        |        |   |    |     |      |    |
| 아동기<br>(8-12세)   |    |        |        |   |    |     |      |    |
| 청소년기<br>(13-16세)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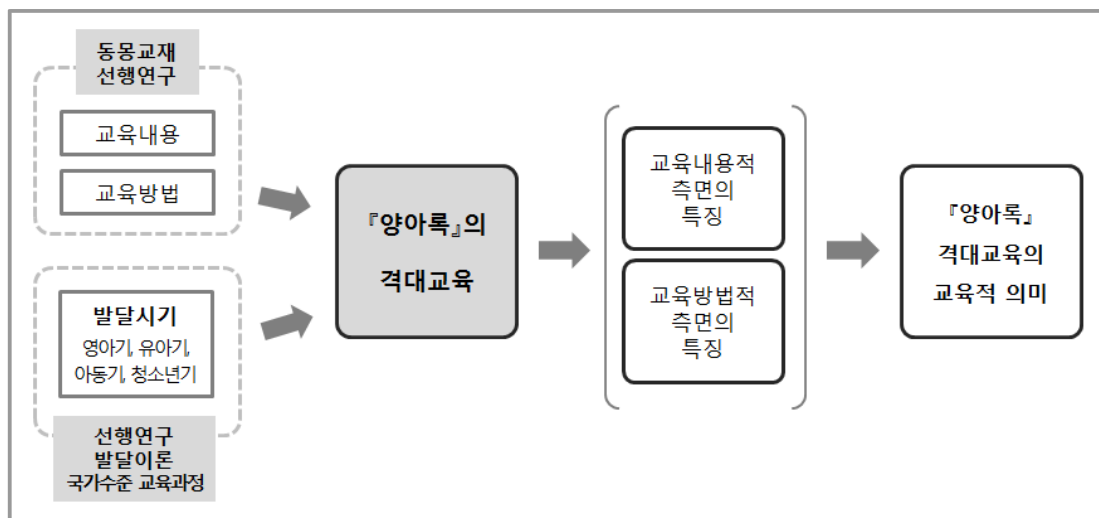
8) 김미라(2012). 『한국 전통 어린이 교육관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과 정옥분(2016)의 『유아발달』 및 Kail(2009)의 『아동과 발달』 참고. 본 연구의 발달 시기에 맞추어 에릭슨의 발달단계는 5단계까지만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의 방법을 연령별 발달 시기에 따라 분석하는 틀을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양아록」 격대교육 방법의 발달 시기별 분석틀

| 시기 \ 방법          | 모방 | 역행 | 예시 | 체벌 | 여질 | 독서 |
|------------------|----|----|----|----|----|----|
| 영아기<br>(0-4세)    |    |    |    |    |    |    |
| 유아기<br>(5-7세)    |    |    |    |    |    |    |
| 아동기<br>(8-12세)   |    |    |    |    |    |    |
| 청소년기<br>(13-16세) |    |    |    |    |    |    |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흐름도를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 Ⅲ. 조선시대 가정교육

#### 1.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개념과 형태

##### 1) 가정교육의 개념

조선시대 가정교육은 가문의 명맥유지를 위한 기초이자, 국가의 이념 실현을 위한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가정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를 비롯한 윗세대가 아랫세대의 교육을 지도하고 돕는 것으로, 생활·생산·교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으며, 내용은 인성교육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정정기, 2012). 전통가족의 모든 기능 중 최우선의 기능은 가족 수의 확대였고, 그 합리적 방법이 자녀의 출산과 육아였다. 더욱이 다수의 노동력 확보가 중시되는 농업경제체제에서 여성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남아의 출산은 더욱 가치로왔다. 이는 유교윤리에 따라 가계계승권자인 남아가 신분의 유지와 가족세력의 확대, 경제력의 강화에 공헌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유안진, 1990: 85).

따라서 가정은 남녀가 결합하여 출산과 육아를 통해 재생산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 공동사회를 구성하여 인간의 사회화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장소가 된다. 가정교육은 가족 집단을 단위로 하여 성립되는 교육 형태이며, 부모가 의도적으로든 무의도적으로든 자녀에게 행하는 모든 행위로서 비형식교육에 속한다(김도진 외, 2015). 따라서 아동의 생활 자체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아동 생활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식적 교육보다 아동의 인성발달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친다(이계학 외, 1994).

조선사회에서 가정교육은 대가족 내에서 오륜(五倫)의 행동규범을 익히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함으로써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도덕적인 가치관과 인격 형성의 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유학의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다. 유가의 ‘삼강오륜(三綱五倫)’을 통해서도 인간이 근본적으로 관계적 존재임이 증명된다(이계학, 2000). 인간은 선한 존재이므로 타고난 본성(善)을 계발하여 발전시키는 일, 즉 인(仁)의 실천을 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류점

숙, 1992: 15). 따라서 자연스럽게 효와 예절은 가정교육의 중심이 되었고, 목표는 글을 깨치는 것과 조선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습득하여 습관화하는 것이었다(조기제, 2011). 가정교육의 담당자였던 부모, 조부모, 친족원 등은 자녀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의 온전한 통합을 모색하고 부단히 노력한 교육자들로 평가될 수 있다(김향은, 2007: 420).

## 2) 가정교육의 형태

조선시대의 가정교육의 형태 중 본 연구에서는 부모에 의한 교육과 부모 이외의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교육 중에서 조부모에 의한 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부모에 의한 교육이다. 부모는 아동이 태어나서 만나게 되는 최초의 인적 환경(서명원, 2007)으로 부모가 자신의 세대와 다름없는 자녀를 직접 가르치는 ‘당대(當代)’교육이라 부를 수 있다(박종덕, 2012: 156). 부모에 의한 교육은 익애(溺愛)보다는 올바른 가르침으로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을 강조하였다(안경식, 2005). 당시에는 압존(壓尊)이라 하여 어른에 대한 공대를 그보다 더 높은 어른 앞에서 낮춰야 하는 예가 있었다. 또 부모 앞에서 자신의 자녀를 귀여워하는 것 역시 압존이라 보았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압존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부모가 조부모 앞에서 자기의 자녀를 귀여워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교만으로 생각했던 것이다(이순형, 2000). 특히 아버지는 할아버지 앞에서 자식에 대한 사랑표현을 절제해야 했기 때문에 아동에게는 할아버지보다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었다. 또 자식에게 엄격함을 앞세웠기 때문에, 조부모 앞에서 부모는 언제나 아동을 꾸짖는 위치에 있었다(최혜순, 양은호, 2010).

전통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하면 감정에 휩쓸리기 쉬워 오히려 자녀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았다(윤용섭 외, 2015; 이순형, 2000). 즉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고 교육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자녀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즉각적인 질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부모의 소유욕이 강한 사랑은 보답과 감사,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결과를 요구하게 된다. 보답을 요구하는 부모의 사랑은 빈곤한 사랑이다(Neill, 1953: 86-87). 이렇게 억압적이고 과잉기대를 하게 되면 아이는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끼게 된다(최명희, 2013). 마음속에는 저항심이 생겨 점점 교육은 어려워지고, 부모의 기대와는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렇게 부정적 주기를 형성하게 되면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정적 고리 끊기가 어려워지고, 부정적인 관계로 고착된다. 이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혈육이라는 유대감 이외에 어른과 아이 사이라는 엄청난 간극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간극 때문에 아이는 부모를 학습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일종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유한구, 1996: 24).

이와 함께 유가에서는 부모의 잘못을 책망하는 책선(責善)을 금기시하였다.<sup>9)</sup> 부모는 엄격함으로, 자녀는 두려움(敬)으로 섬기는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충돌하지 않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또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모는 각고의 노력을 다했을 것이다(김용재, 2004).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친(親)과 군(君),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유한구, 1996: 25). 가정교육에서 부모의 역할은 처음부터 서로를 전제로 하여 상호적으로 수행되며(박종덕, 2012), 아들과 딸의 교육을 분담하여 가르쳤다. 조선시대에는 ‘엄부자모(嚴父慈母)’라고 하여, 부모가 엄격함과 자애로움의 역할을 서로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인 태도를 지니고 가정을 이끌었다. 이는 성격이 한편으로 치우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원만한 자녀의 인격형성을 위한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도민재, 2000). 그래서 딸은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주로 가르쳤고, 아들의 경우에도 7~8세 이전의 유아기에는 덕성(德性)이나 행동의 습관화에 주의하여 어머니의 교육적 역할이 강조되었다(도민재, 2000). 그리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각각 동성 부모에게 사회적 역할에 적합한 교육을 받았던 것이다.

둘째, 조부모에 의한 교육이다. 자녀가 많았던 전통사회에서는 1~2년 터울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아기를 돌보는 사이 젓을 떼는 아이들은 따로 보살핌을 받아야 했다(EBS 역사채널©, 국사편찬위원회, 2013). 보편적으로 유아의 이유과업을 담당하는 대리모는 혈친이면서도 유아와 친숙한 관계를 가진 조모였다(유안진, 1990). 조모는 일상의 기본 습관을 가르치면서 손자녀를 돌보다가 철이 들기 시작하면 여아는 그대로 안채에서, 남아는 사랑채로 건너가 조부가 가르쳤다.

조부모에 의한 교육은 일반적으로 부모에 의한 교육보다 훨씬 부드럽고 사랑

9) 『孟子』 「離婁 下」: 夫章子 子父責善而不相遇也. 責善 朋友之道也. 父子責善 賊恩之大者.



과 자애가 두드러진다. 유학에서 인(仁)이란 ‘내가 없는 사랑(無我之愛)’을 일컬으며, 조부모의 사랑은 부모의 자식사랑에 비해 진정한 사랑에 가깝다. 조손의 관계에는 원망과 갈망, 요구와 구속이 적고, 젊은 시절 자아팽창을 경험했기 때문에 손자녀를 자신의 자아팽창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윤용섭 외, 2015). 진정한 사랑은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각자가 그다워지도록 한다(정재걸, 2015). 따라서 성숙한 인격과 지혜를 소유한 조부모는 아이들의 모든 것을 수용해주는 너그러움과 엄격함으로 손주들의 교육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조선시대 선비들은 젊은 시절에는 어른을 공경하고 그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자 하였으며, 나이가 들어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면서 자손들을 비롯한 후학들의 인성교육의 스승이자, 삶의 멘토가 되었다(문정애, 2017: 36).

## 2.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내용과 방법

### 1) 가정교육의 내용

가정교육의 내용은 어떠한 인간상을 전제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이계학 외, 1994). 이는 상정한 인간상에 따라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조선은 유교사회가 요구하는 참다운 인간으로서 성인, 즉 선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류점숙, 1984). 따라서 오류를 중심으로 한 윤리교육·인격교육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내용을 태교, 보양, 효, 예절, 성역할, 가문의식, 권학으로 제시한다.

#### (1) 태교(胎敎)

태교는 한 생명의 기질을 바르게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생명의 잉태에서부터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작을 신중히 하여 근본을 바로 세우는 유학교육의 기본원리와 합치된다(장정호, 2005). 조선사회에서는 태아가 어머니의 몸과 마음

의 상태를 닮는다(김영옥, 백혜리, 2000; 하수경, 2003)는 것을 전제한다. 인격과 학문, 올바른 사고는 모체(母體)에 잉태(孕胎)된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간주한 것이다. 이렇게 태교가 인간발달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형식적 교육의 연장이나 부차적인 과정이 아니라 교육단계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졌다(김병희, 2012; 선우미정, 2017; 하수경, 2003). 그래서 『소학』의 서두가 태교로 시작된다는 것도 교육의 출발점을 태교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 사회의 여자들은 ‘양처(良妻)’와 더불어 ‘현모(賢母)’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으로서 반드시 태교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였다. 즉 어진 품성과 예의범절을 지니도록 훈육되었던 것이다. 이는 어머니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교육받아야 태아를 훌륭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교육적 신념에서 비롯되었다(장정호, 2005). 이와 함께 부성태교도 강조되었다. 아버지는 태아의 지적·도덕적·신체적 발달에 영향을 주며, 나아가 가문의 미래와도 관련된다고 보았다(손인수, 1991). 일반적으로 태교는 임신부가 가정이라는 생활공간 안에서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시행한다. 출생 순간부터 바로 가정에 편입되어 성장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정교육과도 시간적 연속성을 갖는다(김병희, 2010).

전통사회에서 태교는 내용면에서 신체, 정신, 사회·문화, 영적 측면까지 모두 고려하였다. 주체는 산모와 남편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하였다. 기간은 임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임신이전까지 포함하였다(김은주, 전정미, 2012: 225). 태교가 이렇게 중시된 것은 출산 이후 이루어지는 교육과 달리, 한 인간이 형성되는 바로 그 국면에 관여하는 교육이라는 데에 있다(장정호, 2005).

## (2) 보양(保養)

전통적으로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키우는 생활양식은 그 문화 나름의 특징이 계승·발전되어 온 것이다(최혜순, 양은호, 2010). 보양은 태어난 아기가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할 때까지 적절한 보살핌과 애정 어린 협력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다(신창호, 2012). 즉 부모를 비롯한 양육자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자녀의 성장을 돕는 노력인 것이다.

조선사회는 영아사망률이 높고 자녀가 가계 및 가족세력 확대에 공헌하는(강순

화, 2009) 가치로운 존재로 인정되었다. 때문에 영유아기 보양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정약용도 아홉 자녀 중 여섯을 영아기에 질병으로 잃었다(박근섭, 2010). 이렇게 영유아기 아동의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김영옥, 백혜리, 2000)은 영유아의 후속 발달과 이후의 건강 및 장수와도 직결된다고 인식하였다. 어릴수록 물리적 환경 및 양육자의 덕성과 품행이 아이의 인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 중의 하나였다(육수화, 2008). 그런 만큼 조선시대 사대부는 물론 왕실에서도 보양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아이의 신체적 발육과 심신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하여 인적·물적 환경을 마련하여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조선시대에도 부모를 비롯한 성인가족의 중요한 책무였던 것이다.

### (3) 효(孝)

유교의 핵심 덕목인 인(仁)은 유교적 인간이 지향하는 공동체적 자아상의 본성이다. 인은 ‘가(家)’를 배경으로 한 효제(孝悌)를 중심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육친애(肉親愛)에서 타인과 만물에 대한 사랑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간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은 곧 효이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윤리적 덕목이다(박영순, 2003; 장운수, 2016: 334). 조선사회에서 효의 실천은 동몽시절부터 엄격하게 훈련하여 일상적인 생활 규범으로 몸에 익힐 것을 요구받았다(이계학 외, 1994: 29). 효의 본질은 부모에 대한 경(敬)하는 마음에 있다고 보았다. 효를 통해서 길러지는 경은 곡례삼천(曲禮三千)의 핵심이며, 관계적 존재인 인간이 참여하는 모든 관계를 관장하는 원리였다(이계학, 2000). 여러 동몽서에도 오류를 언급할 때 그 중심은 항상 효에 두었다.

효도는 아버이를 친(親)하되 정신적인 공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자식의 마음속에 아버이를 존경하고 사모하는 정신이 가득차야 진정한 효라 여겼기 때문이다(김익수, 2013). 이에 따라 조선사회에서는 효를 ‘백행지원(百行之原)’이라 하여 가장 강조되었다. 효는 삶의 기본으로서 일상생활에서 구체적 행위를 통해 실현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효는 아동 인격 형성의 방법적 원리였다(이계학 외, 1994). 가정에서는 어릴 때부터 효의 조건에 맞추어 바른 행동으로 습관을 들이도록 교육하였다. 결론적으로 효는 ‘입신양명(立身揚名)’으로 귀결된다(하수경,

2003). 양명(揚名)의 전제조건인 입신(立身)은行道(行道)의 전제조건이다. 출세(양명)는 행도를 통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김명운, 2012). 이는 효의 실천을 통해 새로운 인간으로 입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예절(禮節)

공자(孔子)는 모든 것을 인에 수렴하였다. 인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이길 수 있고(克己), 자신에게 엄격하고(忠), 자신을 반추해볼 줄(己所不欲)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의 질서에 따를 수 있게 되고(復禮),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恕).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권하지 않게(勿施於人) 되는 것이다. 인은 절제가 전제된 타인에 대한 사랑이다(송석재, 2008: 288). 때문에 오직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만 양성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류근성, 2015; 이계학 외, 1994).

따라서 예의 본질은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화합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진정한 화합을 위해서는 ‘절제’라는 원칙이 필요하다(강영조, 2012). 결국 예절은 절제를 전제한 절도 있는 예라 할 것이다. 그래서 예절은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관계 지움’을 정당화하는 구체적인 행동 원리(이계학 외, 1994)이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바르게 맺어주는 끈이 되는 것이다. 이이가 구용(九容)<sup>10)</sup>을 어린 시기부터 교육시켜 몸가짐을 가다듬도록 한 것도 절제로부터 예가 시작됨을 인지한 결과이다.

가족은 끊임없이 위계적 관계의 집합체로 작동되고, 개인은 가족 속에 위치하게 된다(류근성, 2015). 근원적으로 관계 속에 존재하는 개인은 교육을 통해 욕망을 절제하여 예로 발현하도록 훈육되며 성현의 길로 인도되었다(우영희, 1991). 『명심보감』에서도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가정생활에 예가 있으므로 어른과 어린이의 분별이 있다”<sup>11)</sup>고 하였다. 이렇게 조선사회에서는 예절을 모르면 배운 것이 없는 금수(禽獸)로 여겼다.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시·청·언·동(視·聽·言·動)을

10) 『擊蒙要訣』 「持身章」: 足容重, 手容恭, 目容端, 口容止, 聲容靜, 頭容直, 氣容肅, 立容德, 色容莊.

걸음걸이는 무겁게 하라. 손가짐을 공손히 하라. 눈 모양은 단정히 하라. 입은 가만히 다물라. 말소리는 조용히 하라. 머리 모양은 항상 똑바로 두라. 숨쉬기를 정숙히 하라. 설 때는 덕스럽게 하라. 얼굴 모습은 장엄하게 하라

11) 『明心寶鑑』 「遵禮篇」: 居家有禮故 長幼辨.

절제함으로써, 좋은 습관과 행동이 점차 배어들게 교육시켰던 것이다(선우미정, 2017).

#### (5) 성역할(性役割)

조선사회에서 아동은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랐다. 때문에 여러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은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그 문화에서 요구하는 성역할에 대한 학습을 촉진시킨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공간을 인간의 교육과 연결해서 사유하는 사고방식이다(윤재홍, 2012). 삼강오륜 중 부부유별(夫婦有別)과 장유유서(長幼有序)는 조선시대 주택의 공간 구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남녀 주거공간의 성적(性的) 구분과 거주공간의 서열화를 가져왔다(윤재홍, 2012: 79; 하수경, 2003).

이에 따라 성역할 교육은 동성의 조부모세대가 주로 담당하였다. 성별로써 가족 내에서의 역할이나 친족 및 사회적 역할이 결정되었다(유안진, 1986: 307). 안채에서의 사회화는 영유아기에는 남녀 공통적으로 자조능력과 일상생활 적응 훈련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여섯 살이 되면 여아는 가사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 교육내용은 딸로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덕목들로 구성하여 후덕한 여인으로 길러졌다(우영희, 1991).

남아의 사회화는 사랑채에서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사랑채는 사회적 활동 수행을 위한 ‘사회적 공간(public space)’으로써, 남녀유별의 유교의식이 주거 내에 실현된 공간이다(김종현, 2002: 25). 남아는 사랑채에서 조부와 함께 기거하면서 이런저런 시중을 들며 가르침을 받았다. 남아는 조부를 비롯한 사랑채 남성들의 일상적 삶을 통해 역할행위를 배우고 권위를 전수받았다. 미래의 가부장으로서, 군자(君子)로서의 역할수행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였다. 아들, 남편,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부여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태도와 마음가짐 등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었다(윤용섭 외, 2015).

#### (6) 가문의식(家門意識)

조선은 부계 혈족관계를 바탕으로 한 종법질서가 사회 통합의 구심점으로 강력한 기능을 발휘한 사회이다(최양규, 2007). 직계-남자-장자의 3원칙에 의한 가

계의 계승이 가장 중시되었다(유안진, 1986: 23). 이는 가족의 대표권(代表權), 감독권(家督權), 재산권(財産權), 제사권(祭祀權), 자녀교육권(子女教育權)의 절대권이 가부장에게 부여됨을 뜻한다.

가부장의 계승은 혈통중시의 가치를 과생시켰다. 개인은 태어남과 동시에 문중이나 집안의 생득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고, 이는 사회적 대우와 연결되었다(유안진, 1986: 13). 이에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을 생산해야 했고, 선양되어야 했기에 가문에 대해 가르침이 우선시 되었다(김영옥, 백혜리, 2000; 우영희, 1991).

뿌리의식에 기초한 가문의 명문화는 모든 사대부 가문의 공동 관심사가 되었고, 이때 우선적 과제는 가문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발전시키는 일이었다(이원수, 2005). 이는 자기수양과 실천으로 나타난다고 보았고, 개인의 처신과 행동은 바로 가문과 직결되었다(김명운, 2012). 가문의식은 가족사(家族史)에 대한 지식으로 연결되면서 짝트게 된다. 가문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은 가족 및 친족의 호칭과 가족사(族譜), 가훈(家訓)이었다(유안진, 1986: 311).

#### (7) 권학(勸學)

동양에서는 학문을 수기(修己)의 근간이자 치인(治人)의 기본으로 여겼다. 그래서 유교는 전통적으로 구성원들에게 학문을 권장하였다(심호남, 2011). 『논어』에서도 ‘학이시습지불역설호(學而時習之不亦說乎)’로 시작하여 배움이 그 어떤 주제보다도 먼저 언급되고 있다. 이는 유학이 ‘배움의 학문’임을 천명한 것이다(신창호, 2007). 가정에서의 학문교육은 주로 부모와 조부모, 친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덕무는 『사소절』에서 아이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죄<sup>12)</sup>라 하여 부모의 교육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가정에서 문자교육의 시작 시기는 대개 집안의 가장인 조부나 부친이 아이의 성숙도를 참작해서 결정하였다(손인수, 1991: 154). 조선시대의 남자들은 보통 과거를 통해 관직에 출사(出仕)하였다. 때문에 학문을 한다는 것은 결국 개인과 가족의 성공이기도 했지만, 가문의 번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유학이 수기치인의 학이기에 유학 자체가 벼슬을 하고 이름을 널리 알리기를 요구했으며, 이를 위해 학문에 몰두해야 했다(조기제, 2011). 또한 인간됨을 강조하는 유학의 성격상 학

12) 『士小節』 「婦儀」: 不教男子亡吾家, 不教女子亡人家, 故教之不預, 父母之罪也.



문은 삶의 과정으로써 중시되었다(류점숙, 김경아, 2005). 당시 공부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 평범한 사람이 성현(聖賢)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박선영, 김희용, 2012). 즉, 학문은 이치를 밝혀 성인으로 나아가는 준거를 세우는 것이었다.

## 2) 가정교육의 방법

조선은 유교 국가로서 유학을 정교(政敎)의 기반으로 삼은 사회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상성’과 ‘실천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교육방법에 있어 배움은 생활 속에서 실천을 통해 뿌리내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따라서 ‘지행일치’와 ‘모범과 모방’의 교육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에서 동일하게 중시되는 원리였다. 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가의 방법적인 측면이 함께 하기 마련이다. ‘어떻게 교육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방법은 내용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것(Dewey, 1916: 261)을 의미하고, 모든 교육적 이상은 방법적 원리에 의하여 그 성과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유학은 지식학(知)과 실천학(行)을 병합한 종합 체계이므로, 적당한 방법을 필요로 한다(류점숙, 2003). 본 연구에서 조선시대의 가정교육 방법을 모방, 역행, 예시, 체벌, 여질, 독서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1) 모방(模倣)

우리의 전통교육은 글(知識)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윗사람이 본을 보이면 아이가 따라 행하는 ‘본보기’교육이 핵심이었다(박영순, 2003; 선우미정 2017; 안경식, 2003). 어린 시절부터 보고 들어 행하는 것이 인성의 토대가 되는 철저히 ‘사람됨’을 지향하는 교육이었다. 이와 같은 덕성교육은 말과 글에 의한 언교(言敎)보다는 모델을 통해서 본받는 신교(身敎)가 효과적임을 인식(류점숙, 2003)했기 때문이다. 아동은 가족의 생활문화와 성인의 언행을 보고 들음으로써 저절로 배우는 것이다. 저절로 배운다는 것은 보고 듣는 것을 통해 저항 없이 조성(造成)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자연스러운 세뇌화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이순형, 2000: 309).

모방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대상은 성인(聖人)이 되겠으나, 실제 생활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동몽과 친근한 조부모, 부모와 같은 가족과 친족들이었다. 때로

중시조, 현조들이 학습모델이 되기도 했다(이순형, 2000). 모방학습에 있어서는 인적인 측면 이외에도 환경의 조성을 통한 영향력, 언행록, 서적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었다(류점숙, 1992). 이를 통해 모범이 될 만한 가문의 중시조나 위인의 글을 읽도록 하여 행동의 표준으로 삼고 따를 것을 가르쳤다.

## (2) 역행(力行)

전통교육에서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행함이 없는 지(知)는 해롭다는 것을 통찰하였다. 아동의 직접적인 체험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었다(최혜순, 양은호, 2010)는 것이다. 지식은 일상 세계 바깥에 존재하지만 가장 일상적인 경험에서 실현될 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다. 즉 지식은 가장 일상적인 삶에서 발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박선영, 김희용, 2012: 445). 『소학』에서도 사람이 배우고 책을 읽는 것이 결국 바른 실천을 위한 행위임을 가르치고 있다. 즉 문자 체계인 경전을 지식의 중요한 원천임과 동시에, 이치를 깨닫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한 것이다(박선영, 김희용, 2012).

이와 같이 실천을 중심에 둔 교육방법은 우리 선조들이 자녀들의 교만하고 게으른 마음을 잡기 위해서 주로 사용한 것이었다. ‘앎’과 ‘행함’과의 관계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으며, ‘인간교육’의 핵심이었다(김미라, 2012). 결국 유가(儒家)의 교육은 실천을 전제로 하는 배움으로 앎과 행함의 일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예시(豫示)

우리 선조들은 아동에 대한 교육은 일찍 실행해야 된다고 여겼다(김영옥, 백혜리, 2000). 왜냐하면 잘못 형성된 지식과 습관을 고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선우미정, 2017). 『예기』에 “습관이 아직 발하지 않았을 때 금하는 것을 예(豫)”라 하여 아동의 교육을 언제, 어떻게 시키느냐를 중요하게 여겼다. 이는 소학의 철칙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미리 함’을 우선으로 삼기 때문이다(김미라, 2012). 교육에 있어 미리 제시하는 방법은 잘못된 습관형성을 방지하고, 올바른 예절을 습득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신체·언어·성격 등 제반 발달에 대한 결정적 시기



(Critical Period)가 영유아기라는 점(류점숙, 2003)과도 맥을 같이 한다.

조선사회는 유교이념을 통하여 도덕적인 교육을 우선적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외형적인 행동거지나 언행에 대해서도 미리 제시하여 가르치는 것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때문에 도덕적 사고와 행동이 동시에 습득되도록 가르쳤다.

#### (4) 체벌(體罰)

체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적으로 가정 및 학교의 질서 유지와 훈육의 효과적인 방편으로서 사용되어 온 교육수단이였다. 체벌은 가르친다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교육적인 벌이자,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제재였다(심정렬, 2008). 특히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를 강조하는 유교사상의 영향아래 체벌은 정당한 교육 방편이자 권위의 상징으로까지 간주되었다(이호근, 2016: 161). 조선시대에 미성숙한 아동에게 부모나 스승의 체벌은 진정한 사랑을 전제로 일상에서의 행동 교정을 통해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는 방편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몽서에도 체벌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한다.

이덕무는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체벌을 하지 않은 것이 더 좋다고 하였다. 엄격함만이 교육의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부득이 체벌이 필요할 때에도 이유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아동들의 성격이 잘못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체벌의 대상이 아동 자체가 아니라 아동의 잘못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체벌이 감정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의미한다(김영옥, 백혜리, 2000)

#### (5) 여질(慮質)

조선 시대 선비들은 일과 중에 일정한 시간을 내어 자녀에게 읽을 책과 글씨 쓰는 과제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의문 나는 곳과 어려운 곳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여 최대한 아이의 자질을 고려하면서 가르쳤다(김광호, 조미진, 2012: 132-133).

이덕무도 이렇게 자질과 성품을 헤아려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자에게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라 하였다. 즉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의 자질을 고려할 때, 진정한 학습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르치는 자의 이러한 관용적 태도는 학습자에게 학습하는 즐거움을 동반한 자발성을 견인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이덕무는 자질과 품성을 헤아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아동이 지적 과부하에 걸리지 않도록 배려하라고 권한다.<sup>13)</sup> 아동에게 지적 여유를 허용할 때 가르친 것에 대해 사고할 수 있는 힘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 (6) 독서(讀書)

주자학을 집대성한 주자는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에 이르는 방법으로써 독서를 강조하였다(백정화, 2015). 따라서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있어 수기(修己)의 기본은 독서였다. 주자는 독서의 방법으로 다독(多讀)보다는 숙독정사(熟讀靜思), 순서점진(順序漸進)을 강조하였다(노병성, 2007: 135; 우영희, 1991).

이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 그대로 전승되었다. 이이(李珥, 1537-1584)는 배우는 자는 독서를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성현들의 가르침이 글 속에 있다는 것이다. 독서를 할 때는 글의 뜻과 이치를 정밀하게 깨닫고 마음에 젖어들게 하여 실천방법을 구하라고 권했다.<sup>14)</sup> 이외에 이황(李滉, 1501-1570)과 이식(李植, 1584-1647), 윤증(尹拯, 1629-1714) 등의 유학자들도 책을 읽을 때 ‘수기(修己)’에 비중을 두는 숙독(熟讀)과 정독(精讀)을 통한 마음공부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지성인이자 지도층인 선비가 독서에 충실하면 많은 사람에게 은택과 공로를 줄 수 있다고 여겼다. 선비는 독서를 통해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과학문명의 이기(利器)와는 다른 더 높은 차원에서 인류의 삶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왕규, 1999b). 이와 같은 사실은 퇴계가 『주자대전(朱子大全)』에 심취하여 읽고 자신의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주자대전』을 학습교재로 제작<sup>15)</sup>하여 주자의 학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여한 사례에서도 검증된다.

13) 『士小節』 「童規」: 凡授書, 不在徒多, 但貴精熟, 量其資稟, 能二百字者, 只可授以一百字, 常使精神力量有餘, 則無厭苦之患, 而有自得之美.

14) 『擊蒙要訣』 「讀書」: 故 入道莫先於窮理 窮理莫善乎讀書 以聖賢用心之跡 及善惡之可效 可戒者 皆在於書故也.

15) 『退溪集』. 「退溪先生文集」 제42권 序, 朱子書節要序.

### 3. 조선시대 가정교육으로서의 격대교육(隔代教育)

#### 1) 격대교육의 개념

격대교육은 조부모가 손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교육시키는 것(김신숙, 2013; 정아란, 김영철, 2014: 108)으로 우리의 선조의 지혜가 담긴 교육적 전통(EBS, 2013)으로 실천되어 왔다. 격대교육은 세대를 걸쳐 이뤄지는 교육이라 해서 ‘격대교육’이라 불렀으며, 앞선 세대의 풍부한 지혜와 경험을 대물림하는 교육방법이다(EBS 역사채널© 국사편찬위원회, 2013). 격대교육은 유학의 전유물은 아니다. 전현대 사회의 모든 공동체에서 나타나는데, 부모는 생산력을 담당하여 조부모가 담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정재걸, 2015).

격대교육은 기본적으로 혈연적 사랑을 전제로 한다. 이는 조부모와 손자녀라는 세대 간의 간격 속에서 형성되는 특수한 감정 및 역할과 관련 있다(윤용섭 외, 2015: 257). 이런 격대(隔代)의 특별함은 역사적으로 ‘시동(尸童)’과 ‘농담(弄談)관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조부와 손자의 친밀한 관계의 대표적인 연원 중의 하나가 시동의 습속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죽음 이후에도 혼령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조상제례(祖上祭禮)를 각별히 챙겼다(김미영, 2009). 유교에서 상제례(喪祭禮)는 ‘혈친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친친(親親)의 질서 수립을 위한 의례로서, 조상-나-후손으로 연결되는 종(宗)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 제례의 대상은 조상신이었고, 이를 형상화해 생겨난 것이 신주(神主)다(김미영, 2006: 490). 신주의 원초적 형태는 바로 시동(尸童)이었다. 시동은 제사를 지낼 때 조상신을 상징하는 신위(神位) 대신 앉히던 어린아이를 일컫는 말로써 “영령(조상) 대신 제사 받는 아이”로 해석된다. 이는 부자관계와는 차별화되는 조손의 친밀한 애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이 된다(이계학 외, 1994). 보통 ‘尸’로 표현되는 시동은 제사를 받는 사람의 손자(孫)가 담당했다. 고대로부터 어린아이는 신성과 두려움을 동시에 지닌 ‘구별’된 존재로 조상신을 위한 ‘구별’된 제례에 가장 적합하다(유강하, 2005)고 생각했다. 중국 고대 사회에서도 망자의 손자 향렬에 해당하는 어린 아이를 교의(交椅)에 앉혀두고 제사를 지냈다.

공자는 “성인(成人)의 상(喪)에 제사를 지내려면 반드시 시동을 세워야 한다. 시동은 반드시 손자를 세우는데, 손자가 너무 어리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안고 있게 하며, 손자가 없으면 동성(同姓)의 손자뻘 되는 아이를 세워도 된다.”<sup>16)</sup>

이렇게 시동은 조상신이 현현(顯顯)으로 인식되면서 흠향의 모습을 시각화하고, 종법적 질서를 지킬 수 있게 하는 존재였다(김미영, 2006: 498).

다음으로 격대의 친밀함의 유래가 되는 것은 농담(弄談)관계이다. 농담의 요점은 조손간은 나이 차이를 무시하는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인류학자 레드클리프 브라운은 ‘농담 관계’란 ‘하나의 허가된 무례의 관계’라 정의한다. 즉,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희롱하는 행위가 허용되고, 또 희롱당한 사람은 절대화를 내지 않도록 규정된 관계라는 것이다(윤용섭 외, 2015: 105).

부자관계와 상대적 위치에 놓이는 ‘농담관계’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가 조손관계이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직접 물려주기 때문에 우월적인 입장에 놓이게 된다(윤용섭 외, 2015: 106). 부성애의 본질은 순종의 미덕이며,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고, 이에 대한 처벌은 부성애의 상실을 의미했다(Fromm, 1956: 56). 따라서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으로써, 부자관계는 불평등한 요소를 포함한다(이계학 외, 1994). 아버지는 권위자로서 징계할 수 있으며, 아들은 아버지에게 종속되고 특별한 존경심을 표현해야 하는 ‘회피관계(avoidance relationship)’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Redcliffe-Brown, 1940). 반면, 한 세대를 건너뛰는 조손은 직접적인 계승관계가 아니기 때문에(윤용섭 외, 2015) 우호적이고 평등한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농담관계(joking relationship)’를 형성한다(Redcliffe-Brown, 1940)는 것이다. ‘농담관계’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서구사회에 대한 분석결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손자를 귀여워하면 코 묻은 밥 먹는다”, “손자를 귀여워하니 할아버지 상투 잡는다”, “손자 귀여워하니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 등도 우리 사회의 ‘농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언설이다. 조부모에게 있어 손자는 귀여움의 대상이면서, 손자에게는 무례함조차 너그럽게 웃어넘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었다. 조손은 부모를 중심으로 분리된 간접적인

16) 『禮記』 「曾子問」: 孔子曰 祭成喪者 必有尸 尸必以孫 孫幼 則使人抱之 無孫 則取於同姓 可也.

관계로서 ‘너그러움과 재롱’으로 묘사되는 대표적 가족관계라고 할 수 있다(김미영, 2010).

## 2) 격대교육의 특성

사람은 누구나 노인 되는 삶의 여정에서 있고, 노인이 노인인 것은 많은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영혼의 깊이가 남다르기 때문이다(박종덕, 2012). 따라서 격대교육은 교육의 주체가 되는 조부모들의 세대적 특성이 교육의 과정에서 다른 형태의 교육과는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조부모들은 우선, 인생의 다양한 경험으로 지혜와 경륜을 갖췄기 때문에 자신들의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으며 감정의 기복이 적다. 또 세속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 손자녀들을 교육하기에 더 적극일 수 있다. 둘째, 손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애정적 관계에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정옥분, 2012). 때문에 조부모는 손자녀의 실수에도 즉각적인 질책보다는 느긋한 타이름으로 정서적 훈계를 하게 된다(문정애, 2017). 마지막으로 자손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이의 생각과 요구를 귀담아듣는 여유가 있다. 감정을 절제한 상태에서 타이르기 때문에 아이는 저항 없이 그 뜻을 따르고 교육은 저절로 이루어진다(최효찬, 2005: 90; Research Team University of Hertfordshire, 2009). 손자녀는 너그러움으로 대해주는 조부모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친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하면서 긍정적 주기를 형성하게 된다(문정애, 2017).

조부모에 의해 실시되는 격대교육은 일상적 삶의 행위를 통해 견문을 넓히게 함으로써, 아이에게 학업의 방향 제시한다(김미영, 2010).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가족 내에서 안정감과 지지를 느끼게 하여(陈璐, 张跃飞, & 陈传锋, 2014) 수십 년 세월을 뛰어넘는 특별한 소통의 창을 열어주기도 한다. 조손간은 생활을 공유한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교습방법이 없어도 서로의 필요를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SBS스페셜 <그들에겐 특별한 것이 있다: 격대교육> 제작팀, 2013). 조부모 입장에서 노화로 인해 사회와 가정에서 한발 물러선 위치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일은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정옥분, 2012). 즉 손자녀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도 격대교육은 한 인간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으로서, 혈연적 관계 속에서 애정을 기반으로 가장 자연스럽게도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전인교육의 한 모형이 될 수 있다(윤용섭 외, 2015: 259).

격대교육에 관한 연구는 조선시대로 시기를 한정했을 경우, 이인철(2007)과 김미영(2010)의 연구에 한정된다. 이인철(2007)은 퇴계가 손자 안도에게 보낸 가서(家書)를 중심으로 공부, 수신(修身), 예(禮)로 구체화하면서, 조손지간(祖孫之間)의 교육적 관계를 고찰하였다. 김미영(2010)은 조선시대 격대교육의 개념, 유래와 사례를 통해 성역할에 대한 덕목이 중심적이었다고 분석하였다. 격대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이인철(2007)은 모방, 독서, 편지를 김미영(2010)은 모방, 체벌, 독서, 편지의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 3) 격대교육의 사례

조선시대에 격대교육을 행한 대표적인 사례는 먼저,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과 안도(安道, 1541-1584)이다. 퇴계의 맏손자 안도는 어려서부터 명석하여 퇴계의 각별한 사랑을 받아 다섯 살 되던 해에 퇴계가 직접 『천자문』을 써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퇴계는 평생 동안 여러 가지 경전을 직접 가르쳤고, 안도의 학습 진도까지 챙겨가며 체계적으로 지도하였다(장운수, 2015).

퇴계는 손자가 과거준비를 하던 15세부터 자신이 생을 마감한 70세까지 16년 동안 153통의 편지로 왕래하며 교육하였다. 퇴계에게 맏손자 안도는 자신의 대변인(문정애, 2017)이자, 가문의 계승자였다. 안도에게 할아버지는 인생의 조언자이자 학문의 선배였다(정시열, 2013). 퇴계는 손자의 공부하는 자세, 교우관계, 선비가 갖추어야 할 덕목 등을 가르치며 손자가 가문의 번창에 기여하기를 바랐다. 손자 안도는 할아버지 퇴계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고, 유학적 참 인간의 목적을 분명하게 각인하게 되었다(정재걸, 2015: 38).

다음으로는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과 주석(疇錫, 1650-1692)이다. 주석은 10살에 할아버지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우암이 덕원·장기·거제·제주로 유배 되었을 때 따라가서 할아버지의 수발을 들었다. 유배지에서 우암의 가장 큰 위안이 손자였고, 주석이 기장의 위리(圍籬)를 지켰기에 우암은 틈만 나면 손자와 시를 주고받았다(이종목, 2006: 446). 주석은 제주 향교에서 『주자



대전(朱子大全)』, 『주자어류(朱子語類)』, 『역학계몽(易學啓蒙)』, 『강목(綱目)』 등의 책을 빌려와 할아버지와 매일 읽었다.<sup>17)</sup> 우암의 교육과 사상은 ‘춘추 대의를 배워 그대로 행하며 살고, 직(直)이라는 대의로 죽음이 마땅하다’로 집약된다(양진건, 2012). 우암은 자신이 본을 보이며 손자를 가르쳤고, 수신과 실천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수신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집안과 가문을 지키는 길임을 손자에게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조(英祖, 1694-1776)와 정조(正祖, 1752-1800)를 들 수 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이후 할아버지와 할머니(선희궁)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신명호, 2005). 영조는 학문을 좋아하는 군주였고, 정조는 독서를 좋아했다. 얼마나 독서에 열중하였던지 어머니 혜경궁 홍씨가 너무 일찍 일어나지 말라고 타이러 정도였다.<sup>18)</sup> 정조는 세손시절부터 이미 영조의 지도하에 많은 교육을 받았으며, 거처하는 당의 이름도 근독합(謹獨閣)이라고 하여, 학문하는 자세를 갖추었다.

영조는 유능한 사부를 초치하는 한편으로 자신이 경전을 강학할 때 세손을 불러 『소학』·『대학』·『맹자』 등의 경전에 대한 문답을 즐겨하였다. 영조의 세손교육의 핵심은 종국(宗國)의 계승이라는 정치적 목적 실현이었다(임민혁, 2008). 영조는 세손에 대한 교육, 훈계, 당부를 중심으로 여러 편의 글을 남겨 세손이 자신의 뜻을 이해하고 이어받기를 간절히 바랐다. 영조가 행하고 겪었던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세손이 경계로 삼을 것을 기대했고, 선대(先代)의 어제 등에 대해 편집하는 방법까지도 당부하는 세심함을 보인다(노혜경, 2011).

#### 4. 조선시대 격대교육 전형으로의 『양아록』

##### 1) 이문건의 생애와 『양아록』

이문건은 1494년(성종 25) 11월 28일에 출생한 문인이다. 그의 본관은 성주(星

17) 『宋子大全』 부록 제11권, 年譜 10, 崇禎 62년 기사.

18) 『正祖實錄』 권54, 부록, 「혜경궁이 내린 행록」.

州), 자는 자발(子發), 호는 묵재(默齋)또는 휴수(休叟)이다. 그는 서울 주자동(鑄字洞)에서 아버지 이윤탁(李允濯)과 어머니인 고령 신씨(申澮)의 3男으로 출생하였다. 그는 이장경(李長庚)을 증시조로 하는 당대 최상층의 혈연을 매개로 탄탄한 가계(家系)를 형성한 성주(星州) 이씨 가문의 자손이다.

<표 10> 이문건 가계<sup>19)</sup>

|    | 휘   | 생몰년       | 관직                | 봉호 또는 시호     |
|----|-----|-----------|-------------------|--------------|
| 1  | 이장경 |           |                   | 경산부원군·추봉농서군공 |
| 2  | 이조년 | 1269~1343 | 예문관 대제학           | 성산군·문열공      |
| 3  | 이 포 | 1287~1373 | 광정대도부첨의평리         | 경원공          |
| 4  | 이인민 | 1340~     | 문하평리겸대제학          | 증성산부원군       |
| 5  | 이 직 | 1362~1432 | 영의정               | 문경공          |
| 6  | 이사후 | ? ~1435   | 한성판윤              |              |
| 7  | 이함녕 |           | 홍문관교리             |              |
| 8  | 이숙생 | ?~1509    | 공주목사,가선대부행,침지중추부사 |              |
| 9  | 이윤탁 | 1462~1501 | 송문원 부정자           |              |
| 10 | 이문건 | 1494~1567 | 승정원 좌부승지          |              |
| 11 | 이 온 | 1518~1557 | 증홍문관수찬            |              |
| 12 | 이수봉 | 1551~1594 | 첨정                | 원배로 개명       |

이문건은 타고난 자질이 남달라 나이 10여세에 이미 여러 글씨에 통달하였고, 붓을 사용하는 기법이 신묘하여 당시의 사람들이 따를 수 없을 정도였다(이상필, 1997; 이복규, 1999). 둘째형 충건(忠健)과 함께 조광조(趙光祖)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1513년(중종 8) 20세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이문건家는 나라에 공을 많이 세우고 벼슬이 끊이지 않았던 벌열(閥閥)가문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연속되면서 이문건의 형제들과 조카들의 벼슬살이는 순탄하지 못했다(이복규, 1999). 1519년(중종 14)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급진적인 사림파를 왕권강화의 걸림돌로 인식한

19) 이상주(1996). 「李文健의 『養兒錄』-16세기 한 士大夫의 子孫養育의 體驗의 詩篇」, 『한국한문학연구』, p479.



중종이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리는데, 이것이 기묘사화(己卯士禍)였다. 이때 이문건과 형 충건이 예를 갖추어 조문하고 시신을 수습하였다는 이유로 9년 동안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문건은 1527년(중종 22) 사면되었다. 이듬해 문과급제를 시작으로 1544년(중종 39)에 승정원 좌부승지로 발탁되면서 순조로운 관직생활을 하였다.

하지만 1545년(명종 즉위) 인종과 명종의 외척세력인 대소윤(大小尹)의 대립으로 일어난 을사사화(乙巳士禍)에 휘말리면서 그의 조카 이휘(李輝)가 효수되었다. 조카 이염(李閔)은 파직되었다가 1547년(명종 2) 경흥으로 유배된다. 이로 인해 이문건도 23년간 경북 성주에 유배되었다. 조선의 양반사회는 혈연, 학연, 과거와 관직 등으로 상호 거미줄처럼 연결되었다(정진영, 1998: 47). 이문건은 정치적으로 대운 세력인 동시에 사림과 활발히 교류하여 크고 작은 사건에 함께 연루될 수밖에 없었다. 이문건은 중년기까지는 한양, 말년에는 유배지에서 여생을 보냈다. 때문에 재경(在京)출신의 인맥과 본향(本鄉)인 성주의 지방 관원들이나 재지사족(在地士族)들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였다(장성덕, 2008: 12-13). 이후 유배의 상황에서 그가 형성한 폭넓은 인맥이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문건의 유배생활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상당한 자유를 누렸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아들 온(溫)을 대신하여 가게운영을 도모해야만 했다. 경제에 밝았던 이문건은 성장과정과 사회적인 활동을 통하여 형성한 폭넓은 인맥과 청탁의 해결, 양잠으로 자신과 가게를 위한 노력에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이문건은 유배인이었지만 경제적인 축적을 통하여 괴산에 입향처를 마련하여 자신과 후손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성취해 나갔다.

아울러, 자신의 정치적 경험과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향촌사족의 결집에 일정부분 역할도 감당하고 있었다(김소은, 2003). 그러나 대부분의 유배인들이 그렇듯 이문건도 고립감과 외로움이 깊었고, 해배에 대한 소망을 품었던 듯하다. 『목재일기』를 보면 60세에 이른 1557년(명종 12)에 이러한 심정이 기록되어 있다.

당(堂)에서 묵었다. 손자를 돌보았다. 내려가서 함께 밥을 먹었다. 내려가서 함께 밥을 먹으며 밥을 더 먹기를 권했다. 괴산(槐山) 땅을 밟은 뒤에 죽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sup>20)</sup>

이 시기는 아들의 상(喪)을 치르고 보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아픈 아들이었지만 자식을 잃은 이문건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였다. 자신의 처지가 더욱 처연하게 다가왔기에 이런 마음이 깊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이문건의 유배 생활은 더욱 손자의 육아와 교육에 몰두하며 가문을 일으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가게 된다.

<표 11> 이문건 연보

| 연도           | 내용  |
|--------------|---|
| 1494년(성종 25) | 출생  |
| 1513년(중종 8)  | 20세. 사마시 합격   |
| 1521년(중종 16) | 28세. 기묘사화로 9년 동안 과거 응시 자격 박탈                        |
| 1528년(중종 23) | 35세. 문과 급제. 승문원에 예속, 승정원 주서를 거쳐 시강원 설서로 옮겼다가 사서로 승진 |
| 1535년(중종 30) | 42세. 모친상을 당하여 양주 노원에서 시묘살이 「묵재일기」를 쓰기 시작            |
| 1537년(중종 32) | 44세. 탈상 후 복직, 사간원 정언, 이조좌랑, 충청도사 역임                 |
| 1544년(중종 39) | 51세. 중종 승하. 홍문관 응교로 빈전도감 집례관 역임                     |
| 1545년(인종 1)  | 52세. 조카 휘가 을사사화로 화를 당하자 연좌되어 성주 유배                  |
| 1551년(명종 6)  | 57세. 손자 수봉 출생, 「양아록」 쓰기 시작                          |
| 1557년(명종 12) | 64세. 아들 온 사망  |
| 1566년(명종 21) | 73세. 아내 김돈이가 죽자 묘지명을 직접 제작하여 부장                     |
| 1567년(명종 22) | 74세. 성주에서 사망  |

이문건은 유배지에서 손자를 얻자, 오로지 가문계승의 일념으로 손자를 지극 정성으로 길렀다. 그는 『양아록』의 서문(序文)에 『양아록』을 기록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0) 『默齋日記』: 1557-07-06 宿堂. 護孫. 下見共食, 勉食. 欲及槐山土而後化, 其可得否?

아이 기르는 일을 반드시 기록할 것은 아니지만, 기록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없어서이다. 노년에 귀양살이 하는데 벗할 동료가 이미 적어졌고, 생계에 별 계획이 없어 생산에 일을 도모하지 못하는 처지였다. 아내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외로이 혼자 지내는 처지에 오직 손자(孫子)아이의 재롱을 보면서 날을 보내며, 한가롭게 서간(書簡)을 펼쳐 고을의 원(城主)인 조희(曹禧)군과 귀양 간 조카이염(李燦), 그리고 귀양 온 동료 유감(柳堪) 등의 차운시(次韻詩)를 책머리에 부착해, 후일에 즐길 거리로 갖추어 놓았다. 아울러 습좌(習坐)·생치(生齒)·포복(匍匐) 등의 단구(短句)를 뒤에 기록하여, 애지중지하는 뜻을 붙였다. 손자가 만약 장성하여 이것을 보게 되면, 아마 문자상(文字上)에 나타난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리라.<sup>21)</sup>

이문건은 표면적으로는 귀양살이 하는데 ‘할 일이 없어서’라 언급한다. 유배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단절과 고립은 교유의 폭을 제한하여 벗할 동료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을 도모하지 않아 한가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서문의 마지막 부분에 육아의 과정을 글로 남김으로써 손자가 할아버지의 애지중지하는 뜻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의 발로(發露)라고 하였다. 유배 생활을 하는 이문건에게 손자를 잘 양육하는 일은 당시 일반 사대부家에서의 육아와는 무게감에 있어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문건은 9살 때 아버지의 죽음을 시작으로 형제와 어머니, 조카 그리고 자신의 자녀 3남 2녀와 손자녀를 그의 생전에 잃었다. 이렇게 수많은 가족들의 죽음을 지켜본 이문건은 우선 본인이 유배로 인해 가문계승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더욱이 유배지에서 아들마저 죽었기 때문에 가문계승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이제 이문건과 손자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가문의 존립을 위해 손자를 교육하는 것은 할아버지의 사명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문건은 자신의 양육과정을 기록하여 남겨주기 위해 육아일기를 꼼꼼히 기록한 것으로 추측된다. 즉, 『양아록』은 유배의 상황 속에서 손자를 양육하여 자신의 가계(家系)를 계승시키고자 하는 열망의 결과물인 것이다.

21) 이문건 저, 이상주 역(1997). 『養兒錄』「序文」: 養兒不必有錄, 錄之者, 以吾無事也. 老年居謫, 既甌, 謨生計拙不營產業. 妻復還鄉, 塊然獨處, 唯見孫兒戲嬉, 以度日晷, 閒閱簡牘, 披得城主曹君禧及謫姪李燦·謫僚柳堪等次韻詩, 付諸卷上, 以備後玩. 兼記習坐·生齒·匍匐等短句于後, 以寓眷戀之意焉. 兒若長成, 有見乎此, 庶得祖先之心於文字上矣.

## 2) 『양아록』의 전체적 내용

『양아록』의 전체적 내용은 그 내용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로 구분하면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신체적 성장과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보살핌은 영유아기에 집중되고 있다. 영아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는 영아기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교육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영아는 양육자의 행동과 태도를 전적으로 흡수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양육자에게 자기수양과 성장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 유아기는 할아버지와 침식을 함께 하며 철저히 일상에 기반하여 교육하고 있다. 수봉의 경험을 활용하여 너그러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동기는 교육내용이 구체화되면서 할아버지의 적극성이 전면에 부각된다. 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손자의 감응(感應)이 없어 이문건의 교육적 고민이 깊어진다. 청소년기에는 손자의 강력한 저항과 이를 바로 잡으려는 할아버지와의 갈등이 심화된다(이석주, 2015). 가문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손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염려로 점철되고 있다. 『양아록』의 전체적인 내용은 <표 12>와 같다.

<표 12> 「양아록」의 전체적 내용

| 순서 | 내 용             |
|----|-----------------|
| ①  | 서문(序文)          |
| ②  | 손자의 출생을 기뻐하며    |
| ③  | 손자가 태어났을 때      |
| ④  | 성주(星州)목사의 축시    |
| ⑤  | 조카 이염(李堧)의 축시   |
| ⑥  | 손자의 울음소리(兒啼)    |
| ⑦  | 이·벼룩이 알미위서(憎蚤蝨) |
| ⑧  | 앉기 연습(習座)       |
| ⑨  | 이가 돌아남(齒生)      |
| ⑩  | 기어다님(匍匐)        |

|   |                      |
|---|----------------------|
| ⑪ | 윗니가 나서(上齒始生)         |
| ⑫ | 이질을 앓아서(兒痢嘆)         |
| ⑬ | 이질이 오랫동안 지속되어(久痢嘆)   |
| ⑭ | 처음 일어서서(始立)          |
| ⑮ | 걸음마(習步)              |
| ⑯ | 책 읽는 모습을 흉내 내는 것을 보고 |
| ⑰ | 돌잡히기                 |
| ⑱ | 말을 배움(學語)            |
| ⑲ | 학질을 앓아서(兒瘡嘆)         |
| ⑳ | 눈이 충혈되어(赤目嘆)         |
| ㉑ | 더위를 먹어서(暑瘡嘆)         |
| ㉒ | 손톱을 다쳐서(傷爪嘆)         |
| ㉓ | 이마를 다쳐서(傷額嘆)         |
| ㉔ | 경기를 일으키는데 안타까워(驚懼嘆)  |
| ㉕ | 마마를 앓아서(行疫嘆)         |
| ㉖ | 밥을 잘 먹지 않아서(厭食嘆)     |
| ㉗ | 손자가 할아버지를 잘 따라서(愛翁吟) |
| ㉘ | 글자를 깨우치게 되어(誨字吟)     |
| ㉙ | 젓니를 갈게 되어(毀齒吟)       |
| ㉚ | 자식의 죽음을 탄식하며(遭喪嘆)    |
| ㉛ | 종아리를 때림              |
| ㉜ | 꾸짖고 나서(責兒吟)          |
| ㉝ | 불고기를 먹고 탈이 나서(食炙嘆)   |
| ㉞ | 귓병을 앓아서(病耳嘆)         |
| ㉟ | 귀에 종기가 나서(耳腫嘆)       |

|   |                            |
|---|----------------------------|
| ㉞ |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撻兒嘆)           |
| ㉟ | 홍역을 앓아서(紅疫嘆)               |
| ㊱ | 조급증을 경계하여(躁怒嘆)             |
| ㊲ | 취주(醉酒)에 탄식하여(警醉嘆)          |
| ㊳ | 마을에서 술을 마시는데(飲村酒嘆)         |
| ㊴ | 술 마시는 것을 경계한 글(少年醉酒戒)      |
| ㊵ | 축원문-가문의 번창을 기원하여           |
| ㊶ | 축원문-손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여         |
| ㊷ | 축원문-손자를 기원하여               |
| ㊸ | 할아버지의 조급히 성냄을 탄식하며 (老翁躁怒嘆) |
| ㊹ | 가족에 관한 글 - 아들 온(爓)과 손녀들    |
| ㊺ | 가족에 관한 글 - 자부와 손녀들         |
| ㊻ | 가족에 관한 글 - 부인과 자녀들         |
| ㊼ | 세계(世系)                     |

### 3) 『양아록』에 관한 선행연구

『양아록』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들은 『양아록』을 통해 조선시대 아동에 대한 인식과 교육적 의미 그리고 심리·역사적 측면과 출산문화 등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양아록』을 발굴하고 번역한 이상주(1996)는 『양아록』이 일기적 성격을 띠면서도 손자의 성장발달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과 특정질병의 제증상, 그로 인한 손자의 고통을 상세하고 꺾진하게 표현한 점과 손자를 사대부형 인물로 양육하면서 겪었던 고충의 사실적 기록이 특이함과 흥미로움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조선전기 사대부가문에서 실시했던 사대부형 인간교육의 실례를 확인할 수 있는 희소성 높은 일기적 시편이라는 점, 16세기 중반 아동교육문제를 세심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점, 당시 양아 및 생활과 관련된 풍속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하였다.

『양아록』을 통해 조선 중기 아동 인식을 들여다 본 백혜리(2001)는 아동의 범위는 16세까지로 정의되지만, 10세 이후부터는 성인사회에 참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별한 조손 관계와 당시 사회에서 아동을 가계 계승을 위한 귀한 존재로 인식하여 타고난 성품을 중시하였음에 주목하였다. 또 장정호(2011)는 『양아록』을 중심으로 육아의 목적, 내용, 양육자의 역할 등을 교육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육아의 목적은 자조능력의 확립이며 이에 따라 보양, 훈육, 학습적인 내용을 교사의 역할을 하는 양육자가 수행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육아는 후천적 교육의 출발점이며, 모든 후속적 교육의 모본적(母本的)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진건, 김유리, 현은선(2013)은 『양아록』에는 ‘효’를 바탕으로 ‘충’과 ‘신’ 등을 실천하여 입신양명하기를 바라는 조선시대 사대부 가정의 교육구조를 분석하였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가계 계승의 특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격대교육의 구조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었다.

정시열(2013)은 이문건이 양육의 과정에서 손자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갈등과 실망으로 이행되는 심리적 추이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육아의 과정에서 양육자가 겪는 전형적인 어려움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전적으로 이문건에게서 비롯된다고 분석하였다. 절박한 자신의 상황 때문에 손자를 목적이적인 대상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전개의 주원인으로 손자의 동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들면서, 이를 양육 과정에서 성찰의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김영선(2014)은 『양아록』을 출산 문화 속에서 탄생한 문학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양아록』에 실린 출산 관련 글을 ‘임태 전’과 ‘출산 후’로 나누어 살핀 후 그 속에 드러나는 생명 및 인격존중에 대한 의식을 고찰하였다.

『양아록』을 통해 유가적이면서도 자연이치의 순응하려는 이문건의 양육에 관한 내용을 살핀 김은경, 권대원(2014)은 이문건의 생태적 사고와 실천행동에 주목하였다. 인위적 힘을 가하지 않아도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어둠이 지나면 밝음이 오는, 스스로 그러한 작용을 하는 『주역』의 순환적 세계관을 인식한 이문건이 ‘스스로 그러한, 자연의 도(道)’와 자신이 인식한 세계관이 일맥상통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생태적 사고와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양아록』의 일기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문건의 세계관, 아동관, 발달관, 교육관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조은숙(2014)은 『양아록』을 시문의 양상과 특징 및 글쓰기의 특징과 위상을 밝혔다. 먼저 『양아록』은 남성이 육아를 소재로 쓴 일기 시문집으로서 전무후무한 사례이며, 16세기 사대부 가문 아동의 개인 질병의 집적물로서의 가치를 부각하였다. 이는 『목재일기』가 있음에도 시문집으로 형상화한 것은 육아일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아록』은 ‘양아(아동의 성장과정·질병·교육)’라는 주제를 통하여 시대를 초월해 모든 독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석주(2015)는 이문건의 『양아록』과 『목재일기』를 통해 육아의 과정에서 그의 삶을 성찰하는 노년관을 드러내고 있다. 역사적 맥락에서 『양아록』을 살펴본 강수연(2015)은 조선시대 이데올로기였던 성리학을 배경으로 이문건의 아동교육관을 검토하였다. 그는 동심은 외부 환경에 의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유교적 수양(성찰)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문건은 유교에서 말하는 이(理)를 동심으로 보았고, 『양아록』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유교적 인물로 키우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이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선시대 격대교육관을 살필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문혜경, 양진건(2017)은 유배라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혈손을 잘 양육하여 가문을 계승하고자 했던 이문건의 교육적 노력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양아록』에 나타난 조선시대 격대교육의 내용을 살피고, 격대교육의 현대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양아록』의 격대교육 내용을 조부의 지극한 사랑과 가문의의식, 모델링을 통한 학문교육으로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사랑의 ‘에너지’와 ‘방향성’의 균형, 그리고 ‘관계중심의 가정교육 복원’이라는 격대교육적 의미로 귀결지으면서 현대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양아록』 관련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이문건의 삶과 육아(문혜경, 양진건, 2017; 이상주, 1996; 장정호, 2011), 아동관(강수연, 2015; 백혜리, 2001) 및 교육관(김은경, 권대원, 2014; 양진건 외, 2013)과 육아 과정에서의 갈등(정시열, 2013), 노년관(이석주, 2015), 16세기 생활문화(김영선, 2014; 조은숙, 2014) 등 특정영역을 중심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렇게 『양아록』을 각각의 관점으로 고찰하는 일도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는 이에 더하여 기존 연구들의 부분적 관점을 수용하면서 『양아록』을 총체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양아록』에는 조



선시대의 문화와 가정교육의 모습이 수봉의 성장과정을 통해 온전히 용해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총체적 접근을 통해 16년간 기록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고자 한다.

### Ⅲ.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의 내용

본 연구의 분석의 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양아록』의 격대교육 내용을 발달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그러나 『양아록』에는 잉태 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구분한 시기 속에 포함되지 않거나,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내용에는 포함되지만 시기에는 포함할 수 없는 다섯 편의 기록<sup>22)</sup>이 있다. 손자를 기원하는 축원문은 잉태 전 기원으로서의 태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문건의 태교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그리고 시기에 포함되지 않는 네 편은 가문의 내력에 관한 내용이므로, 가문의식 속에서 개괄적 설명을 통해 이문건이 『양아록』에 포함시킨 의미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 내용의 발달 시기별 분석은 <표 13>과 같다.

<표 13> 「양아록」 격대교육 내용의 발달 시기별 분석

| 내용<br>시기         | 태교           | 보양               |                  | 효  | 예절  | 성역할      | 가문의식            | 권학 |
|------------------|--------------|------------------|------------------|----|-----|----------|-----------------|----|
|                  |              | 신체운<br>동발달       | 건강과<br>안전        |    |     |          |                 |    |
| 잉태 전             | ④④<br>(1548) |                  |                  |    |     |          |                 |    |
| 영아기<br>(0-4세)    |              | ⑥⑧⑨<br>⑩⑪⑭<br>⑮⑱ | ①⑥⑦<br>⑫⑬⑱<br>⑳㉒ | ②⑱ | ⑤⑭⑱ | ④⑤<br>⑯⑰ | ②③④<br>⑤⑫⑯<br>⑲ | ⑯⑰ |
| 유아기<br>(5-7세)    |              | ㉓                | ㉑㉒㉓<br>㉔㉕㉖<br>㉗  | ㉘㉙ | ㉑㉒㉓ | ㉔        | ㉕㉖<br>㉗㉘        | ㉙  |
| 아동기<br>(8-12세)   |              |                  | ㉚㉛<br>㉜㉝         | ㉞  | ㉟㊱㊲ | ㉛㉜       | ㉝㉞㉟             | ㊱㊲ |
| 청소년기<br>(13-16세) |              |                  |                  | ㊳㊴ | ㊵㊶㊷ | ㊸㊹       | ㊺㊻㊼             | ㊽㊾ |
| 시기불명             |              |                  |                  |    |     |          | ㊿①②<br>③④       |    |

22) 「축원문-손자를 기원하여」, 「가족에 관한 글-아들 온(溫)과 손녀들」, 「가족에 관한 글-자부와 손녀들」, 「가족에 관한 글-부인과 자녀들」, 「세계(世界)」

## 1. 태교(胎敎) : 손자를 기원하다

‘태교’는 전술한 바와 같이 태중교육이기는 하나 그 기간은 임신이전부터 출생 직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존중사상은 잉태 시에 이미 마음이 깃든다는 생각에 뿌리를 둔다. 우리 태교문화가 정서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잉태 이전의 환경을 강조한 것이라 이해 할 수 있다(정순화, 2014). 그리고 임신이전부터 임신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부모와 함께 가족구성원들도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참여했다(안세희, 김은주, 2018).

<표 14> 「태교」 내용

| 시기    | 순서 | 내용           |
|-------|----|--------------|
| 1548년 | ㉔  | 축원문-손자를 기원하여 |

『양아록』은 태교의 제 3자인 조부에 의해 쓰여 졌다. 때문에, 임신 전 가족 참여의 형태만을 부분적으로 살필 수 있다. 『양아록』에서는 손자가 태어나기 3년 전(1548년) 지은 초제문을 통해 잉태 전 기원으로서의 태교가 나타난다.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남아의 출산이 기대되었다(유안진, 1990). 당시 결혼한 여성이면 누구나 출산력을 얻는 갖가지 비방과 지식을 알고 실행하였다. 대표적으로 부녀자들이 자녀(아들)를 낳기 위해 기자속(祈子俗)을 행하였다(오선명, 2001: 4). 기자속이란, 아들을 낳기 위하여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대상에게 서원하는 습속이다(유안진, 1990: 30). 이는 가계를 계승할 수 있는 남아를 출산하여 조상에 대한 효를 다하고자 하는 실천적 행위이다. 방법은 진심어린 마음으로 자연에 기도하는 것이다(김은주, 전정미, 2012: 207). 이를 치성(致誠) 기자라 한다. 당사자 또는 시어머니가 정성을 다해 신령을 감동시킴으로써 아들 낳는 소원을 성취하려는 행위였다. 이러한 치성은 남이 알지 못하게 드러야 효력이 있다고 하여 한밤중이나 새벽녘에 시행하였다(오선명, 2001). 이문건도 밤에 초제(醮祭)를 지냈다.<sup>23)</sup>

이문건의 아들 온은 처음 수원(水原)의 내등촌(內等村)에 사는 박옹(朴壘)의 딸에게 장가가서 딸을 낳았으나, 그 어미와 딸은 곧 죽었다. 이어서 1546년(명종 1) 가을, 청주의 김해김씨 김증수(金增壽)의 딸을 재취로 맞았다. 이듬해 9월 딸을 낳았다. 이문건이 숙희(淑禧)라 이름 지은 딸손녀는 약질로 태어났다. 1549년(명종 4)에는 또 딸을 낳아 숙복(淑福)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1551년(명종 6) 여름, 토사(吐瀉)병으로 죽었다. 이문건은 건강하지 못한 아들에게서 손녀를 연속해서 얻었다. 그러나 이 역시 일찍 죽거나 약골이어서 자손에 대해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다. 유학을 숭상하던 조선 사회에서 치성기자는 남성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계(家系) 단절의 위기상황이 닥치자 이문건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손자를 기원하는 초제를 지냈다.

#### 「축원문-손자를 기원하여」

무신년(1548년) 정월 12일 초제문(醮祭文)

옥황상제께서 다스리시는 덕이 높고 깊으시어, 항상 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덮으시며 아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신(星神)께서는 (옥황상제를) 모심에 실로 세상 일을 잘 짐작해서 권한을 유지하고 있으십니다. 만물이 (옥황상제에게) 의지해서 살아나오며, 많은 무리들이 (옥황상제의) 덕을 우러러 뵙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데, 뜨거운 것을 잡게 되면 (차거운 물에 손을) 씻을 생각을 하고, 끓는 것을 징계하고자 하면, 입으로 불어 식히듯이 합니다. 양화(殃禍)와 열(藥)을 당한 것이 산과 같고, 남은 이 몸의 목숨이 실과 같습니다. 시종, 운수가 정해져서, 가령 그 큰 한계는 도피하기 어려우나, 환란이 때때로 다가올 때, 뜻밖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밝으신 신에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랍니다. 엎드려 원하건데, 특별히 신기로운 괴를 알선하셔서, 거의 감응을 내려주시어, 근심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셔서, 구류를 면하게 해주시고, 죽음에서 돌아나와 살게 하시어, 무릇 남은 목숨을 이어가게 해주소서. 또한 제가 외롭고 위험하나 돕는 사람이 없으니, 앞서지고 넘어질 때, 누가 부축해 주겠습니까? 제가 병이 들었으나 사내아들이 없으니, 비록 등유(鄧攸)가 아들을 잃은 것과 같지는 않으나, (대를 이을) 실마리(손자)가 없기에, 감히 마묵(馬默)이 아이를 얻은 것과 같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sup>24)</sup>

23) 『默齋日記』: 1548-01-12 嘉靖二十七年 戊申正月 小 甲寅十二日己丑, 晴風. … 萬守還曰“夜爲祈醮, 僧人幹爲”云云.

24) 이문건 저, 위의 책. 「戊申 正月 十二日 醮祭文」: 帝御高深, 常仁覆而憫下, 星官列侍, 實斟酌而持權. 萬物資生, 群流仰德. 伏念, 執熱思洗, 懲沸吹齋. 經禍孽之如山, 餘軀命之若線. 始終數定, 縱大限之莫逃, 患難時來, 冀橫罹之是脫. 肆竭愚懇, 敬禱昭明. 伏願, 特幹神機, 庶垂靈應, 轉憂爲喜, 令獲免於拘留, 回死爲生, 俾得續夫殘喘, 且某孤危無助, 顛蹶誰扶. 愚病有男, 雖未若鄧攸之失

『목재일기』를 살펴보면 이문건이 초문(醮文)을 쓰고 점쟁이 김자수(金自粹)에게 기원의 전체적인 주관을 맡겼다. 그리고 집행은 승려가 담당하였다. 옥황상제를 대상 신격(神格)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도교 의례인 초제의 형식을 빌어 기자치성을 드리고 있음을 의미한다(이복규, 1999). 전통적으로 치성 기자의 대상 중 하늘에 있는 별은 사람, 그 중에서도 아들을 상징하며 다산·풍요 및 수명을 관장한다고 보았다(홍순례, 2001). 이문건도 옥황상제와 성신(星辰)에게 기원을 드린다.

## 2. 보양(保養) : 손자의 성장과 치병에 힘쓰다

이문건은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에게 처방을 해 줄 정도로 의학에 조예가 깊었다. 『집성방(集成方)』, 『구급역방(救急易方)』, 『득효방(得效方)』, 『직지맥(直指脈)』, 『명의잡저(明醫雜著)』 등의 많은 의학서도 소장하였다. 이는 그의 어머니가 질병이 많았고, 가족과 노비를 치료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영아사망률이 높았고, 가문이 단명(短命)한 내력과 사화와 유배 등으로 위태로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양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문건은 손자를 애타게 기다렸다. 손자가 태어나자 “보살피고 기르는 일 진실로 쉽지 않으나, 어찌 소홀히 하리요?”라며 보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보편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우며 아이를 잘 보호하여 기르는 보양은 영유아기에 국한된다. 그러나 건강과 안전의 측면의 보양은 아동기까지 이어지고 있어 아동기까지 포함하였다.

### 1) 신체운동 발달

신체적 성장은 영유아기에 급속하게 진행되며 학령기가 되면 느려졌다가 청소년기에 다시 가속된다(Kail, 2009: 122). 운동기능 역시 정교화 되어 가면서 왕성한 신체적 활동을 통해 현저한 기능 향상이 나타난다. 이문건은 자신의 육아경험을 근거로 영

---

胤, 繼承厥緒, 敢以希馬默之得兒.

유아기(0~7세) 손자의 성장과정을 세밀히 관찰하고 꼼꼼하게 살폈다. 영유아기는 치아발달과 대근육 및 언어발달 측면을 기록하고 있다.

<표 15> 「보양 - 신체운동발달」 내용

| 시기        | 순서 | 내용             |
|-----------|----|----------------|
| 영아기(0-4세) | ⑥  | 손자의 울음소리(兒啼)   |
|           | ⑧  | 앉기 연습(習坐)      |
|           | ⑨  | 이가 돋아남(齒生)     |
|           | ⑩  | 기어다님(匍匐)       |
|           | ⑪  | 윗니가 나서(上齒始生)   |
|           | ⑭  | 처음 일어서서(始立)    |
|           | ⑮  | 걸음마(習步)        |
|           | ⑯  | 말을 배움(學語)      |
| 유아기(5-7세) | ㉓  | 젓니를 갈게 되어(毀齒吟) |

(1) 영아기(0-4세)

영아기는 신체 기관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구조가 정교해지면서,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성장하는 시기다(홍순옥 외, 2013). 일생 중 신체적 성장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 ‘성장 급등기’라 불린다(김미영, 2013).

보편적으로 영아의 치아를 유치 혹은 젓니라 한다. 젓니는 24개월~30개월경에 20개가 완성된다. 치아는 6~7개월 이후부터 앞니를 시작으로 8~9개월에는 어금니, 송곳니 순서로 돋아난다(홍순옥 외, 2013). 수봉도 7개월에 두 개의 아랫니가 돋아났다.<sup>25)</sup> 9개월에 윗니 2개가 났고, 10개월, 11개월에 한 개씩 더 나<sup>26)</sup> 정확히 발달주기를 따르고 있다.

신체가 성장함에 따라 운동능력이 급속히 발달한다. 대근육 운동은 기어가기, 서기, 걷기, 달리기 등으로 생후 1개월에 고개를 가누고 2개월경에 가슴을 든다. 영아의 최초 이동운동은 3~4개월경 뒤집기를 시작으로 7개월경 혼자 앉을 수

25) 이문건 저, 위의 책. 「齒生」: 生孩今七月 下齒生變箇.

26) 이문건 저, 위의 책. : 九月初, 上齒二箇始生. 十月初, 上齒右旁一箇添. 十一月旬後, 左一箇復添. 下齒露將停, 闕旬生上齒.

있게 된다(정옥분, 2012). 운동발달에는 개인차가 관찰되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아기들은 비슷한 시기에 기고 첫 걸음마를 하게 된다(곽금주, 김연수, 2014).

손자 수봉도 이러한 규준적 변화를 보여 6개월이 되자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앉기는 4개월경에 허리를 받쳐주면 앉아 있을 수 있다. 6개월경 바닥에 앉힌 후 중심을 잡아준 상태에서 잠시 손을 떼면 3~4초 정도 앉을 수 있다(김미영, 2013). 이문건은 손자의 앉기 연습 과정을 세밀하고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다.

### 「앉기 연습」

4개월이 되니 들춰 안아도 되고,  
고개를 제법 가누어 잡아주지 않아도 되네.  
6개월이 되어 앉아 있기도 하는데,  
아침저녁으로 점점 달라져 가는구나.<sup>27)</sup>

그리고 7~8개월경이 되면 대부분의 영아들이 기려는 노력을 보이다가 8~9개월경 기기 시작한다(김미영, 2013). 기기를 시도하는 묘사 역시 영상을 보는 듯 사실적이다.

### 「기어다님」

7월 보름 때 비로소 몸을 엮드려 기려는 형세를 짓더니, 8월 보름 후 기어 다닌다.  
사지를 펴 바닥에 의지하여,  
말이 서 있듯 엉거주춤 몸을 쳐드네.  
점점 기어 다닐 수 있으니,  
하늘의 이치(理致)는 진실로 속일 수 없구나.<sup>28)</sup>

평균적으로 9개월경이 되면 물건을 짚고 일어서게 된다. 10개월경에는 아기의 근육을 조절하는 능력이 무릎과 발까지 발달하여 두발로 설 수 있다. 일어서기와 걷기 능력의 발달은 뇌 발달과 신경계의 완성 및 뼈대의 발달을 수반한다(Montessori, 1949). 일어서기와 걷기는 조화로운 발달의 결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1월이 되자, 수봉도 어김없이 물건을 짚고 일어선다. 손자가 일어선 것을 절기의 힘찬 에너지가 상승하는 것에 비유할 정도로 이문건에게는 경이로운 일

27) 이문건 저, 위의 책. 「習座」: 四月堪提抱, 頸強不用扶. 六朔座能定, 朝哺覺漸殊.

28) 이문건 저, 위의 책. 「匍匐」: 七月望時, 始俯身作勢, 八月望後, 能運., 張肢以據地, 舉身如立馬. 漸能匍匐行, 天機眞不假.

이었다.

「처음 일어서서」

11월 15일 처음 일어섰다.  
이날 동지 전 수 일인데 또한 처음 스스로 일어섰다고 한다.  
두 손으로 다른 물건을 붙잡고,  
쪼그려 두 다리에 힘을 주네.  
이러길 한 달 남짓,  
점차 스스로 오금을 펴고 일어서네.  
동지(冬至)에 양(陽)의 기운이 되살아나니,  
네가 일어서는 것이 이 날에 맞추었구나.<sup>29)</sup>

그리고 11개월이 지나자 수봉은 초보적 걸음마를 시작한다.

「걸음마」

손으로 창문살을 붙들고,  
옆걸음질로 걸음마 연습하네.  
점점 한 발짝씩 떼기는 하지만,  
자주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는구나.  
쉴 사이 없이 움직이며 뒹굴더니,  
전날과 달리 여러 발짝을 떼네.<sup>30)</sup>

이문건은 손자의 신체 및 이동운동의 발달시기와 과정을 정확히 기록하였다. 수봉이 6살이 되어서 할아버지의 거처로 옮긴 것을 감안하면, 손자와 얼마나 밀착되어 시간을 보내고 집중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식견과 직관, 그리고 주의 깊은 관찰력이 뛰어났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언어발달의 첫 단계는 울음이다. 수봉은 잘 울지 않는 아기였다. 그래서 이문건의 걱정이 깊었다.<sup>31)</sup> 7개월 쯤 아랫니가 나면서 웅알이가 시작되고, 말 배우기가 나타난다.

29) 이문건 저, 위의 책. 「始立」：十一月十五日，是日，冬至前數日，亦如自立云。兩手提他物，蹲踞任兩足。如斯一朔餘，稍自伸股立。冬至陽復生，爾立會比日。祝汝步由茲，勿爲非橫跌。從容禮義塗，永言保終吉。

30) 이문건 저, 위의 책. 「習步」：引手攀窗櫺，橫步習移足。漸能運一步，數模蹶數立。轉動無歇時，累步異前日。向我舉兩手，笑投如畏跌。撫背更摩腮，携弄呼吾吉。轉動無歇時，累步異前日。

31) 이문건 저, 위의 책. 「兒啼」：時時幸復啼始作，只恐痒癢有不平。



### 「이가 돌아남」

젓을 빨며 제 에미 보고 웅알이 하며,  
점점 손톱을 잘근잘근 물어뜯는구나.<sup>32)</sup>

수봉은 정확히 24개월이 되자, 발음이 정확해지면서 주변인들의 말을 곧잘 따라했다. 보편적으로 영아는 18개월부터 보고 듣는 대로 따라하며 배우고 말할 수 있는 언어 성장의 정점에 도달한다. 점점 어휘를 습득하는 양과 속도가 급속히 발달하는데, 이시기를 ‘명명 폭발기’라 칭한다. 영아의 어휘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얼마나 풍부한 언어적 환경에 노출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Montessori, 1949; Kail, 2016). 수봉의 가정배경으로 볼 때, 온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할아버지의 사랑과 정성이 남달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봉의 언어발달의 과정은 정상적인 성장의 또 다른 징표이다. 수봉의 신체운동 발달은 보편적 발달범주 안에서 또래보다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 「말을 배움」

계축년(癸丑 1553년) 정월 초 2일 짓다.  
사람의 말 분명하게 흉내 내는 것이,  
나날이 전보다 나아지는구나.<sup>33)</sup>

#### (2) 유아기(5-7세)

이 시기는 영아기에 비해 신체성장 속도는 완만하지만, 신체와 운동능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성장한다(이기숙 외, 2015). 『양아록』에서 유아기 신체운동발달은 이갈이만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도 수봉이 연령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당시에는 7세경에 젓니가 한두 개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갈이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수봉은 이갈이도 또래에 비해 1년 정도 빨랐다.

이갈이가 시작되자, 이문건은 영구치가 빨리 나면 예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하였다.<sup>34)</sup> 또 아이의 빠른 성장은 불길한 성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못한다

32) 이문건 저, 위의 책. 「齒生」: 咬乳見母媿 爪囓稍能破.

33) 이문건 저, 위의 책. 「學語」: 效人言語了, 日日勝前時.

는 속설<sup>35)</sup>이 있어 걱정을 하였다. 노(奴) 노성(老成)과 수기(壽祺) 등이 자신들도 여섯 살에 이갈이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불안함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치아는 대체로 골격발달과 관련이 있다. 이가 일찍 나면 신체적인 성장에서도 빠른 경향이 있다. 이문건은 골수의 성장이 왕성해서 이갈이가 일찍 시작되는 발달적 특징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젓니를 갈게 되어」

손자가 끈 한가닥을 가지고 놀다,  
 씹어 끊는데 아랫니가 얽혀져,  
 갑자기 두 개가 밖으로 떨어지니,  
 입을 가리고 울며 그치지 않네.  
 사람들이 이가 부러진 줄 알고 놀라,  
 달래어 그치게 하고 자세히 살펴보는데,  
 새로 어금니 두 개가 뽀족이 돋아나 있으니,  
 그 속에 새로 나와 있는 줄 몰랐도다.

...

남달리 일찍 이를 가니,  
 어찌 진실로 골수의 성장이 왕성해 그런 것이 아니겠나?  
 네가 정월 초에 태어났으니,  
 7세 된 다른 아이들과 맞먹는다.  
 들으니 7, 8세가 되면,  
 의례 이를 갈기 시작한다는데,  
 이가 빠졌을 때 처음엔 두려웠으며,  
 너무 일찍 이 가는 것도 또한 달갑지 않아  
 필경 중론을 자세히 들어 본 후에,  
 의아해 하지 않았네.<sup>36)</sup>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손자는 그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이문건은 손자의 신체적 성장을 꼼꼼히 살펴며 잘 성장하고 있음에 안도한다.

34) 『默齋日記』: 1556-12-23 更疑速生齒爲非嘉.

35) 『東醫寶鑑』: 早坐早行早齒早語 皆惡性 非佳人.

36) 이문건 저, 위의 책, 「毀齒吟」: 兒將一條繩, 咬斷拘下齒. 兩箇忽外墮, 掩口啼不止. 人驚誤傷折, 誘止乃諦親. 新牙露雙尖, 不覺生諸裏. 戲繩眞偶齒, 適然如有使. 如何齣殊早, 豈眞因旺髓. 爾生在正初, 他兒七歲比. 聞之七八年, 例應齒始毀. 致傷既初懼, 速成又不喜. 畢竟詳衆論, 然後疑乃己. … 豈眞因旺髓. 爾生在正初, 他兒七歲比. 聞之七八年, 例應齒始毀. 致傷既初懼, 速成又不喜. 竟詳衆論, 然後疑乃己.

## 2) 건강과 안전

영유아기는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내포한다. 이 시기 건강과 안전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장우심 외, 2013). 영유아기는 성장과 발육이 왕성해지면서 인지적·정의적 발달 및 이동능력의 증가를 동반한다. 하지만, 그에 비해 자기의 신체 능력에 대한 이해 및 조절과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은 부족하다(김경화 외, 2011). 때문에 영유아기는 가족들의 우선적이고 절대적인 보살핌과 지원이 필요하다.

의술에 밝았던 이문건은 영아기에는 손자의 상태(울음, 변, 피부색 등)를 거의 매일 몇 차례씩 체크하였다(신동원, 2014). 손자가 자신의 상태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꼼꼼히 살폈던 것이다. 손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약과 함께 점복(占卜)까지 동원하며 치병에 힘쓴다. 유아기에는 활동성이 증가로 안전 사고에 대한 위험과 함께 이문건의 걱정도 늘어갔다. 사고에 대한 경계와 대응, 신체와 정서 건강까지 고려하며 보살핀다. 아동기에는 체질적 특성으로 인한 질 환과 그로 인한 건강 손상 및 영향력에 대한 보살핌에 치중한다.

<표 16> 「보양 - 건강과 안전」 내용

| 시기        | 순서 | 내용                  |
|-----------|----|---------------------|
| 영아기(0-4세) | ①  | 서문(序文)              |
|           | ⑥  | 손자의 울음소리(兒啼)        |
|           | ⑦  | 이·벼룩이 얹미워서 (憎蚤蟲)    |
|           | ⑫  | 이질을 앓아서(兒痢嘆)        |
|           | ⑬  | 이질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久痢嘆) |
|           | ⑰  | 학질을 앓아서(兒瘡嘆)        |
|           | ⑳  | 눈이 충혈되어(赤目嘆)        |
|           | ㉔  | 축원문-가문의 번창을 기원하여    |
| 유아기(5-7세) | ㉑  | 더위를 먹어서(暑瘡嘆)        |
|           | ㉒  | 손톱을 다쳐서(傷爪嘆)        |
|           | ㉓  | 이마를 다쳐서(傷額嘆)        |
|           | ㉔  | 경기를 일으키는데 안타까워(驚懼嘆) |

|            |   |                      |
|------------|---|----------------------|
|            | ㉕ | 마마를 앓아서(行疫嘆)         |
|            | ㉖ | 밥을 잘 먹지 않아서(厭食嘆)     |
|            | ㉗ | 손자가 할아버지를 잘 따라서(愛翁吟) |
| 아동기(8-12세) | ㉘ | 불고기를 먹고 탈이 나서(食炙嘆)   |
|            | ㉙ | 귓병을 앓아서(病耳嘆)         |
|            | ㉚ | 귀에 종기가 나서(耳腫嘆)       |
|            | ㉛ | 홍역을 앓아서(紅疫嘆)         |

(1) 영아기(0-4세)

조선사회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하여 ‘자식은 잘 길러야 반타작’, ‘대역(천연두), 소역(홍역) 다 치러야 내 자식’이란 언설이 퍼져있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후 가장 중요한 일이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기원하는 것이었다(최혜순, 양은호, 2010). 따라서 영아기 질병을 잘 다스리는 일이 육아에 가장 우선시 되었다. 이 문건은 수봉이 태어난 해 3월, 일체의 재액과 질병이 소멸·제거되어 장성하기를 기원하는 초제를 지냈다.<sup>37)</sup>

이어서 이문건은 아이의 울음에 관심을 가진다. 울음은 영아가 자신의 욕구와 상태를 표현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양육자는 울음의 패턴이나 고저, 강도를 통해 영아의 신체적 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심성경 외, 2013; 정옥분, 2012). 이문건은 손자가 잘 울지 않는 것이 신체의 문제로 인한 것은 아닌지 염려한다. 왜냐하면 영아는 울음을 통해 양육자에게 사인(sign)을 보내기 때문이다. 이문건은 손자의 무탈(無顛)을 바라는 심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손자의 울음소리」

손자는 태어날 때 응애응애 예닐곱 번 울더니,  
 그 후론 울음소리 멈춰 들어보지 못했네.  
 때때로, 태어나던 날처럼 다시 울기 바라는 건,  
 다만 병이 있어 평안치 못해 그런가 걱정돼서지.<sup>38)</sup>

37) 이문건 저, 위의 책. : 令臣等息兒一切災厄疾病, 得盡消除, 使獲長成, 不勝至願.

38) 이문건 저, 위의 책. 「兒啼」: 時時幸復啼始作, 只恐痒癢有不平. 時時幸復啼如作, 只恐痒癢有不平.

이어 이문건은 손자의 피부를 찬찬히 살핀다. 이와 벼룩에 물려 온 몸에 퍼져 있는 붉은 점을 발견하고 말 못하는 젖먹이의 고통을 안쓰러워한다. 이문건은 이와 벼룩에 물린 것을 ‘조물주의 시기심’에 비유한다. 해로운 모기, 벼룩, 이는 하늘이 인간을 미워해서 냈다는 속설<sup>39)</sup>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그가 기원했듯이 일체의 액은 손자에게 미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차라리 자신이 담당해서라도 손자를 안전하게 지키고자 ‘차라리 내게 오라’며 마음을 표현한다.

그리고 손자의 변도 관찰했다. 색과 모양, 농도 횡수 등을 꼼꼼히 관찰하며 건강상태를 살폈다.<sup>40)</sup> 손자는 생후 9개월에 설사가 시작되어, 이질을 한 달 이상 앓았다. 이문건은 이 과정을 두 편의 시로 기록했다. 당시에는 피할 수 없는 질병이 많았고, 의사의 진료를 받기도 어려웠다. 이문건도 “약물을 쓸 수 없으며, 의원도 없다”며 노심초사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문건은 무당의 축원으로 위로를 삼는다. 그는 무당의 기원 행위가 근원적 해결이 되지 못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혈육의 정이 앞서 허망한 것에도 의지하는 자신을 한탄할 따름이다.

### 「이질을 앓아서」

9월 2일 아침.

손자를 안아 무릎에 앉혔네.

방긋 웃으며 아장아장 걷다가,

그 때 한 방울 누런 설사를 하네.

이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더니,

이것이 이질의 시초였다네.

설사는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점점 붉은 색으로 변해가네.

...

무당을 불러 병을 낫게 하라 했더니,

날로 차도 있으리라 위로해주는데,<sup>41)</sup>

39) 『東國李相國後集』 제11권. 「問造物」: 予問造物者曰. 夫天之生蒸人也. 既生之. 隨而生五穀. 故人得而食焉. 隨而生桑麻. 故人得而衣焉. 則天若愛人而欲其生之也. 何復隨之以含毒之物. 大若熊虎豺獮. 小若蚊蟲蚤蠹之類. 害人斯甚. 則天若憎人而欲其死之也. 其憎愛之靡常. 何也.

40) 『默齋日記』: 1551-05-05 孫兒近日連有瀉泄, 其色青其狀滑淡白. 日內所泄或四或五, 面色淡白, 可慮也.; 1551-05-06 孫兒日瀉四五度, 色青如藍, 可疑.; 1551-05-07 淑吉尿色青, 度數亦頻.

41) 이문건 저, 위의 책. 「兒痢嘆」: 季秋廿一朝, 抱孫置膝上. 孩笑喜踏踏, 黃泄時一放. 謂是偶然爾, 從茲痢作恙. 日夜下不已, 漸有赤色樣. … 招巫令求解, 慰言差日向.

「이질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시월 그믐에 짓다.  
9월에 어찌다 병을 얻었는데,  
...  
한 달이 다 되어 10월이 되었는데도,  
설사는 계속되어 차도가 없구나.  
...  
조바심하는 마음은 드러내지 않으나,  
항상 생각하며 잠시도 잊지 않노라.<sup>42)</sup>

수봉이 3세에 학질<sup>43)</sup>, 4세에 안질을 앓자 다시 점쟁이에게 무당을 청하게 하여 기원하도록 한다. 당시 모든 질병은 사귀(邪鬼)의 조화이고, 사귀는 욕구 충족을 위해 인간세계를 넘나든다고 믿었다(최혜순, 양은호, 2010). 이를 보면 유교가 통치이념이었던 16세기에도 점과 굿, 독경, 주술과 같은 종교 행위들이 만연하였음을 알 수 있다(조현설, 2008). 의술에 상당한 지식을 가진 유학자였지만 손자의 치병(治病, 이질, 안질, 더위를 먹었을 때)에는 굿이나 점쟁이(金自粹)에게 수시로 자문을 구하며 주술적인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미루어보면 그는 굿과 무당의 신통력, 민속신앙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문건은 자신의 삶을 통해 불가항력(不可抗力)적인 존재의 영향력에 대한 두려움이 컸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손자와 관련해서는 더욱 민감함을 보이고 있음이 다음의 내용에도 나타난다.

「눈이 충혈되어」

갑인년(甲寅 1554년) 9월이 지난 후,  
손자의 왼쪽 눈에 처음 붉은 기미가 보이네.  
안질이 생겨 눈썹이 끼고 눈물이 질질 흐르며,  
흰동자에 핏발이선 것 같고 까칠까칠하구나.  
좀 지나 오른 쪽 눈도 또한 그렇게 되고,  
아침에 좀 덜해서 좋아했는데 저녁에 더 심해지네.  
...  
걱정이 심하다보니 혹 가리가 들어서인가 염려되어,

42) 이문건 저, 위의 책. 「久痢嘆」: 十月 晦, 作. 秋季偶有傷, … 月盡孟冬光, 連綿差未嘗. … 天性中心藏, 念念無時忘.

43) 이문건 저, 위의 책. 「兒瘡嘆」: 兒生第三歲, 潤三十七日. 得疾名是瘡, 先寒而後熱.

집쟁이에게 무당을 불러오게 하여 축원하도록 하네.<sup>44)</sup>

이렇게 손자의 치병(治病)을 위해서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건강하게 지켜주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 (2) 유아기(5-7세)

먼저, 유아기는 신체의 균형이 잡히고 감각기관의 협응력과 이동운동능력의 발달한다. 대근육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김일옥, 이정은, 2005). 이 시기는 활동성의 신장과 활동반경의 확장, 그리고 왕성한 호기심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문건은 손자를 ‘지나치게 놀기를 좋아하는 성품’으로 ‘위험이 없는 날이 없다’라며 한탄한다. 이는 손자가 성장해감에 따라 수봉에게는 늘 위험이 따라다니고 할아버지는 안전사고와 예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짐을 의미한다.

### 「더위를 먹어서」

손자는 놀기를 좋아하여  
한 때도 쉴 새가 없도다.  
땀이 나고 열이 날 만큼 뛰어 다니며 노는데,  
보통아이들과 덩달아 함부로 달음질치네.<sup>45)</sup>

### 「이마를 다쳐서」

손자의 성품은 놀기를 좋아하는데,  
보통아이 보다 몇 배 더 앞선다네.  
위험이 없는 날이 없으니,  
무슨 방법으로 만전을 도모할까?<sup>46)</sup>

역시나 할아버지가 걱정하던 일이 일어났다. 손자는 자귀를 가지고 놀다가 손톱을 심하게 다친다. 아물고 새로운 손톱이 나기까지 2개월여가 걸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가 출타한 사이 이번에는 이마를 심하게 다친다. 이문건은

44) 이문건 저, 위의 책. 「赤目嘆」: 甲寅九月望後際, 兒之左眼始見赤. 腫眶膏滯淚長流, 白睛如血親羞澁. 居然并右復如斯, 朝歇而嬉暮云劇. … 憂深反慮或有崇, 遺卜仍教招巫祝.

45) 이문건 저, 위의 책. 「署瘧嘆」: 兒心嗜戲遊, 未肯閑一時. 畏景劇流金, 浪走效常兒.

46) 이문건 저, 위의 책. 「傷額嘆」: 兒性戲好嬉, 此凡數倍先. 憑危無日無, 何方保萬全.

이를 ‘액운(厄運)’이라며, 자신의 불운한 운명과 연결 짓고 있다.

또 유아기에는 어두움이나 큰 소리, 새로운 상황에 대해 공포를 보인다(전남련 외, 2015). 체질이 허약한 수봉은 어두운 곳이나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자주 경기를 일으켰다. 이문건은 손자를 보살피며 이것 역시 자신의 운명으로 인한 영향은 아닌지 경계하면서 늘 두려워하였다. 그러면서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고 조절할 수 있는 시기(10여세)까지 더 아껴주고 정성껏 보살피주겠노라 다짐한다. 이문건이 굳이 ‘10여세까지’라고 연령을 한정된 것은 『동의보감』에서 “10세가 되면 오장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혈기가 통하기 시작한다”<sup>47)</sup>고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염병의 치료와 섭생을 통한 신체건강에 애를 쓰고 있다. 당시 전염병은 그 원인과 대응책을 몰랐기 때문에 감염률과 치사율이 높았다. 그래서 병이란 귀신의 힘에 붙잡혀 걸리는 것이라 믿었다(최혜순, 양은호, 2010). 특히, 천연두는 두신(痘神)이 몸에 강림해서 발병한다고 여겼다. 두신은 시끄러운 것을 싫어한다고 하여 이문건은 제사와 길쌈을 즉시 중단한다. 금기사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두신이 조용히 지나가기만을 빌었을 것이다. 그러나 손자도 어김없이 천연두에 감염되고, 이문건은 손자의 병세를 살피고 돌보며 속을 태웠다.

#### 「마마를 앓아서」

병진년 봄에서 여름 사이에,  
역기(疫氣)가 촌마을에 연달아 발생했는데,  
처음엔 가벼운 홍역(紅疫)이라더니,  
자세히 살펴보니 마마(天然痘)였네.  
먼 곳으로 부터 점차 인근에 퍼졌는데,  
먼저 아이들 때문에 두렵도다.<sup>48)</sup>

여기에 이문건은 해로운 음식을 절제시키며 ‘안신환(安神丸)’을 처방하고 ‘녹두죽’을 먹였다. 『목재일기』를 보면 안신환은 이문건이 손자가 잠결에 경기를

47) 『東醫寶鑑』: 人生十歲 五臟始定 血氣始通.

48) 이문건 저, 위의 책. 「行疫嘆」: 丙辰年春夏, 疫氣運村落. 初聞輕疹瘡, 諦審乃痘疫. 自遠漸近隣, 爲兒先惕若. 大事停祭先, 小務廢織作. 五月廿十日, 始染少僮僕. … 夏季當上弦, 南亭拜主牧. 孫兒隨我傍, 少啗家獐炙. 翌朝體氣溫, 倦因異常昔. 十日身轉熱, 惕動更頻數. 十一日乃視, 腕面朱點看. 由茲發不停, 三日三次出.



일으킬 때에도 먹었다.<sup>49)</sup> 아내, 아들, 손녀의 질환에도 수시로 처방한 것을 보면 가정상비약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안신환의 성분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신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풀이를 해 보면 역시 ‘두신’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하겠다(문혜경, 양진건, 2017: 173). 녹두는 해열 및 해독 작용이 탁월하고, 특히 천연두로 병세가 진행되었을 때 딱지가 생기도록 돕는다고 하여 신경 써서 먹인 듯하다.

그리고 손자는 과자만 좋아하고 밥 먹는 것을 즐겨하지 않아 이문건이 식사 때마다 달래보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밥을 잘 먹지 않는 손자와 먹이려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요즘 가정의 모습과 닮아있다. 이문건은 편식이 기혈(氣血)을 약화시켜 질병에 취약하고 회복도 느린 것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먹이려 애를 썼던 것이다. 하지만 일기 말미에 “아! 운명이 이와 같으니, 허공을 바라보고 휘파람 불며 떨어버릴 수밖에” 라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 이는 도연명(陶淵明)이 자녀들의 게으름을 책망하는 시(責子)를 떠올리게 한다. 도연명은 공부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자식들을 향하여 “천운이 이러하니 술이나 마실 수밖에 없구나(天運苟如此 且進杯中物).”라며 시를 마무리한다. 이러한 결말은 『양아록』의 곳곳에서 발견된다. 한 때 도연명의 시에 심취하여 그의 시 베끼기에 몰두했던 이문건이었기에<sup>50)</sup>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이문건은 인욕으로 삶을 거스르기 보다는 도연명과 같이 순리(順理)에 따르며 사욕을 초월함으로써, 인생을 달관하고 있는 것이다(노우정, 2013). 이는 오랜 삶의 경험과 배움의 결과가 노인세대의 특성과 어우러지면서 자연스럽게 삶과 인간에 대한 관조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된 것이다.

「밥을 잘 먹지 않아서」

할애빈 네가 밥 잘 먹길 바라건만,  
너는 어찌하여 밥 먹기를 싫어하는고?  
혹 한 끼라도 거를까 걱정되어,  
은근히 조석으로 달래보네.  
밥을 보면 먼저 즐기만 하고,  
하품 하다 끝내 싫어하며 물리치고 마네.

49) 『默齋日記』: 1556-09-04 兒初昏入睡驚惕. 乃與安神丸半介, 以水嚙下.

50) 『默齋日記』: 1553-04-13 近寫陶詩, 不下下家.

혹 달아나다가 돌아오고,  
혹은 자주 변소에 간다 핑계대네.<sup>51)</sup>

마지막으로 이문건은 손자의 정서적 건강을 보살핀다. 이 시기는 보살피는 사람(the care)과 보살핌을 받는 사람(the care-for)사이의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아이의 요구와 신호에 주목하여 일관성 있고 따뜻하게 반응하는 양육자는 보살핌을 받는 이에게 ‘안전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이은화, 2017). 손자가 젖을 떼 후, 이문건은 손자와 일상을 함께 하면서 사랑으로 보듬고 관계의 밀도를 높여갔다. 이러한 과정은 수봉에게 안정감을 주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한다. 조손간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손자의 행동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손자가 할아버지를 잘 따라서」

병진년(병진 1556) 봄에 젖을 떼고,  
내 잠자리에서 자라 불러 들였네.  
이불에 파고들어 내 가슴을 만지며,  
잠들 때면 내게 안기는구나.  
잠에서 깨어나면 할아버지를 부르고,  
내 가까이 오며 두려워 할 줄 모르네.  
손자가 잠자는 틈에, 일어나 책을 보다가,  
잠에서 깨면, 끌어안아 주었지.  
손자를 안아 눕히고 그와 더불어 잠자며,  
밤을 함께 지내고 항상 따로 놔두지 않았네.  
6월이 되어,  
마마로 고통을 당할 때,  
죽을 먹이는 일 똥 누이는 일을,  
일일이 할애비더러 해 달라 졸라대네.  
기쁜 마음에 스스로 꺼리지 않고,  
돌봐주니 기뻐하고 좋아하는구나.  
만약 할애비가 외출했을 때,  
날이 저물면 곧 슬픈 표정을 지으며,  
밤에 자야할 시간에 졸려도 잠자지 않고,  
애타게 기다리며 늦게 돌아온다 한스러하네.

51) 이문건 저, 위의 책. 「厭食嘆」: 翁心希爾飯, 爾胡爲厭食. 或恐一失飢, 殷勤侑朝夕. 見食先思睡, 欠伸終厭却. 或走浪回旋, 或托頰如廁.

집에 돌아오면 좋아하며 문에서 맞이하고,  
깡충깡충 뛰면서 기뻐하는구나.<sup>52)</sup>

### (3) 아동기(8-12세)

수봉은 열이 많은 체질이었다. 발열은 대개 감염을 수반하는데, 특히 귀의 감염이 흔하다(김일옥, 이정은, 2005). 연회에 참석한 수봉은 불고기를 먹고 탈이 났다. 수봉이 열이 많은 체질인데, 개고기도 더운 성질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열 때문에 입 안에 염증이 나 며칠 동안 밥을 먹기 힘들 정도였다. 이 후 남은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대성(大成)을 시켜 냇가에서 씻기게 했다. 이로 인해 수봉은 귓병에 감염된다. 이문건은 고통스러움에 할아버지를 붙드는 손자를 돌보며 ‘귀머거리가 될까’ 노심초사한다. 손자가 아프면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며 손자에게 집중하고 있다.

#### 「귀병을 앓아서」

개고기를 먹고 아파서 열이 났다.

...

한밤중에 갑자기 “오른 쪽 귀가 아프다.” 울부짖어,  
등잔불을 켜고 약을 썼으나 병이 낫지 않네.

...

열을 식혀주는 약을 달여 자주 먹이게 했으니,  
대개 귀병의 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

냄새나는 고름이 나오는데 고통을 어찌 감당하리?  
이로 인해 귀머거리가 될까 두렵도다.<sup>53)</sup>

열로 인한 귀 손상 이후 수봉은 귀에 다시 종기가 생겼다. 종기는 치료되기까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수봉을 크게 괴롭혔다. 이문건은 그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손자의 통증이 심해질수록 그와 비례하여 손자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자

52) 이문건 저, 위의 책. 「愛翁吟」: 斷自丙辰春, 呼令宿我帷. 入懷捫余乳, 入睡襯余肌. 覺來每呼翁, 近體無懼疑. 乘寢起看書, 輒覺起携持. 挽臥得復寢, 共夜常不遺. 及至夏之季, 染疫方痛時. 哺粥與遺便, 事事要翁爲. 欣然不自憚, 扶護歡怡怡. 翁如有外出, 日暮即生悲. 夜寢睡不熟, 侍苦恨歸遲. 還家喜迎門, 踴躍說心期.

53) 이문건, 위의 책. 「病耳嘆」: 食狗患熱 … 三更忽號痛左耳 取燈試藥病不已. … 爲煎涼劑勤服頻 大概欲歇耳猶因. … 受苦那堪出臭膿, 恐復從此成聵聾.

책과 고통도 깊어만 간다.

「귀에 종기가 나서」

4월 그믐, 귀 뒤에 종기가 생겼다.

...

귀가 아프다더니 이미 고름이 흐르고,

종기 기운이 귀 뿌리까지 뻗었네.

...

그 독이 턱밑까지 미쳐,

심하게 통증을 느끼며 만지지도 못하게 하네.

진 종일 여종 옥춘(玉春)이가 업고 다니는데,

밤내내 열이 화끈화끈.

...

찬물을 약삼아 먹으라 권해,

위(胃)의 번열(煩熱)을 씻어내려 하노라.

...

아! 누군들 병을 앓지 않으리?

내겐 유일한 손자이기에 더욱 걱정하는 것이라.<sup>54)</sup>

또다시 홍역<sup>55)</sup>이 마을에 퍼지고 수봉은 어김없이 감염된다. 발열과 온 몸으로 퍼지는 발진, 그로 인한 가려움증, 식욕부진의 증상이 두드러진다. 발병해서 완쾌까지 열흘이 걸렸는데, 그 과정이 할아버지에게는 참담할 수밖에 없었다. 치병의 과정에서 할아버지의 애정적 보살핌은 조손의 관계를 정서적으로 더욱 밀착시키고 있다.

### 3. 효(孝) : 입신(立身)을 강조하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다. 때문에 효는 유교사

54) 이문건, 위의 책. 「耳腫嘆」: 四月晦 耳後成瘍瘍 … 耳痛膿已潰 腫勢連耳根 … 其毒及頰下 痛不得捫 盡日婢(玉春)負行 終宵熱熿熿 … 勸服涼水藥 以泄胃中煩. … 噫彼孰無病, 以吾唯一孫.

55) 이문건, 위의 책. 「紅疫嘆」: 庚申當仲春, 疹疾人染苦. 孫兒赤未免, 熱煩呼吸粗. 粟痕始諸面, 次肢次背肚. 熾痒日夜劇, 爬搔手莫住. 勢歇苦稍輕, 身羸慎調護. … 首尾涿一句, 厥疾似云愈. 疫既誰最欣, 皤然有祖父.

상의 최고지선(最高至善)의 개념이다(정함문, 2014). 효도란 말 그대로 하면 부모를 받들어 공경하는 덕행(用力)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소효(小孝)에 불과하다. 인을 존중하고 의(義)에 안주하면서 생활하는 것(用勞)은 중효(中孝)다. 널리 민중에 은택을 베풀어 유감이 없게 하는 정도(不匱)에 이르러야 비로소 대효(大孝)라 할 수 있다.<sup>56)</sup> 동몽기에 있어 효의 훈련은 소효에서 시작하여 구체적인 생활 습관을 익히는 것이었다(이계학 외, 1994).

『양아록』의 중핵적인 내용도 ‘효(孝)’이다. 이문건은 거문고 소리를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해 연주법을 배워 연주할 정도로 극진하였다. 또 어머니 상을 당하여서는 조카 휘와 시묘살이를 하는 등 평소 생활 속에서 효를 실천하였다. 가정에서의 본보기를 통한 효(孝)의 실천이 곧 국가윤리인 충(忠)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일상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다. 이문건은 자신뿐 아니라, 성현을 통해 손자가 효에 대해 배우기를 원했다.

유학에서는 교육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을 잘 보전하고 길러 성인군자가 되는 것이라 정의한다(이기숙 외, 2002). 이러한 과정을 각 시기에 맞게 실천하는 것이 소효(小孝)에서 중효(中孝)를 거쳐 대효(大孝)로 나아가 인격의 완성을 이루는 것으로 중첩된다.

손자는 가계를 이을 실마리로서 출생 그 자체가 할아버지에게 기쁨을 주었다. 때문에 영아기에는 손자에게 어떤 지침을 주기보다 혈손이라는 존재만으로 할아버지를 비롯한 일가친족의 근심을 덜어냈다. 존재 자체가 효를 실천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유아기부터 이문건은 마음을 수양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훼손하지 말 것을 일관되게 가르친다. 이는 몸은 부모의 가지로 몸을 공경하는 것이 곧 효도의 근본이기 때문이다.<sup>57)</sup> 『소학』에서는 효도의 완성이 입신(立身)이라 하였다.<sup>58)</sup> 이문건도 효의 시작과 완성으로서 입신을 가장 중시하였다.

56) 『禮記』 「祭儀」: 孝有三 小孝用力 中孝用勞 大孝不匱 思慈愛忘勞 可謂用力矣 尊仁安義 可謂用勞矣 博施備物 可謂不匱矣.

57) 『小學』 「敬身」: 孔子曰 君子無不敬也 敬身爲大 身也者 親之枝也 敢不敬與 不能敬其身 是傷其親 傷其親是傷其本 傷其本枝從而亡.

58) 『小學』 「明倫」: 夫孝始於事親 中於事君 終於立身.

<표 17> 「효」 내용

| 시기           | 순서 | 내용                    |
|--------------|----|-----------------------|
| 영아기(0-4세)    | ②  | 손자의 출생을 기뻐하며          |
|              | ⑱  | 말을 배움 (學語)            |
| 유아기(5-7세)    | ②  | 손톱을 다쳐서(傷爪嘆)          |
|              | ⑳  | 자식의 죽음을 탄식하며(遭喪歎)     |
| 아동기(8-12세)   | ㉘  | 조급증을 경계하여(躁怒嘆)        |
| 청소년기(13-16세) | ㉔  | 마을에서 술을 마시는데(飲村酒嘆)    |
|              | ㉕  | 술 마시는 것을 경계한 글(少年醉酒戒) |

1) 영아기(0-4세)

이 시기 손자가 출생과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만으로도 효를 실천하는 것이라 여기고 있다. 이 시기는 할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의 전적인 보살핌만이 필요할 뿐이다. 당시 손자의 출생은 이문건에게 이전의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의 대 전환점(Turning Point)을 맞이하게 된 사건이라 할 것이다. 이문건의 절망적이고 무료한 삶은 손자가 태어남으로써, 심신은 물론 삶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문건은 “오늘 저 어린 손자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며”라고 하면서 유배 중에 손자를 얻은 기쁨을 시를 지어 자축한다.

「손자의 출생을 기뻐하며」

오늘 저 어린 손자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며,  
노년에 성인(成人)으로 성장해가는 모습 지켜보리라.  
귀양살이 쓸쓸하던 차에 마음 호뜻한 일이 생겨,  
내 스스로 술 따라 마시며 자축하네.<sup>59)</sup>

손자의 성장을 지켜보는 일은 세월이 가는 것도 잊을 만큼 이문건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 공자는 자신을 “분발하면 먹는 것도 잊고, 즐거워서 근심을 잊으니, 늙어가는 것도 잊는 사람”<sup>60)</sup>이라 하였다. 즐거움이 근심을 잊게 한다(樂以忘憂)는 말 속에 공자의 인생관이 담겨 있다. 이문건에게는 ‘손자’가 즐거움이

59) 이문건, 위의 책. : 今日喜看赤子, 暮年思見爾成童. 謫居蕭索翻舒泰 自酌春醪慶.

60) 『論語』 「述而」: 發憤忘食, 樂以忘憂, 不知老之將至云爾.

었다. 노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갈 길을 재발견하게 해준 존재인 것이다. 수봉은 이문건으로 하여금 삶에 진력(盡力)하게 하여 근심도, 늙어감도 의식할 틈을 주지 않는 절대적 존재였다.

「말을 배움」

커가는 손자 지켜보는 일 즐거워,  
내 자신 늙는 줄도 모르겠네.<sup>61)</sup>

2) 유아기(5-7세)

이문건은 손자가 6살 되던 해에 젖을 떼면서 자신의 거처로 데리고 왔다. 손자는 이때부터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할아버지를 잘 따랐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손자가 밤에 할아버지에게 입을 맞추자 할아버지가 이유를 묻는다. 손자는 “할아버지가 좋아서 그렇습니다”라고 답한다.<sup>62)</sup> 진정한 효는 외양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앞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라 했다. 수봉은 관계의 시간적 빈도가 증가하고,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존재로서의 효에서 손자에게서 발현되는 진정한 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문건은 철저히 유학적 지식을 체득하고, 평생을 유학적 테두리 안에서 살아온 지식인이다. 어린 손자에게 선한 심성과 부모로부터 받은 수족을 훼손치 말고 보전하라 가르친다. 이것이 유학이 가르치는 효의 근본이자 지향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효의 구체적 모습이기도 하다. 이문건은 손자가 손톱을 다친 상황을 증자를 매개로 유학교육의 지향점과 연결시킨다. 유아기는 분리된 개념보다 일상생활과 통합적으로 경험할 때, 더 잘 배운다(김영실 외, 2015). 손톱을 다친 손자와 평생 수족을 보존하기 위해 전전공공(戰戰兢兢)했던 증자를 등치시킨다. 이를 통해 유아기 손자가 실천해야 할 효도를 명쾌히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부모님께 받은 몸(身體髮膚受之父母)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이로써 부모를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61) 이문건 저, 위의 책. 「學語」: 喜見兒孫長, 仍忘己老衰.

62) 『默齋日記』: 1556-09-28 孫也去昏以口合我口 問如何爲是, 則答曰 “愛之故也”云云.

「손톱을 다쳐서」

다쳤을 때 놀랜 것을 매우 가련히 여겼는데,  
점차 손톱이 회생돼가니 기쁘도다.  
손가락 하나가 남과 같지 않으니,  
비록 심한 것은 아니지만 상서롭진 못하지.  
하늘이 온전하게 육신을 내려주셨는데,  
잘 보호하며,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손가락에 손톱이 없다면,  
평생 한이 남아 오래 가리라.  
옛날에 증자(曾子)는 수족을 온전히 보존하여,  
오랜 세월 아름다운 자취로 추앙받았으니,  
손자는 모름지기 이런 뜻을 유념해서,  
털끝 하나라도 감히 훼손치 마라.<sup>63)</sup>

반대로 부모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병이나 허약함으로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불효다(이계학 외, 1994). 온전치 못한 아들은 이문건의 평생에 근심의 대상이었는데, 손자가 7살 되던 해에 아들의 죽음을 맞이한다. 『목재일기』를 보면 아들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이문건은 아들 걱정으로 매일 병세를 살피며 노심초사했다. 아들의 죽음은 존재만으로 삶의 의미를 주는 손자에 대한 측은함으로 이어진다. 할아버지는 이 상황이 고통스러워 절규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자식의 죽음을 탄식하며」

정사년(丁巳 1557) 6월 25일,  
병든 애비 죽으매 그 옆에서 곡하네.  
애닦고 애달픈 너의 인생,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으니,  
훗날까지 아버지 얼굴 자세히 기억하려 애써야 하리라.  
...  
죽은 네 애비와 너, 너무도 가련하고 불쌍하여,  
슬픔에 겨워 때때로 문득 절규하노라.<sup>64)</sup>

63) 이문건. 위의 책. 「傷爪嘆」: 深恰傷際驚, 喜爪復常. 一指不如人, 雖非甚不祥. 天生百體具, 愛護不謹將. 指禿甲不存, 平生餘恨長. 昔賢啓手足, 千載仰遺芳. 兒須體此意, 一豪毋敢傷.

64) 이문건 저, 위의 책. 「遭喪歎」: 丁巳李夏廿五日, 病爺捐生哭其側. 哀哀爾生幼失怙, 後時面目爭細識. ... 悼亡恰爾兩難堪, 哀至時時便號絕.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수봉은 할아버지와 가족들의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 어리지만 몸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슬픔이 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 3) 아동기(8-12세)

아동기에도 이문건은 심신의 수양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신중하지 못하여 조금 하계 화를 잘 내는 것은 내면의 손상에서 기인한 것이라 보고 있다. 그래서 고자와 증자처럼 자신을 수양하면 심신이 온전하게 되고, 이로써 인간다움과 천성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에는 공자를 잘 배우는 것임을 점증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Piajet에 의하면 아동기는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된다. 유아기에 비해 사고는 급격하게 진전되지만, 가설자체를 받아들이는데는 어려움을 느낀다(Berk, 2012; 홍순정 외, 2013). 대상에 대한 친숙함과 상황의 구체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문건은 고자와 증자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 「조급증을 경계하여」

온순·공손하게 하며, 낮추어 스스로 수양하여,  
삼가 행동하며 고자(高子)와 증자(曾子)를 따르라.  
고자(高子)와 증자(曾子) 두 선생은,  
백세의 준척(準尺)이라.  
너의 조급하고 경망한 마음을 없애고,  
성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하라.  
인의(仁義)와 천성(天性)을 지키고 상실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공자(孔子)를 잘 배우는 것이라.<sup>65)</sup>

공자는 인간이라면 ‘인(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맹자는 인하지 않으면 나라와 천하를 잃게 되며, 결국 제 몸 하나도 보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sup>66)</sup> 아동기에 이르자 이문건은 ‘자기 수양 → 인함 → 성현을 따름 → 인의와 천성을 지키는 것’

65) 이문건 저, 위의 책. 「躁怒嘆」: 溫恭卑自牧, 訥慎追愚魯. 愚魯兩先師, 百世爲準矩. 去汝躁妄心, 克從先賢武. 操存不喪失, 是善學尼父.

66) 『孟子』 「離婁上」: 孟子曰 三代之得天下也 以仁 其失天下也 以不仁 國之所以廢興存亡者 亦然 天子不仁 不保四海 諸侯不仁 不保社稷 卿大夫不仁 不保宗廟 士庶人不仁 不保四體.

효'라는 연결고리를 직접적으로 강조한다. 아동기에 이룬 손자에게 수양을 통한 선성의 보존을 요구하는 것이다. 내면을 잘 닦으면 행동이 정돈되고 신중하여 천성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몸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은 내면적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다.

#### 4) 청소년기(13-16세)

이문건이 일관되게 바라는 것은 손자가 자기수양을 통해 심신을 온전히 보전하는 것이었다. 심신의 건강은 할아버지를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자, 효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문건은 부모의 유체로서의 신체 보전을 효라는 도덕성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다(이기원, 2017). 그러나 손자는 자신의 몸 하나도 온전히 지탱하지 못했다. 청소년기 수봉은 지나친 음주로 할아버지의 근심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문건은 손자의 성장 과정에서 일관되게 가르쳤지만 소용이 없다. 오히려 몸을 훼손하는 정도가 점점 심해졌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 「마을에서 술을 마시는데」

금년 숙길(淑吉)의 나이 14세,  
시골 사람들이 술 권하니 부끄럼 없이 마시네.  
손자 하나 이 지경으로 무심하게 행동해,  
할아버지 오히려 근심걱정 하네.  
늙은이 자식 잃고 손자에게 의지하는데,  
손자는 지나치게 술을 탐내 자주 취하네.  
빈번히 취하고 토하는 걸 한탄할 수도 없으니,  
기박(奇薄)한 운명이 얼마나 한스러운가?<sup>67)</sup>

수봉의 폭음은 할아버지의 기대와 가문계승에 대한 압력, 그로 인한 중압감의 탈출구를 찾는 생존방식일 수 있다. 자신을 학대함으로써, 할아버지에게 저항하는 방식이 작위적이다. 손자는 술로 자신의 몸이 훼손되고, 할아버지는 손자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애가 탄다. 기록으로 보아 '몸의 훼손과 걱정'이라는 상황이

67) 이문건 저, 위의 책. 「飲村酒嘆」: 吉也今年年十四, 村人勸酒不知羞. 一孫知此無心行, 老物猶懷得疾憂. 老翁無子우孫男, 兒性偏귀. 莫恨長醉吐, 數가命恨何.

지속적이고 반복적임을 알 수 있다. 효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문건은 두려움과 서글픔으로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손자가 술 마심을 경계하기를 바라며 글을 쓴다.

#### 「술 마심을 경계」

갑자년(甲子 1564년) 정월 초 2일에 쓰다.

15세가 안 되면, 혈기가 안정이 안 되어, 장부(臟腑)가 약하다. 예컨대 풀이 처음 싹트고 꽃이 처음 몽우리가 서는데, 불행히 서리와 우박의 재해를 당하면, 그 손상이 중하여 시들고 말라 죽는 것과 같은데, 어찌 재앙 없는 것과 더불어 함께 무성하여 아울러 꽃피우고 열매를 맺겠는가? 술의 해독은 잃는 것이 크고 유익한 점이 적으며 손해가 많고 이득이 적다. 비록 건강한 사람이라도 날마다 술에 취하면, 날로 쇠약해지고 달이 가면 사그러들어, 마침내는 몸이 몹시 나약해져 구제할 수 없다. 하물며 나약한 몸으로 해가 되는 것을 점점 많이 하게 되면, 혈액이 쉽게 파괴해지고 기(氣)가 쉬 손상되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당한다.

설령 자손 중에 술을 좋아하는 자가 있어, 그 해를 알지 못해 술을 마시며 그치지 못한다면, 눈은 빨개지고 정신은 어지러워지며, 구토하고 먹지 못하여 안으로 타버리고 밖으로 말라서, 장차 재앙을 만난 사물과 같이 될 것이니, 즉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된 자는 불쌍해 하고 애석해하는 정이 어떻겠는가? 손상된 것을 약으로 구제하려고 생각하지만 불가능하다. 취한 것을 보면 손상될까 걱정되고, 그 토하는 소리를 들으면 훼손될까 고민되어, 슬프고 슬퍼서 기쁨이 없으며, 근심에 근심되어 뜻을 잃어서 자애지심(慈愛之心)을 장차 베풀 수 없는데, 자손된 자는 어찌 그 마음을 합치시켜, 효성스럽게 순종하지 않는가? 술을 절제하고 취하는 것을 경계하여 일신을 보양하는 것은, 자신의 복이 되고 효도 중에서도 중대한 것이 된다.<sup>68)</sup>

#### 4. 예절(禮節) : 절제를 중심으로 두다

전통사회에서 우리 선조들이 가정을 중시했던 것은 가정이 단순히 주거만을

68) 이문건 저, 위의 책. 「少年醉酒戒」: 甲子 正月 初二日, 書. 年未十五, 血氣未定, 臟腑嫩弱. 如草始萌花始善, 不幸有霜雹之灾, 其傷必重無不萎枯者矣, 安得與不灾者, 同敷而並榮哉. 酒之熱毒, 損大而益小, 害多而利少. 雖強壯之人, 日向沈酣, 則日銷月鑠, 終至糜爛而莫之救. 況以嫩脆之身, 爲害轉深, 血易焦氣易傷. 不旋踵而見殃. 設有子孫之嗜酒者, 不知其害而求飲不已, 目赤神亂, 嘔吐不食, 中燥而外槁, 將與遇灾之物同歸, 則其爲父祖者, 憐憫愛惜之情, 何如哉. 思所以救藥其傷而不可及. 見其醉而憂其傷, 聞其嘔而憫其損, 悒悒無歡, 悄悄失志, 慈愛之心, 將無所施, 則爲子孫者, 盍體其心而孝順之乎. 節酒戒醉, 保養一身, 爲己之福, 而爲孝之大也.

위한 공간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인격 형성, 인간관계와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통찰했기 때문이다(김기현, 2012). 그래서 가정에서의 교육은 온 집안사람들의 몫이었다. 지식의 전수를 통한 배움보다 일상적 경험에서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였다. 조부모는 손자녀를 옆에 두고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씩 가르쳤다(양진건 외, 2013). 일상에서 익힌다는 것은 결국 ‘인간은 환경의 조성(造成)을 통해 형성된다’(이순형, 2000)는 말과 연결된다. 이는 인간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회적 존재임을 의미한다.

유가(儒家)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내에서의 삶을 사고하여, 공동체 속에서의 질서와 규범을 중시하였다. 개인은 철저히 공동체 속에서 성숙되어갔다(이상돈, 2013: 41). 교육에서는 명륜(明倫)이라 하여 인간관계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다. 인간에 대한 존경심을 기초로 각각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여긴 것이다(류점숙, 김경아, 2005). 가정에서 형성된 인간관계가 모든 사회적 관계의 원형이기 때문에(박영관, 2002) 가정에서의 예절교육은 철저하였다.

예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근본이다. 예로써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서로 간에 신뢰와 친목을 두텁게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몸의 피부와 근육, 골격 등의 결속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과 같다(김미라, 2012).

그러나 가정 안에서 수봉은 아버지와 돈독한 관계 맺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양아록』에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묵재일기』에도 수봉이 아버지와 함께 무엇을 했다거나 부자간의 감정 교류 등에 관한 기록도 없다. 다만 아들과 수봉이 이문건이 있는 남정으로 올라갔다거나, 다음과 같은 장면만 기록되어 있다.

아픈 아들이 며칠 동안 낮이 되기만 하면 꺾역(厥逆)을 해서 쓰러졌다고 한다. 숙길이가 이를 보고 묻기를, “왜 눈을 뒤집지요?”라고 하니 마음이 아프다.<sup>69)</sup>

수봉은 아버지의 병증에 대해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는 등의 감정이입이 보이지 않는다. 그저 일어난 상황에 대해 무미건조하게 질문할 뿐이다. 이는 영유아기 경험의 유형이 현재 수봉의 행위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Bruner, 1966).

69) 『默齋日記』: 1556-05-10 病子數日來每於晝日厥倒云. 吉兒見之問曰 “何以瞋目”云云. 可傷也.

이러한 부자관계를 바라보는 할아버지만이 가슴아파한다.

이어지는 일기에는 여섯 살이 된 “숙길이가 이제야 내려가 부모를 보고, 부모를 쫓아서 밖으로 달려 나가기를 그치지 않는다”<sup>70)</sup>고 하였다. 게다가 온은 병이 점점 심해지면서 거처를 마련하여 가족과 따로 지냈다. 때문에 수봉은 아버지와 애착 형성이나 관계 맺기, 예의범절 배우기가 불가능했다. 다만 수봉도 당시 관습에 따라 할아버지와 침식을 함께 하며 행동규범을 체득하였다. 관계를 가치 있게 여기며 인성 형성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교육과학기술부, 2011)에 일상의 삶을 통해 관계를 이어주는 이문건의 양육은 특정 활동 유형에 편중된 현대 인성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양아록』에는 이문건이 손자의 조급함과 절제하지 못하는 성품 때문에 걱정하는 내용이 곳곳에 등장한다. 그래서 예절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는 ‘절제’를 중점적으로 가르쳤다. 이는 영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다. 이문건이 절제를 강조하는 것은 수봉의 성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려면 무엇보다도 아이를 잘 알고 이해해야 한다(korczak, 2002; 방성혜, 2013). 이문건은 손자에 대해 ‘주지 않으면 성내며 울고 보챈다’, ‘뭘 보기만 해도 마음이 먼저 따라 간다’, ‘옷을 잘 벗어 제친다’, ‘화 잘 내는 아이’, ‘되바라진 손자’, ‘도량이 부족하다’, ‘남이 제 뜻을 거절하면 싫어한다’, ‘온화하고 유순한 면이 적다’, ‘좋아하는 게 있으면 절제하지 못 한다’, ‘성품이 조급하다’ 등으로 묘사한다. 그러면서도 손자의 자질이 ‘완악하고 사나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문건은 손자가 선천적으로 억세고 고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급하여 조심성이 없고, 자기중심적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기본적 생활교육으로써, 절제를 중심에 두었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322)는 자신에게 원칙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고, 그 행동에 따른 쾌감 외에 다른 쾌락에 대해 선호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절제(sōphrosynē)라 정의했다. 그래서 절제야말로 인간 최고의 미덕이라는 것이다(박장호, 2015). 풀이해 보면, 절제하는 사람은 바른 행위에 대한 원칙과 신념이 분명하기 때문에 욕구를 조절하여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절제는 충동적인 욕구충족을 지연시키고, 타인을 위해 행동하도록 양심을 자

70) 『默齋日記』: 1556-06-25 淑吉始下見父母, 從此出走不已.

극하는 내적 매카니즘(전남련 외, 2015)으로써 손자의 예절교육의 핵심이 되고 있다.

<표 18> 「예절」 내용

| 시기           | 순서 | 내용                    |
|--------------|----|-----------------------|
| 영아기(0-4세)    | ⑤  | 조카 이염(李堧)의 축시         |
|              | ⑭  | 처음 일어서서(始立)           |
|              | ⑰  | 학질을 앓아서(兒瘡嘆)          |
| 유아기(5-7세)    | ㉑  | 더위를 먹어서(暑瘡嘆)          |
|              | ㉕  | 마마를 앓아서(行疫嘆)          |
|              | ㉙  | 종아리를 때림               |
| 아동기(8-12세)   | ㉛  | 불고기를 먹고 탈이 나서(食炙嘆)    |
|              | ㉞  |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撻兒嘆)      |
|              | ㉠  | 조급증을 경계하여(躁怒嘆)        |
| 청소년기(13-16세) | ㉡  | 취주(醉酒)에 탄식하여(警醉嘆)     |
|              | ㉣  | 마을에서 술을 마시는데(飲村酒嘆)    |
|              | ㉥  | 술 마시는 것을 경계한 글(少年醉酒戒) |

#### 1) 영아기(0-4세)

영아는 생후 2개월경이 되면 자신을 일상적으로 돌봐주는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 그 과정에서 애정 어린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된다(김미영, 2013). 영아는 생후 6~8개월 사이에 주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영아가 특정 인물에게 안정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그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낯선 상황에서도 그의 존재로 인해 위안을 받고 안전감을 갖게 된다(정옥분, 2012: 371). 이렇게 형성된 안전감이나 신뢰감은 다른 사람과의 안정적 관계 발달에 도움을 준다(전남련 외, 2015). 이는 성장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끊임없이 연결되고 확장되는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

애착 유형은 영아기 이후의 삶에 대한 적응력을 예측할 수 있는 단서이자, 핵심적인 발달과업이다. 수봉은 아버지와 일반적인 부자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다.

아버지 온은 몸이 온전치 못해 늘 자신의 건강문제로 자식을 보살필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수봉에게 할아버지는 온전히 의지할 대상이었다. 일례로 이문건이 아픈 아들을 살피고 손자에게 갔을 때, 손자가 소매를 당기며 매달려 밤이 되어서야 당(當)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sup>71)</sup> 그만큼 손자는 할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랐던 것이다.

이 시기 또 다른 특징은 감각이 지식의 재료가 된다는 것이다(Rousseau, 1762). 이는 처음 몇 년 동안 어린이의 진정한 교육은 접촉하고, 맛보고, 씹어보고, 촉감을 느끼는 것 등을 통해 진행되어야 함(Ellen Key, 1900)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아는 글이나 말이 아닌 온몸으로 주변 사람 및 사물과 교감하며 알아간다(안경식, 2003). 감각을 통해 영아는 부모의 표정을 읽고 자신의 환경(분위기, 습관, 결점 등)을 파악하며, 그대로 흡수한다(Montessori, 1949; korczak, 2002). 양육자의 성품과 행실, 영아의 요구에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예절교육은 영아보다는 양육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문건과 조카는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조카 이염은 축하 시에 손자를 양육함에 지나친 수용과 관대함, 과잉보호보다는 ‘적절함’을 유지할 것을 권면한다. 즉, 중용의 도를 잘 따르는(안세희, 김은주, 2018) 양육자의 절제를 이르는 것이다.

원컨대 너무 귀하게도 너무 과보호하지도 마시고, 다만 평범하게 기르소서.<sup>72)</sup>

이문건은 조카의 제안에 ‘이것은 실로 아름다운 뜻’이라며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지나친 사랑은 원만한 인격형성에 방해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적절한 사랑과 훈육을 통해 손자를 잘 양육할 것임을 다짐한다.

그리고 걸음마를 시작한 손자에게 절제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이문건은 양의 기운이 사그라들었다가 동지를 기점으로 다시 소생하기 시작하는 음양오행의 순환원리를 손자의 성장단계에 빗대어 설명한다. 걸음마를 시작한 것을 대길(大吉)의 첫걸음을 떤 것으로 치환시킨다. 그러면서 절제의 구체적 모습을 알려준다.

71) 『默齋日記』: 1553-03-06 暮, 下見病子, 則眩運心懼云云. 歷見妻孥 吉兒挽袂不解 夜乃還堂.

72) 이문건 저, 위의 책. : 願勿爲甚貴甚護, 但委諸尋常而養之.



“잘못 디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를 추측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걸음마를 시작하여 아직 다리에 힘이 없고, 걷기에 미숙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한발 한발 내딛으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용지사와 관계에 있어 삼가고 살피라는 것이다. 뒤에 ‘차분히 예의를 지키라’는 구절과 연결 지어 보면, 행동함에 신중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예를 따라야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고 대길할 수 있음을 일컫는 것이다.

### 「처음 일어서서」

11월 15일 처음 일어섰다.

이날 동지 전 수 일인데 또한 처음 스스로 일어섰다고 한다.

...

동지(冬至)에 양(陽)의 기운이 되살아나니,

네가 일어서는 것이 이날에 맞추었구나.

걸음마하기 시작한 걸 축하하니,

잘못 디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마라.

차분히 예의를 지키고,

오래도록 대길하기 바라노라.<sup>73)</sup>

우리 조상들은 세 살이 되면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하여 버릇들이기를 시작하였다(최혜순, 양은호, 2010). 이문건은 좋아하는 음식만을 먹으려 하고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고집부리며 보채는 손자의 행동을 염려한다. 왜냐하면 어린이의 욕구가 언제나 쉽게 충족 되면 아이의 욕구는 끊임없이 커지고, 이는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Bueb, 2012; Platon, 2016; Rousseau, 1762).

이문건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쇠고기와 생과일을 주지 않아야 하지만, 아이가 떼를 쓰면 주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Dilemma) 상황에 처한다. 그래도 할 아버지는 손자의 건강을 위해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함을 가르치면서 절제를 가르친다. 이문건은 이 시기부터 절제할 줄 아는 삶에 대해 고민한다. ‘이것이 절실한 문제’라며 손자 양육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결국 절제는 손자가 성장하여 정신과 식견이 자라야 가능하고, 양육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시 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73) 이문건 저, 위의 책. 「始立」: 十一月十五日, 始立. 是日, 冬至前 數日, 亦始自立云. … 冬至陽復生, 爾立會此日. 祝汝步由茲, 勿爲非橫跌. 從容禮義途, 永言保終吉.



### 「학질을 알아서」

항상 또 다른 병에 걸릴까 걱정되어,  
음식물을 잘 골라 먹이고자 하네.  
쇠고기와 생과일이,  
어린이에게 병을 잘 걸리게 한다는데,  
사람을 보면 이걸 달라,  
울부짖으며 찾아대 절제할 줄 모르네.  
주고자 하나 위장을 상하게 할 것 같고,  
주지 않으면 성내며 울고 보채네.  
장차 어떻게 적당히 조절할까?  
이것이 절실한 문제로세.  
언제 장성하게 되어,  
백 가지 근심 하나라도 덜어주게 될꼬?  
손자야! 너도 네 아이 키워본 후에라야,  
마땅히 절로 알게 되리라.<sup>74)</sup>

### 2) 유아기(5-7세)

우리 조상들은 가소성이 풍부한 유아기를 기본생활습관 형성의 적기(適期)로 여기고 덕성함양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유학에서 유아기에는 예절 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심리상의 ‘절제’나 행동상의 ‘절도’를 강조하지 않았다 (이기숙 외, 2002; 안경식, 2005; 선우미정, 2017). 그럼에도 이문건은 섭생과 언어 사용의 절제를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체질적으로 허약하여 병치레가 잦았고, 조급한 성품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언행에 조심성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문건은 손자가 섭생에 있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일단 어리기 때문이라 규정한다. 그 특징은 “항상 마음이 먼저 따라가고, 이해하지 못하며, 위엄을 보이기 어렵다”며 안타까워한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가르칠 것임을 다짐한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의 기대와 설득은 수봉의 자기조절력의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양옥승, 이정란, 2003).

### 「더위를 먹어서」

지금 아직 어린 나이라서,

74) 이문건 저, 위의 책. 「兒癘嘆」: 常恐更患新, 欲探飲食物. 牛肉與生果, 善作小兒疾. 見人啗此味, 叫索不知節. 欲與即傷脾, 不與怒啼急. 將何能適中, 此復關念切. 何時致長成, 百憂庶除一. 兒乎養汝兒, 然後當自悉.

뭘 보기만 해도 마음이 먼저 따라가니,  
 깨우쳐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꾸짖어도 위엄보이기 어렵네.  
 보살피고 기르는 일 진실로 쉽지 않으나,  
 어찌 감히 어렵다 해서 소홀히 하리요?  
 늙은 할아버지 마음인 까닭에,  
 날마다 여기에 마음 두고 있노라.<sup>75)</sup>

『사소절』에서도 남자아이는 뛰기를 좋아하고 짠 음식을 좋아한다고 했다. 이로 인해 열이 많고 조갈이 심해 절제 없이 물을 마셔 고질을 이룬다 했다. 때문에 조용한 버릇을 익히고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sup>76)</sup>는 것이다. 이문건이 수봉의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본래 예는 먹고 마시는 행위규범으로부터 출발되었다(전병술, 2016). 이문건도 손자의 편식과 식사태도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 손자가 오랫동안 마마를 앓고 완치가 되어 상태가 호전되어지자 할아버지는 음식을 조절하며 절제시킨다. 그러나 심하게 앓고 난 후 음식에 대한 기호가 바뀌어,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절제시키기가 쉽지 않음을 토로하고 있다.

**「마마를 앓아서」**

점점 잘 자고 잘 먹었으나,  
 해로운 음식은 절제시키네.  
 평소 술과 과일을 좋아했는데,  
 위가 약해져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네.  
 이로부터 좋아하는 음식을 더욱 편식했으며,  
 비록 금지하고자 하나 또한 억제하기 어려워라.<sup>77)</sup>

유아기는 자기중심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르는 직관적 사고의 특성을 보인다(천은영, 김경신, 2014; 정유리, 권귀염, 2017) 또 다양한 정서가 출현하면서 자기주장을 하기 위해 반항적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유안진, 1990). 사회적 상호

75) 이문건 저, 위의 책. 「暑瘧嘆」: 今尙幼穉際, 見物意先隨, 喻之不能解, 訶之又難威. 保養誠不易, 豈敢以難驟. 所以老翁心, 念茲日在茲.  
 76) 『士小節』 「童規」: 童子善跳躍 善鹹食 故多熱多渴 以致飲水無節 多成痼疾 夫習安靜慎飲啖亦孝順之事也.  
 77) 이문건 저, 위의 책. 「行疫嘆」: 稍稍眠食便, 節以妨害物. 平居樂酒果, 胃弱不嗜食. 由來好尤偏, 雖禁亦難抑.

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언어발달도 가속화된다(정옥분, 2016). 때문에 이 시기 바른 언어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조선은 예절과 법도를 중시하여 욕설은 처벌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양반다운 언행이 교육의 핵심내용이었다(최혜순, 양은호, 2010). 특히 언어는 개인의 인품을 평가하는 척도이자, 가도(家道)와 가문 보존의 핵심으로서 항상 삼가고 조심하도록 가르쳤다(우영희, 1991). 유아의 상소리 사용은 품위와 교양에 방해되는 것으로, 체벌을 통해 엄격히 규제하였다(유안진, 1986).

수봉의 노닥이는 말이 잡스럽고 쌍스러워 할머니가 야단을 쳤다. 이에 수봉이 분하게 여기며 반항한다. 유아의 기질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양옥승, 이정란, 2003; 홍성훈, 조은정, 2010; 윤지원, 도현심, 2017; 김옥희, 2018). 기질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수봉은 할머니에게 거침이 없다. 단지 자신을 제어했고, 불쾌하게 했다는 것에 분을 참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반항은 유아기 자아 통제력의 약화에 기인한다(김수정, 정익중, 2017). 일의 전후를 헤아리지 못하고 막무가내인 손자를 할아버지가 체벌로 엄격하게 가르친다. 이문건은 도량이 부족한 손자에게 그 자리에서 잘못된 점을 분명하게 인지시키고 있다.

이후 이문건은 이 문제에 대해 손자와 지속적으로 대화한다. [상스러운 말→꾸짖음→반항→체벌]이라는 과정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타인이 자신에게 행한 것만을 선택적이고 부정적으로 각인하는 유아에게 효과적이다. 이 과정은 어린 수봉이 할아버지를 매개로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손자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며 잘못을 인정한다. 여기에서 이문건의 탁월함이 발견된다. 잘못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지만, 즉시적인 변화를 강요하지 않는다. 손자가 이해하여 깨달을 때까지 그 과정을 충분히 거치도록 한다. 유아기 절제를 훈련하는 자기수양의 적절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절제는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천성을 훼손하지 않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이다(김정화, 2017). 어린 손자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을 다스리며 본성을 유지하는 자기수양의 훈련이 되고 있다.

「종아리를 때림」

노닥이는 말이 잡스럽고 쌍스러워,  
할머니가 꾸짖으며 금지시키네.  
되바라진 손자는 반성하지 못하고,  
도량이 부족하여 분하게 여기며 반항하네.  
7세면 점차 지혜가 성장할 나이기에,  
그러지 말라 하는 것이지.  
똑바로 서게 하여 바지를 걷어 올리게 하고,  
종아리를 때리며 꾸짖고 가르치네.<sup>78)</sup>

3) 아동기(8-12세)

아동기는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통한 습관화 교육이 완성되는 시기으로써, 유아기와 달리 절제나 절도가 강조된다(안경식, 2005). 할아버지는 공적인 자리에서 손자의 성품으로 인해 야기되는 행위와 이로 인해 자리 잡은 나쁜 습관에 대해 가르친다. 그리고 사대부로서 지향해야 할 모습을 구체화시켜 준다.

「불고기를 먹고 탈이 나서」

3월 20일 남쪽 정자에 올라,  
성주목사, 휘하의 관리들과 손님을 맞아 노네.  
집노루 불고기가 스무 꼬치 남았는데,  
손자가 내 옆에 앉아 맛있게 먹네.  
그 뜨거운 고기점이 손자의 식성에 맞지 않아서,  
네 다섯 꼬치 먹은 것이 이미 위를 상하게 한 것이라.  
진실로 손자의 열이 더 나는 것 같아,  
절제하여 많이 먹지 말라 타일렀네.  
...  
손자야! 열병이 분디 너의 고질병이니,  
모름지기 술과 불고기 전부터도 조심해야 하지 않았는가?<sup>79)</sup>

이문건은 손자에게 예절을 가르침에 있어 악습의 기미가 보이면 그 즉시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리고 손자가 할아버지의 꾸짖음의 의미를 깨달아 교

78) 이문건 저, 위의 책 : 戲言難淫穢, 王母訶禁止. 驕稚靡克省, 踰器爲憤使. 七歲智漸長, 不可令遂此. 教立揭其衣, 撻腿讓以理.

79) 이문건 저, 위의 책. 「食炙嘆」: 暮春念日於南亭, 半刺登臨遊客慰. 供炙家獐餘廿次, 孫隨余側嗜其味. 燥熱之物性非良, 四五串來已傷胃. ... 兒乎痼熱爾素患, 酒炙從來須忌諱.

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

아이의 종아리를 때리는 건 내가 악독해서가 아니요,  
아이의 나쁜 습관을 금지시키기 위해서라.  
만약 악습(惡習)을 금지시키지 않으면,  
고질이 되어 끝내 금지시키기 어려우리.  
악습(惡習)의 기미는 초창기에,  
바로 꾸짖고 금해야 하는 법.  
내가 화내는 까닭은,  
화 잘 내는 아이를 회초리로 징계하여 절제시키려는 것.  
...  
언제 아이의 지혜가 밝아져,  
때가 되면 스스로 허물을 알게 될꼬?  
할애비 마음 헤아려야 할 것이니,  
개선하길 바라는 것이 참으로 지극한 정이라.<sup>80)</sup>

인은 관계를 통해서만 양성되고 성장될 수 있었기 때문에 유가에서 예절교육의 중심은 인간관계이다.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관계중심의 관점으로 옮기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신배화, 2017).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성질과 도량이 관후하여 자신의 허물에 엄격하고 타인의 잘못에 관대하여 화목하기를 주의시켰다(이정덕, 송순, 1993).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

아이는 남이 제 뜻을 거스르는 건 싫어하면서도,  
거슬리게 해서 안 된다는 건 일찍이 깨닫지 못하네.<sup>81)</sup>

예절은 습관이고 일상이 되어야(Bueb, 2012) 하기에 이문건은 손자가 일상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수양의 과정에 힘쓰기를 가르쳤다. 자기수양은 절제와 예를 갖추게 하여 바른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공자도 ‘절제하는 사람은 실수가 거의 없다’<sup>82)</sup>고 했다. 그래서 공자는 제자 안연이 인에 대해 묻자 ‘자신을 이겨

80) 이문건 저, 위의 책. 「撻兒嘆」: 撻兒我非惡, 冀禁兒習惡. 惡習如不禁, 靡適終難禁. 習氣初起時, 正是訶禁時. 所以起吾怒, 楚懲制兒怒. … 安得兒智明, 時能自啓明. 可揆老翁情, 冀善眞至情.

81) 이문건 저, 위의 책. 「撻兒嘆」: 兒嫌所欲拂, 不會知忤拂.

예로 돌아가는 것(克己復禮)'이라 했다. 그러면서 사물(四勿)을 제시했다.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말라<sup>83)</sup>는 것이다. 이이도 『격몽요결』에서 사물이 수신(修身)의 요점이라고 했다. 즉 예와 예가 아닌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자기 수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플라톤도 『국가』에서 '자기를 극복하는' 자기 수양, 즉 절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교양인으로서의 질서(Platon, 이향만 편저, 2006)라고 하였다.

이문건도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는 것(有諸內, 必形諸外)이기에 (대한한의직단학회, 2014), 손자의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상정하고 있다 (한창덕, 2017). 손자의 조급함과 화, 불손함, 욕, 주먹질은 마음에 기인했다는 것이다. 결국 수양은 자기 극복을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 자신의 내면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로써 온순·공순하여 겸손하고 신중한 태세가 체화되어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 「조급증을 경계하여」

나날이 조급하게 화를 냄으로써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로 인해 손자가 잘 고치지 않을까 두려워, 이를 써 놓는다.  
 손자의 품성이 온화하고 유순한 면이 적어,  
 일이 있으면 먼저 조급히 화를 내네.  
 손자가 불렀을 때, 금방 미치지 못하면,  
 남의 말을 비웃고 능멸하기 일수요.  
 눈을 부릅뜨고 문득 성질을 부리며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마구 내젓는다.  
 간풍(肝風)이 왕성한데.  
 그 징조가 아직 치유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로 인해 마구 나쁜 말을 해서  
 이것이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  
 마음을 수양하여 덕을 갖추면,  
 모든 행동에 잘못이 없게 되리라.<sup>84)</sup>

82) 『論語』 「里仁」：子曰以約失之者鮮矣.

83) 『論語』 「顏淵」：顏淵問仁 子曰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顏淵曰請問其目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顏淵曰回雖不敏 請事斯語矣.

84) 이문건 저, 위의 책, 「躁怒嘆」：每於日時間, 仍躁怒有失, 故惧其不善改也, 題此. 稟生少和柔, 觸事先躁怒. 喚取或未及, 人言涉嘲侮. 瞋目輒詈詈, 揮拳擬敲拊. 無乃肝風盛, 證兆會未愈. 因之發悖言, 不幾禍自取. ... 澡心心以浴德, 百行無所盡.

#### 4) 청소년기(13-16세)

청소년기의 뇌는 ‘감정의 뇌’가 ‘사고의 뇌’보다 먼저 발달하기 때문에 다양한 감정을 표출한다. 반면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은 덜 발달되어 부정적인 감정(공격성, 분노 등)은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다(신재한, 2015: 27-28). 수봉의 감정 조절능력도 매우 취약해 보인다. 이것은 비단 이 시기에 이르러 발생한 것은 아니다. 영유아기부터 자기조절능력의 취약함은 할아버지의 가장 큰 근심거리였다. 이렇게 자기조절력이 낮은 청소년기 아동은 감정의 이중성과 내면의 두려움 및 불안이라는 정서를 경험한다고 한다. 이러한 정서는 그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최효숙, 2013: 145). 이러한 특징으로 볼 때, 수봉에게 나타나는 행동에서 수봉도 유사한 정서를 경험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계해년(癸亥 1563년)에 쓴 일기를 보면 이문건은 집주인 배인손(裴仁孫)의 초대로 손자(13세)와 참석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듯하다. 이문건은 손자가 절제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손자의 어리석음을 한탄한다.

##### 「취주(醉酒)에 탄식하여」

지금쯤 한창 지식(知識)이 성숙할 때이며,  
시비를 익히 분별할 나이가 됐는데,  
이렇게 어리석고 못나서,  
좋아하는 게 있으면 절제하지 못하네.  
늙은 할아버지가 당연히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일부러 술이 깰 때를 기다리네.<sup>85)</sup>

“평소 술과 고기를 좋아했는데(1556)”라는 기록을 보면, 수봉은 꽤 어린시기에 술을 접했고, 이로 인해 종종 탈이 났었음도 알 수 있다. 이후에는 술을 좋아하여 거절하는 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봉은 9살 때 할아버지를 따라간 연회에 가서 불고기를 먹고 탈이 났었다. 이 때 이문건은 손자에게 “술과 불고기를 전부터 조심하라”며 타일렀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술에 취해 반복되는 실수는 할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85) 이문건 저, 위의 책. 「警醉嘆」: 今方知識長, 是非習以別. 昏蒙至如斯, 嗜慾勝氣節. 老夫當警策, 姑可待醒敬.



문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14세에 이른 손자는 여전히 술을 절제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들이 술을 권하면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행동하여 할아버지를 상심시킨다. 이 시기는 가족의 근원에 대한 정서적 의존을 하면서도, 동시에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반항적인 사회적 독립 시기이다(Klein, 1990). 수봉의 행동은 청소년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할아버지의 권위에 대해 반항하는 듯하다. 이덕무도 『사소절』에서 술 마시는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내가 만약 술을 마시게 되었을 때, 전에 혹시 술 취함으로 인하여 행동을 잘못했거나 너무 마셔 병이 났으면, 술자리를 대할 때마다 반드시 전에 실수하고 병난 일을 깊이 생각하여 명심하고 경계하여 약간 얼근해지면 급히 그만두어, 방자하게 마시어 기운이 어지러워져서 다시 전일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sup>86)</sup>

위 내용은 손자가 자기 성찰을 통해 절제하기를 바라는 이문건의 마음과 일맥상통한다. 유학에서는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뉘우치거나 고칠 줄 모르는 자를 하등인(下等人)<sup>87)</sup>이라 여겼다. 이문건이나 이덕무도 자기 성찰을 통한 개선의 당위성에 있어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수봉은 술로 인해 탈이 나고 예의 없는 행동으로 훈계를 받았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지 못했다. 그로 인한 절제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다.<sup>88)</sup> 퇴계조차 술을 마시면 마음이 놓여 함부로 행하게 되어 평생 경계하고 두려워했다.<sup>89)</sup> 이문건 역시 손자가 스스로 경계하며 삼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 「술 마시는 것을 경계한 글」

내가 하나밖에 없는 손자를 기르는데, 여러 번 경계하도록 했으나 반성하지 않고, 술 취하고 구토하여 밥을 못 먹은 적이 매우 잦다.<sup>90)</sup>

『논어』에는 애주가였던 공자의 음주습관을 “술은 무한정으로 마시되 흐트러

86) 『士小節』 「士典」: 我若飲酒, 而前日或因醉失儀, 過飲生病, 每當酒席, 必猛思前日失儀, 生病之事, 銘心警惕, 微醺極止, 不至恣飲亂氣, 復續前非, 可也.

87) 『小學』 「嘉言」: 過而不知悔 下等人也. 悔而不知改 下等人也.

88) 이문건 저, 위의 책. 「飲村酒嘆」: 兒性偏嗜麴蘖醢.

89) 『退溪集』 「言行錄 1」. 類編.

90) 이문건 저, 위의 책. 「少年醉酒戒」: 吾養得一孫, 屢戒而不省, 醉嘔不食者, 甚數.



지지는 않았다.”<sup>91)</sup>고 했다. 공자는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예에 어긋남이 없었다는 것이다(김준혁, 2014). 이문건은 손자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음주를 경계할 것을 다시 타이른다. “기호와 욕심은 만인에게 있으나 절제하는 이라야 현자(賢者)라 이른다”<sup>92)</sup>고 했다. 술과 같이 맛있는 음식을 절제할 수 있어야 극기복례한 군자요 성인이라는 것이다(진성수, 2014: 297). 이렇게 이문건은 술을 절제하고 삼가는 일도 궁극적으로 성인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 때문에 매사에 절제하기를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이다.

## 5. 성역할(性役割) : 남자의 처세를 가르치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사람은 누구나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각 개인에게는 그에 따른 역할 기대가 있다(김성욱, 1997; 박상빈, 배문조, 2012; 심미옥, 1998). 일반적으로 많은 문화에서 여아는 성장 후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 수행을 기대했다. 때문에 친절하고, 협동적·애정적 성향의 표현적 역할을 가르치는데 치중하였다. 남아에게는 가족을 부양하고 보호하는 역할 수행을 요구하였다. 때문에 독립적·경쟁적·자기주장적인 성향을 가르쳤던 것이다(성미정, 2004; 박관성, 2008; 정옥분, 2012; 천은영, 김정신, 2014). 조선사회도 이러한 경향이 사회윤리로서 긍정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문건은 큰손녀 숙희가 울고 보채지 않는 것을 영특하다고 대견해했다. “과연 사람을 흠족하게 할 것이다.”<sup>93)</sup>고 하였다. 여자는 ‘강하게 되지 않도록’ 공손하며 어질어 양순한 덕성을 높이 사는 것이다. 그러한 자질이 옛보이는 손녀를 할아버지가 기특해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아울러 효성이 지극한 숙희는 여자임에도 공부에 뜻을 가지고 있었다. 할아버지에게 『천자문』에 언문으로 음을 달아달라고 청하자 이문건이 기꺼이 써줄 정도로 사랑을 받았다.<sup>94)</sup>

91) 『論語』 「鄉黨」: 唯酒無量 不及亂.

92) 『東門選』 「嗜欲皆同惟賢者節之賦」: 嗜誇性水 欲蕩心淵 此皆同於有衆 其能節者曰賢.

93) 『默齋日記』: 1551-01-23 禧不啼憚云, 禧之穎悟如此, 果能愜人之意焉.

94) 『默齋日記』: 1556-09-14 自昨始書《千字》, 傍書諺字. 淑禧之請也.

손녀에게 여성다운 심성과 태도, 그리고 기능의 습득을 요구하면서도 당시 여성에게는 권장하지 않았던 문해(文解)에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숙희는 9살이 되자 할아버지에게 육갑(六甲)과 28수(宿) 등의 숫자도 익혔다.<sup>95)</sup> 남아를 선호했지만, 손녀의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꺾지 않고 반영하여 지원해 주었다. 이는 배움에 있어서는 성별의 구분 없이 손자녀들의 내적 동기를 존중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묵재일기』를 보면 이문건은 아내와도 함께 술을 마시거나<sup>96)</sup> 바둑(십행기)을 두기도<sup>97)</sup>하고 손자의 교육문제를 의논한다. 부부관계에서도 상하(우열)의 종속적 관계 보다는 협력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양아록』에서 이문건은 수봉이 남아이기 때문에 남아의 성역할에 집중하여 기술했다고 있다. 다음 글에는 이문건의 성역할 기대에 대한 가치관이 잘 드러난다.

아이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숙희(淑禧)가 일을 익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sup>98)</sup>

아기에게 은불해행실을 가르쳤는데 다 미치지 못했다. 아기가 여공(女工)을 즐겨하지 않아 책망하였다.<sup>99)</sup>

이문건은 남아는 공부에 매진하고, 여아는 여공을 잘 배우기를 바라고 있다. 유학의 가치관에 철저했던 이문건은 성역할에 대한 유교적 범주 안에서 손자를 기르며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배지에서 이문건은 유학적 가치관에 따라 자신이 거처하는 당(堂)과 처자식과 손자녀의 거주 공간(우가, 寓家: 우접해 있는 집/ 하가, 下家: 아랫집)<sup>100)</sup>을 별도로 마련했다. 유배지였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별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유학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살고자 했기에 구별의 질서를 중시하며 실천하였다(윤재홍, 2012).

영아기에는 할아버지와 주변 성인들의 축원을 통해 남아의 존재적 가치와 남아가 성취해야 할 것에 대해 공유하는 사회적 규정을 가르친다. 유아기부터는 구

95) 『默齋日記』: 1555-01-11 淑禧近日習誦數六甲、廿八宿等.

96) 『默齋日記』: 1555-08-15 對妻共酌, 日昏即止.

97) 『默齋日記』: 1555-10-17 飯後與老妻拾行碁.; 1556-01-12 下見妻孥, 拾行碁.; 1557-01-15 下見妻孥朝食, 留拾行碁.; 1557-02-05 留堂. 護兒. 妻氏留居. 困臥以休, 休歇則拾行碁.

98) 『默齋日記』: 1557-01-30 兒也不喜書. 淑禧不喜習事.

99) 『默齋日記』: 1559-02-14 下見共朝夕食, 訓阿只殷不害行實, 未畢, 不喜女工責之.

100) 『默齋日記』: 1551-01-05 下愚家夕飯, 聞兒飲乳好眠云.; 1551-12-25 不下下家.

별을 통해 본격적으로 일용지사에서 남아로서의 역할 습득이 시작되고 있다. 아동기에는 가정의례와 집을 벗어나 남자들의 사회생활에 할아버지와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관계에서의 처세를 배운다. 청소년기에는 폭넓은 사회생활에서 술을 매개로 한 처세,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력을 가르친다.

<표 19> 「성역할」 내용

| 시기           | 순서 | 내용                   |
|--------------|----|----------------------|
| 영아기(0-4세)    | ④  | 성주(星州)목사의 축시         |
|              | ⑤  | 조카 이염(李爛)의 축시        |
|              | ⑯  | 책 읽는 모습을 흉내 내는 것을 보고 |
|              | ⑰  | 돌잡히기                 |
| 유아기(5-7세)    | ㉓  | 손자가 할아버지를 잘 따라서(愛翁吟) |
| 아동기(8-12세)   | ㉔  | 불고기를 먹고 탈이 나서(食炙嘆)   |
|              | ㉕  | 조급증을 경계하여(躁怒嘆)       |
| 청소년기(13-16세) | ㉖  | 취주(醉酒)에 탄식하여(警醉嘆)    |
|              | ㉗  | 마을에서 술을 마시는데(飲村酒嘆)   |

#### 1) 영아기(0-4세)

남아의 출생에 대해 성주목사 조희, 조카 이염의 축시와 할아버지의 돌잡이에서의 축원은 조선사회가 남자에게 기대하는 바를 잘 보여준다. 당시 남아는 가부장권의 계승 및 봉제사의 책임자이자 혈통자로서 가치로운 존재였다. 때문에 조카 이염은 가문의 처지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귀양살이에 위로가 될 정도로 기쁘다<sup>101)</sup>고 하였다. 성주목사 조희도 손자의 삶이 명신(名臣)으로 국가에 기여하고 대성할 것임을 축원한다. 남자는 아버지-스승-임금과 관계를 맺으면서, 가족에서 사회와 국가로 확장되어가는 존재임을 상징화하는 것이다(이숙인, 2006).

#### 「성주(星州)목사의 축시」

수려한 이곳 산하의 정기를 받았으리니,

101) 이문건 저, 위의 책. : 弄璋佳信慰羈窮.

후일 조정(朝廷)에 풍성한 공을 세우리라.  
 구름이 처음 일어나듯 날개를 쳐 오를 것이요,  
 용명한 기개 벌써 서려 있는 듯하네.<sup>102)</sup>

손자의 돌잡이에서도 동일한 기대가 나타난다. 세 번째에 활을 잡자 남자는 특히 “문모와 무락에 모두 빼어나야 한다”고 축원한다. 이는 문충공(文忠公) 신숙주(申叔舟, 1417-1475년)의 일화를 빗대어 일컫는 것이다. 이문건이 신숙주를 거론하는 것은 수봉의 성장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은(殷)나라의 명신 부열(傅說)과 주(周)나라의 현신(賢臣) 방숙(方叔)이 왕을 도와 중흥의 업적으로 이름을 떨쳐 추앙받았다. 이들은 그 뛰어난으로 추앙받았지만, 문무를 겸비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신숙주는 문무를 겸비하여 나가서는 장수로, 들어와서는 신하로서 공덕을 세웠다. 그래서 동방에 나라가 생긴 이래 유일무이한 공덕을 세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sup>103)</sup> 이문건은 남자라면 이처럼 문무를 겸비하여 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육예에 노는 것은 너의 일”이라고 하여 이렇게 훌륭히 성장하기 위해 손자가 갖추어야 할 것을 이른다. 육예, 즉 전인적인 배움을 통해 자질을 길러야 하는데, 그 전제는 ‘활을 잡고’라고 하였다. 이는 공자가 활쏘기가 군자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활쏘기에서는 과녁을 벗어나도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다<sup>104)</sup>는 것이다. 때문에 당시에 활쏘기는 사람의 안과 밖의 수양정도를 가늠하고, 덕행을 볼 수 있다<sup>105)</sup>는 것이 통념이었다. 이렇게 자기수양을 실천하면 비로소 도가 확립된다<sup>106)</sup>는 의미이다. 그러면서 도를 배움에 유연함이 필요하나 ‘강건함이 귀하다’고 한다. 도를 따라 행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꾸꿨함’을 일컫는 것이다. 이문건의 축원에는 남자의 길이 ‘입지(立志) → 입도(入道)

102) 이문건 저, 위의 책. : 此地山河鍾秀篤, 他年廊廟樹功豐. 九天翼奮雲初起, 三日窺牛氣 己融.  
 103) 『三灘集』 제13권. 「碑碣」: 有明朝鮮輸忠協策靖難同德佐翼保社炳幾定難翊戴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高靈府院君文忠公墓碑銘 并序 “竊觀世之衰也, 天將興之, 則必生聖君、賢佐, 相與寧濟一世而升于大猷. 是故殷之衰也, 時則有若傳說相高宗, 以致中興, 周之衰也, 時則有若方叔佐宣王, 光復舊物. 以今考之, 傳說有輔相之業而蔑聞武功, 方叔有征伐之功而未見相業. 曷若我文忠公天賦全才, 應運而生, 登翼聖主, 文謨武略, 出入將相, 依國步於斯蹙而措之泰山之安者乎? 自吾東方有國以來, 人臣功德之盛, 蓋一人而已.  
 104) 『中庸』 제14장 : 子曰射 有似乎君子 失諸正鵠 反求諸其身.  
 105) 『小學』 「敬身」: 射義曰 射者 進退周還 必中禮 內志正外體直然後 持弓矢審固 持弓矢審固然後 可以言中 此可以觀德行矣.  
 106) 『中庸』 제20장 : 修身則道立.

→ 육예(六藝) → 강건함(剛) → 문무겸전(文武兼全) → 양명(揚名)’의 단계로 나아가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 「들잡히기」

세 번째는 활을 잡다.

남자는 태어나서 사방(四方)에 뜻을 두어야 하는데,

문모(文謨)와 무략(武略)에 모두 빼어나야 할 것이다.

활을 잡고 육예(六藝)에 노는 것은 참으로 너의 일일지니,

도를 배움에 당기고 펼침이 필요하나 강건함이 귀하단다.<sup>107)</sup>

천택은 조카 이염의 아들로 이문건에게는 종손(從孫)이 된다. 13세에 글공부를 위해 유배지로 와서 오랜 기간 이문건에게 배웠다. 수봉은 할아버지의 거처에 왕래하면서 할아버지와 형의 글공부하는 모습을 자주 접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타인이 보여주는 행동들이 수봉에게 성역할 학습의 기회가 되고 있다. 이 시기 양육자의 기대와 조성된 환경은 성역할 학습의 강력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책 읽는 모습을 흉내 내는 것을 보고」

손자가 천택(天澤)이 독서하는 것을 보고는, 책을 집어들고 몸을 흔들며 소리를 내어, 그 책 읽는 모습을 흉내 내는 것 같으니, 참으로 하나의 풍류이다. 이에 단편으로 기술한다.

독서하는 모습을 자주 보더니,

머리 끄덕이며 그대로 흉내 내는구나.

책을 들고 한참을 웅얼웅얼하는데,

여자애들 노는 것과는 다르구나.<sup>108)</sup>

이문건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기대에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가정 내에서 남아와 여아에게 각기 다른 기대와 반응은 영아의 성정체성에도 다른 영향을 미친다(구정화, 2006). 왜냐하면 아이들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Lidloff, 1985). 이문건은 수봉이 글 읽는

107) 이문건 저, 위의 책. : 三執弧. 男子生來志四方, 文謨武略要皆長. 執弓遊藝眞渠事, 學道弛張貴在強.

108) 이문건 저, 위의 책. : 兒見天澤讀書, 取卷, 似效其狀, 眞一風流也. 乃述短篇以識之. 習見讀書狀, 俯昂效其爲. 取卷發聲長, 作戲非女兒.

모습을 흉내 내는 모습을 ‘여자애들 노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여자아이들의 일상이 글 읽는 것과는 거리가 있음을 내포한다. 이문건은 수봉의 모습을 남자아이의 정체성과 지향해야 할 바를 잘 보여주는 징표로 삼고 강화한다.

## 2) 유아기(5-7세)

이 시기가 되면서 유아의 생활에는 큰 변화를 맞이한다. 주주거지 및 주양육자의 변화와 글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백혜리, 2004). 남아에게 남자 어른은 그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 즉 문화 안에서 자기 위치를 찾는데 본보기가 된다(Lidloff, 1985). 유아는 남자 성인 가족과 함께 기거하면서 남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을 교육받게 된다. 수봉은 6세에 거처를 할아버지의 방으로 옮겼다. 이때부터 남녀구별의 교육이 시작되어 구별의 질서가 실천되었다. 거처를 옮기던 초기에는 누나, 할머니, 유모 등이 동행하거나 할머니가 함께 잠을 자도록 하여 손자의 심리적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의를 기울였다(백혜리, 2004).

### 「손자가 할아버지를 잘 따라서」

병진년(丙辰 1556) 봄에 젖을 떼고,  
내 잠자리에서 자라 불러 들였네.<sup>109)</sup>

숙길(淑吉)이 와서 내 품에서 잤다. 한밤중에 내 가슴에서 젖을 찾았는데, 찾지 못하자 시름겨워하는 듯했다. 이 같은 것이 여러 차례였다.<sup>110)</sup>

『양아록』에는 이 시기 성역할에 대한 교육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목재일기』를 보면 할아버지가 수봉의 일상예절을 훈계하여 가르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이문건이 거처하던 당에는 천택 외에 글을 배우러 오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다. 유배인이었으나, 성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탓에 친족 원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왕래하며 교유(交遊)하였다. 이문건의 집은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열린 공간이었다(김선경, 2013).

이문건은 손님을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 자신이 출타했을 때 식사를 정성스럽게 차리지 않은 비(婢)를 매질할 정도로 접인(接人)을 중시하였다. 이렇게 유아는

109) 이문건 저, 위의 책. 「愛翁吟」: 斷自丙辰春, 呼令宿我帷.

110) 『默齋日記』: 1556-02-23 淑吉來宿我懷. 夜半索乳於胸, 似愁不得. 屢度如此.



성인들 간에 교환되는 감정적인 반응을 적극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형성하게 된다(Meltzoff & Kuhl., 2016). 수봉은 할아버지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대부 남자로서의 성역할을 습득하였다.

수봉은 할아버지와 하루 일과를 함께 하며 미래의 종손으로 교육되어져 갔다. 가까운 곳에는 할아버지를 따라가 놀거나<sup>111)</sup> 할아버지에게 떼를 써서 노복과 함께 왜의 사신행차를 구경하러 나가기도 하였다. 제사에 참여하여 예법에 따라 할아버지가 절하는 것을 따라하며<sup>112)</sup> 제례의 예도 배워나갔다.

### 3) 아동기(8-12세)

아동기는 일반적으로 성역할이나 성의식 형성의 결정적 시기로서 중요한 성역할 모델은 부모가 된다(구정화, 2006; 양정혜, 2012). 이 시기에는 서서히 집안일이나 노비를 감독하게 하고 성인과 함께 사교를 하거나 외부로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또 성인과 동등하게 대우 받게 되면서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 된다(백혜리, 2004). 수봉도 본격적으로 다양한 행사나 연회에 할아버지와 함께 초대받아 참석한다. 수봉은 할아버지로 인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남아로서 자신의 사회적 행동양식을 습득하였다.

이문건이 교유의 장소로 자주 언급되는 남쪽 정자(南亭)는 셋길로 100여보 정도로 그의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경치가 빼어나고 성주 읍성에서도 가까워 사족과 관가, 외부 손님이 주로 활용하는 공간이었다. 특히 관가에서 연회나 공식적 모임을 가장 빈번히 치루는 장소였다(김선경, 2013). 이문건에게는 집과 함께 교유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수봉도 할아버지와 연회에 참석하여 성인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또 연회에 동행했다가 목사의 권유로 응상과 대련(이어진 시구)를 지어 붓과 먹을 받기도 하였다.<sup>113)</sup> 사회학습 이론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과

111) 『默齋日記』: 1556-05-05 吉孫來亭戲隨.; 1556-07-20 向夕, 上南亭, 觀漲漲沒前堤 ... 兒孫隨我上見.; 1556-08-15 吉兒亦隨我上亭, 多喫果物, 暮下.; 1556-09-09 二道先上南亭送馬, 乃上見之. 宋汝孝亦來會. 久之, 牧伯上亭, 入見之. 設酌. 吉兒來隨啗我果物, 暮乃下去.; 1556-11-26 吉兒昏出隨我, 誤觸燈檠, 油污於衣.; 1557-01-10 吉兒隨我入別館, 久留, 腹空取蜜果與之.

112) 『默齋日記』: 1556-08-17 吉兒早起, 出坐我側, 效拜.; 1556-10-22 丈母氏忌日, 行祭. 孫兒隨出起拜.; 1557-01-29 曾祖考忌日, 祭次于孫, 設行于堂. 玄培助祭, 淑吉隨行拜之.

113) 『默齋日記』: 1562-07-16 鄭郎·俞家·孫家與吉拜牧使參飲, 牧使出川字, 令孫兒與應祥作聯句, 聯句成, 牧伯給應祥租一石·淑吉筆墨等物.

유사하다고 지각되는 사람의 행동을 닮아간다. 그리고 강화가 보장되는 ‘성에 적절함’ 행동을 실행하는 경향이 있다(성미정, 2004: 10-11)는 것이다. 수봉은 집과 연회 등에서 할아버지와 성인들의 행위양식을 통해 성역할 이미지와 그에 대한 기대를 관찰하게 된다. 이러한 기회는 수봉에게 자연스럽게 성역할 습득의 강화자 역할을 한 것이다. 이문건이 자신이 교유하는 자리에 수봉을 동행시키는 것도 이러한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의미 있는 타인으로서 할아버지의 행위와 기대는 수봉의 성역할 발달에 가장 강력한 동인(動因)이 되고 있다.

「불고기를 먹고 탈이 나서」

3월 20일 남쪽 정자에 올라,  
성주목사 휘하의 관리들과 손님을 맞아 노네.  
집노루 불고기가 스무 꼬치 남았는데,  
손자가 내 옆에 앉아 맛있게 먹네.<sup>114)</sup>

이문건은 남자로서 흠모할 만한 삶은 성현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을 바로 잡아 올바르게 사는 것임을 전제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무리 중에 뛰어나게 서는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영유아기 남자의 존재와 지향에 대해 제시한 것과 수미상관(首尾相關) 한다.

여기에 할아버지처럼 우월하고 거칠어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본래 ‘우월’의 의미는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는 뜻이다(송혁기, 2016). 박연호(2013)는 박인로의 『누항사』를 통해 ‘우월’의 실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현실에 어두워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조적 표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성현의 올바른 도를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이다. 「조급증을 경계하여」의 내용에서는 후자인 실질적 의미와 맥을 같이 한다. 이문건은 사대부로서 사람됨을 지향하며 정도(正道)의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당쟁과 사회로 점철된 시대에서 오히려 유배라는 고립무원(孤立無援)의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이문건이 자신을 우월한 존재로 인식한 것은 유교적 이상에 충실한 삶을 살았지만, 사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직으로의 진출은 요원하기 때문이다(정기선, 2017). 때문에 손자만은 할아버지의 부족함을 넘어서

114) 이문건 저, 위의 책. 「食炙嘆」: 暮春念日於南亭, 半刺登臨邀客慰. 供炙家獐餘什次, 孫隨余側其味.



기 원하는 것이다. 성인의 도를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더욱더 자기수양에 정진하기를 소망한다. 다시 한번 ‘남자로 태어난 것은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한다. 손자만은 한번 주어진 이승에서 현실과 괴리되어 우월하다 평가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때문에 날마다 마음 수양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무리가운데 배척받지 않는 길임을 가르치고 있다.

「조급증을 경계하여」

동년배에서 우뚝 서고 빼어나게 되어,  
 할애비처럼 우월하고 거칠게 하지 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은 매우 중대한 것이며,  
 이승은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일상생활에 건강하게 하고 날마다 깊이 성찰하여,  
 한 순간도 망령되게 하지 마라.<sup>115)</sup>

4) 청소년기(13-16세)

청소년기는 네 가지 의례 중 관례(冠禮)를 행하는 시기이다. 남아에게는 15세가 넘으면 관례를 행하여 상투를 틀고 관을 씌워 주었다(백두현, 2006). 관례는 장유(長幼), 곧 어른과 아이를 구분 짓기 위해 행하는 의례이다. 성인으로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며, 사회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가문의 대를 잇는 주인의 역할을, 외적으로는 남의 손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알리는 것이다(조창규, 2007). 관례를 통해 타자와의 관계 성립에 필요한 사회적 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김미영, 2009).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규범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가 동시에 부여된다.

수봉은 16세에 관례를 치르고 ‘수봉’이라는 자(字)를 받았다.<sup>116)</sup> 자는 성인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조창규, 2007). 성인은 사회관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여기에서 변별과 질서를 위한 주례(酒禮)의 주요 물품이 술이다(진성수, 2014, 299). 술은 개인에게 활력을 주고, 연회에서는 예법적 관계에서 오는 긴장

115) 이문건 저, 위의 책. 「躁怒嘆」: 卓立拔等夷, 迂疎無若祖. 男兒身甚大, 此生難更遇. 行行日深省, 一頃毋妄驚.

116) 『默齋日記』: 1566-01-15 守封加冠於首.

해소 및 상호 관계회복의 계기를 제공한다(진성수, 2015). 당시 음주는 양반들의 집단적 정체성과 경제적 우월함을 표현하는 구별 짓기의 기호였다(류정월, 2010).

수봉은 술자리를 동반한 사교생활이 빈번해지면서 과음으로 처신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조선시대 사대부에게 사교는 단순히 지인을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 아니다. 의리(義理)를 배우는 시간이었고, 성학을 향해 가는 진지한 학인(學人)의 절실함이 녹아있는 시간이었다(이창일, 2014: 70).

이문건이 염려하는 것은 과음으로 자제력을 상실하여 몸가짐이 흐트러짐으로 인간의 도리를 해치는 것이었다. 유교적 의식 속에서는 ‘심신일원론(心身一元論)’의 관점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세계와 우주를 ‘조화’와 ‘유기성’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인간존재는 몸(신체)과 마음(심성)이 각각 존재하지만, 이 둘을 분리할 수 없다(류정월, 2010: 346). 이문건의 손자사위 정섭은 자리를 구분하는데, 수봉에게서는 사리분별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음이 안타까운 이유이다. 수봉이 취한 후의 행동을 보면 그가 술을 통해 마음과 의지, 위(威儀)의 손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손상된 것이 나타나면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이는 곧 수신(修身)의 실패를 의미했다.

#### 「취주(醉酒)에 탄식하여」

집주인 배인손(裴仁孫)이,  
계해년(癸亥 1563) 10월 15일 찾아와 말하네,  
“친구들을 대접하기 위해 술과 고기를 마련했습니다.”  
정생원(鄭生員)과 같이 가려 했는데,  
달밤에 숙길(淑吉)이와 함께 갔네.  
정섭(鄭涉)은 비루하게 여겨 가지 않았는데  
숙길(淑吉)은 아직 비굴함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저녁이 돼서 그 집으로 가서,  
석 잔을 마시네.  
돌아오는데 이미 매우 취해서  
말이 거칠고 횡설수설하네.<sup>117)</sup>

이문건은 폭넓은 교제가 왕성해지는 시기에 술로 인해 예의를 버리게 되어 결

117) 이문건 저, 위의 책. 「警醉嘆」: 家主裴仁孫, 癸亥下元日. 來言餉同班, 酒肉今具設. 欲奉鄭生員, 吉氏共臨月. 涉也鄙不往, 吉未知卑屈. 乘夕投其家, 致飲三杯訖. 還來醉既沈, 錯澁言語舌.

국 사대부로서의 체통을 지킬 수 없게 됨을 걱정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관계의 손상은 결국 우월한 인물로 평가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양반들의 사회생활에 있어 음주의 방식이 중요했다. 술에 취했을 때 보이는 행동은 개인의 수양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준거가 되었기 때문이다(류정월, 2010; 진성수, 2015). 시대적으로도 조선 중기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음주에 있어서 중덕(中德)의 원리를 중시하였다. 즉 적당한 양을 격식에 맞게 마시는 것이다. 이것이 술자리의 예를 드러내는, 구별 짓기의 새로운 기호였다(류정월, 2010: 362). 이문건의 손자에 대한 염려는 ‘상(傷)’과 ‘음(淫)’을 야기할 수 있는 음주 행위를 경계하는 시대적 담론도 반영되어 있다.

「마을에서 술을 마시는데」

갑자년(甲子 1564) 정월 초 하루에 쓰다. 초 하루날 밤에 손자 옆에서 술을 마시고 한탄하며 쓰다.

금년 숙길(淑吉)의 나이 14세,  
시골 사람들이 술 권하니 부끄럼 없이 마시네.  
손자 하나 이 지경으로 무심하게 행동해,  
할아버지 오히려 근심 걱정하네.<sup>118)</sup>

6. 가문의식(家門意識) : 가문재건의 과업을 전수하다

이문건은 일찍이 『가정보(嘉靖譜)』라는 집안의 족보를 직접 편찬할 정도로 가문 계승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것은 그가 따로 『양아록』을 손자에게 남길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조은숙, 2014: 27).

이문건은 양육에 있어 뿌리를 중시하였다. 그래서 「가족에 관한 글-(아들 온과 손녀들/ 자부와 손녀들/ 부인과 자녀들)」과 「세계(世系)」를 지어 『양아록』에 첨부하였다. 이는 자손들이 어릴 때부터 가문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근원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다(정주영, 1997). 그리고

118) 이문건 저, 위의 책. 「飲村酒嘆」: 甲子 元日, 題. 元日夜, 守坐孫旁, 飲恨而題. 吉也今年年十四, 村人勸酒不知羞. 一孫至此無心行, 老物猶懷得疾憂.

군자인으로 성장하여야 할 당위성을 가문의 번성으로 귀결시켰다. 가문의 역사에 관한 지식은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족보를 통해 인지하게 되는 조상의 생애는 후손에게 구체적이고 생생한 의미를 던져주기 때문이다(Dewey, 1916).

이문건은 자부와 손녀들에 관해 쓴 글에서 자부가 숙희(淑禧)와 숙복(淑福)을 출산했는데, “계속 딸을 낳아 애정이 많이 가지 않았다”라고 술회한다. 이와는 반대로 『묵재일기』에서는 “내려가서 손자아이를 보았고, 밥을 먹은 후에 또 보러 내려갔지만 힘든 줄 모르겠다”<sup>119)</sup>라고 하여 대조적이다. 이는 손자는 자신의 가계를 이어줄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문건의 그러한 의식은 『양아록』에 족보를 함께 엮음으로써, 수봉에게 가계계승 의식을 확고히 하고자 함과 연결된다.

이문건은 『양아록』에 손자의 성장과정 중 육체적 질병과 상해에 대한 기록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가문 계승을 달성하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다. 사대부로서 가문 계승에 대한 깊은 고민을 보여준다고 하겠다(조윤경, 2011). 이러한 가문 계승에 관한 의식은 조상숭배의식(祖上崇拜意識)으로 발전한다. 한 조상의 자손이라는 공동체의식은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가도(家道)와 가풍(家風)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이로써 가족 사이의 애정과 효제(孝悌)의 윤리에 입각한 가정교육·인격도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가문의식은 영아기에는 천지신명과 조상의 뜻을 잘 살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온 가족이 삼가며 보살피는 것에 치중된다. 유아기에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역할 분담을 제안한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건강한 성장과 수양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손자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진정한 가문의식은 단순히 가문의 내력을 전달하고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전제하고 있다. 혈육의 정이 깊어지면서 내면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싹트는 것임을 자상하게 짚어준다(문혜경, 양진건, 2017: 179). 아동기에는 개인보다는 가문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고하고 행동하기를,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는 ‘가문 재건’의 과업을 직접적으로 전수하고 있다.

---

119) 『默齋日記』: 1551-01-22 下見孫兒, 食食, 再度下見, 不覺其勞也.

<표 20> 「가문의식」 내용

| 시기           | 순서 | 내용                      |
|--------------|----|-------------------------|
| 영아기(0-4세)    | ②  | 손자의 출생을 기뻐하며            |
|              | ③  | 손자가 태어났을 때              |
|              | ④  | 성주(星州)목사의 축시            |
|              | ⑤  | 조카 이염(李堧)의 축시           |
|              | ④② | 축원문-가문의 번창을 기원하여        |
| 유아기(5-7세)    | ②④ | 경기를 일으키는데 안타까워(驚懼嘆)     |
|              | ②⑤ | 마마를 앓아서(行疫嘆)            |
|              | ②⑥ | 밥을 잘 먹지 않아서(厭食嘆)        |
|              | ②⑦ | 손자가 할아버지를 잘 따라서(愛翁吟)    |
| 아동기(8-12세)   | ③⑤ | 귀에 종기가 나서(耳腫嘆)          |
|              | ③⑥ |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撻兒嘆)        |
|              | ③⑧ | 조급증을 경계하여(躁怒嘆)          |
| 청소년기(13-16세) | ③⑨ | 취주(醉酒)에 탄식하여(警醉嘆)       |
|              | ④⑩ | 마을에서 술을 마시는데(飲村酒嘆)      |
|              | ④⑪ | 술 마시는 것을 경계한 글(少年醉酒戒)   |
| 시기불명         | ④⑥ | 가족에 관한 글 - 아들 온(溫)과 손녀들 |
|              | ④⑦ | 가족에 관한 글 - 자부와 손녀들      |
|              | ④⑧ | 가족에 관한 글 - 부인과 자녀들      |
|              | ④⑨ | 세계(世系)                  |

가족에 관한 글과 세계(世系)는 기록된 시기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이문건이 이 부분을 일기의 말미에 첨부한 것이 수봉에게 집안과 가문의 내력을 분명히 인지시키고자 하는 의도임을 짐작할 따름이다. 이문건은 가족에 관한 글과 세계를 통해 수봉에게 가족의 연속성과 가족정체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봉이 조상 및 친족과의 연결고리에 중추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Research Team University of Hertfordshire, 2009). 수봉의 존재는 가문을 떠나서는 존재가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의식을 심어준다(이계학 외, 1994). 이로써 수봉은 가문 내에

서 요구하는 바를 지키려는 책임감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가족에 관한 글에서는 자녀와 손자녀의 출생상황과 병력(病歷), 체질, 성품을 비롯하여 열병(熱病)과 풍(風)으로 아들이 장애를 갖게 된 사실 등을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다(이상주, 1996). 아울러 그에 대한 자신의 심정도 덧붙였다. 가족에 관한 글들은 이문건의 꼼꼼하고 기록을 중시하는 성정(性情)을 보여준다. 사실 그가 수봉에게 더 마음을 쏟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음도 발견된다. 자부에 대해서는 그의 가문과 함께 월경(月經)이 시작된 것은 물론 잉태와 출산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부인에 대해서는 ‘나의 처 김씨’라고 간략히 언급하고, 세계를 통해 가문의 전반적인 계통을 소개한다

결과적으로 이 글들은 개인이 시간의 연속성을 통해 가문으로 응집됨을 수봉에게 부각시키고자 함이다. 동시에 이문건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가문 유지를 향한 그의 열망도 드러내고 있다.

#### 1) 영아기(0-4세)

이 시기는 가문을 잇게 된 것에 대한 할아버지의 자축과 다짐, 가족들의 실천과 주변인들의 축하가 주를 이룬다. 이를 통해 가문의식의 실체와 기반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손자의 출생은 이문건에게 가문계승이라는 기쁨을 안겨 주었다. 이문건은 남성임에도 손자의 출생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산관(産關)의 선택은 물론, 손자가 태어나자 삼(胎)갈기를 신속히 처리한다. 아이의 무병장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출산 후 해독법인 입속 닭아내기(유안진, 1990)와 태(胎)의 처리였다(최혜준, 양은호, 2010). 이문건은 출생하는 순간부터 치러야 할 모든 과정에 온 정성을 다한다. 이는 손자 출생의 기쁨을 넘어 초장에 액운의 기운을 단절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또한 가문의 명맥유지를 위해 뿌리를 튼튼히 내리게 하려는 의지이자, 실천이기도 하다.

#### 「손자가 태어났을 때」

성주성(星州城) 동남쪽아래 옥산리(玉山里)에 사는 아전(衙前)인 배순(裴純)의 집 북쪽 방이 손자가 태어난 곳이다. 늙은 아내 김씨(金氏)와 여종 돌금(玆今)이 산관(産關)을 하고 있는데, 출산하자 돌금이 배꼽의 탯줄을 자르고 싸맸다. 여종 돌금은 성품이 어질어 숙희를 부지런하고 조심스럽게 돌보았다. 그래서 다시 또

돌보아 기르고 더러워진 포대기를 주물러 빨으라 명한 것이며, 감초탕을 주어 빨리도록 하라 했더니, 토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불그레한 꿀을 빨리게 하고 오래 지나서 젖을 먹였다. 초 6일에 억금(億今)·삼월(三月) 등으로 하여금 태(胎)를 내어 개울가에서 깨끗이 씻도록 했는데, 나 또한 뒤따라가서 감독하였다. 씻어서는 황색 사기 항아리에 담아서, 기름종이로 덮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돌아와 집 안에 묻어두었다. 정월 18일 병오(丙午)에 귀손(貴孫)·거공(巨公) 등으로 하여금 받들게 하여, 아침 일찍 선석산(禪石山) 서쪽 마을 태봉(胎峯) 아래로 가서 조심스레 과문었다. 손자의 용모는 단아하고 관상(觀相)이 평범치 않았다.<sup>120)</sup>

이문건은 손자의 출생을 기뻐하여 기록한 시에서 가통보전에 대한 의식을 뚜렷이 하고 있다. 손자의 출생을 자신의 기원에 대한 조상의 응답으로 여기며, 가문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 「손자의 출생을 기뻐하며」

천지자연의 이치는 무궁하게 생성이 계속되어,  
 어리석은 자식이 아들을 얻어 가풍을 잇게 했네.  
 지하에 계신 선조의 명령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리니,  
 인간세상의 뒤이어 올 일들이 다소 잘 되어 가리라.<sup>121)</sup>

조선시대에 아동은 ‘한 가정의 대를 잇는 존재’라는 큰 의미를 갖는다. 한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남아를 생산하는 일 뿐만 아니라, 아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해야 했다(김영옥, 백혜리, 2000: 16). 이는 이문건의 손자 출생 소식을 접한 성주 목사와 조카 이염(李爛)의 축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성주 목사 조희(曹禧)는 태어난 아이를 씻길 경비[洗兒錢債]로 벼 7섬의 첩(帖)과 차운한 시<sup>122)</sup>를 보냈다. 그는 이문건의 유배와 절손(絶孫)의 상황을 겨울에 비유한다. 하지만 손자의 출생을 계기로 단절과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남은 물론 명문가로서의 위상을 이어갈 것임을 축원한다(문혜경, 양진건, 2017: 176).

120) 이문건 저, 위의 책 : 星州城東南底玉山里, 衙前裴純家北房, 是兒降生之所也. 老妻金氏與婢石乙今護產, 產既, 婢斷臍蒂帶. 婢性良, 已鞠淑禧勤謹. 故復命護養, 拭穢襍包, 命與甘草湯, 吮下, 不吐云. 又令與朱蜜吮之, 久然後, 乃乳焉. 初六日, 令億今·三月等出胎衣, 淨洗川邊, 吾亦往監之. 洗畢, 入盛黃色沙缸, 覆以油單, 束以繩索, 還藏于家內. 月十八日 丙午, 令貴孫·巨公等奉持, 早往禪石山西洞 胎峯之下, 謹藏焉. 兒貌端妙, 骨相不凡.

121) 이문건 저, 위의 책 : 天理生生果未窮, 癡兒得胤繼家風. 先靈地下應多助, 後事人間庶少豐.

122) 『默齋日記』: 1551-01-07 令道次送弄璋律韻, 又惠洗兒錢債租七石帖.



「성주(星州) 목사의 축시」

하늘의 이치 원래 변화와 순환이 끝없어,  
겨울을 뒤이어 해동(解凍)바람 부네.  
수려한 이곳 산하의 정기를 받았으리니,  
후일 조정(朝廷)에 풍성한 공을 세우리라.  
구름이 처음 일어나듯 날개를 쳐 오를 것이요,  
용맹한 기개 벌써 서려 있는 듯하네.  
벼슬과 명가(名家)의 근원이 끊이지 않고,  
문장은 정녕 할아버지를 계승하리라는 걸 알겠네.<sup>123)</sup>

같은 맥락에서 이문건의 조카는 가문의 유지가 남아의 출생으로 성취되었음을 단언한다. 혈통자인 남아는 유교이념과 가문을 지키는 주체(김용기, 2011)였기 때문이다. 맹자(孟子)도 “불효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뒤를 이을 아들이 없는 것이 가장 중대하다”<sup>124)</sup>고 하였다. 가문계승의 주체로서 남아의 존재가 중요함을 이르는 것이다.

「조카 이염(李爛)의 축시」

남아를 낳았다는 기쁜 소식에 귀양살이 위로되고,  
음덕(陰德)의 공으로 이미 조상의 가풍 잇게 되었네.<sup>125)</sup>

이문건도 1548년 정월 천지신명에게 손자를 점지해주기를 기원하는 초제를 지냈다. 가문을 이을 자손의 부재와 자신의 유배는 재기(再起)를 도모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자의 출생은 그에게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되살아난 것을 의미한다. 이문건은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을 ‘가문의 박복함’과 ‘운명의 험악함’으로 결론짓는다. 결국 자신의 삶을 통해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때문에 손자가 태어난 해 3월, 다시 초제를 지낸다. 가문의 유지를 위해 손자를 무병장수하게 지켜달라는 것이다. 생사화복(生死禍福)의 여탈권(與奪權)을 쥐고 있는 초월적 대상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손자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의 깊이를 가늠하게 한다.

123) 이문건 저, 위의 책 : 天元剝復本無窮, 冬後還吹解凍風. 此地山河鍾秀篤, 他年廊廟樹功豐. 九天奮翼雲初起, 三日窺牛氣已融. 縉紳名家源不竭, 定知文獻繼而翁.

124) 『孟子』 「離婁 上」: 不孝有三章, 孟子曰不孝有三 無後爲大.

125) 이문건 저, 위의 책 : 弄璋佳信慰羈窮, 已驗陰功嗣祖風.



### 「축원문 - 가문의 번창을 기원하여」

신등은 옳드려 바라노니, 이미 복을 내리고 이미 주셨으니 모름지기 보살피 주시고 모름지기 사랑해 주셔서, 재해가 함부로 침범하는 것을 몰아내고 구제하시어, 능히 성장하게 해주시고 양육하게 해주시어, 수명과 복을 구비해 주셔서, 견고하게 응결될 수 있게 해주시면, 즉 영원히 신의 아름다움에 힘입어, 실제로 신령스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잇고 잇고 또 잇고 이어서 가문을 끝없이 보존하고, 자자손손 세대를 유지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신등은 전율과 지극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 삼가 백배하며 글을 지어 위로 비읍니다.<sup>126)</sup>

돌잡히기에서도 이문건의 가문번성에 대한 열망은 계속된다. 손자가 잡은 필묵은 ‘문장을 업으로 삼을 아이’로 투환(套環)은 ‘성인(成人)’을, 활은 문무를 겸비하여 도를 행함, 쌀은 백성들의 생명을 잇는 직을 맡게 될 것으로 연관 짓고, 마지막으로 잡은 인장(印章)은 훌륭한 정승의 길로 연결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격적으로 온전한 성인을 지향하며, 벼슬에 나아가 모두에게 추앙받는 인물로 성장하기를 염원하는 것이다. 또 손자를 통해 가문이 번성해야 하는 당위성을 피력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가문을 위해 손자가 이루어야 할 지침을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도 손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할아버지를 흔들여 놓는다. 손자가 이질과 학질을 심하게 앓고 여위어 가는 모습은 가문 지속에 대한 근원적 두려움으로 바뀐다. 어김없이 ‘가문의 박복함’으로 귀결시키면서 ‘만사를 하늘에 맡긴다’고 한다. 손자의 회복에 대한 노력에 한계를 느끼는 것이다. 이는 “어느 날에나 무병하게 자랄꼬?”라고 하여 가문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길함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의 표현이다.

### 「이질을 앓아서」

살이 빠지고 안색은 창백해져,  
바라보는 내 마음 절로 슬퍼지도다.  
다른 아이라 해서 어찌 이질을 앓지 않으라마는.  
우리 가문이 박복(薄福)해서 그런가 두렵기 때문이라.  
...  
만사를 하늘에 맡긴 채,  
스스로 여유 있는 체하나 도리어 안달이 나네.

126) 이문건 저, 위의 책 : 臣等伏望, 既降既與, 須管須慈, 驅除災害之構侵, 得能長養, 分付壽祚之俱備, 俾克堅凝, 則永賴神休, 實沾靈祐. 承承繼繼, 保門戶以無疆, 子子孫孫, 持世序以不墜. 臣等不勝戰慄營之至, 謹百拜陳詞, 上禱.

무당을 불러 병을 낫게 하라 했더니,  
 날로 차도 있으리라 위로해주는데,  
 ...  
 잠시도 염려 놓을 수 없어,  
 왔다 갔다 하며 자주 손자의 얼굴 살펴보네.  
 어느 날에나 회복되어,  
 무병하게 잘 자랄꼬?<sup>127)</sup>

이문건과 가족의 기원행위는 온 집안 구성원들의 절손(絶孫)에 대한 위기감과 절박감을 보여준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손자만은 가문 번성의 주체로 보살피려는 것이다. 이문건의 처지는 스러져가지만, 하늘의 도움으로 잘 성장하여 우뚝 서기를 염원한다.

「책 읽는 모습을 흉내내는 것을 보고」  
 궁벽하게 된 나는 비록 신세가 끝나가지만,  
 이 손자에겐 하늘이 때를 정해주길 바라노라.<sup>128)</sup>

## 2) 유아기(5-7세)

이 시기에 할아버지는 손자와의 역할에 대해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가문을 잇기 위해 노력한다. 먼저 자신은 손자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손자를 잘 양육할 것임을 다짐한다. 손자에게는 심신의 수양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가문에 대한 소속감을 주지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이문건의 심리 기저에는 불운한 운명의 되물림에 대한 깊은 고뇌가 흐르고 있다. 이문건에게 ‘가문’과 ‘손자’를 상징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운명’이다. 손자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치열하면 할수록 그는 한계 상황과 마주해야 했다. 그래도 ‘불운한 가문의 운명’과 ‘조심성 없는 아이’는 이문건의 노력과 손자의 수양을 통해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127) 이문건 저, 위의 책. 「兒痢嘆」: 肌消顏色淡, 見來心自悵. 他兒豈不痢, 耀余門祚涼. … 萬事付之天, 自寬還怏怏 招巫令救解, 慰言差日向. … 斯須念不弛, 往復勤侯相. 何當獲蘇平, 無疾好成長.

128) 이문건 저, 위의 책: 窮人身縱己, 所希天定時.

「이마를 다쳐서」

아! 액운이 두렵도다,  
...  
재앙이 와서 발길을 돌리지 않는구나.  
내가 출타한 지 1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같이 아이에게 궁벽한 액운이 닥치는가?  
...  
손자의 성품은 놀기를 좋아하는데,  
보통아이 보다 몇 배 더 앞선다네.  
위험이 없는 날이 없으니,  
무슨 방법으로 안전을 도모할까?<sup>129)</sup>

이문건은 개인은 가(家)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홍원식, 2005)고 믿었다. 손자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질병이나 상해 역시 가문에서 비롯된 액운이다. 때문에 그는 ‘잠잘 적에도 위험한 꿈을 꿀까 두렵도다’라며 불길한 액운의 전이를 걱정한 다. 이는 불운의 기운조차 손자에게 미치지 않도록 지키고자 하는 그의 강박적인 노력을 증명한다. 이문건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손자의 자기수양이 깊어지면 결국 운명은 안정되어 가문이 번성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경기(驚氣)를 일으키는데 안타까워」

나의 운명이 험악하여,  
자녀가 모두 병치레하고 반편이 되었네.  
이로써 다시 다급하게 경계심을 가졌는데,  
잠잘 적에도 위험한 꿈을 꿀까 두렵도다.  
십 여세까지 잘 보살펴주어,  
기가 거의 안정되고,  
정신과 식견이 성숙하면,  
응당 제 몸가짐 가벼이 하지 않겠지.  
그런 후에 명운이 안정되어,  
재앙, 질병, 횡액을 면하리라.  
쇠퇴해가는 가문 네가 지탱하여,  
수천 년까지 이어가게 해야 하리<sup>130)</sup>

129) 이문건 저, 위의 책. 「傷額嘆」: 吁哉厄可惧, … 災來不旋. 吾出未踰旬, 兒厄如斯偏. … 兒性戲好嬉, 此凡數倍先. 憑危無日無, 何方保萬全.

130) 이문건 저, 위의 책. 「驚懼嘆」: 綠我命險厄, 子女皆病癡. 用是懲更急, 臨睡慮夢危. 善護十餘歲, 血氣庶凝成, 到得神識長, 持身應未輕. 然後命安泊, 可免災病橫. 衰門汝撐拄, 相繼垂千齡.

이문건은 자신보다는 가문을 앞세우는 할아버지의 충정(衷情)을 본받으라 일컫는다. 그리고 끊임없이 손자의 자기수양을 당부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때, “마침내 군자인(君子人)되어, 훌륭하고 덕망 있는 가문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덕망 있는 가문을 이루기 위한 전제는 손자를 ‘군자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노년기는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심리적 상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기 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신경일 외, 2003; 장성옥, Patricia, 2000; 조은희, 이영순, 2013). 장성옥과 Patricia (2000)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은 자손 잘 되기와 가족의 건강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문건도 손자를 군자인으로 양육하여 가문의 번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노년기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다.

「마마를 앓아서」

내 자신을 위하려고 기필코 애쓰지 않는 것은,  
 본래 내 마음의 충정(衷情)이 곧기 때문이라네.  
 날마다 바라노니, 다른 병에 걸리지 않게 하고,  
 네 자신이 잘 성장하여,  
 마침내 군자인(君子人) 되어,  
 훌륭하고 덕망 있는 가문을 이루게 되면,  
 생각컨대, 응당 아름다운 복 누리고,  
 쇠퇴해가는 가통을 살려 면면히 이을 수 있으리라.<sup>131)</sup>

이문건은 가문을 위해 손자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만드는 것에 철저했다. 아이에게 밥을 잘 먹이는 것도 가문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노력 중 하나다. 이런 마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애를 먹이는 손자를 책망하지만 곧 마음을 정리한다. 가문만을 생각하다 보니 욕심이 과한 듯하다. 이문건은 가문수호에 치달음으로 오히려 손자를 힘들게만 한 것 같아 씩씩한 마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밥을 잘 먹지 않아서」

어찌 많은 것을 바라겠는가?  
 아들 하나 잘 전하면 다행이리.

131) 이문건 저, 위의 책. 「行疫嘆」: 不必爲吾身, 中情本來直. 日願無他歎, 爾身善成立, 終爲君子人, 德門優可入, 惟應享嘉祚, 繩繩衰緒緝.

액을 항상 남보다 먼저 당하는데,  
이런 일은 나중에 당하면 좋으련만.<sup>132)</sup>

이문건은 젓을 떼어 당으로 거처를 옮기고 할아버지를 잘 따르는 손자를 바라보며 손자와의 지난날들을 회상한다. 자신이 유배 와서 7년 만에 손자를 얻었다. 귀하게 길렀지만, 손자는 6살에 माम을 심하게 앓았다. 그렇게 ‘천금같이 귀한 손자’가 오랫동안 앓다가 구사일생으로 회복되었다. 이문건은 이 상황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손자를 돌보게 되어서야 자식의 아픔을 대신 감당해서라도 자식을 지키려했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전적으로 할아버지에게만 의지하는 손자를 돌보며 자애(慈愛)의 깊이를 가늠한다. 이런 마음이기엔 손자에 대해서는 굶은일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게 되었다. 이문건과 그의 어머니도 자손을 더 앞세웠던 것은 결국 가문을 위한 충정(衷情)때문임을 절감한다. 손자 역시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면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다 반긴다. 이렇게 혈육은 말이 필요 없이 잘 통하는 관계인 것이다. 이는 ‘한 뿌리 한 가지’이기에 가능한 것이라 설명한다. 이어 친친의 마음을 간직함이 살아가는 이치라 짚어준다. 맹자는 아동을 군자로 묘사하였는데,<sup>133)</sup> 유교에서는 가장 순진무구한 어린시기의 아이를 이상적 인물에 비유하였다(송순, 이진인, 1994). 이문건도 손자의 때묻지 않은 모습을 보며 수봉이 천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천품을 온전히 하여 어그러뜨리지 말라 하며 칭찬한다. 천성의 유지는 아동교육의 목표이기도 했다.

#### 「손자가 할아버지를 잘 따라서」

6월이 되어,  
마마로 고통을 당할 때,  
죽을 먹이는 일 똥누이는 일을,  
일일이 할애비더러 해다라 졸라대네.  
기쁜 마음에 스스로 꺼리지 않고,  
돌봐주니 기뻐하고 좋아하는구나.  
만약 할애비가 외출했을 때,  
날이 저물면 곧 슬픈 표정을 지으며,

132) 이문건 저, 위의 책. 「厭食嘆」: 所冀豈在多, 幸甘鐘子一. 厄常居人先, 此宜在他末.

133) 『孟子』 「離婁 下」: 孟子曰 大人者 不失其赤子之心者也.

밤에 자야할 시간에 졸려도 잠자지 않고,  
 애타게 기다리며 늦게 돌아온다 한스러하네.  
 집에 돌아오면 좋아하며 문에서 맞이하고,  
 깡충깡충 뛰면서 가빠하는구나.  
 이것이 진정 서로 살아가는 이치니,  
 한 뿌리 한 가지에서 나왔기 때문이라.  
 동심(童心)은 때문지 않았으니,  
 그 천성을 어찌 바꿀 수 있으리?  
 네게 바라노니, 아름다운 천품(天稟) 온전히 하여,  
 장성해도 그 천성을 어그러뜨리지 마라.<sup>134)</sup>

이는 김현철, 권성호(2014)가 소통을 서로 관계함에 막히지 않고 잘 통해 오해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정의한 연구와도 연결된다. 이들은 소통을 위해 ‘관계함’에 작용하는 핵심요인을 관계의 상호성·등가성·전방위성·무차별성으로 분류하여 제시했다. 물론 이 연구가 소통의 전제조건을 ‘어떠한 물(物)이나 사건(事件)이 객관세계와의 통(通; communications)’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를 조손간의 관계로 옮겨와도 큰 무리는 없다. 조손간에도 상호이해와 책임감, 서로의 가치를 동등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방향과 방면으로 관계한다. 단지 조손간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무차별적인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것을 차별적이라고 정의하기에도 마땅치 않다. 이문건은 이러한 관계의 특수성을 한 혈통이기에 가능하며, 혈육이 강력한 ‘끌림’의 기제라 말한다. 이 시기 가문의식은 가르치기 이전에 ‘한 뿌리 한 가지’로서 태생적으로 서로의 기가 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친친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3) 아동기(8-12세)

손자가 아동기에 이르자 할아버지는 위기감이 깊어진다. 가문을 이을 유일한 손자는 여전히 질병을 쉽게 넘어가지 못한다. 시간이 갈수록 손자의 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한계를 절감하며, 스스로의 처지가 한탄스러울 따름이다. 그러나

134) 이문건 저, 위의 책. 「愛翁吟」: 及至夏之季, 染疫方痛時. 哺粥與遺便, 事事要翁爲. 欣然不自憚, 扶護歡怡怡. 翁如有外出, 日暮卽生悲. 夜寢睡不熟, 侍苦恨歸遲. 還家喜迎門, 踴躍說心期. 是誠互爲生, 理一根與枝. 童心少所染, 天性豈磷緇. 冀爾全美稟, 長大無弊虧.

자손들이 이를 교훈삼기를 바라며 힘들어도 기록하는 것이라 밝힌다.

「귀에 종기가 나서」

연일 통증이 더욱 심했으며,  
파리하고 야위어 살갓이 뺨골에 붙은 듯.  
약물을 여러 번 바꿔 먹었는데,  
혹 올바로 처방하지 못한 것 같아 염려되네.  
이래서 한동안 더 곤란을 당하니,  
내 늙어 황혼이 찾아든 것이 한스럽구나.  
……

아! 누군들 병을 앓지 않으리?  
내겐 유일한 손자이기에 더욱 걱정하는 것이라.  
그래서 내 심사를 수고롭게 하여,  
이를 기록해, 후손에게 보여주고자 하노라.<sup>135)</sup>

아동기는 상대에 대한 배려나 전체의 조화를 생각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개인적 선호를 충실히 따르면서 자신에게 집중하는 발달적 특징이 있다(이주영, 2014). 수봉은 가문을 이을 계승자로 교육받고 있지만 여전히 집안보다는 자신을 앞세운다. 할아버지의 가르침도 가문을 위한 충정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때문에 책망을 받으면 할아버지의 마음보다는 섭섭함만을 앞세운다. 그런 손자를 보는 이문건은 더 애달프다. 혈육이기 때문에 손자의 아픔과 슬픔은 이문건에게 더 크게 스며들어 고통을 배가시킨다. 이러한 정서적 공유는 조손간의 ‘한 뿌리 한 가지’라는 의식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

그만 때리자 한참을 엎드려 우는데,  
늙은이 마음 또한 울고 싶을 뿐이라.  
혈육간의 천성적 자애심이 자연 슬프게 하는 것이라오,  
어찌 남의 일이라면 슬피하리요?  
…  
할애비 마음 헤아려야 할 것이니,  
개선하길 바라는 것이 참으로 지극한 정이라.<sup>136)</sup>

135) 이문건 저, 위의 책. 「耳腫嘆」: 連日通轉劇, 瘦瘦骨皮存. 藥物累換用, 慮或非常門. 因致尤久困, 恨我老謀昏. … 噫彼孰無病, 以吾唯一孫. 所以勞我思, 題此示來昆.

136) 이문건 저, 위의 책. 「撻兒嘆」: 解之久伏泣, 翁心亦思泣. 天慈自然悲, 豈容爲人悲. … 可揆老



이문건에게 ‘조급함’은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결과로 인식했다. 손자의 조급함은 여러 방면에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언행에서도 지속적으로 극단적 표출을 야기했다. 이문건은 그러한 조급함이 자신과 가문을 기울게 할 것이라 경고한다. 그동안 손자에게 마음수양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반복해 가르쳐왔다. “남자로 태어난 것은 매우 중대하다”, “날마다 깊이 성찰하라”, “한 순간도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개인의 수양 정도가 가문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이었다. 이는 기본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김동렬, 2011). 수양을 게을리 하지 않는 성실함, 한 순간도 방심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라는 것이다.

「조급증을 경계하여」

작게는 자신을 욕되게 하고,  
크게는 가문을 기울게 할 것이다.

...

바라노니, 네가 성장해가며 깨달아,  
뉘우치고 고쳐서 잘 보완해야 하리라.

...

남자로 태어난 것은 매우 중대한 것이며,  
이승은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일상생활에 건강하게 하고 날마다 깊이 성찰하여,  
한 순간도 망령되게 하지 마라.<sup>137)</sup>

4) 청소년기(13-16세)

수봉에게는 실현해야 할 과업이 있었고, 청소년기에 이르면서 분명하게 인지하게 된다. ‘과업의 보전’, 즉 ‘가문의 재건’이었다. 과업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현의 주체가 자신임을 받아들이면 태세를 전환하게 된다. 방향성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위치를 선점하여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사태의 핵심을 쥐고 있는 사람은 위태롭지 않다(김동렬, 2011). 이문건은 수봉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성현을 따르고 심신을 수양하는 것도 가문 재건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수봉은 과업을 인지했지만, 자신이 주체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하다. 번번이

翁情, 冀善眞至情.

137) 이문건 저, 위의 책. 「躁怒嘆」: 少則辱及身, 大可傾門戶. … 望汝年長知, 悔改以善補. … 男兒身甚大, 此生難更遇. 行行日深省, 一頓毋妄驚.



술에 취해 흐트러지는 모습이 수봉이 같등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취주(醉酒)에 탄식하여」

바라노니, 잘 변화해서,  
뛰어난 뜻을 하나로 귀착시켜,  
처세를 위태롭지 않게 하고,  
과업을 보존하여 끝까지 길하게 하라.<sup>138)</sup>

이문건은 한계상황에 다다른다. 자신의 노력이 더 이상 손자를 지킬 수 없음을 인지한 것이다. 그래서 손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초제를 드린다. ‘가문의 박복함’은 손자를 양육하는 내내 떨쳐버릴 수 없는 쓴 뿌리였다. 박복한 가문의 기운은 손자의 성장 내내 병치레로 고통을 주었다. 이제는 스스로 몸을 훼손하는 길로 빠지고 있다. 이전에 손자를 허락하여 가문을 이을 실마리를 주었으니, 재생하여 떨치게 해달라는 것이다. ‘재생’과 ‘떨치기’는 결혼을 통해 본격적으로 과업을 이어가기를 기원하는 바람이다. 잇고 또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인 것이다. 축원문에 결혼시기를 언급하는 것도 결혼이 가문계승의 완성(김영옥, 백혜리, 2000)이자,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이다.

「축원문 - 손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여」

가정 을축년(1565년) 4월 2일, 김씨, 정사생, 액병양초문.

김자수(金自粹)의 말을 따라 그렇게 했다.

널리 포용하고 두루 덮고 계신 하늘의 뜻은, 진실로 사사로이 하는 것이 없으며, 죽음을 피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쫓아가는 것이, 사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情)이니, 이것은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삼가 변변치 못하게 진설하여, 이로써神明(神明)을 모독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데, 수명과 운수가 기박(奇薄)하여, 자질을 자못 약하게 타고나서, 일찍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모두 중도에 요사했습니다. 우연히 손자를 얻었으니, 거의 나의 말년의 운수 동안에 완전히 보존되어, 결혼 시기까지 가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질병과 액운을 지탱하기가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데, 특별히 재생할 수 있게 어지심을 내리시고, 만전의 행운을 모두 이루게 해 주소서, 쇠퇴해가는 (운세의) 실마리를 다시 떨치게 해주시어, 연속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늙은 나무에 거둬 꽃이 피게 하고, 잎새마다 흠치르르 윤기나게 해주소서.<sup>139)</sup>

138) 이문건 저, 위의 책. 「警醉嘆」: 庶幾得善變, 卓志歸定一. 處世不履危, 保業終成吉.

139) 이문건 저, 위의 책: 嘉靖 乙丑 四月初二日, 金氏, 丁巳生, 厄病禳醮文. 從金自粹之言, 爲

이문건은 거듭 자신의 소원이 ‘가문 재건’임을 강조한다. 자신에게 가문 재건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를 오히려 명쾌하게 던지고 있다. 그야말로 평생의 소원이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단 하나뿐인 손자에게 말이다. 그가 단순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가문 재건’의 과업은 ‘평생’이라는 시간을 통해 이어진 성장과 소멸, 그리고 인내의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 순간도 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가 감내했어야 할 무게감이 ‘시종일관’이라는 말 속에 잘 녹아난다.

「할아버지의 조금씩 성념을 탄식하며」

내가 진심으로 하나 뿐인 손자에게 바라는 건,  
시종일관(始終一貫) 학문을 완성하여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것.<sup>140)</sup>

## 7. 권학(勸學) : 군자인(君子人)을 지향하다

유교에서는 ‘학문함’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였다. 배우지 않으면 도리를 모르며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다름없다고 하였다. 권학은 양반가정에서 자녀에게 부과되는 주된 과제였다. 자신 및 가문의 번영과 학문 그 자체를 중시하는 전통사회의 특징이다(이순형, 2000). 부모의 역할과 할아버지의 교육적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은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조부모는 전통적으로 ‘공부’ 즉, 교육 열의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구혜진, 2017: 52).

남아들의 학습은 입신과 가문의 번영을 위함이었다. 과거에 등과(登科)(조기제, 2011)와 유교윤리를 실천할 때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학문의 동기가 되었다. 이는 입신양명과 인간됨이란 입체적 인간교육인 것이다(유안진, 1986). 당시 사회적으로 성공한 집안들은 모두 학문으로 나름의 세계를 이루고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문건은 정암의 문하에서 배웠다. 정암은 『소학』을 독실하게 믿고 일용동정(日用動靜) 간에 심신의 검속을 중시하며 철저히 실천

之. 洪涵徧覆天意, 固無所私, 避死趨生, 人情, 寔有攸冀. 欽陳菲薄, 庸瀆神明. 伏念, 命數云奇, 受質殊弱, 曾育子女, 皆夭亡於半途. 偶得孫男, 庶保完於末運, 欲及時以媒合, 恐病厄之難支. 伏願, 特降再生之仁, 曲成萬全之幸. 衰緒更振, 俾繩繩以受恩, 老樹重華, 令葉葉以濡澤.

140) 이문건 저, 위의 책. 「老翁躁怒嘆」: 翁老眞心冀一孫, 學成終始立家門.

한 학자였다. 정암 공부론의 기반은 일상성과 현재성에 바탕을 둔 실천성이었다 (강보승, 2017: 89). 이문건도 이를 실천하면서 손자에게 가르쳤다. 학문은 조선시대 양반가 남자에게 자기수양과 가문을 위한 기본이었기 때문에 이문건도 권학의 목적을 양명(揚名)에 두었다(이석주, 2015). 이는 유배로 인해 격하된 자신의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안이기 때문이었다.

영아기에는 권학을 직접적으로 강조하지는 않는다. 다만 손자의 행동 속에서 학자적 삶을 살아갈 것을 예견하며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유아기에는 손자의 성향과 수준을 파악하여 그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한다. 내적 동기를 중시하면서 학문에 대한 흥미를 북돋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 시기 할아버지는 손자의 성향과 함께 자신의 교육태도와 방법을 점검하며 철저히 손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려 애쓴다. 아동기에 이르러서는 손자가 또래들과 어울리는 것에 몰두하면서 공부를 멀리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강조한다. 손자의 사대부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해 애를 쓰는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학문에 대해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는 누적공부(積功)를 독려한다(김경호, 2011). 그러나 이 시기는 그동안 권학에 있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노골화되면서 조손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문건은 절망하기에 이른다.

권학에 있어 이문건이 자신의 문제로 지적한 것은 ‘고식적인 마음’이었다. 영아기에 아이를 돌볼 때는 인지하지 못했다. 유아기에 이르러서 어렴풋이 느끼지만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손자가 아동기에 이르렀을 때야 심각성을 인지한다. 수봉이 공부에 게으른 것이 손자의 성향에 따른 부분도 있지만, 교육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하게 인지한다. 『사소절』에서도 “고식적인 사랑으로 내버려 두는 것”을 비판하였다. 이는 무책임한 부모로서 집을 망치게 하는 죄라고 하였다.<sup>141)</sup> 이렇게 ‘고식적’인 자세는 양육과 교육에 지속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다.

<표 21> 「권학」 내용

| 시기        | 순서 | 내용                   |
|-----------|----|----------------------|
| 영아기(0-4세) | ⑩  | 책 읽는 모습을 흉내 내는 것을 보고 |

141) 『士小節』 「婦儀」: 故教之不預 父母之罪也. 縱姑息之恩愛 貽無窮之患害 爲吾子女者 不遵吾教 必作禽獸.

|              |   |                           |
|--------------|---|---------------------------|
|              | ㉑ | 돌잡히기                      |
| 유아기(5-7세)    | ㉒ | 글자를 깨우치게 되어(誨字吟)          |
| 아동기(8-12세)   | ㉓ | 꾸짖고 나서(責兒吟)               |
|              | ㉔ | 중아리를 때리고 나서(撻兒嘆)          |
| 청소년기(13-16세) | ㉕ | 취주(醉酒)에 탄식하여(警醉嘆)         |
|              | ㉖ | 할아버지의 조금씩 성냄을 탄식하며(老翁躁怒嘆) |

### 1) 영아기(0-4세)

이문건은 정암의 문하에서 배웠다. 정암은 일용평상에서 심신의 검속을 강조했다. 『소학』을 중시하며 일상에서 몸소 실천함을 종지로 하는 조선 도학의 맥을 이었다(강보승, 2017). 이문건은 스승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랐고, 유배지에서도 그러한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가 책 읽는 모습을 흉내 내는 손자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독서하는 모습을 자주 보더니’라고 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실제로 이문건은 종손인 천택을 가르치면서 사대부로서 수신의 기본인 독서에 열심이었다.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자주 당에 올라가서 놀았던 수봉은 일상적으로 독서하는 모습을 접했다.

조선시대의 유배인들은 대개가 유교적 지식계급으로서 학자이면서 정치인이었다. 유배로 정치적 생명이 단절되면 자연스레 학자로서 독서와 글쓰기에 몰입하였다(양진건, 1991a). 더욱이 당시의 사대부는 조선사회의 유교화를 위한 선도자였다. 그들에게는 유교윤리에 입각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어 ‘수신(修身)’이 유교 공부론의 핵심적 실천방법이었다(김언순, 2007). 또한 유교에서는 원숙한 노년의 삶을 위해서는 호학(好學)의 태도를 지속해야 함을 강조한다(신동선, 2014). 이문건도 관직을 박탈당하고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유배인이었지만, 호학의 태도를 늘 견지하였다. 보고 듣고 배우는 것에 대한 흡수력이 가장 발달하는 영아기(안세희, 김은주, 2018)의 손자는 책 읽는 흉내를 낸다. 이문건은 이 모습을 사대부로서의 자질을 보이는 것이라며 흐뭇해 한다.

「책 읽는 모습을 흉내 내는 것을 보고」  
독서하는 모습을 자주 보더니,

머리 꼬덕이며 그대로 흉내 내는구나.  
 책을 들고 한참을 웅얼웅얼하는데,  
 여자애들 노는 것과는 다르구나.  
 어찌 문장을 엮으로 삼으려,  
 어릴 적부터 스스로 여기에 힘쓰려는 것 아니리오?  
 궁벽하게 된 나는 비록 신세가 끝나가지만,  
 이 손자에겐 하늘이 때를 정해주길 바라노라.<sup>142)</sup>

손자의 돌이다. 돌상은 꿈을 담은 물건들을 늘어놓고 꿈잡이를 하는 것이다(이 어령, 2009). 수봉은 돌잡히기에서 첫 번째 필목을 집어 들었다. 이문건은 ‘문장을 엮으로 삼을 아이’로 풀이한다. 손자도 자신과 같이 학자로서 입사하게 되리라 여기며 기뻐하는 것이다.

#### 「돌잡히기」

첫 돌 되어 장난감 높이 쌓아놓고 시험해 보는데,  
 기어와 살펴보더니 붓과 먹을 집어 드네.  
 소리 지르며 참으로 한참을 가지고 노는 걸 보니,  
 뒷날 진실로 문장을 엮으로 삼을 아이가 되려나 보다.<sup>143)</sup>

#### 2) 유아기(5-7세)

이문건은 6살의 손자에게 글을 가르치게 된 계기가 아이의 준비도(readiness)에서 출발하였음을 전제한다. 교육적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도 일련의 지식이다. 그 중에서도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공감적 지식이다(Manen, 2012). 공감적 지식은 조급해 하지 않는 노인세대의 연륜과 삶을 통해 터득한 지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문건은 손자에 대해서는 허가 짧아 발음이 부정확하고 집중하지 못해 잘 잊어버린다고 했다. ‘천품은 중간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할아버지가 아이의 현재 상태, 성향, 수준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침식을 같이하며 아이에게 집중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동시에 노인세대 특유의 통찰력도 작용했을 것이다. 오랜 세월 경험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문혜경, 양진건, 2017). 이는 노년기가 신체적 기능과

142) 이문건 저, 위의 책 : 習見讀書狀, 俯昂效其爲. 取卷發聲長, 作戲非女兒. 安知不業文, 早自勉于茲. 窮人身縱已, 所希天定時.

143) 이문건 저, 위의 책 : 高陳戲琬試生期, 匍匐來看筆墨持. 學手揚音良久弄, 眞成他日業文兒.

기억력은 쇠퇴하지만 생물학적 지혜는 절정기에 있음을 의미한다(신동선, 2014).

이문건은 손자의 성향과 수준을 고려하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 손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홍선주, 김태은, 2010). 이문건은 때로 의욕이 앞서 손자의 학습속도를 앞지르기도 했다. 과잉기대 때문이다. 조급함으로 압박지르게 되는 것을 반성하기도 한다. 이로부터 손자의 자질과 능력을 고려하여 가르쳐야 함을 스스로 상기한다.

손자의 연령·성향·학습특성을 복기하며 ‘상세히-천천히-타이름’으로 가르침의 방향을 재설정한다. 자신과 현상을 객관화하여 바라보려 노력한다. 이렇게 자기개선을 이루려 노력하는 것은 자기수양을 완성한 성현의 모습이다(정영숙, 2011). 진정으로 타인을 알기 위해서는 보는 능력과 보이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필요하다. 가르침에 대한 지식은 지적인 활동임과 동시에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Manen, 1986: 79, 83). 손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성찰과 방법의 재설정, 경계를 삼는 태도가 돋보인다. 이는 풍부한 경험과 지속적인 자기수양의 결과로 도출된 것이며, 이러한 자세는 격대교육의 장점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 「글자를 깨우치게 되어」

손자의 지각(知覺)이 날로 발달돼,  
시험 삼아 글자를 쓰고 읽게 하니,  
혀가 짧아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심란하여 잘 잊어버리고 제대로 외지 못하네.  
손자의 천품(天稟)이 중간 수준은 되니,  
기대하는 바는 너무도 성급하다.  
그렇지만 권하고 가르쳐 줄 때는  
성내며 지도하지 않을 수는 없지.  
응당 상세하고 천천히 타일러줘야 할 것이니,  
조급하게 압박지른다고 무슨 이득이 있으리?<sup>144)</sup>

이문건은 손자가 6살 되던 9월부터 육갑(六甲)을 가르치고,<sup>145)</sup> 10월부터는 『천자문』을 가르쳤다. 그러나 두 달 정도가 지나면서 “손자가 『천자문』 익히기를

144) 이문건 저, 위의 책. 「誨字吟」: 兒性日有覺, 試教書字讀, 舌短韻未諧, 心擾忘難憶. 兒稟足中人, 責望猶太急. 因之勸誨際, 不能無怒勅. 應須識詳緩, 躁緩有何益.

145) 『默齋日記』: 1556-09-29 護孫, 誨六甲.

싫어하고 장난치는 것을 좋아해서 『천자문』을 익히는데 마음이 없다”<sup>146)</sup>고 했다. 수봉이 7세에 마치게 되지만 많이 잊어버려<sup>147)</sup> 『초구(抄句)』와 함께 『천자문』을 다시 가르친다.<sup>148)</sup> 이문건의 노력에도 수봉은 글공부에 태만했다. 계속해서 손자는 공부를 게을리 하고 글씨 쓰기에 습관을 들이지 못한다. 손자가 놀기만 하자 화가 난 이문건은 글씨 공부하라고 벽에 붙여 놓은 종이를 찢어버린다.<sup>149)</sup> 급기야 할아버지가 자신을 예뻐하는 것을 믿고 공부를 하지 않으려는 지경<sup>150)</sup>에 이른다. 이 시기부터 글공부에 있어 조손간 갈등의 싹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문건이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 3) 아동기(8-12세)

이 시기는 기초적인 음독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리를 터득하면서 학문적 연마에 진입하는 시기이다. 이문건은 틈만 나면 무리지어 다니며 공부에는 태만한 손자를 엄하게 일깨워주려 한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나무람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잠시 후 나가서 친구들과 다시 어울린다. 이문건은 또래들과의 놀이에 빠져서 할아버지의 가르침도 팽개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에 더욱 화가 난 것이다. 이제는 뜻을 세워 사사로운 유혹을 물리치고 마음을 굳게 하여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긴 손자가 한심스럽기만 하다.

공부의 요체를 비근한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육과 외물의 간섭을 극복함에서 찾았던 정암의 사상(강보승, 2017)을 손자의 학업에 그대로 활용한다. 이문건은 손자가 어린 나이에 학습에 열중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자신이 강하게 독려하는 것은 손자가 ‘세월을 아끼길 바래서’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에 매진하기를 바라는 것임을 설명해 준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속내를 내보이며 손자의 변화를 바란다. 안정감과 손자에 대한 자애로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46) 『默齋日記』: 1556-12-27 孫厭習《字》.; 1557-02-19 孫也好戲, 而不心習《字》.; 1557-02-27 孫極學走, 不習《字》.; 1557-02-28; 1557-03-01 孫不習《字》.

147) 『默齋日記』: 1557-01-20 畢誨《千字》, 前習多忘.

148) 『默齋日記』: 1557-02-01 始誨抄句《千字》.

149) 『默齋日記』: 1557-03-02 孫兒之性鈍魯, 不得易習書字. 喜掣不學, 吾午後怒而手去壁紙.

150) 『默齋日記』: 1557-03-10 孫也恃愛, 不肯習《字》.



### 「꾸짖고 나서」

가정 기미년(기미 1559년) 3월 13일, 손자가 학업을 하지 않아 앞에 앉게 하고 나무랐는데, 또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 잠시 후 일어나 나가서 아이들과 어울려 동문 밖으로 갔다. 곧 바로 여종을 보내 불리오게 했는데, 뒷 사립문 밖까지 와서 끌어당겨도 들어오지 않기에, 내가 성난 목소리로 불렀다. 조금 후 내가 막 아랫집에 있다가, 그 불손함에 화가 나서, 친히 나가 데리고 들어왔다. 데리고 들어오면서 그 뒤통수를 손으로 다섯 번 때렸다. 들어오게 하여 창 쪽으로 서있게 하고, 손바닥으로 그 궁둥이를 네 번 때리니, 옆드려 우는데 도리어 가련한 생각이 들었다.

어린아이 중에 누가 날마다 부지런히 학습하리오?

할애빈 다만 네가 세월을 아끼길 바래서란다.

호되게 꾸짖었으나 반성하지 않고,

틈만 나면 때 지어 사방으로 다니네.<sup>151)</sup>

그러나 10살이 된 손자의 모습은 여전하다. 공자는 “배우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멍청해지고, 항상 생각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sup>152)</sup>고 하였다.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놀이에 빠져있다. 이문건은 가여운 마음이 앞서 매번 준엄하게 가르치지 못했다. 손자의 요구에 따라주다 보니 잘못이 반복되고 있음을 반성한다. 아이의 잘못된 공부태도에 자신도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가여운 마음이 앞서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매번 덮어두었다. 할아버지의 태도는 아이에게 반성을 통한 개선의 기회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그 순간만을 넘기려는 마음, 즉 임기응변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아이를 양육함에 양육자 및 교육자가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이문건도 이를 깊이 반성한다.

이문건은 마음을 다잡고 독서와 시 짓기 과제를 부여한다. 그리고 과제를 수행하지 않으면 좋아하는 그네를 끊어버리겠다 으름장을 놓는다. 이는 수봉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한 동기부여를 통해 공부에 힘쓰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단기적이기는 하지만 동기부여는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Steingart, 1997). 글쓰기는 읽고 들은 것이 기반이 된다. 독서가 인풋(input)이라면 글쓰기는 아웃풋(output)이기 때문이다(남은경,

151) 이문건 저, 위의 책. 「責兒吟」: 嘉靖 己未 暮春 十三日, 兒不習業, 使坐于前, 責之, 亦不省聽. 頃然, 起出, 與兒伴, 投東門外. 節遣婢招之, 來後扉外, 曳不入來, 厲聲號之. 良久, 吾方在下家, 怒其不遜, 親出, 領入來. 入來時, 指打其頂後五下. 入置函, 肉掌打其臀四下, 伏而泣之, 旋有憐心. 兒稚誰勤日習書, 翁徒望汝惜居諸. 縱然叱責無由省, 俟隙隨群走北西.

152) 『論語』 「爲政」: 子曰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2010: 11). 글쓰기는 독서가 전제되어야 가능해진다. 이문건은 아동기에 힘써야 할 것을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과목도 모두 상의하달(上意下達)과 하의상달(下意上達)을 위한 글쓰기였다. 기본적으로 글쓰기에 익숙해져야 했다(허경진, 2016). 그러나 할아버지의 의도는 여지없이 무너진다. 혈육이기에 개선되기를 바라는데 손자는 할아버지를 실망시킨다.

이문건은 손자가 공부를 게을리 하는 것이 지속된다면 방법이 없기에 절망한다. 왜냐하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상호관련성을 가진 상응의 과정이기 때문이다(Dewey, 1910). 수봉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할아버지가 아무리 독려하고 환경을 조성해준다 하더라도 소용없는 것이다.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

아이를 가여워하는 고식적인 마음이,  
 사사건건 그렇게 아이의 마음을 반복되게 했도다.  
 단오 때는 그네뛰기를 하는데,  
 곳곳에서 아이들이 그네를 타네.  
 우리 아이도 그네를 타겠다 조르기에,  
 허락하였네.  
 오래도록 바람에 몸을 날리더니,  
 이튿날도 오로지 그네에 몸을 매달고 있네.  
 전혀 책을 돌아보지 않기에,  
 아울러 책도 읽으라 말을 전했다.  
 연구(聯句)로 글을 지으라 했으며,  
 그러지 않으면 그네를 끊겠다 했네.<sup>153)</sup>

4) 청소년기(13-16세)

이문건은 이 시기는 인지적으로 ‘한창 지식이 성숙하고 시비를 분별할 나이’라고 언급한다. 수봉에게는 청소년기에 기대할 수 있는 성숙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전히 독서를 싫어하고 유희에 빠져 있다. 이시기는 동년배들과의 연대의식이 형성되면서 기성세대에 대해 배타적 성향을 갖게 된다(박명규, 2017). 손자의 반항이 심해지면서 학업은 더욱 지지부진해진다. 공부를 권하는 할아버지와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손자는 양극단의 대척점에 서게 된 것이다.

153) 이문건 저, 위의 책. 「撻兒嘆」: 姑息憐兒心, 事事循厥心. 端午鞦韆戲, 處處兒曹戲. 吾兒亦效爲, 扣我我許爲. 長泛風入身, 翌日猶懸身. 全然不顧書, 傳言兼讀書. 聯句可作之, 不然當斷之.

이문건은 아동기부터 자신이 스스로에게 지적했던 양육태도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분석한다. 유일한 혈손에 대한 ‘고식적인 마음’이 가르침에 장애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문건은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잘못된 태도를 그냥 넘기지 않고 엄격하게 다루겠다고 결심한다. 모든 것은 일상의 사소한 것을 가볍게 보아 넘긴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를 복기하며 경계하겠다는 굳은 다짐이다.

「취주(醉酒)에 탄식하여」

지금쯤 한창 지식(知識)이 성숙할 때이며,  
시비를 익히 분별할 나이가 됐는데,

.....

손자 하나라서 항상 가련히 여겨,  
매번 과실을 용납해 주었더니,  
손자의 마음이 점점 오만해져,  
어기려는 기색이 때때로 나타나는 것이라.  
독서를 싫어하고, 장난하고 놀기를 좋아하며,  
물가에 가서 고기 잡기를 즐긴다.  
손자는 성품이 조급해,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며,  
혼날까봐 저지른 일을 숨기고, 부질없이 떠 말만 돌려댄다네.  
그것을 이끌어주어 고치게 하려 힘썼으나,  
훈계하는 말을 자꾸 어기는구나.  
손자를 고식적으로 교육해서는 안 되며,  
고집부리는 걸 내버려두면 고질이 되리라.  
이로부터, 일상생활 중에,  
일을 저지르면 엄격하게 다루려 한다.  
잘못을 고치지 않아서 허물이 많아지면,  
은혜를 저버리고 혹 인연을 끊게 되리.  
행여 대단히 상스럽지 못한 일을,  
그냥 두는 건 금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sup>154)</sup>

어느 덧 이문건은 일흔을 훌쩍 넘기고, 손자는 열여섯이 되었다. 열심히 책을 읽기를 바라며 독려하지만 별 효과가 없다. 할아버지는 등잔불을 밝히고 직접 가르친다. 그런데 조손간은 ‘至濫公論漢家之治終於不古處’ 뜻풀이 때문에 갈등을 겪는

154) 이문건 저, 위의 책. 「警醉嘆」: 今方知識長, 是非習以別. … 常恰一姓孫, 每自容誤失. 兒心長傲頻, 戾氣或時發. 厭讀好漫遊, 入水逐魚鼈. 躁急不容人, 匿事多謾說. 提撕勉使改, 訓言將違拂. 不可姑息養, 強項成痼疾. 從茲日用間, 隨事示嚴切. 不悛若咎苛, 傷恩或離絕. 幸然大不祥, 置之不如勿.

다. 사마온공이 논평한 대목에 대해 이문건은 독해순서, 손자는 핵심내용의 이해에 주안점을 두었다. 조손의 해설과 견해에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할아버지는 수봉이 번역순서를 무시하고 자기주장을 완강히 고집하자 역정을 내는 것이다(이상주, 1996: 503). 손자의 불손한 태도와 고집으로 이문건은 공부를 중단한다. 학습은 해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데(이서영, 2014), 조손간의 학습상황은 불쾌한 신경전으로 마무리되고 만다. 다음날 이문건은 손자의 불손한 태도의 재발방지와 자신의 고집적인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평소보다 과도한 매를 든다. 이 때에는 군자인 되어 덕망 있는 가문을 이를 책임을 가진 손자와 일용동정의 사소한 일에 엄격하게 가르치지 못한 자신에 대한 경계이자 질타인 것이다. 조손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부의 의미도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손자의 태도는 이덕무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는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훌륭한 인재가 되지 못할 몇 가지 경계할 내용<sup>155)</sup> 중 하나에 속한다. 이문건은 과정을 엄격히 세운다. 신독(愼獨), 경서의 반복, 자자구구(字字句句)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가 손자에게 과제를 주고 꼼꼼히 점검하는 모습은 『소학』에서 제시하는 방법<sup>156)</sup>이다. 당시 유학자들이 자제를 가르치는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 「할아버지의 조금씩 성념을 탄식하며」

병인년(1566)년 4월 초 4일, 손자 숙길(淑吉)에게 독습(讀習)하라 독려하나 대만 하여 별 결과가 없어서, 황혼에 등잔불을 밝히고 깨우쳐 주었다. 사마온공(司馬溫公)이 한가(漢家)의 정치가 고(古)에 미치지 못한 곳에서 끝났다고 논한 대목에 이르러, 그것을 설명해 주었다. “한(漢)나라의 정치는 고대(古代)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났다는 것이다.”라고 하니, 숙길이 “한(漢)나라의 정치는 끝내 고대(古代)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다. 내가 다시 나의 견해가 옳다고 한 즉 손자가 이에 성질을 부리기에 밤에 그것을 가르쳤다. (손자가) 고집부리고 분격하며 말하기를 “제가 풀이한 것과 같이 그것을 풀어야 (한(漢)나라의 정치

155) 『士小節』 「童規」: 童子方受讀, 而心大躁擾, 厭聽師長訓義, 以手指葉, 常欲翻揭, 甚至未及說倒第末行之義, 而徑揭葉也, 不能融解, 亦無問難, 受纔已, 而忙忙覆冊, 長者亦或并聲導讀, 童子則讀甚忙迫, 而其聲常在長者之前, 是犯反教之嫌, 不惟不能領會訓旨, 心不安定, 不成令器. 凡此數者, 可不深警.

156) 『小學』 「嘉言」: 學業則須是嚴立課程 不可一日放漫 每日須讀一般經書, 一般子書不須多 只要令精熟 須靜室危坐 讀取二三百遍 字字句句須要分明 又每日須連前三五授 通讀五七十遍 須令成誦 不可一字放過也.

가 고대(古代)의 수준보다 뒤떨어진 것이 심(甚)하다는 뜻에 가까운 듯합니다.”라고 했다. 내가 화를 내며 책을 밀어 놓고 멈추었다. 이튿날 아침 늙은 아내에게 이에 대해 경각심을 주어야겠다고 말했다. 손자를 불러서 앞에 엎드리게 하고 말부리는 회초리로 궁둥이를 30대 때리니, 놀라 소리를 질러서 그만두었다. 또 초 10일 밤에 독습(讀習)을 하지 않아 책망하고, 그 사정을 말하도록 하니 베개에 엎드려 말이 없었다. … 또 19일 독려하여 익히게 했으나 따르지 않아 조금하게 화를 내어 지팡이를 들어 궁둥이를 무수히 때렸는데, 그 차고 있던 칼이 지팡이에 맞아 부러졌다. 지금 다시 그것을 생각해보니, (이 아이가) 어릴 적에는 한결같이 어여빠 여기고 안타깝게 생각하여, 손가락 한 번도 차마 대지 못했는데, 지금 가르침에 당하여는 어찌 한결같이 화를 내며, 이처럼 자애롭지 못하게 되는데 이르렀단 말인가? 이 할아버지의 난폭함을 진실로 경계한다. 손자 역시 게으름이 심하여 날마다 익히는 것이 겨우 몇 장이다. 30번 읽으라하면 따르지 않고 혹 15번이나 혹은 10번 남짓에서 그만 둔다. 비록 숙독(熟讀)하라 독촉해도 끝내 말대로 하지 않으니 어찌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실수하여 끝날 때가 없으니, 반드시 할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그만 두게 될 것이다. 아!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이 읊조린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 뿐인 손자에게 바라는 건,  
시종일관(始終一貫) 학문을 완성하여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것.  
글을 읽을 때 의미를 잘못 알까 걱정하여,  
뜻풀이에 먼저 꼭 반복하여 설명해 주네.  
어찌 손자는 간혹 황당한 말로 대드는가?  
누가 장차 날마다 가르쳐 익혀 줄 수 있겠는가?  
손자가 전의 잘못을 뉘우쳐 개선한다면,  
인륜에 흠집 없이 내 은혜를 갚게 되리라.<sup>157)</sup>

이 시기는 논리적 판단이 가능해지면서 부모를 덜 이상화하고 단지 ‘보통사람’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어릴 때와는 달리 부모의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도 거부하게 된다(Berk, 2012: 483). 이런 점에서 볼 때 수봉은 공부에 있어 할아버지에 대한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조, 자신과

157) 이문건 저, 위의 책. 「老翁躁怒嘆」: 丙寅 四月初四日, 督令孫吉讀習, 怠慢不果, 昏乃明燈, 誨之. 至濫公論漢家之治終於不古處, 解曰漢之治不及古而終已也云, 古以爲漢治終乃不及古云. 吾再是已見, 則孫乃慍, 夜訓之. 固兼忿言曰如是, 解之, 近後孔云, 吾怒推卷而止. 翌朝, 與老妻, 談此可警也. 召孫, 伏前, 用馬策柄, 敲打臀股三十下, 氣急而止. 又初十夜, 責不習讀, 使言其情, 伏枕無言. … 又十九日, 督習不遵, 躁怒, 持筴, 打尻股, 不數, 其所佩刀, 逢筴而折. 今更思之, 當其幼也, 一何憐惜, 不忍一指推之, 今當訓書, 一何躁怒, 不慈至是耶? 翁暴誠可戒焉. 孫亦惰甚, 日習僅數張. 令讀三十遍, 不克從令, 或十五遍, 或十餘遍而止. 雖督令熟, 終不依言, 豈不非哉? 祖孫俱失, 無有己時, 必至翁斃而後止也. 嗚呼, 垂涕而吟曰 翁老真心冀日孫, 學成終始立家門. 臨書自念差違訓, 解旨先須反覆言. 柰復或時辭至慢, 誰將逐日習能溫. 兒如悔得前非改, 無慚人倫報我恩.

가문의 영달은 학문에 매진하여 입신양명해야 가능했다. 때문에 손자가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며 할아버지는 끝까지 권학(勸學)에 힘쓴다.

이문건이 태교, 보양, 효, 예절, 성역할, 가문의식, 권학의 내용을 실천함에 있어 관통하는 하나의 맥이 있다. 그것은 심신의 수양을 일관되게 강조하며 교육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문의 내력과 손자의 병약함이 반영된 것이며, 자신의 삶을 통해 근본을 바르게 하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은 까닭이다. 궁극적으로는 손자를 군자인으로 성장시켜 가문의 번창을 열망하는 것이다. 즉 가문의 번창은 자기수양을 통한 인격완성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따라온다는 것이다. 이문건이 군자인을 목적으로 삼고 가르친 내용은 자신이 배웠고, 아들 온에게 가르친 내용이었다. 이로써 외양으로 드러나는 것은 내면의 수양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것이 있고 또 이어가는 길임을 그의 삶을 통해 체득한 것이다. 이문건에게 가문의 번창은 다의적 의미를 갖는다. 심신의 수양을 통해 자신을 온전히 하는 것이 효를 이루는 것이고, 폭넓은 교유관계로 확장할 수 있으며, 남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학문을 이루는 것이다. 이는 ‘자기수양 → 군자인 → 덕망 있는 가문 형성 → 가통의 계승’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치’의 성격이 교육의 내용과 성격을 결정하게 된다(고병헌, 2011).

그리고 이문건은 “누가 장차 날마다 가르쳐 익혀 줄 수 있겠는가?”라며 삶의 끝자락에서 자신이 손자를 가르치는 것에 치열할 수밖에 없는 까닭을 토로한다. 이문건이 손자를 잘 기르는 것은 손자를 통해 자손에게 전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문건의 격대교육은 손자가 개선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염두에 두는 긴 안목을 반영하는 것이다.

#### IV.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의 방법

교육의 방법은 교육내용과 대상, 교육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조직된다(허영주, 2008). 이문건의 육아 및 교육의 과정에는 인간을 보는 견해가 그대로 드러난다. 손자의 품성과 능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교육을 통한 변화가능성의 낙관적 전망을 내어 놓는다. 이문건의 교육 방법에는 손자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인생의 풍부한 경험과 인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손자의 자질을 염두에 두면서 시기와 상황까지 고려하며 교육에 임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의 모습이 두드러진다. 같은 교육방법 일지라도 성장해감에 따라 조절하는 것은 이문건이 발달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의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 방법의 발달 시기별 분석은 <표 22>와 같다.

<표 22> 「양아록」 격대교육 방법의 발달 시기별 분석

| 방법<br>시기         | 모방   | 역행 | 예시  | 체벌 | 여질 | 독서 |
|------------------|------|----|-----|----|----|----|
| 영아기<br>(0-4세)    | ①⑥⑧  |    | ⑭   |    | ⑮  |    |
| 유아기<br>(5-7세)    | ②③⑩⑪ | ②③ | ②③⑤ | ⑩  | ⑧  | ⑧  |
| 아동기<br>(8-12세)   | ⑩    | ⑩  | ⑩   | ⑩⑩ | ⑩⑩ | ⑩  |
| 청소년기<br>(13-16세) |      | ⑩⑪ | ⑪   | ⑩⑪ | ⑩  | ⑪  |

## 1. 모방(模倣) : 본보기를 보이다

아이가 ‘인간’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영향이며, 교육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영향이다(안경식, 2004: 223). 따라서 배움의 방법은 다양하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방법은 본받음(效)이다. 동몽(童蒙)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어른들의 예(禮)에 적합한 삶의 모습은 아동에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관찰의 대상이 된다. 자연스럽게 따라함으로써 몸으로 익히는 본보기 교육이요, 모범교육이 되는 것이다. 일찍이 이덕무도 『사소절』에서 어려서부터 장성해질 때까지 듣고 보는 것이 그 사람의 됃됨이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사람공부’는 모범과 본보기에서 시작되며, 이는 스스로 깨우치는 자연스러운 교육이다(안경식, 2004). 맹자는 “대인이 있으니 자신을 바르게 하고 사물을 바르게 잡히도록 하는 자”<sup>158)</sup>라고 하였다. 즉 대인(성인)은 자신을 바르게 한 후에 그 방법을 사물에 옮겨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는 가르치는 자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배우는 자들이 스스로 감화되는 ‘말없는 가르침’을 일컫는 것(강봉수, 2001: 17)으로, ‘보여줌’과 ‘봄’을 통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모두에게 훌륭한 심신수양 방법이 된다. 때문에 ‘본보기’와 ‘동일시’는 전통교육에서 가장 중시된 교육 원리로서 모든 발달단계에서 강조되었다(김향은, 2003).

영아기에는 자발적인 모방이, 유아기부터는 할아버지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시하여 따라하도록 이끌고 있다. 청소년기에는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아동기의 연장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23> 「모방」 내용

| 시기        | 순서 | 내용                   |
|-----------|----|----------------------|
| 영아기(0-4세) | ⑩  | 책 읽는 모습을 흉내 내는 것을 보고 |
|           | ⑪  | 말을 배움 (學語)           |

158) 『孟子』 「盡心上」: 有大人者 正己而物正者也.



|            |   |                   |
|------------|---|-------------------|
| 유아기(5-7세)  | ㉔ | 손톱을 다쳐서(傷爪嘆)      |
|            | ㉕ | 자식의 죽음을 탄식하며(遭喪歎) |
|            | ㉖ | 종아리를 때림           |
| 아동기(8-12세) | ㉗ | 조급증을 경계하여(躁怒嘆)    |

1) 영아기(0-4세)

영아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모방을 통해 세상을 탐색하며 기술을 습득하고 학습한다(정혜린, 방희정, 2014; Goubet, Rochat, Maire-Leblond, Poss 2006; Meltzoff & Kuhl, 2016). 이 시기 모방은 대상을 다루고 있는 양육자의 모습을 모방하게 된다(노희연, 2010). 따라서 가족들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 그리고 환경이 주요 학습수단이 되고 있다. 이 시기 부모 및 주변인은 올바른 모범을 보이고,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김영옥, 백혜리, 2000). 왜냐하면 교육은 아이들의 사회적 환경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 행동과 일치할 때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Dewey, 1916: 33).

「책 읽는 모습을 흉내 내는 것을 보고」

손자가 천택(天澤)이 독서하는 것을 보고는, 책을 집어 들고 몸을 흔들며 소리를 내어, 그 책 읽는 모습을 흉내 내는 것 같으니, 참으로 하나의 풍류이다.<sup>159)</sup>

이어서 “사람이 말 분명하게 흉내 낸다”<sup>160)</sup>고 하여 수봉이 모방을 통해 활발한 학습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아는 모방함으로써 세상에 대해 배울 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인지하게 된다(Meltzoff & Kuhl, 2016). 실제로 이문건은 “여자애들 노는 것과 다르다”고 하면서 “문장을 업으로 삼으려 스스로 힘쓰는 것”이라 평가한다. 이는 이문건이 수봉의 모방행위에 대한 관점을 표현한 것으로 수봉은 이 관점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159) 이문건 저, 위의 책. : 兒見天澤讀書, 取卷, 似效其狀, 眞一風流也.

160) 이문건 저, 위의 책. 「學語」: 效人言語了, 日日勝前時.



## 2) 유아기(5-7세)

학습의 과정에서나 훈육의 실제에서 옛 성현(聖賢)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사실상 유아에게 바람직한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유안진, 1986). 유아들은 매력적인 모델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모델과 심리적 일체감을 갖고자 하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갖게 된다(김영옥, 2014: 107).

이문건은 손자가 손톱을 다치자 효의 사표(師表)인 증자(曾子)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는 몸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해야 하는 정당성을 자연스럽게 가르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야기를 구연으로 들려주는 것은 유아에게 읽는 것보다 더 큰 융통성을 준다. 이렇게 이문건처럼 들려주기를 통해 그 현장 사람들 상호간의 사건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구연방법이기도 하다(엄은진, 2010).

‘상호간의 사건으로 만든다’는 것은 바로 증자의 이야기를 손자가 손톱을 다친 상황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옛날 증자의 상황이 현재 수봉의 삶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모가 온전히 주신 몸을 훼손치 않은 것에 대해 ‘증자의 실천’을 들려주는 것은 그 어떤 설명보다 손자에게는 강하게 각인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아는 것’이 아니라 ‘겪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윤옥자, 2000; 엄은진, 2010: 69). 이렇게 유아기는 모델의 외적 특징과 행동에 관심을 갖고 모방하게 된다(김영옥, 2014). 따라서 ‘효→증자’를 이야기로 연결시킨 것은 이시기 수봉에게 시의적절(時宜適切)한 제시이며, 수봉의 모방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손톱을 다쳐서」

옛날에 증자(曾子)는 수족을 온전히 보존하여,  
오랜 세월 아름다운 자취로 추앙받았으니,  
손자는 모름지기 이런 뜻을 유념해서,  
털끝 하나라도 감히 훼손치 마라.<sup>161)</sup>

또 이문건은 자식의 상(喪)을 당하자 손자를 상주(喪主)로 세우고 합당한 예를 보여주며 그대로 따라하도록 한다. 손자는 할아버지를 모방하며 상례(喪禮)의 규범을 습득한다.

161) 이문건 저, 위의 책. 「傷爪嘆」: 昔賢啓手足, 千載仰遺芳, 兒須體此意, 一豪毋敢傷.

「자식의 죽음을 탄식하며」

상복을 입히고 앓혀서 곡하게 하니,  
두 눈에 마침내 핏망울이 맺히는구나.  
초하루 보름에 함께 손잡고 곡하게 하며,  
내가 하는 대로 잔 들어 한 잔 따르게 하네.<sup>162)</sup>

3) 아동기(8-12세)

성현의 성품과 행적은 유학이 지향하는 교육의 표준이자 목표였다(목영해 외, 2010). 때문에 성현의 행적을 따르는 것은 이문건에게도 손자의 양육과 교육의 지향점일 수밖에 없다. 인의(仁義), 즉 사람의 마음과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지키는 것이고 잃어버린 마음(본성)을 찾는 것이다.<sup>163)</sup> 이렇게 이문건은 손자가 군자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성현의 삶을 본받기를 바랐다.

「조급증을 경계하여」

온순·공손하게 하며, 낮추어 스스로 수양하여,  
삼가 행동하며 고자(高子)와 증자(曾子)를 따르라.  
고자(高子)와 증자(曾子) 두 선생은,  
백세의 준척(準尺)이라.  
너의 조급하고 경망한 마음을 없애고,  
성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하라.<sup>164)</sup>

모방학습에 있어 대상은 다양한 측면에서 권장되었다. 교육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대상이 제시되었다. 한편 『계몽편』에서는 서적을 제시하는 이유도 ‘본받음’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글을 읽어서 이치를 궁리하여 옛사람의 행실을 관찰하여 내 마음에 체험하여서 그 한 가지 착함이라도 이를 얻어 힘써 행한다면<sup>165)</sup>

162) 이문건 저, 위의 책. 「遭喪歎」: 衣帶卽坐使哭之, 兩眼終然如染血. 朔望會哭乃携偕, 隨我執盞助一酌.

163) 『孟子』 「告子上」: 孟子曰 仁人心也 義人路也 舍其路而不由 放其心而不知求 哀哉 人有鷄犬放 則知求之 有放心而不知求 學問之道無也 求其放心而已矣.

164) 이문건 저, 위의 책. 「躁怒嘆」: 溫恭卑自牧, 訥慎追愚魯. 愚魯兩先師, 百世爲準矩. 去汝躁妄心, 克從先賢武.

165) 『啓蒙篇』 「倫理篇」: 故 必須讀書窮理求觀於古人 體驗於吾心 得其一善 勉行之.

그야말로 서적 속의 인물들은 전통과 역사 속에 빛나는 ‘인격적 전형’들이다. 아동은 서적을 통하여 그 전형들을 만나고 ‘되어야 할 당위’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강봉수, 2001: 20). 아동은 보고 들은 것을 기계적으로 따라 하는 대신 적절한 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타인들을 주의 깊게 살핀다(Kail, 2009: 10). 때문에 서적을 제시하는 것은 단순한 흉내가 아니라, 아동의 능동적 해석을 통해 이해한 후, 그 인물의 행동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소절』에서도 학문과 생활에 있어 바람직한 태도의 습득이나 경박한 자세를 경계할 때, 표본으로 삼을 만한 선조를 소개하며 따르기를 권했다. 이덕무가 이를 거듭 강조하는 것은 옛 것을 배워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다. 현실의 거울을 삼아 지금을 살피기 위함이다. 이문건도 고자, 증자, 공자를 소개하며 본받을 것을 권하였다. 이는 아동기는 모델을 통해 사회적 역할과 관계에 집중(김영옥, 2014)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델의 제시는 교육의 모호성을 탈피하게 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지향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돕는다.

## 2. 역행(力行) : 실천을 중용하다

조선시대 공부(工夫)란 유학을 공부하는 것으로, 이는 ‘공리공론(空理空論)’의 ‘허학(虛學)’이 아닌 자신을 수양하여 인간의 완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양은 평범한 일상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공부를 통한 앎(知)과 실천(行)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윤완석, 2011; 김정화, 2017). 공자는 <논어> 전편을 통하여 실천을 통한 배움(learning by doing)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강조하였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지속적으로 바르게 실천하려는 노력이 배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좋은 습관과 태도로 이끈다. 역행의 강조는 당연히 실생활 중심의 교육적 특징을 나타낸다. 학문은 결국 일상생활에서 옴을 구하여 행하는 것임을 표명하는 것이다(도광순, 1995). 이는 ‘앎(知)’을 자신의 삶에 온전히 체화하는 것이다(황금중, 2002).

수봉의 영아기는 특별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유아기의 내용과 연결

지어볼 수 있을 것이다. 유아기에는 실천하기 위해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배운 것을 스스로의 수양과 성찰을 통해 덕을 쌓음으로서 마음의 본성을 밝히도록 강조하고 있다.

<표 24> 「역행」 내용

| 시기           | 순서 | 내용                    |
|--------------|----|-----------------------|
| 유아기(5-7세)    | ㉑  | 더위를 먹어서(暑瘡嘆)          |
|              | ㉓  | 자식의 죽음을 탄식하며(遭喪嘆)     |
| 아동기(8-12세)   | ㉔  |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撻兒嘆)      |
| 청소년기(13-16세) | ㉕  | 취주(醉酒)에 탄식하여(警醉嘆)     |
|              | ㉖  | 술 마시는 것을 경계한 글(少年醉酒戒) |

#### 1) 유아기(5-7세)

루소(1762)는 아이는 말에 앞서 경험으로 가르쳐야 하며, 행동으로 실천될 때 배우는 지식과 개념을 이해하고 잊지 않는다고 하였다. 가정교육의 목적 역시 문자를 터득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만족을 삼기보다는 윤리를 배워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 배우기 때 문이다(Ellen Key, 1900).

이문건은 유학자로서 ‘실천(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하였다. 그는 ‘정신’과 ‘식견’의 성장 및 성숙을 실천의 전제로 삼고 있다. 손자가 자신의 몸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배우면 당연히 일상에서 실천 하게 됨을 상정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부덕(不德)은 덕이 무엇인지 모르는 곳에 생긴다고 한 소크라테스(Socrates, BC 439-399)의 주장(목영해 외, 2010)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점에서 배운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책임의식이 발동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더위를 먹어서」

언제 정신(情神)과 식견(識見)이 성장하여,  
제 몸 제가 보호할 줄 알게 될꼬?<sup>166)</sup>

「경기를 일으키는데 아까워」

정신(情神)과 식견(識見)이 성숙하면,  
응당 제 몸가짐 가벼이 하지 않겠지.<sup>167)</sup>

2) 아동기(8-12세)

이문건이 손자에게 화를 내거나 체벌을 하는 원인을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실천이 따르지 않을 때였다. 『논어』에서 ‘배움(學)’이 ‘배움을 좋아함(好學)’이라는 표현으로 함께 등장하는데, 이 자체가 배움이 행동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짐을 뜻한다(심승환, 2010: 86). 이는 인간의 삶은 “환경에 작용함으로써 스스로를 갱신해가는 과정”이며, “유기체의 필요에 환경을 끊임없이 재적응시켜 나가는 것”이라는 듀이의 관점(Dewey, 1916: 10; 1934)과도 맥을 같이 한다. 결국 실천을 동반하는 삶은 관계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상승시키며, 진정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유가에서 앎(지식)보다 실천을 더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문건은 손자가 아동기에 이르자 배운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해석하고, 의미부여하는 성찰의 과정이 동반되는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목영해 외, 2010). 배움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예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배움의 완성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조급증을 경계하여」

온순·공손하게 하며, 낮추어 스스로 수양하여,  
삼가 행동하며

...

마음을 수양하여 덕을 갖추면,  
모든 행동에 잘못이 없게 되리라.

...

일상생활에 건강하게 하고 날마다 깊이 성찰하여,  
한 순간도 망령되게 하지 마라<sup>168)</sup>

166) 이문건 저, 위의 책. 「暑痢嘆」: 何時神識長, 將護得自知.

167) 이문건 저, 위의 책. 「驚懼嘆」: 到得神識長, 持身應未輕.

168) 이문건 저, 위의 책. 「躁怒嘆」: 溫恭卑自牧, 慎追 … 操心以浴德, 百行武所蠱. … 行行日深省, 一切毋妄驚.

### 3) 청소년기(13-16세)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도 앎을 실천으로 연결시키지 못하자 손자에 대해 단호하게 가르칠 것임을 다짐한다. 이문건은 실천이 따르지 않는 앎은 인간됨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인격의 완전함에 도달’한다는 것은 현실적 인간이 자신을 이상적인 모습과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다. 결국 실천과 연결되어야, 비로소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김정화, 2017: 37). 즉 인격의 완전함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알기만 하거나 느끼기만 하거나, 또는 무조건 행동하는 일면적이고 단순함으로는 형성되지 않는다. 사고하고 판단하는 지적 측면과 느끼고 의욕하는 정의적 측면, 그리고 실천하는 행동적 측면의 통합된 내적 성향으로 구현될 때 가능한 것이다(강봉수, 2001: 10). 이렇게 이문건은 수봉의 배움이 일상에서 실제화 되지 못하는 것은 성찰의 부재로 통합되지 못한 결과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취주(醉酒)에 탄식하여」

이로부터, 일상생활 중에,  
일을 저지르면 엄격하게 다루려 한다.  
잘못을 고치지 않아서 허물이 많아지면,  
은혜를 저버리고 후 인연을 끊게 되리.<sup>169)</sup>

#### 「술마시는 것을 경계한 글」

내가 하나밖에 없는 손자를 기르는데, 여러 번 경계하도록 했으나 반성하지 않고, 술취하고 구토하여 밥을 못 먹은 적이 매우 잦다.<sup>170)</sup>

### 3. 예시(豫示) : 미리 제시하다

조선시대 학자들은 아동의 교육내용과 함께 언제, 어떻게 교육시키느냐를 중요하게 여겼다. 이는 소학의 철칙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미리 함’을 우선으로 삼

169) 이문건 저, 위의 책. 「警醉嘆」: 從茲日用間, 隨事示嚴切. 不悛若咎苟, 傷恩或離絕.

170) 이문건 저, 위의 책. 「少年醉酒戒」: 吾養得一孫, 屢戒而不省, 醉嘔不食者, 甚數.

왔기 때문이다(김미라, 2012). 어린시기에는 정신에 잡념이 없고 예민하며, 아직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다. 이때 교육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평생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교육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보통 두세 살 때에 말을 시작하고 밥을 먹기 시작하므로 초보적인 습관형성을 위한 교육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영유아기는 발달 특성상 인격형성의 결정적 시기에 놓여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에 조기교육을 중시하였다. 일찍이 코메니우스(Comenius, 1657)도 인격의 형성을 일찍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인생은 배우는데 소비되기 보다는 행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므로 가능한 빨리 인생의 활동을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문건이 영아기부터 교육을 시작하는 목적은 당연히 선성(善性)의 보전을 통해 도의(道義)를 왕성하게 하고자 함이다. 즉 군자인의 바탕을 어려서부터 기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기에는 인격적 성장의 바탕 위에 사고의 과정의 필요함을 가르친다. 조급한 성격의 손자에게 미리 제시함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표 25> 「예시」 내용

| 시기           | 순서 | 내용                   |
|--------------|----|----------------------|
| 영아기(0-4세)    | ⑭  | 처음 일어서서(始立)          |
| 유아기(5-7세)    | ㉑  | 더위를 먹어서(暑瘡嘆)         |
|              | ㉒  | 손톱을 다쳐서(傷爪嘆)         |
|              | ㉓  | 마마를 앓아서(行疫嘆)         |
| 아동기(8-12세)   | ㉔  | 귀 병을 앓아서(病耳嘆)        |
| 청소년기(13-16세) | ㉕  | 술마시는 것을 경계한 글(少年醉酒戒) |

#### 1) 영아기(0-4세)

우리 선조들은 자녀에 대한 교육은 미리 실행할수록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찍부터 교육을 시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문건은 손자가 서기를 시작하자 이를 축하하며 예의를 지켜야 함을 가르친다. 그리고 항상 천성을 온전히 하여 성인이 되기까지 잘 지켜나갈 것을 이른다. 이문건은 이 시기부터 예의 즉, 인격

도야의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다.

「처음 일어서서」

걸음마하기 시작한 걸 축하하니,  
잘못 디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마라.  
차분히 예의를 지키고,  
오래도록 대길하기 바라노라.<sup>171)</sup>

2) 유아기(5-7세)

이문건은 유교이념을 통하여 도덕적인 조기교육을 우선적으로 내세웠다. 또 외형적인 언행에 대해서도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도덕적 사고와 행동을 동시에 습득하도록 하였다. 이문건은 일찍부터 손자의 인격적 성장을 중심에 두면서 가르침에 전력을 다하였다. 이문건의 표현처럼 아직 어려 가르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독려한다.

「더위를 먹어서」

천금 같은 몸을 보존해야하니,  
삼가 안전하게 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하리.  
지금 아직 어린 나이로서,  
뭘 보지만 해도 마음이 먼저 따라가니,<sup>172)</sup>

이문건은 손자에게 발생하는 사건을 교육의 목적과 끊임없이 연결 지으며 가르침의 기회로 삼았다. 유난히 질병에 취약했던 손자의 상황은 오히려 마음의 수양을 인식시키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문건은 몸의 근원으로부터 시작하여 몸의 지체는 각기 타고난 역할이 있음을 자상하게 가르친다. 그리고 유아기 수봉에게는 추상적인 선성(善性)을 신체에 빚대어 가르쳐 준다. 신체의 각 지체는 각기 타고난 모습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선한 마음도 마찬가지로 이른다. ‘선한 마음의 보전’은 이 시기 수봉이 이해하기에는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이다. 이문건은 ‘신체의 자리 찾기’를 통해 선한

171) 이문건 저, 위의 책. 「始立」: 祝汝步由茲, 勿爲非橫跌. 從容禮義途, 永言保終吉.

172) 이문건 저, 위의 책. 「暑痢嘆」: 庶保千金軀, 夷險能謹持. 今尙幼穉際, 見物意先隨.



마음의 개념과 보전방법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는 학습 내용을 구체물이나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학습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다(손예진, 2013). 브루너(Bruner)는 표상이론(Theory of Representation)을 통해 어린 아동들에게 복잡한 개념도 그들의 지적능력과 경험에 맞게 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조민지, 2013). 이문건은 유아기 이해수준에 맞게 표현방식을 조절하여 선성의 유지 방법을 미리부터 제시하여 주는 것이다.

「손톱을 다쳐서」

하늘이 온전하게 육신을 내려주셨는데,  
 잘 보호하며,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손가락에 손톱이 없다면,  
 평생 한이 남아 오래 가리라.

...

어찌 다만 손가락 하나 다친 것을 애석해하리?  
 심성이 어진 것 보다 중대한 것이 없을 지니.  
 마음을 수양하여 품성을 완성해서,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성을 매우 견강(堅強)하게 하라.<sup>173)</sup>

그리고 이문건은 손자의 체질을 고려하여 해로운 음식을 절제시킨다.<sup>174)</sup> 특히 몸이 약질이거나 치료를 받을 때에는, 체질에 맞추어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김종덕, 2013). 이문건은 손자가 아직 어리지만 체질과 음식의 관계를 주지시키고 있다. 체질을 숙지시키는 것은 시기에 비해 이른듯하다. 하지만 체질에 대한 인식은 수봉에게 이후 음식의 기호와 선택에 기준을 갖게 한다. 이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음식과 건강과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성숙된 식습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유아기 섭생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것은 이때 형성된 기호와 식습관이 이후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조유나, 최윤이, 2010: 138).

173) 이문건 저, 위의 책. 「傷爪嘆」: 天生百體具, 愛護不謹將. … 豈但一指惜, 莫大心性良. 治心以成性, 惕若貴矯強.

174) 이문건 저, 위의 책. 「行疫嘆」: 稍稍眠食便, 節以妨害物. 平居樂酒果, 胃弱不嗜食.

### 3) 아동기(8-12세)

수봉은 연회에서 자신의 체질을 생각하지 않고 좋아하는 불고기를 먹고 탈이 났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컷병까지 앓았다. 이 때문에 아픈 손자와 돌보는 할아버지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된다. 이에 이문건은 컷병을 앓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며 모든 세상일이 이와 같다고 설명한다.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고 당장의 욕구충족에만 힘쓰면 우환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서 세상을 살아감에 모든 일에 괴로움과 즐거움이 늘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삶은 지금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좋은 것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수양을 통해 선성을 유지해야 하며, 더불어 매사에 깊은 사고의 과정이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손자가 장래의 삶을 대비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 「귀 병을 앓아서」

처음에 불고기 먹어 탈나고, 이어 찬물로 씻어 손상되었으니,  
사람의 일은 조심하지 않으면 우환이 생기나니.  
세간의 고악(苦惡)이 그렇지 않은 것이 없으니,  
손자야! 후일에 마땅히 경계로 삼으라.<sup>175)</sup>

### 4) 청소년기(13-16세)

이 시기 술은 조손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수봉이 술 취하는 것은 가문이라는 공동체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문건은 손자의 청소년기를 ‘처음 싹이 트고 몽우리가 서는’ 시기로, 술은 ‘서리와 우박’이라는 재앙에 비유한다. 이러한 비유는 이시기 술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즉 형체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해를 입으면 그 손상정도가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유학에서 인간은 평생에 걸친 부단한 수양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어져가는 존재로 인식한다(안영석, 2014). 때문에 현재의 수신이 뒷받침되어야 예의 조화를 통해 인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문건은 비유를 통해 폭음으로 인한 일반적 폐해를 먼저 설명한다. 이어서 손자의 시기와 체질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초래하

175) 이문건 저, 위의 책. 「病耳嘆」: 初因炙誤繼傷水, 人事不謹憂患始. 世間苦惡無不然, 兒乎後日宜懲愆.

는지 제시하면서 술을 절제하고 경계할 것을 가르친다.

「술마시는 것을 경계한 글」

15세가 안 되면, 혈기가 안정이 안 되어, 장부(臟腑)가 약하다. 예컨대 풀이 처음 싹트고 꽃이 처음 몽우리가 서는데, 불행히 서리와 우박이 재해를 당하면, 그 손상이 중하여 시들고 말라 죽는 것과 같은데, 어찌 재앙 없는 것과 더불어 함께 무성하여 아울러 꽃피우고 열매를 맺겠는가? 술의 해독은 잃는 것이 크고 유익한 점이 적다. 비록 건강한 사람이라도 날마다 술에 취하면, 날로 쇠약해지고 달이 가면 사그러들어, 마침내는 몸이 나약해져 구제할 수 없다. 하물며 나약한 몸으로 해가 되는 것을 점점 많이 하게 되면, 혈색이 쉽게 파괴해지고 기(氣)가 쉬 손상되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당한다.<sup>176)</sup>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술을 마시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술 취했을 때 보여주는 행동으로 개인의 수양정도를 가늠했다. 왜냐하면 술은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진성수, 2014). 이문건은 손자의 술로 인한 후유증을 지켜보며 이후의 건강과 대인관계 및 예의에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예견한다. 술에는 락(樂)·화(和)·우(友)·경(敬)·아(雅)·절(節) 등 6가지 정신이 깃들여 있는데, 그 중에 절(節)은 취해도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절제이자 신중함이다(진성수, 2014: 296). 그래서 이문건은 수신을 통해 금주(禁酒)와 절주(節酒)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문의 운명이 전적으로 수봉의 건강과 수양, 처세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 4. 체벌(體罰) : 회초리로 훈육하다

‘회초리로 종아리 때리기’는 조선시대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보편적인 체벌이었다(이상주, 1996; 안경식, 2004). 손자가 자라면서 이문건도 손자의 훈육 방법으로

176) 이문건 저, 위의 책. 「少年醉酒戒」: 年未十五, 血氣未定, 臟腑嫩弱. 如草始萌花始莢, 不幸有霜雹之災, 其傷必重無不萎枯者矣, 安得與不災者, 同數而並榮哉. 酒之熱毒, 損大而益小, 害多而利少. 雖強壯之人, 日向沈酣, 則日銷月鑠, 終至糜爛而莫之救. 況以嫩脆之身, 爲害轉深, 血易焦氣易傷, 不旋踵而見殃.

체벌을 활용하였다. “훈계하는 말을 자주 어기는구나”라고 하여 잘못이 반복되어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체벌로서 잘못에 대해 손자에게 정확히 인지시켰다. 체벌은 ‘응분론(deserts theory)’의 관점에 따라 권위를 가진 자가 응당 처벌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판단 하에 시행되었다(이승국, 1999; 박정하, 2001).

체벌은 아동지도에 있어 즉각적인 행동교정과 위험하거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차단효과를 가져온다(배영미, 2013: 227)는 믿음에 기반한다. “개선하길 바라는 것이 참으로 지극한 정이라”고 하여 친친(親親)의 관계이기에 개선되기를 바라게 됨을 부연한다. 그리고 수봉이 술에 취해 주사를 하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잘못에 대한 경각심을 확실히 심어주고자 가족들이 함께 체벌한다.

손자의 영아기에는 체벌을 사용하지 않았고, 유아기부터 체벌하였다. 체벌의 양상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점점 가족이 함께 참여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체벌의 동기는 대표적으로 유아기에는 언행, 아동기에는 학업, 청소년기에는 학업과 과음이 원인이 되고 있다.

<표 26> 「체벌」 내용

| 시기           | 순서 | 내용                         |
|--------------|----|----------------------------|
| 유아기(5-7세)    | ㉑  | 종아리를 때림                    |
| 아동기(8-12세)   | ㉒  | 꾸깃고 나서(責兒吟)                |
|              | ㉓  |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撻兒嘆)           |
| 청소년기(13-16세) | ㉔  | 취주(醉酒)에 탄식하여(警醉嘆)          |
|              | ㉕  | 할아버지의 조금씩 성냄을 탄식하며 (老翁躁怒嘆) |

1) 유아기(5-7세)

온갖 질병으로 위험한 고비를 맞기도 하고,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했던 손자의 영유아기는 이문건의 표현대로 가엾고 불쌍한 시기였다. 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집안에서 너무도 귀한 존재였기에 이문건은 “자주 자주 말로 타일러주며, 매를 대서 괴롭히지 않았다”고 했다.

『목재일기』에 보면 6세에 수봉이 칼을 던져 다른 사람에게 피가 나게 하고,

또 버릇없이 화를 내서 체벌을 했다.<sup>177)</sup> 『양아록』에서는 7세(9월)에 처음 등장한다. 언어가 불손하고 할머니에게 버릇없이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아리한 대였다. 손자의 울음에 할아버지는 더 이상 때리지 못했다고 했다.

### 「종아리를 때림」

정사년(1557년) 9월 초 4일 종아리를 한 대 때리니, 눈물을 흘리며 목메어 울어, 차마 다시 때리지 못했다. 이에 이를 써서 기록한다. 9월 초6일 아침.  
노닥이는 말이 잡스럽고 쌍스러워,  
할머니가 꾸짖으며 금지시키네.  
되바라진 손자는 반성하지 못하고,  
도량이 부족하여 분하게 여기며 반항하네.  
7세면 점차 지혜가 성장할 나이기에,  
그러지 말라 하는 것이지.  
똑바로 서게 하여 바지를 걸어 올리게 하고,  
종아리를 때리며 꾸짖고 가르치네.<sup>178)</sup>

일반적으로 유아기에는 꾸지람이나 훈계, 설득으로 금지시켰다. 그러나 이문건은 손자의 심한 언행을 말이 아닌 체벌을 해서라도 바로잡으려 하고 있다.

### 2) 아동기(8-12세)

본격적으로 학업에 매진해야 하는 아동기에 이르자 놀기 좋아하는 수봉의 성향은 학업 부진에 영향을 미치며 체벌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체벌의 강도도 유아기 때보다는 현격히 높아지고 있다.

### 「꾸짖고 나서」

가정 기미년(기미 1559년) 3월 13일, 손자가 학업을 하지 않아 앞에 앉게 하고 나무랐는데, 또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 잠시 후 일어나 나가서 아이들과 어울려 동문 밖으로 갔다. 곧 바로 여종을 보내 불러오게 했는데, 뒷 사립문 밖까지 와서 끌어당겨도 들어오지 않기에, 내가 성난 목소리로 불렀다. 조금 후 내가 막 아랫집에 있다가, 그 불손함에 화가 나서, 친히 나가 데리고 들어왔다. 데리고

177) 『默齋日記』：1556-04-18 吉兒擲刀子，適中必伊左肘出血云云。招吉叱之，以桑苗打脛而教之，勿更爲焉。；1556-11-06 孫也驕怒作色。吾叱責之，以手打其肩、背。臥泣泪沾于褥。復深恰之。

178) 이문건 저, 위의 책：丁巳 九月初四日，撻腿一下，垂涕哽咽，不忍再下。乃書此，以識之。菊月初六朝。戲言難淫穢，王母訶禁止。驕稚靡克省，踣器爲憤使。七歲智漸長，不可令遂此。教立揭其衣，撻腿讓以理。

들어오면서 그 뒤통수를 손으로 다섯 번 때렸다. 들어오게 하여 창쪽으로 서있게 하고, 손바닥으로 그 궁둥이를 네 번 때리니, 옆드려 우는데 도리어 가련한 생각이 들었다.<sup>179)</sup>

이문건은 손자가 화를 내기에 잘못을 깨우쳐주기 위해 종아리를 때렸다고 기록한다. 그러나 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잘못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단오에 손자가 그네를 타겠다고 조르자 할아버지는 허락해 준다. 그런데 손자가 그네타기에만 몰두하며 학업을 등한시하자 할아버지가 숙제를 부과했다. 손자는 그네를 타지 못하게 한 것에 크게 화를 낸 것이다. 이문건은 손자가 자기 뜻을 거스르는 건 싫어하면서도 어른의 뜻을 거스르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함을 한탄한다.

이는 인의 발현방법으로서 공자가 강조하는 서(恕), 즉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sup>180)</sup>을 깨닫지 못함을 일컫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자세인 ‘사랑’과 ‘존중’을 상실한 모습이다. 이문건은 유학에서 인간으로서 품어야 할 도덕의식(장승희, 2014)이 보이지 않는 수봉의 모습에 화가 나고 안타까운 것이다. ‘서(恕)’는 자신과 타인이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서 사회생활의 도(고내역, 2006)이기 때문에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반드시 발현되어야 할 덕목이었다.

####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

아이의 종아리를 때리는 건 내가 악독해서가 아니요,  
아이의 나쁜 습관을 금지시키기 위해서라.

...

내가 화내는 까닭은  
화 잘 내는 아이를 회초리로 징계하여 절제시키려는 것.

...

아이는 남이 제 뜻을 거스르는 건 싫어하면서도,  
거슬리게 해서 안 된다는 건 일찍이 깨닫지 못하네.<sup>181)</sup>

179) 이문건 저, 위의 책. 「責兒吟」: 嘉靖 己未 暮春 十三日, 兒不習業, 使坐于前, 責之, 亦不省聽. 頃然, 起出, 與兒伴, 投東門外. 節遣婢招之, 來後扉外, 曳不入來, 厲聲號之. 良久, 吾方在下家, 怒其不遜, 親出, 領入來. 入來時, 指打其頂後五下. 入置函, 肉掌打其臀四下, 伏而泣之, 旋有憐心. 兒稚誰勤日習書, 翁徒望汝惜居諸. 縱然叱責無由省, 俟隙隨群走北西.

180) 『論語』 「衛靈公」: 子貢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 子曰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181) 이문건 저, 위의 책. 「撻兒嘆」: 撻兒我非惡, 冀禁兒習惡. … 所以起吾怒, 楚懲制兒怒. … 兒嫌

### 3) 청소년기(13-16세)

수봉은 청소년기에 이르자 과음이 잦아졌다. 그로 인해 도에 벗어난 행동으로 할아버지를 실망시킨다. 술에 대한 할아버지의 훈계 또한 일상이 되면서 할아버지 앞에서는 취한 것을 숨기려 했으나 들키기 일쑤였다. 이에 이문건은 손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훈계나 단독 체벌에 그치지 않고 가족을 체벌에 참여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손자가 잘못의 깊이를 깨닫고 개선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손자에게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반성한다.

#### 「취주(醉酒)에 탄식하여」

이튿날 아침 아랫집으로 내려가,  
꾸짖으며 종아리를 걷어 올리게 했네.  
먼저 자매를 시켜,  
각각 10대를 때리게 하네.  
그다음엔 어머니, 그 다음엔 할머니에게,  
또 10대씩 종아리를 때리게 하네.  
나만 유독 20대를 때려,  
울화를 풀어 버리려 했네.  
손자 하나라서 항상 가련히 여겨,  
매번 과실을 용납해 주었더니,  
손자의 마음이 점점 오만해져,  
어기려는 기색이 때때로 나타나는 것이라.<sup>182)</sup>

이번에는 독습이 되지 않아 이문건은 직접 가르친다. 그러나 할아버지와 손자는 경서의 풀이과정에서 참여한 의견대립을 한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에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고집을 피운다. 이에 화가 난 이문건은 학업을 중단한다. 다음 날 아내와 의논하고 손자의 불손함에 경각심을 주고자 매를 드는데 30대를 때리자, 손자가 놀라 소리를 질러 중단하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열흘 후에도 공부를 게을리 하여 손자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또 차고 있는 칼이 부러질 정도<sup>183)</sup>로 강도 높은 체벌이 이어졌다.

所欲拂，不會知忤拂。

182) 이문건 저, 위의 책, 「警醉嘆」: 翌朝下下家 叱令雙股脫 先令姉妹打 各下十數畢 次母次祖母亦皆十楚撻 吾獨撻二十 期使憾意泄 常恰一姓孫每自容誤失 兒心長傲頻 戾氣或時發.

183) 이문건 저, 위의 책, 「老翁躁怒嘆」: 丙寅 四月初四日, 督令孫吉讀習, 怠慢不果, 昏乃明燈, 使之. 至溫公論漢家之治終於不古處, 解曰漢之治不及古而終已也云, 古以爲漢治終乃不及古云. 吾再是



동몽서에는 “지나치게 때리지 말라”거나 “함부로 꾸짖지 말고 마구 때리지 말라”고 하였다. 원칙 있는 체벌을 하고 감정적 체벌을 경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문건은 종종 화를 참지 못하여 도에 지나친 체벌을 할 때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문건이 체벌 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와 행동이 있다. “가여운 마음에 눈물 고여”, “내 마음도 아팠네”, “늙은이 마음 또한 울고 싶을 뿐이라”라고 하여 복잡하고 아픈 심경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문건의 이러한 태도는 아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묵재일기』를 보면 이문건은 아들에게도 체벌을 하는데, 그 정도가 학대 수준이었다.<sup>184)</sup> 그럼에도 이문건은 후회하거나 스스로를 경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생쥐처럼 공부를 피해 다녔다”, “질문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거나 “가르치고 지시하는 뜻을 매번 헤아리지 못한다”고 하면서 아들 때문에 자신이 난폭하게 한 다며 당연시하였다.<sup>185)</sup> 전적으로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간주하며 엄하고 냉정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손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신의 조급함을 탓한다.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체벌한 것을 “지금 가르침에 당하여 이처럼 자애롭지 못하게 되는데 이르렀단 말인가?”라며 성찰한다. 글까지 쓰면서 자신의 난폭함을 경계하고자 한다. 이런 점을 볼 때, 인생의 시기와 성숙도, 삶의 경험이 사람에 대한 인내심과 아동에 대한 동정심의 변화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Karen, 2016). 아버지일 때 이문건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절제하며 엄격함을 보이지만, 할아버지가 된 이문건은 사랑이 흘러넘친다.

이렇게 체벌이 어른이나 아이에게 불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체벌을 가하는 것은 아동들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그 가운데서 교훈 얻기를

己見, 則孫乃慍, 夜訓之. 固兼忿言曰如是, 解之, 近後孔云, 吾怒推卷而止. 翌朝, 與老妻, 談此可警也. 召孫, 伏前, 用馬策柄, 敲打臀股三十下, 氣急而止. 又初十夜, 責不習讀, 使言其情, 伏枕無言. … 又十九日, 督習不遵, 躁怒, 持筴, 打尻股, 不數, 其所佩刀, 逢筴而折. 今更思之, 當其幼也, 一何憐惜, 不忍一指推之, 今當訓書, 一何躁怒, 不慈至是耶?

184) 『默齋日記』: 1535-11-23 朝, 怒箕星不解詩, 以長板打之, 板折.; 1535-11-24 昏, 怒箕星, 以竹打之, 氣頗傷.; 1535-12-03 且令箕星解說前讀, 則全不全不. 怒極撻其背, 遂改習前讀焉. 輝察其目, 以謂夜復泄精也, 問之則不得諱. 茲欲嚴禁, 披其衾, 令牀之以辱焉.; 1535-12-06 打箕星.; 1535-12-08 早朝, 踏箕星腮, 且抽髮一握.; 1535-12-09 箕星復泄精眼陷. 大責以打, 脫衣以虐, 過於猛, 面與手, 被打傷血.

185) 『默齋日記』: 1535-12-07 避習如鼠故也.; 1535-12-08 甚怒不即答所問故也.; 1535-12-09 吾之燥暴如是, 蓋甚怒教令之意每不省故也.



바라기 때문이었다(이학당, 2015).

## 5. 여질(慮質) : 자질을 고려하다

자질을 고려한다는 것은 ‘배움의 시기’와 ‘배우는 자’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은 교육받을 주체이며 학습의 주인공이라는 신념의 표현이기도 하다. 배우는 자를 교육의 중심에 두는 것은, 첫째는 적절한 배움의 시기에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둘째는 학습자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발달로 이끌기 위함이다(이주영, 권동택, 2013).

이문건은 문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손자의 성품과 성향을 살피며 지도한다. 양육과 교육 경험이 풍부한 이문건은 학습의 주체는 배우는 자라는 의식이 분명하다. 가르치는 자의 강력한 의지만으로는 학습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일방적 요구도 학습에 부정적임을 인지하였다. 이의 근거는 이문건이 자신의 이러한 태도를 ‘잘못’과 ‘실수’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적 자세는 노인세대 특유의 성찰적 시각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목재일기』를 보면 이문건은 손자녀들과 밥을 먹고 시간을 함께 보내며 손자녀들의 자질과 수준을 파악하였다. 이문건은 영아기에는 긍정적인 자질을 북돋우려 노력한다. 유아기에는 손자의 언행을 통해 자질을 파악하여 교육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한다. 아동기에 이르면서 자기수양과 공부에 대한 게으름이 문제가 된다. 하지만 손자의 성숙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이르자 손자의 자질이 배움과 거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완악하지는 않기에 여전히 가르침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표 27> 「여질」 내용

| 시기        | 순서 | 내용               |
|-----------|----|------------------|
| 영아기(0-4세) | ⑮  | 걸음마(習步)          |
| 유아기(5-7세) | ㉞  | 글자를 깨우치게 되어(誨字吟) |

|              |   |                   |
|--------------|---|-------------------|
| 아동기(8-12세)   | ㉔ | 꾸깃고 나서(責兒吟)       |
|              | ㉕ |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撻兒嘆)  |
| 청소년기(13-16세) | ㉖ | 취주(醉酒)에 탄식하여(警醉嘆) |

### 1) 영아기(0-4세)

이문건은 손자가 발짝을 떼며 끊임없이 걸음마를 시도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다 드디어 걷게 되자 사랑을 담은 진심어린 칭찬을 한다. 이는 손자의 능력보다는 의도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과정을 부각하는 것이다.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인정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한 영아의 내적 동기를 끌어올린다(김정섭 외, 2015).

#### 「걸음마」

월 사이 없이 움직이며 뒹굴더니  
 전날과 달리 여러 발짝을 떼네.  
 나를 향해 두 손 들고,  
 웃으며 다가오는데 미끄러질까 겁내는 듯하구나.  
 등을 어루만지고 다시 뺨을 비벼주며,  
 “우리 숙길(淑吉)이”하며 끌어안고 환호했네.<sup>186)</sup>

『묵재일기』를 보면 이문건이 외출하고 돌아와 처자식을 보기위해 하가로 내려갔을 때, “숙길이 그림책을 가지고서 보자고 하기에, 보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sup>187)</sup>하여 자연스럽게 요구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며칠 후 “숙길이 두 차례 와서 그림책을 찾아서 보았다.”<sup>188)</sup>고 하여 손자가 할아버지와 함께 그림책 읽는 것에 의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성장가능성이 있으며, 이때의 성장은 주체의 현재 삶이 기준이 된다. 이는 학습자의 최적의 민감기(optimal sensitive periods)라는 개념적 요소에 중점을 두어야 함(이주영, 권동택, 2013)을 의미하는 것이다. 손자의 내적동기가 발현되었을 때, 이문건이 따뜻하게 수용하며 대응하는 것은 아이로 하여금 학습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와 힘을 심

186) 이문건 저, 위의 책. 「習步」: 轉動無歇時, 累步異前日. 向我舉兩手, 笑投如畏跌. 撫背更摩腮, 携弄呼吾吉.

187) 『默齋日記』: 1553-01-13 吉兒持畫卷求閱.

188) 『默齋日記』: 1553-01-24 淑吉再來索見畫冊.

어주는 것이다.

## 2) 유아기(5-7세)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아동을 학습의 진정한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주체적으로 찾고 발견할 때 의욕이 생기고 배움에 도전하게 된다(손우정, 2012). 공자는 대화(子曰)로 제자들을 가르쳤다.<sup>189)</sup>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그의 자질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게 대안을 제시하거나, 관점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문답을 적절히 활용하였다(이기원, 2015). 이는 아동이 명료하게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른의 일방적인 설명이나 주도보다는 생활 장면을 통해 아동 자신이 더듬어 깨닫는 경험을 통해 더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유안진, 1986).

이문건은 손자의 지각이 발달됨을 보고 시험 삼아 글자를 읽고 써보게 한 뒤 손자의 천품이 중간수준임을 파악하였다. 학습을 시작할 때, 아이와 자질과 수준을 먼저 고려했다는 것이다. 공자는 대화로 제자의 자질을 파악한 반면, 이문건은 일상에서 아이의 언행 속에서 그 욕구와 의도를 파악하여 대응하였다. 일상을 소통하며 함께 하는 삶이 할아버지의 연륜과 만났을 때, 교육학적 이론과 현장성이 공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문건은 손자의 천품이 중간수준이지만 자질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가르치면 잘 배우리라 기대한다.

### 「글자를 깨우치게 되어」

손자의 지각(知覺)이 날로 발달돼,  
시험 삼아 글자를 쓰고 읽게 하니,  
혀가 짧아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심란하여 잘 잊어버리고 제대로 외지 못하네.  
손자의 천품(天稟)이 중간 수준은 되니,  
기대하는 바는 너무도 성급하다.  
...  
조급하게 욕박지른다고 무슨 이득이 있으리?  
때때로 나의 잘못을 뉘우치지만,  
왕왕 실수를 반복하네.<sup>190)</sup>

189) 『論語』 「雍也」: 孔子曰 中人以上 可以語上也. 中人以下 不可以語上也.

190) 이문건 저, 위의 책. 「誨字吟」: 兒性日有覺, 試教書字讀, 舌短韻未諧, 心擾忘難憶. 兒稟足中

### 3) 아동기(8-12세)

이문건은 손자의 시기에 부지런히 학습하는 것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타이르고 독려한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가르침에 아랑곳하지 않는 손자의 태도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 여전히 수봉은 학습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에 자신의 가르침이 손자에게 긍정적 자극이 되지 못함을 깨닫고 수용하고 있다.

#### 「꾸짖고 나서」

비록 끝내 태만하여 어리석은 사람 된다 해도,  
천명으로 이 같이 태어났다면 원망하기 어려운저.<sup>191)</sup>

이문건은 손자가 자기중심적이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에 유학적 소양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때때로 그가 지향하는 아이의 모습과 다른 현실에 한탄한다. 그러나 때가 되면 성숙하여 깨달을 수 있는 자질이 있음을 믿으며 희망을 품는다.

####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

아이는 남이 제 뜻을 거스르는 건 싫어하면서도,  
거슬리게 해서 안 된다는 건 일찍이 깨닫지 못하네.

...

언제 아이의 지혜가 밝아져,  
때가 되면 스스로 허물을 알게 될꼬?

...

응당 후일에 알게 될 것이니,  
거의 느끼게 되는 날이 있으리라.<sup>192)</sup>

### 4) 청소년기(13-16세)

이문건은 손자가 조급하기는 하지만 ‘다만 손자의 자질을 생각하니’라고 하여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잘못이 많고 곧바로 개선하지 않는 것이 천성이 사악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며 단계적으로 다시 가르칠 것을 다짐한다. 그러면

---

人, 責望猶太急. … 躁緩有何益. 時時悔我非, 往往循前失.

191) 이문건 저, 위의 책. 「責兒吟」: 雖終情慢歸愚駭, 天命如斯難怨尤.

192) 이문건 저, 위의 책. 「撻兒嘆」: 兒嫌所欲拂, 不會知忤拂. … 安得兒智明, 時能自啓明. … 應知來後日, 庶有起感日.

서도 따르고 어기는 것은 전적으로 손자에게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욕심을 내려 놓는다. 권위자의 강요로 학습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끝까지 손자의 긍정적인 자질을 신뢰하며 그것을 단서로 가르침을 주려한다. 이는 노인이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이전보다 더욱 신중해지고 주변을 헤아리게 된다(Platon, 천병희 역, 2016)는 것을 상기시킨다.

「취주(醉酒)에 탄식하여」

다만 손자의 자질을 생각하니,  
정녕 완악하고 사나운 것은 아니라네.

...

잘못이 많은데 곧바로 고치지 않는 것,  
이 어찌 진실로 천성이 사악해서 그랬으리?  
내가 수년 동안 더 살 수 있다면,  
알기 쉬운 데서부터 설명해 주리라.

...

만사가 다만 하늘에 달려 있는데,  
따르고 어기는 것을, 어찌 꼭 자신할 수 야 있겠는가?<sup>193)</sup>

## 6. 독서(讀書) : 수신을 독려하다

교육을 위한 가장 수월한 방법은 서적(書籍)을 통한 것이다. 때문에 조선조 위정자와 사대부들은 『소학』이나 『행실도』 류서의 간행과 보급에 심혈을 기울였다(강봉수, 2001: 17). 그리고 조선사회에서 교육은 학문적 성취에 앞서 내적인 수양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사대부들은 독서를 자신을 다스리는 방편으로서 중시하였다. 따라서 이문건도 손자가 독서를 통해 지적 교양과 예의범절을 겸비한 ‘군자인’이자 ‘식견인’으로 성장시키고자 하였다(이상주, 1996: 496). 당시 독서의 방법은 숙독과 함께 순서를 중시하여 『소학』을 읽어 오륜의 예를 몸소 실행한 후에 『대학』 - 『논어』 - 『맹자』 - 『중용』 등의 순서로 읽을 것을 권장하였다.

193) 이문건 저, 위의 책. 「警醉嘆」: 但思兒所資, 定非頑悍骨. … 多差不卽改, 是豈眞詐譎 假我數年在, 納約自膈穴. … 萬事只關天, 從違安可必.

유학의 정통적 학습법은 단계를 뛰어 오르는 엽등(躒等)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 오르는 점진적 교육과정을 지향하였다(육수화, 2011: 319). 『목재일기』를 보면 이문건은 천택, 정섭, 수봉 등을 순서에 따라 가르친다. 수봉의 공부는 일상의 쇄소응대(灑掃應對)에서 시작하여 『천자문』 - 『사략』 - 『소학』 - 『대학』 - 『맹자』 - 『중용』으로 진행되었다. 수봉은 6세에 천자문 공부를 시작하고 8세(1558)에 처음 사략을 접하여 3년간 글을 익혔다. 2년 후인 11살(1561) 『소학』을 읽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2세가 되던 1562년 3월 1일에 『대학』의 서문을 배우기 시작하여 4월에 『대학』을 끝냈다. 같은 해 7월 1일에 『맹자』를 배우면서, 동시에 『서경』을 배웠다.<sup>194)</sup>

『양아록』과 『목재일기』를 보면 수봉은 유아기부터는 일관되게 책 읽는 것에 마음이 없고 싫어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문건은 유아기에는 기존의 책을 새 책으로 교체하면서 까지 공부에 흥미를 갖게 하려고 노력한다.<sup>195)</sup> 이때의 습관형성의 중요성을 인지한 까닭이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독서와 쓰기 과제를 부과하며 독려하는 할아버지와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고 게을리 하는 손자와의 갈등이 반복된다.

<표 28> 「독서」 내용

| 시기           | 순서 | 내용                         |
|--------------|----|----------------------------|
| 영아기(0-4세)    | ①⑥ | 책 읽는 모습을 흉내 내는 것을 보고       |
| 유아기(5-7세)    | ②⑧ | 글자를 깨우치게 되어(誨字吟)           |
| 아동기(8-12세)   | ③⑩ |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撻兒嘆)           |
| 청소년기(13-16세) | ④⑤ | 할아버지의 조금씩 성냄을 탄식하며 (老翁躁怒嘆) |

#### 1) 영아기(0-4세)

『양아록』에 이 시기는 직접적으로 독서를 통해 가르치기 보다는 양육환경이 손자에게 독서를 접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성인이 볼 때 수봉의 행동은 단순히

194) 『默齋日記』: 1556-10-27 兒習《千字文》.; 1558-03-26 誨兒文字.; 1561-02-01 孫始習小學.; 1562-03-01 吉始習大學序.; 1562-04-26 吉孫畢習大學.; 1562-07-01 令吉習孟子大文, 敎首章, 兼習書大文.

195) 『默齋日記』: 1557-01-20 始誨抄句《千字》. 雖不熟習, 姑誨新冊以興其志.

흥내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진짜 독서를 하고 있는 것이다(Yawkey, 1974). 실제 1세 영아는 환경 안에서 책을 접할 기회가 빈번해지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책을 사랑하는 독자로 성장하게 된다(최예린, 구수연, 2009; 최예린, 박찬옥, 2010).

할아버지는 수봉이 독서를 따라하는 모습을 큰 인물로 성장할 가능성으로 해석하며 기뻐한다. 그리고 『목재일기』를 보면 영아기 후반에는 수봉이 먼저 책을 가져와서 할아버지에게 함께 읽자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수봉이 관찰을 통해 독서가 긍정적 행위임을 인식한 결과라 할 것이다.

#### 「책 읽는 모습을 흥내 내는 것을 보고」

독서하는 모습을 자주 보더니  
머리 끄덕이며 그대로 흥내 내는구나.  
책을 들고 한참을 웅얼웅얼하는데,<sup>196)</sup>

#### 2) 유아기(5-7세)

이문건은 손자에게 시험 삼아 글자를 쓰고 읽게 하여 독서를 시작하였다. 유아기(6세) 독서를 함에 있어 수봉의 연령적 특성을 이문건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묘사했다. 첫째, “혀가 짧고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시기 조음(調音)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이문건의 지적처럼 구강조음기관(혀)의 문제로 말소리 산출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심란하여 잘 잊어버리고 제대로 외지 못 한다”는 것인데, 이는 주의집중시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글자를 깨우치게 되어」

손자의 지각이 날로 발달돼,  
시험 삼아 글자를 쓰고 읽게 하니,  
혀가 짧아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심란하여 잘 잊어버리고 제대로 외지 못하네.<sup>197)</sup>

196) 이문건 저, 위의 책. : 習見讀書狀, 俯昂效其爲. 取卷發聲長,

197) 이문건 저, 위의 책. 「誨字吟」: 兒性日有覺, 試教書字讀. 舌短韻未諧, 心擾忘難憶.

『사소절』에도 아이의 특성을 열거하였는데, 이문건이 손자의 특성으로 묘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시기 이문건은 독서의 방법을 활용하지만 손자의 수준과 자신의 속도에 균형을 맞춰가면서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 3) 아동기(8-12세)

유학자로서 이문건은 독서를 중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손자에게 숙독할 것을 강조하였다. 독서는 과거시험을 위한 공부이지만 궁극적으로 위기지학(爲己之學)에 목적을 두었다(조혜훈, 2013). 이를 위해 독서를 통해 힘을 얻는 ‘득력(得力)’이 중시되었고, 득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경전을 암기해야 했다(김수경, 2002). 그러나 공부에 흥미를 갖지 못한 수봉은 독서를 싫어해 게을리 한다. 더욱이 독서는 숙독(熟讀, 반복)과 정독(精讀, 집중)을 지향(김은경, 2006b)하기 때문에 인내심과 끈기함을 필요로 한다(김영, 1989). 하지만 수봉에게 이러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이문건은 수봉이 아동기에 이르자 놀이를 자제시키면서 독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

이튿날도 오로지 그네에 몸을 매달고 있네.  
전혀 책을 돌아보지 않기에,  
아울러 책도 읽으라 말을 전했다.  
연구(聯句)로 글을 지으라 했으며,  
그러지 않으면 그네를 끊겠다 했네.<sup>198)</sup>

### 4) 청소년기(13-16세)

청소년기에 이룬 손자는 여전히 독서를 싫어하고, 장난하고 놀기를 좋아하며, 급기야 물가에 가서 고기 잡기를 즐긴다.<sup>199)</sup> 수봉은 할아버지가 독습(讀習)하라 독려하지만 지키지 않아 할아버지를 애태웠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손자와 마주하여 직접 가르친다.

198) 이문건 저, 위의 책. 「撻兒嘆」: 翌日猶懸身. 全然不顧書, 傳言兼讀書. 聯句可作之, 不然當斷之.

199) 이문건 저, 위의 책. 「警醉嘆」: 厭讀好慢遊, 入水逐魚鼈.



「할아버지의 조금씩 성품을 단식하며」

병인년(1566)년 4월 초 4일, 손자 숙길(淑吉)에게 독습(讀習)하라 독려하나 태만하여 별 결과가 없어서, 황혼에 등잔불을 밝히고 깨우쳐 주었다. … 손자 역시 게으름이 심하여 날마다 익히는 것이 겨우 몇 장이다. 30번 읽으라하면 따르지 않고 혹 15번이나 혹은 10번 남짓에서 그만 둔다. 비록 숙독(熟讀)하라 독촉해도 끝내 말대로 하지 않으니 어찌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200)

‘숙독’은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꼼꼼하게 읽는 방법이다. 조선시대 독서의 목적이 성현의 삶을 본받는 것이었고, 책은 성현의 말씀과 동등한 의미를 지녔다(김왕규, 1999a). 때문에 내용을 끊임없이 자신의 상황과 맞추며 내면적 성찰을 하면서 읽어 자신의 것으로 느껴질 만큼 반복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다(김은경, 2006b: 310). 숙독을 열심히 하게 되면 뜻을 모두 이해하게 되고 결국 관통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때문에 이문건은 손자가 숙독을 통해 성현의 삶을 내면화하여 군자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숙독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독서는 계층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수단이자,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과업이었고, 가문의 번영과 직결되었다. 동시에 인격 함양의 방법으로도 중시되었다(조해훈, 2013). 이문건은 손자가 독서를 통해 입신양명하길 바라지만, 독서에 게으른 손자의 태도는 가문 번영에 대한 위기감을 가중시키고 있다(이상주, 1996).

이문건의 격대교육 방법은 손자를 가능성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문건은 손자의 품성이 중간수준이기 때문에 천천히, 자세히 가르치면 가르친 것을 습득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연령과 발달을 고려하여 가르침의 방법을 조절하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초점 대상을 설정하면 피사체의 움직임에 따라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디지털 카메라처럼 이문건의 학문적 성취와 풍부한 경험을 조화롭게 하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손자의 배움을 더욱 풍부하게 이끌고 있다.

200) 이문건 저, 위의 책. 「老翁躁怒嘆」: 丙寅 四月初四日, 督令孫吉讀習, 怠慢不果, 昏乃明燈, 誨之. … 孫亦惰甚, 日習僅數張. 令讀三十遍, 不克從令, 或十五遍, 或十餘遍而止. 雖督令熟, 終不依言, 豈不非哉?

## V.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의 특징

『양아록』은 우선 손자를 양육한 기록으로 조부의 손자에 대한 사랑이 극대화된 기록이다. 이문건은 손자를 건강하게 양육하여 유학적 인간으로 성장시켜 명문가로서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유학의 인(仁)은 관계성을 전제로 공자에 의해 구체화된 사랑 개념이다(장승희, 2014). 이는 종법적 질서에 따라 규정된 혈연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친친의 사랑이다(김경호, 2014). 공자가 제안하는 인의 개념 안에는 이미 서(恕)의 원칙이 깃들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해석이 가능하다(김경호, 2014; 장승희, 2014). 그래서 유학에서 정의하는 사랑의 개념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였고, 설정된 타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의적으로 쓰인다(장승희, 2014; 정상봉, 2015). 구체적으로 ‘love’를 필두로 소중히 아낀다는 ‘cherish’, 타인에 대한 보살핌과 배려 및 걱정을 포함하는 ‘care’, 가엽게 생각하거나 아쉬워하는 후회의 한탄과 같은 ‘regret’, 존경과 공경의 ‘respect’를 포함한다(김경호, 2014: 48). 이문건에게 손자는 사랑의 절대적 대상이면서 가문의 현재이고 미래였다. 그가 보여주는 손자에 대한 사랑은 다층적이어서 전술한 바와 같이 다의적이며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양아록』은 손자를 통해 이문건 자신을 투영한 기록이다. 손자의 성장을 지켜보는 그의 시선은 미시적이면서, 감정 표현과 행동 묘사에는 매우 세밀하다(정시열, 2013). 이문건은 손자를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고 유배의 상황에서 삶의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경험하였다. 그리고 아들의 부재로 이문건에게 격대교육은 노년기 사명이 된 것이다.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은 발달 시기에 따라 교육 내용이 심화되고,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 개인의 육아 및 교육 과정을 16년 간 기록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양아록』은 말 그대로 가공되지 않은 일상의 자연스러운 기록이다. 그런데 그의 양육과 교육에 유학적 인식과 함께 보편적 아동발달의 특징이 조화롭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 당시 조선에 아동발달에 대한 체계적 이론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경험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었을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발달에 대한 그의 이해는 탁월하며, 특히 서양의 발달심리학자들의 주장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유학에서도 교수-학습의 원칙이 있었다. 어려서는 인륜(孝悌忠信)의 일(실제)을 실천하고, 이어 몸으로 익힌 일의 이치를 탐구하도록 하는 ‘소학-대학 계제론’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실재를 먼저 배워 바탕을 형성한 후에 원리를 체득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이기원, 2017).

이와 함께 『양아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침서적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일기문 속에 다양한 교육내용과 방법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양육의 과정을 기록한 자연스러운 육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일상의 삶은 각각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명확히 구분하며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전면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중첩성은 이문건이 총체적으로 경험한 육아의 결과물(생활, 삶)을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추출하였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기도 하다. 그리고 『양아록』은 개인의 발달은 가족과 사회의 발달을 수반하고, 사회의 변화는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여태철, 2006)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개인의 내적 발달 양상이 교육 내용과 방법에 어떠한 변화를 추동하는지에 대한 역동적 추이를 드러낸다 하겠다. 이렇게 『양아록』 전편에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삶을 조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적절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노인세대의 탁월함이 교육의 과정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 1. 교육내용적 측면

『양아록』의 격대교육은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범주 안에서 조선이 기르고자 했던 인간상으로서 군자를 상정하였다. 이문건은 손자를 군자로 성장시키기 위해 인격 함양에 중점을 두면서 지식 교육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양아록』에서 가정교육의 주체는 육아일기를 쓰며 육아와 교육을 전담한 할아버지 이문건이다. 이는 조선시대 가정에서 남자도 아동의 육아와 교육에 참여하였고(이정미, 2000;

최기영, 이정미, 2002), 특히 조부모가 주도하였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김미영, 2010; 윤용섭 외, 2015; EBS 역사채널©, 국사편찬위원회, 2013). 이문건은 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철저히 유교 규범을 포함하여 예절과 인격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틀에 의해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 내용을 발달 시기별로 정리하면 <표 29>과 같다.

<표 29> 「양아록」 격대교육 내용의 발달 시기별 정리

| 시기<br>내용         |                            | 영아기<br>(0-4세)  | 유아기<br>(5-7세)  | 아동기<br>(8-12세)  | 청소년기<br>(13-16세)                                       |
|------------------|----------------------------|--|--|---|--|
| 보<br>양           | 신<br>체<br>운<br>동<br>발<br>달 | ⑥ 손자의 울음소리<br>⑧ 앉기 연습<br>⑨ 이가 돌아남<br>⑩ 기어다님<br>⑪ 뒀나가 나서<br>⑭ 처음 일어서서<br>⑮ 걸음마<br>⑰ 말을 배움                                   | ㉔ 젖니를 갈게 되어  |   |  |
|                  | 건<br>강<br>과<br>안<br>전      | ① 서문<br>⑥ 손자의 울음소리<br>⑦ 아-벼룩이 알미워서<br>⑫ 이질을 앓아서<br>⑬ 이질이 오랫동안<br>지속되어<br>⑰ 학질을 앓아서<br>⑳ 눈이 충혈되어<br>㉔ 축원문-손자의<br>무병장수를 기원하여 | ㉑ 더위를 먹어서<br>㉒ 손톱을 다쳐서<br>㉓ 이마를 다쳐서<br>㉔ 경기를 일으키는데<br>안타까워<br>㉕ 마미를 앓아서<br>㉖ 밥을 잘 먹지 않아서<br>㉗ 손자가 할아버지를 잘<br>따라서 | ㉓ 불고기를 먹고 탈이<br>나서<br>㉔ 콧병을 앓아서<br>㉕ 귀에 종기가 나서<br>㉖ 홍역을 앓아서 |  |
| 효                |                            | ② 손자의 출생을<br>기뻐하며<br>⑰ 말을 배움   | ㉒ 손톱을 다쳐서<br>㉓ 자식의 죽음을<br>탄식하며   | ㉓ 조급증을 경계하여   | ㉔ 마을에서 술을<br>마시는데<br>㉕ 술 마시는 것을 경계한<br>글               |
| 예<br>절           |                            | ⑤ 조카 이염의 축시<br>⑭ 처음 일어서서<br>⑰ 학질을 앓아서  | ㉑ 더위를 먹어서<br>㉕ 마미를 앓아서<br>㉖ 종이리를 때림  | ㉓ 불고기를 먹고 탈이<br>나서<br>㉕ 종이리를 때리고 나서<br>㉖ 조급증을 경계하여          | ㉓ 취주에 탄식하여<br>㉔ 마을에서 술을<br>마시는데<br>㉕ 술 마시는 것을 경계한<br>글 |
| 성<br>역<br>할      |                            | ④ 성주목사의 축시<br>⑤ 조카 이염의 축시<br>⑬ 책 읽는 모습을<br>흉내 내는 것을 보고<br>⑰ 돌잡히기   | ㉗ 손자가 할아버지를 잘<br>따라서   | ㉓ 불고기를 먹고 탈이<br>나서<br>㉖ 조급증을 경계하여                           | ㉓ 취주에 탄식하여<br>㉔ 마을에서 술을<br>마시는데                        |
| 가<br>문<br>의<br>식 |                            | ㉔ 축원문-손자를<br>기원하여<br>③ 손자가 태어났을 때  | ㉔ 경기를 일으키는데<br>안타까워<br>㉕ 마미를 앓아서   | ㉕ 귀에 종기가 나서<br>㉖ 종이리를 때리고 나서<br>㉖ 조급증을 경계하여                 | ㉓ 취주에 탄식하여<br>㉔ 축원문-손자의<br>무병장수를 기원하여                  |

|           |  |                                       |                           |                                       |
|-----------|--|---------------------------------------|---------------------------|---------------------------------------|
|           | ④ 성주목사의 축시<br>⑤ 조카 이엽의 축시<br>⑫ 이질을 앓아서<br>⑬ 책 읽는 모습을<br>흥내 내는 것을 보고<br>⑭ 축원문 - 가문의<br>변장을 기원하여 | ⑮ 밥을 잘 먹지 않아서<br>⑯ 손자가 할아버지를 잘<br>따라서 |                           | ⑮ 할아버지의 조금씩<br>성남을 탄식하며               |
| <b>권학</b> | ⑬ 책 읽는 모습을 흥내<br>내는 것을 보고<br>⑰ 돌잡히기  | ⑯ 글자를 깨우치게 되어                         | ⑰ 꾸짖고 나서<br>⑱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 | ⑱ 취주에 탄식하여<br>⑮ 할아버지의 조금씩<br>성남을 탄식하며 |

\* 발달시기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             |  |  |
|-------------|--|--|
| <b>태교</b>   | ⑭ 축원문-손자를 기원하여   | 임태하기 전 기원으로서의 태교<br>→ 수봉이 태어나기 3년 전 손자를 기원하며<br>초제를 지냄 (1548년)               |
| <b>가문의식</b> | ⑮ 가족에 관한 글 - 아들 온과 손녀들<br>⑯ 가족에 관한 글 - 자부와 손녀들<br>⑰ 가족에 관한 글 - 부인과 자녀들<br>⑱ 세계 | 교육 내용적으로는 '가문의식'에 속하나 기록<br>시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기 때문에<br>본 연구에서 구분한 시기에는 포함되지 않음 |

통합적인 노년의 삶이란 밖으로 향하던 모든 관심을 거둬들이고 자신의 감정들과 경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인위적인 노력 없이 오직 '지금 여기'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윤용섭 외, 2015: 190). 오랜 삶을 통해 이문건은 사람됨을 지향할 때, 본질보다 외부의 장식적인 것에 더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어리석음(Comenius, 1657)을 체득하였다. 이는 유학적 배움과 실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녹여낸 삶이 가르쳐준 결과이며, 노인세대의 특징인 사태를 통찰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이문건이 손자를 가르치는 내용은 조선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가문재건을 위한 손자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되었다.

『양아록』은 사람됨의 근본을 배양함으로써, 조선사회가 요구하는 성인을 기르기 위해 요구되는 태교, 보양, 효, 예절, 성역할, 가문의식, 권학의 교육내용을 충실히 가르치고 있다. 이문건이 가르치는 내용은 철저히 일상성에 기반하여 인간됨을 지향함으로써, 가문의 유지와 번영의 주체로 키워내기 위한 노력이다. 교육 내용 중에서 특히 보양과 가문의식에 집중하는데, 여기에는 이문건 가문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이문건은 손자의 내면 수양에 무게를 두면서 발달시기별로 난이도를 조절하며 교육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문건이 손자를 가르친 교육 내용적 측면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아록』에 나타난 태교는 기원으로서의 태교이다. 『목재일기』를 보면 손자를 기원하는 초제를 드린 후 1548년 7월부터 1550년 12월까지의 기록은 결락되어 며느리의 임신기간 동안 태교는 알 수 없다. 이기간에 손녀(숙복)가 태어난다. 기원을 하고 손자를 기다렸지만 손녀를 얻었고, 2년 후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손자를 기다리는 이문건과 가족들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출산 나흘 전인 1551년 1월 1일부터의 일기를 보면 이문건은 매일 며느리의 상태를 살핀다. 산통의 추이도 꼼꼼히 체크한다. 그러면서 점쟁이 김자수에게 성별의 감별과 아이의 태어날 시(時)를 묻고 준비한다.<sup>201)</sup> 손자를 기원하며 주변을 정리하고 삼가는 이문건과 가족들의 모습에서 건강한 아기를 맞으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둘째, 이문건은 가정적으로 자손들이 허약하여 병으로 일찍 죽거나 장애를 입게 되면서 보양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집중한다. 49편의 내용 중 보양이 26편을 차지하는 것만 보아도 이문건이 손자의 건강과 안전한 보호에 대한 각별함을 알 수 있다. 손자의 심신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이 가문재건을 도모할 수 있는 바탕이 됨으로 보양은 이문건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시되고 있다.

셋째, 이문건은 철저히 가문의 내력과 손자의 성품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공통적으로 심신의 건강과도 관련되어 있다. 효에 있어서는 입신을 강조한다. 이는 건강하지 못한 자손들로 인해 평생 걱정하며 살았고, 결국 그들을 온전히 지키내지 못한 영향이다. 이는 이문건이 그토록 중시했던 가문의 명맥유지에 타격을 주었다. 따라서 그는 손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그리고 손자에게도 스스로 몸을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보전하려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증자와 같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심신을 지키려는 노력이 효의 시작이며, 완성임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 예절에 있어서 절제는 영유아기에는 강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문건은 일관되게 절제를 강조하며 가르쳤다. 이는 손자의 자기중심적이고 조급한 성품이 이후의 삶에 지속적인 문제가 될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장하면서 조급함은 극단적 언행으로도 표출되면서 문제가 되었다. 아동

201) 『목재일기』: 1551-01-03 子婦復平差, 又或痛云.; 1551-01-04 子婦時無產候云. … 卜生金自粹來見. 爲卜出見, 風雪亂侵, 不得開目. 問生產何時, 則請呼字. 乃呼手字、風字等, 占得風雷益, 加未、七, 初爻動. 斷曰“似得女子. 若生男, 則與婢以養”云云. 日期則由子、卯、酉可產云. 雪甚求笠帽, 以新件與之. 即去.



기에 이르렀을 때 손자의 조급증이 작게는 스스로를 욕되게 하고, 크게는 가문을 기울게 할 정도로 심각해졌음을 우려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손자의 성품을 간파하여 지속적으로 절제를 강조한 그의 혜안은 아동 및 청소년기에 이르면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성역할에서는 남자의 처세에 치중하여 가르치고 있다. 수봉은 아버지를 통해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때문에 이문건은 더욱 세밀하게 가르쳤다. 영아기에는 환경과 관계 속에서 성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여 주며 방향을 잡아주고 있다. 유아기에는 침식을 같이 하면서 가내(家內)에서의 접인을 중시하며 실천하는 삶을 통해 수봉에게 사대부 남자의 성역할을 제시한다. 아동기에 이르자 이문건은 손자를 자신의 대외적인 교유활동에 동행시키면서 당시 사대부의 문화를 폭넓게 경험토록 하고 있다. 이는 사대부로서 우뚝 서고 배척받지 않기 위해 수양해야 함을 스스로 깨우치기를 바라는 의도를 담고 있다. 청소년기에는 술이 교유활동의 매개로 등장하고 성인으로 대접받기 시작하면서 수봉은 남자로서 실제적인 역할수행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는 성품으로 실수를 하는 손자 때문에 이문건의 한탄이 깊어진다. 이문건은 남자의 처세에는 예의를 버리지 않도록 수양이 전제되어야 함을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친다.

넷째, 질병과 사화로 인한 가문의 몰락은 가문재건에 대한 책임을 가중시킴으로써 가문의식에 대한 교육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문건이 가문재건에 대한 의식은 당시 일반 사대부가의 책임의식과는 견줄 수 없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다. 때문에 육아일기에 가족에 관한 글과 세계를 첨부함으로써, 수봉이 가문에 대한 의식을 확고히 하여 가문 내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열망한다. 영아기에는 손자에게 부정한 액운을 물리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면서 손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초제를 지낸다. 손자를 위해서는 유학자로서 삼가야하는 일에도 주저함이 없다. 그만큼 손자를 지켜 가문을 재건하고자 하는 열망이 간절했던 것이다. 유아기부터는 자신과 손자의 역할을 구분함으로써, 손자에게도 일정 역할을 부여한다. 즉 자신은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고, 손자에게는 심신의 수양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손자에게 심신수양의 노력이 가문의 운명과 직결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책임의식을 강화시킨다.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책임의식이 손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문건은 한계에 부딪힌다. 여기에서 격대의 특별함이 나타난다. 이문건은 손자에게 더 강하게 몰아

붙이기 보다는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초제를 지내면서 가문의 유지와 번성에 대한 열망을 간접적으로 내비치며 기다려 준다.

다섯째, 권학은 가문재건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학문을 완성해야 가문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문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마음을 잘 닦게 한 후 학업을 인도해야 한다(최정원, 2015). 영아기에는 이문건 자신의 독서를 통한 수신생활이 손자의 행동으로 재현되자 학문에 자질을 보여주는 것이라 여기며 흐뭇해 한다. 유아기에는 손자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작하고, 성품을 고려하여 권학의 방향을 재조정하며 끈기 있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유아기 후반 놀이에 흥미를 느끼면서 수봉은 글공부에 태만해진다. 아동기에 이르자, 또래들과의 놀이에 몰두하는 손자에게 과제를 부과하고 강하게 독려한다. 청소년기에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자 마주앉아 가르친다. 학문의 완성은 사대부로서의 정체성과 가문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기에 이문건은 손자의 권학에 힘썼던 것이다.

종합하면, 이문건이 다루는 교육의 내용은 철저히 손자의 성품과 가문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인성적 측면을 충실히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양아록』이 쓰여진 시기가 수봉의 소학(小學)의 시기였다는 점도 작용한다. 즉 일용지사의 규범과 생활예절 등의 미발시(未發時) 함양(존양)공부에 힘쓰는 것을 중시하는 시기였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 시기는 평소에 쇄소응대진퇴(灑掃應對進退)의 기본적인 일부터 철저하게 몸에 익히는 함양공부가 강조된다(이금숙, 2018: 23). 이문건은 손자를 교육함에 있어 미발시 함양공부를 위해 교육의 내용을 원리와 이치에 앞서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가운데 수양을 강조하며 가르쳤다. 이문건은 당시 동몽에게 가르쳐야 할 보편적인 내용을 제시하면서도 손자와 자신의 가문에서 중시하는 부분에 집중한다. 이문건은 노인세대 특유의 안정감과 통찰로 보양, 효, 예절, 성역할, 가문의식, 권학의 내용을 일상의 구체적인 사례와 연결시키면서 몸에 체득하도록 가르쳤다. 이는 현재 특정 활동중심의 인성교육에 있어 내용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 2. 교육방법적 측면

이문건은 손자의 교육방법으로서 모방, 역행, 예시, 체벌, 여질, 독서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서간을 통한 교육방법은 활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문건이 유배되었으나, 가족이 함께 이주하여 면대면 교육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유배상황에 있는 조카 이염에게 손자의 출생을 전하거나, 지인들과의 교류에 있어서 서간은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양아록』에 나타나는 모방, 역행, 예시, 체벌, 여질, 독서의 방법은 조선시대 가정과 학교에서 동몽시기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일반적으로 활용하던 방법이다. 이문건은 일가(一家)를 대표하는 가장이었고, 가장에게는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가문을 유지하고 번영시켜야 할 책임이 있었다(최정원, 2015). 더욱이 이문건의 집안은 아들에게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손자를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책임은 온전히 이문건의 몫이었다. 그는 손자의 수준과 자질을 고려하며 교육을 실천하였다. 이문건은 수봉의 발달과 자질을 고려하면서 각 시기에 따라 교육방법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틀에 의해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 방법을 발달 시기별로 정리하면 <표 30>과 같다.

<표 30> 「양아록」 격대교육 방법의 발달 시기별 정리

| 시기<br>방법 | 영아기<br>(0-4세)                       | 유아기<br>(5-7세)                            | 아동기<br>(8-12세) | 청소년기<br>(13-16세)               |
|----------|-------------------------------------|--|----------------|--------------------------------|
| 모방       | ①⑥ 책 읽는 모습을 흉내 내는 것을 보고<br>①⑧ 말을 배움 | ② 손톱을 다쳐서<br>③ 자식의 죽음을 탄식하며<br>④ 종이리를 때림 | ③ 조급증을 경계하여    |                                |
| 역행       |                                     | ② 더위를 먹어서<br>③ 자식의 죽음을 탄식하며              | ⑤ 종이리를 때리고 나서  | ③ 취주에 탄식하여<br>④ 술 마시는 것을 경계한 글 |
| 예시       | ④ 처음 일어서서                           | ② 더위를 먹어서<br>② 손톱을 다쳐서<br>⑤ 마미를 앓아서      | ④ 껌병을 앓아서      | ④ 술 마시는 것을 경계한 글               |

|    |       |               |                           |                                    |
|----|-------|---------------|---------------------------|------------------------------------|
| 체별 |       | ㉠ 종아리를 때림     | ㉡ 꾸짖고 나서<br>㉢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 | ㉣ 취주에 탄식하여<br>㉤ 할아버지의 조금씩 성념을 탄식하며 |
| 여질 | ㉥ 걸음마 | ㉦ 글자를 깨우치게 되어 | ㉧ 꾸짖고 나서<br>㉨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 | ㉩ 취주에 탄식하여                         |
| 독서 |       | ㉪ 글자를 깨우치게 되어 | ㉫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             | ㉬ 할아버지의 조금씩 성념을 탄식하며               |

이문건이 실천한 격대교육 방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방에 있어서는 이문건의 자연스러움이 돋보인다. 수봉은 할아버지의 삶과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관찰과 모방의 대상이었다. 이문건 역시 아들이 손자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손자를 가까이 했다. 이황, 조식(曹植, 1501-1572), 이이 등 당대의 학자, 명유 등과 교류하며(윤용섭 외, 2015) 학문적으로 높은 성취를 이룬 이문건이 유배인이 있음에도 폭넓은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던 그의 집안은 수봉에게 좋은 학습의 장이 되었다. 『양아록』에는 책 읽는 모습을 흉내 내는 모습과 손자가 다쳤을 때와 조금증으로 예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성현을 제시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죽음으로 상을 치를 때 할아버지를 따라 상례의 예를 배우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이문건이 평소 수신의 삶에 충실했음을 의미하며, 일상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교육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체로 노년에 이르면 인생을 어느 정도 달관하게 되고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오랜 인생살이의 어려움을 견디다보면 나름대로 인격이 갖추어진 다(윤용섭 외, 2015). 역지로 애쓰지 않아도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모범이 되며, 하나의 사태를 보면 이를 관통하는 원리와 연결 고리를 찾을 수 있는 여유와 지혜를 보유하게 된다. 가정에서 치르는 의례는 평생을 실천해 왔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할아버지다. 할아버지는 배움의 전형으로, 또 일상과 배움의 순간을 이어주는 훌륭한 자원으로 위치하고 있다.

둘째, 역행에 있어 이문건은 실천의 전제조건으로 ‘정신과 식견의 성장’을 상정한다. 결국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장해감에 따라 맹목적 실천이 아니라 배움을 내면화하는 성찰의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한

다. 내면화된 지식은 실천으로 입증되기 때문이다(김왕규, 1999a). 『양아록』에서 실천은 심신의 보전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즉 몸과 마음의 수양, 몸가짐에서의 실천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문건은 정신과 식견의 성장과 스스로 몸을 보호하고 몸가짐을 삼가는 것을 연속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이것이 ‘습관이 지혜와 더불어 성장한다’는 소학교육의 핵심인 ‘습여지장(習與智長)’의 원리와 상통한다(진성수, 2015; 이상익, 2016). ‘앎’과 ‘행함’의 일치가 한 인간을 온전히 성장시키는 것임을 일컫는 것이다. 이문건이 역행을 강조하는 것은 실천을 통해 심신의 수양과 보전이 습관으로 형성됨과 아울러 지혜와 식견이 심화되고 확장되는 성장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예시는 미리 제시하는 것이다. 미리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아이의 수준을 잘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아이의 현재수준을 뛰어넘는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발달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문건은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손자의 수준은 물론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지를 잘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문건은 손자에게 예시할 때 원칙이 있었다. 언제나 일상의 경험이 일어나는 그 국면에서 제시하고 난이도를 적절히 조절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문건이 손자의 수준에 맞게 표상방식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추상적이라 여겨지는 개념도 구체성을 확보하며 쉽게 이해시킨다. 이러한 능력은 그의 높은 학문적 성취와 풍부한 인생경험의 영향력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체벌은 버릇없는 언행, 학업을 게을리 할 때,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사용되고 있다. 이문건은 체벌을 할 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도에 지나친 체벌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들을 체벌했을 때와 다른 점이 나타난다. 아들에게는 감정을 다독여주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이문건의 아내는 아들의 심한 두통은 이문건이 아들을 너무 심하게 학대했기 때문이라며 남편을 원망했었다.<sup>202)</sup> 그러나 손자를 체벌한 뒤에는 손자의 아픔에 공감하며 마음 아파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체벌의 이유를 설명한다. 손자를 향해서는 할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높은 공감력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이문건은 손자의 자질이 조급하기는 하나, 선하고 천품은 중간수준이라 하였다. 손자의 자질을 엄두에 두면서도 가르침에 조급해져 종종 욱박지르게

202) 『默齋日記』: 1936-06-16 婦以箕星得病, 由於我虛坐日中之故也, 又多雜言, 可怒也.

되는 어리석음을 뉘우친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가르칠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느리지만 반드시 깨우칠 때가 있을 것이라 여긴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가르치면 반드시 변화와 개선의 시기가 있다는 신념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인간에 대한 신뢰이며, 특히 손자의 자질은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다. 때문에 이문건은 손자의 자질을 고려하여 그에 맞게 가르침의 방법을 조절하고 때로는 완전히 전환하였다. 그의 풍부한 인생경험이 대상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 결국 노인의 ‘늙음’과 ‘오래됨’은 ‘낡음’과 ‘진부함’이 아니라, ‘가치 있음’과 ‘유연함’임을 알 수 있다(윤용섭 외, 2015).

여섯째, 독서는 조선사회에서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을 위한 최상의 방법이었다(한미경, 2013). 즉 개인의 수양과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가문의 번영과도 직결되었기 때문에 중시하고 있다. 이문건은 당시 권장되는 독서의 순서에 따라 가르쳤지만, 수봉은 즐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문건은 삶의 지향과 규범을 보여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길을 안내해 주는 독서를 강조하였다(김은경, 2006a). 이문건은 손자가 독서를 통해 얻은 경험을 일상에 용해시켜, 변화되고 발전된 삶의 양태를 지향하기 바랐던 것이다(김왕규, 1999a). 이문건은 독서에 매진하는 것이 수신을 통한 군자인으로 성장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내면의 수양정도가 가문 지속력의 원동력이 된다고 여긴 것이다.

이상의 교육방법적 측면의 특징을 발달시기별로 종합해보면, 영유아기에는 환경의 조성을 통해 자유롭고 여유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명령하기보다 자유를 줌으로써, 손자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할아버지는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아이를 관찰하게 되고, 이것이 이문건이 교훈 없이 수봉을 가르치는 방법이 되고 있다(Rousseau, 1762: 83-84). 아동기에는 영유아기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한다. 계획적이고 분명하게 의도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여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과정에서 이문건은 손자에게서 교육받은 인간으로서 ‘되어져 가는’ 군자인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한다. 청소년기에는 손자의 저항이 노골화되면서 조손간의 갈등이 두드러진다. 지나친 엄격함과 관망적 태도의 양가적 행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면서 끊임없는 갈등과 양육자로서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이 시기 이문건은 손자의 금주와 면

학(勉學)의 실천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지만, 결국 한계를 절감하고 손자의 의지 변화가 따르기를 바라며 ‘내려놓음’으로 전환한다. 엄격한 방법으로 가르치던 이문건이 현실을 직시하며 한발 물러서서 손자의 자발적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는 조부의 마음의 결이 시의적절하게 저절로 표현되는 자연적 사랑의 결과라 할 것이다(박종덕, 2012).

이문건이 실천한 양육 및 교육의 모습은 노인세대의 연륜과 특징, 삶을 통해 더욱 공고(鞏固)해진 인간에 대한 관점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는 신체적 노화로 행동에는 제약이 따르지만 사태를 꿰뚫는 안목과 관찰력 및 유연성, 그리고 지식 적용능력에서는 민첩하였다. 이러한 특징이 이문건이 실천한 교육방법의 독특함이며, 『양아록』에서 나타나는 격대교육의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 Ⅶ.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의 교육적 의미

지금울 가정과 교육의 위기의 시대라 일컫는다. 이렇게 개인주의 경향의 강화되고 가족 간 갈등의 심화, 그리고 가족 해체가 가시화될수록,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은 가족을 삶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현지, 2011; 문정애, 2017). 이러한 시점에서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의 교육적 의미는 현대의 육아와 교육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가정과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1.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정교육의 복원

이문건-은, 그리고 온-수봉의 부자관계는 현대 우리 가정의 모습과 닮아있다. 전통가정에서 이문건은 아들 온에게 무섭고 냉정하기만 한 아버지였다. 그래서 온은 아버지, 사촌형과 할머니 시모살이를 할 때 아버지를 피해 서울로 하루가 멀다하고 도망 다녔다. 그런 아들은 이문건에게 불손하고 어리석고 무능력하며 한심하기 짝이 없는 존재였다. 반대로 이온과 수봉은 관계 맺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일단 온은 장애와 질병 때문에 수봉을 돌보지 못했다. 수봉에게 비친 아버지는 늘 아픈 상태였고, 욕구를 품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 아버지는 수봉이 7살 되던 해에 운명을 달리한다. 아버지로서 이문건의 모습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강압적이었다. 반면 온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임하게 되는 아버지였다. 진정한 소통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두 아버지의 모습은 정확히 닮아있다. 오늘날 맞벌이로 바쁜 부모와 일찍부터 지식교육에 매몰되어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는 자녀의 모습도 이들 부자의 모습과 닮은꼴이다. 가정교육의 부재는 여러 가지 문제적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감정이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배타적 경쟁논리 속에서 ‘개별적 인간’으로 키워졌기 때문이다(이부미, 2009: 184-185). ‘감정이입’은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건강한 개인은 고립되어 있지 않고 환경과 상호의존적으로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이경희, 2015).

이문건은 손자가 태어나자 매일 두 세 차례씩 하가로 내려가 보고 함께 밥을 먹었다. 할아버지가 가지 못할 때에는 손자녀들이 당으로 올라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수봉이 6세 때부터는 숙식을 함께하면서 혈육의 사랑을 느끼고, 손자는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 배웠다. 그리고 이문건은 손자를 양육할 때 언제나 일상에서 드러난 행위를 통해 가르치고, 스스로 고치게 하면서 언제나 성현들의 모습과 연결시켰다. 이는 수봉이 현재의 경험 이후에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마음가짐이나 행위를 제시하는 효과가 있었다. 『묵재일기』를 보면 조손관계의 특별성이 곳곳에 묘사되어 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러 가면 “숙길이 좋아서 날뛰었다”,<sup>203)</sup> “내가 안고 왔더니 가려고 하지 않았다”<sup>204)</sup>, “나를 보자 아주 좋아하면서 뺨을 비벼댔다”<sup>205)</sup>, 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외출하거나 며칠 출타하면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거나<sup>206)</sup>, 밤마다 울고<sup>207)</sup> 할머니를 따라 하가로 내려가지 않고 꼭 할아버지 처소에서 자겠다고 했다<sup>208)</sup>는 것이다. 할아버지가 뒤척이면 손자도 근심하며 잠들지 못할 정도<sup>209)</sup>였다.

이렇게 이문건과 수봉은 ‘함께’하는 관계였다. 밥 먹기, 책 보기, 놀이하기, 연회 참석하기 등 일상을 늘 함께 하였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손자의 마음과 상황을 먼저 살폈고 손자는 할아버지를 잘 따랐다. 이러한 관계였기에 이문건은 손자가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인지하고 귀 기울이며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다(Karen, 2015). 이문건의 인생 속에 책과 관계를 통한 폭넓은 배움과 양육의 경험은 그의 삶을 통해 검증된 풍부한 임상적 데이터가 되었다. ‘나이는 기억력을 앗아간 그 자리에 통찰력을 놓아두고 간다’는 Jonasson(2013, 박영미, 2015: 3에서 재인용)의 말처럼 노년기는 인생에 대한 통찰의 힘을 갖는 시기이다. 노년기의 이문건은 손자의 정서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편안하게 다루며 긴 안목을 가지

203) 『默齋日記』: 1553-윤3-03 下見妻孥, 吉兒喜躍.

204) 『默齋日記』: 1556-07-10 孫宿我懷不肯去.

205) 『默齋日記』: 1557-01-05 吉兒見我, 喜甚摩面.

206) 『默齋日記』: 1557-03-03 冒夜到堂, 兒待之不寢矣.

207) 『默齋日記』: 1557-02-04 自安峯還寓家. … 孫兒見我喜甚, 夜則必啼云云.

208) 『默齋日記』: 1557-02-29 聞吉兒去夜宿于堂, 不就祖母房云.

209) 『默齋日記』: 1556-12-11 孫也曉不得襯余肌, 久愁不寐.



고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들과의 관계에서는 목표만을 향해 몰아붙이고 이해 부족을 나무라며 엄격하게 체벌했다. 하지만 손자의 양육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경계하며 교정해 나간다. 이러한 모습은 양육자의 성찰적 능력과 함께 자녀를 자아팽창의 대상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대상으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족은 가정 안에서 진정으로 만나야 하는 것이다. 할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이 수봉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움직였다. 유아기의 수봉은 할아버지의 입장을 조망하고 마음을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능력(theory of mind)이 나타난다(박찬옥 외, 2015).

삶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다. 우리의 인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교육은 서로의 삶과 삶이 만나야만 가능하다. 즉 가르치는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느끼면서’ 닮아가려고 하는, 배우는 사람의 삶이 만날 때 감동과 변화가 생긴다. 비로소 인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교육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고병헌, 2011). 이제 가족은 공간만을 공유하는 관계가 아니라 공간과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서를 공유하는 관계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은 소통을 통해 인격적 만남을 전제한 가르침이 바른 인성을 소유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격적 만남을 통한 가정교육의 회복이야말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양육을 위한 세대와 사회의 연대 필요성

전통사회에서 세대관계나 가족관계의 축은 조부모가 권력의 핵심에 있었다(손승영, 2005). 『양아록』에서도 가정의 중심은 이문건이었다. 사실 아들이 평생 병약했고 일찍 죽어 이문건의 책임과 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시대적으로도 가정의 중심은 조부였다. 따라서 양육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고 육아의 과정을 공유하며 적절히 협력을 유도하는 주체도 이문건이었다. 이처럼 노인세대는 다음세대를 세우고 인도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된다(Meissner,

1970).

에릭슨은 조부모의 역할은 생산성이 표현되는 한 방법으로 다음세대의 인생에 스스로를 바침으로써 불멸에 대한 인간의 갈망을 표현해 준다고 하였다(김종숙, 2002). 즉 조부모의 삶은 손자녀의 삶에 기여함으로써, 손자녀를 통해 다시 이어진다는 것이다. 『양아록』에는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자손의 양육에 온 가족이 일정 역할을 담당하며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문건은 수봉과 종손 천택, 그리고 숙희와 그 남편인 정섭의 교육을 전담하면서 부인·며느리와 분담하였고, 노비들의 도움도 있었다. 이문건의 집안은 양육과 교육에 있어 가문 내에서 일정 부분 역할분담을 통한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가족 외에 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관료들에게 국한되기는 하였으나, 공(公)과 사(私)의 투과성이 커서 가정과 일의 양립이 가능하였다(김성희, 2008).

현재 우리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규모의 축소는 다면적 인간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감소시켰다. 뿐만 아니라 육아와 교육의 기능 역시 축소되었다(권순미, 1984; 신창호, 2012; 이용수, 2016). 따라서 현대에는 이러한 가족 내에서의 연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아의 책임이 온전히 부모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김남희 외, 2016; 손승영, 2005). 이러한 육아 부담은 출산기피 현상으로 과급되고 있다(김영옥, 2007; 안세희, 김은주, 2018). 가족의 구조가 핵가족화로 급속히 진행되고 다양하게 분화되는 가운데(김고은, 2015) 좀 더 넓은 차원에서의 연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저출산은 인구절벽과 고령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김예지 외, 2016). 고령화로 증가하는 노인 세대는 가족을 넘어서는 육아 및 교육 연대의 동반자로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손승영(2005)은 저출산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책임과 부담이 온전히 부모에게, 특히 모에게 전적으로 돌아갈 때 급속히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는 ‘엄마 되는 기쁨’보다 ‘엄마 되는 부담’이 훨씬 큰 중압감으로 느껴지는 사회에서 아이 낳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의 저출산이 중대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이유는 한국사회가 출산과 양육을 전적으로 사적 영역의 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손승영, 2005). 이는 육아의 책임이 부모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동시에 대가족 사회의 부모에 비해 육아에 대한 부담의 체감 정도가 현저히 높아짐을 의미한다

(Croft, 1979).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육아가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 폭넓은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연대(連帶, solidarity)란 일찍이 ‘견고하게 하다’(solido)는 말과 관련지어 사용되었다. 라틴어에서 유래되어 ‘전체에 대한 책임’을 뜻하였다. 현대에도 이 연대성은 공동선의 실현을 위한 주요 사회 원리이다(강두호, 2003: 45-46). 유럽 사회에서도 남녀 노동자 모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총체적 사회 변화를 모색하였다(다케나카 에미코, 2005, 이재인, 2006: 74에서 재인용). 이는 남녀 모두가 돌봄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족과 국가, 노동시장을 재구조화하는 것이었다(이재인, 2006). 이러한 모색은 부모가 동등하게 양육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자아 실현과 건강한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는 이러한 대안적 관점도 넘어서야 하는 시점에 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의 위기로 정부가 육아지원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안세희, 김은주, 2018). 가정을 넘어서서 아동의 육아와 교육에 가정과 국가 및 세대 간의 분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김홍미리, 최정은영, 2005; 최영진, 2014). 개인과 사회, 국가는 연대성의 원리에 의하여 독특한 공동체 관계가 형성된다(강두호, 2003) 국가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회는 조부모 세대를 연대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세대 간 돌봄은 신뢰할만한 공보육시스템이 미비했을 때, 가장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돌봄 유형이었다. 또 현재에도 일하는 부모들에게 조부모의 보살핌이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Mitchell, 2008). 그러나 벨기에에서는 조부모가 아이를 돌볼 경우 세금공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대 간 돌봄을 공식부문으로 끌어들었다(김윤정, 문순영, 2009). 이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세대 간의 연대를 통해 효과성을 높인 긍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조부모는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우수한 암묵지(暗默知)를 가지고 있다(김예지 외, 2016), 아울러 조부모는 깨달은 것을 오랜 세월 가슴에서 숙성시켜 다듬으면서 몸으로 살아 보인 세대이다. 그렇기에 조부모는 존재만으로도 아동들에게 안정감과 따뜻함을 준다.

이렇게 조부모가 소유한 육아에 대한 유능함을 사회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생산적이고 총체적인 연대가 가능해질 것이다. 격대교육은 연대를 통한 육아의 긍정인 측면을 보여준다. 박상연, 전영미, 성정혜, 이선희

(2013)의 연구에서도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역할수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중 가정 밖 역할수행이 성공적 노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노인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확립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개인적 활동뿐 아니라, 사회적 참여활동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전략 및 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조부모세대의 역량을 사회와 국가의 공적시스템 안에서 육아의 연대를 도모해야 한다. 이는 노인세대에게는 사회적 배제와 박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또 삶의 활기와 건강을 보장하고(Research Team University of Hertfordshire, 2009)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게 된다. 부모세대에게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환경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박영미, 2015).

### 3. 바른 인격형성에 중점을 두는 영유아기 교육의 방향성

『양아록』에는 가정의 어른으로서 이문건의 섬세하고 자상한 모습이 잘 드러난다. 또한 이문건의 지극한 사랑은 손자의 영유아기를 안정되게 지켜주었고, ‘부성부재’의 슬픔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영유아의 발달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절한 양육이 필요하다(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09; 장지원, 2014). 수봉의 영유아기는 할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의 보살핌으로 안정 애착을 형성하였고, 침식을 같이 하며 예절과 성역할, 학문을 익혀나갔다. 이문건은 손자가 군자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손자의 인격적 완성을 위해 자신의 상(像)을 그릴 수 있도록 반복하여 가르쳤다.

우리 선조들은 아이의 지식의 형성되기 이전에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배우는 것으로 여겼다. 건강한 지식은 바른 인성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안세희, 김은주, 2018: 77). 이문건도 영유아기 교육은 선성을 보존하고 마음을 수양해서 도의를 왕성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영유아기는 지적인 교육보다는 사람됨의 토대를 키우는 근본을 배양시켜야 함을 인지한 결과

이다. 자기수양은 일관된 마음의 각성과 실천의 과정이다. 실천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어 결심하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움직이게 된다. 습관이 오래 쌓이면 천성처럼 자연스럽게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도덕적 정당성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다(김경호, 2007: 117). 이러한 양육 태도는 그대로 손자녀에게 흘러 손자녀들의 인성적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 ‘인성’은 인간의 내적 특성이기 때문에, 인성교육 또한 내면의 인격이나 정신적 측면의 변화부터 의도해야 하는 것이다(정보배, 2017). 왜냐하면, 교육의 본질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다(이홍우 외, 2003).

그렇다고 이문건이 지적인 교육을 경시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손자의 흥미와 관심, 속도를 고려하는 세심함을 보인다. 손자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하여 아이의 욕구나 의지를 파악하고 편안히 수용하며 대응하였다. 인간의 삶에서 모든 일에 다 때가 있음과, 특히 성장과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음을 인식한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장은 철저히 일상의 삶에서 시작해야 함을 상정한다. 이문건은 삶 속에서 모범을 보이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비지시적으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루소(1762)도 어린이의 지식은 감각에서 끝나고 관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영유아기는 이성의 수면기이며, 이성은 다른 모든 능력의 복합체여서 가장 늦게 발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문건 역시 가르침에 있어 의도적이고 지시적인 방법보다는 손자의 경험을 교육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였다. 이문건의 가르침은 손자의 경험에서 출발하였다. 일상이 곧 교육이 되었기에, 수봉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는 감각을 통해 인지하고, 느끼고, 상을 갖고 자신과의 관계를 인식하여 실천하는(이병래 외, 2015) 영유아의 학습 원리가 반영되고 있다. 이것은 영유아기는 혼자가 아니라, 사물과 사람 및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통해 배운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지금의 아이들은 일찍부터 전자기기에 노출되고, 핵가족 속에서 적절한 역할모델의 부재와 과도한 인지중심의 교육적 압력을 받고 있다(최미숙, 2014). 아이들은 놀이와 감각보다는 교재를 통해 개념을 습득한다. 즉 혼자, 전자기거나 교재를 가지고 머리만을 키우는 교육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지적능력의 향상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감각을 통해 직접 경험할 때, 가장 잘 배우는 아이들에게 경험과 관계가 사라진 교육이기 때문이

다. 『양아록』의 격대교육은 영유아기는 바른 인격 형성에 중점을 두면서 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교육의 출발은 아이가 경험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양아록』의 격대교육은 영유아기에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에 대해 재조망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 4. 양육자(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언설이 있다. 이는 교육에 있어 교육자의 자질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양육자이자 교육자인 부모의 자질 역시 이와 같다 하겠다.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은 무엇을 지향하며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양육자(교육자)의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 및 교육의 지향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다. 모든 교육활동은 개인적 측면에서는 인격형성과 자아실현을 지향한다(이정행, 2002). 즉 교육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내재적 측면을 지향한다는 것이다(안경수, 2012). 조선시대에는 교육이 인격의 완성이라는 내재적 목적을 지향했지만, 개인보다 가문을 중시했기 때문에 자아실현은 당연히 가문의 번창을 위한 자기완성이었다. 따라서 이문건의 교육 지향점도 ‘군자인’이었다. 이는 이름을 떨치고 명문가로서의 가통을 잇는 것을 수반한다. 손자에게는 자기수양을 통해 선성(善性)을 유지하여 군자인 되기를 일상가운데 가르쳤다. 이문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실천하였다. 그가 손자를 가문계승과 번창의 존재로 인식했지만, 그 전제는 인격의 완성이었다. 이는 지적인 것보다는 ‘사람됨’의 근본 배양을 중시하는 태도로 그가 철저히 유학자로서의 삶에 충실했기에 교육의 지향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이문건은 삶에 대해 관조적 시각을 소유할 수 있는 노인세대로 자기수양을 통해 근본을 바로 해야만 입신을 통해 가문이 번창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실천



하였던 것이다.

둘째, 자녀의 자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이문건은 가문을 위해 손자를 잘 양육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그는 가르침에 있어 늘 손자의 자질을 고려하며 학습의 난이도와 속도를 조절한다. 때때로 조급함에 앞서가기도 하지만, 그의 교육 과정을 따라가면 순리에 충실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선택의 순간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이 부단히 대리하고 투쟁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이 전개된다(고내역, 2006)는 정약용의 말처럼 이문건도 그러한 갈등을 겪는다. 그렇지만 그는 각 시기마다 도심을 앞세우고 발달과업을 정확히 인지하여 교육한다. 이문건은 손자의 자질이 우수하길 바랐지만, 보통수준임을 일찍이 간파했다. 그래서 권학의 경우 강요보다는 손자의 배움의 싹을 발견한 후에 시작한다. 이러한 태도는 조부모가 삶의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육아경험을 통해 부딪히는 상황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기보다는 긴 안목과 호흡으로 아이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손자의 학습 속도도 세밀하게 관찰한다. 자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철저한 관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문건은 육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자신의 처지 때문에 손자에게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 그의 뛰어난 교육적 관찰력과 민감성이 조급함을 멀리하고 손자의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며 교육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었다. 뇌과학 분야의 연구결과 뇌는 40-60세 사이에 정보처리 능력 면에서는 절정기에 도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은 쇠퇴하지만, 충동조절 능력과 생물학적 지혜는 오히려 증대한다는 것이다(신동선, 2014). 이문건과 같이 아이의 발달적 특성과 능력을 파악하는 것은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이는 양육자(교육자)로 하여금 아이들의 의미 있는 배움에 주목하도록 이끄는 열쇠이기도 하다(손우정, 2012). 군자인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손자의 자질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모습은 이문건의 교육적 역량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셋째, 양육자(교육자)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며 객관적 관점을 견지하는 태도이다. 양육자 및 교육자에게 중요한 자질이라 할 것이다. 이문건은 손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행위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며 반성한다. 이러한 자세는 적합한 교육 방법을 모색하여 스스로 교정하는 실



천으로 이어졌다. 성찰은 자기 본연의 존재(being)와의 만남이라는 정적인 의미와 함께 자기 변화를 위한 행동(doing)의 표현이라는 비판적 대화(critical dialogue)의 과정이다(오현선, 2007). 성찰하며 스스로를 교정하고 바른 지향점으로 나아가려는 태도는 양육과 가르침에 있어 근원적 문제를 찾아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성찰을 통해 현상 속에서 벗어나 일정한 거리 두기가 가능해야 한다. 인간은 자아를 성찰할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을 통합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다(김영진, 현남숙, 2017). 이러한 성찰의 자세는 죽음에 가까워진 노인기의 세대적 특징과 함께 수양을 통해 평생 수신하는 삶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이문건 개인의 성품적 영향이기도 하다. 이에 더해 이문건이 양육의 과정에서 객관적 관점을 견지하기 위해 선택한 행위는 글쓰기였다. 자전적 글쓰기는 자신의 체험에 대해 쓴다는 점에서 비판적 자기반성의 작업이 된다. 글쓰기를 통해 상심과 낙담의 체험을 절실하게 돌아보는 것은 현재 이후의 삶에 의미 있는 일이다(김영진, 현남숙, 2017). 이문건은 『양아록』을 통해 자신의 육아 및 교육의 과정을 대면하였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과 교육적 행위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의 근원을 찾고 해결의 출구를 찾아갔다. 그리고 육아 및 교육의 경험을 재구성하여 끊임없이 교육적 역량을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다.

## Ⅷ. 결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틀 안에서 손자의 육아과정을 16년간 기록한 『양아록』을 중심으로 격대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분석하여 교육적 의미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동몽교재와 선행연구에서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추출하였다. 특히 추출된 교육내용과 방법이 조선시대 격대교육의 전형을 보여주는 『양아록』에서는 발달 시기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주목하면서 오늘날 교육에 맞게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문건이 시행한 격대교육의 긍정적 요소를 발굴하여 교육적 의미를 도출함으로써 현대의 양육 및 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 부분에서는 설정된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 1.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내용과 방법

조선시대에는 성인을 참다운 인간상으로 상정하고 이에 따라 가정교육은 태교, 보양, 효, 예절, 성역할, 가문의식, 권학의 내용을 모방, 역행, 예시, 체벌, 여질, 독서의 방법으로 교육하였다.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철저히 바람직한 인격의 형성에 초점을 두고 철저히 일상에 기반을 두고 가르쳤다.

첫째,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내용은 근본을 바르게 세운다는 ‘태교’로부터 시작하였다. 결혼을 하면 심신이 건강한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 부모됨의 준비를 하였고, 잉태하여서는 모든 일용지사에 참가하며 수양하고, 가족 구성원들도 태교에 동참하였다. 조선사회에서 가족세력 확대에 공헌하는 자녀는 가치로운 존재였고, 특히 영아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영유아기 ‘보양’은 부모를 비롯한 성인 가족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었다. 태교와 보양이 부모를 비롯한 성인 가족들의 노력과 헌신을 필요로 한다면, ‘효’와 ‘예절’은 자녀들에게 동몽시절부터 일상에서 몸

에 익혀야 할 덕목으로 강조되었다. 이는 관계 속에서 양성되고 성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를 중심에 두었다. 효와 예절은 자신을 바르게 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로 확장되어 가는 성현의 길로서 철저히 익히도록 하였다. ‘성역할’의 경우에는 조선시대 아동은 일상에서 여러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었고, 남녀 주거공간의 구분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다. 성역할 교육은 동성의 조부모가 담당하였다. 그리고 조선은 직계-남자-장자의 3원칙에 의한 가계의 계승을 중시하는 사회였다. 때문에 족보, 가훈 등을 통한 ‘가문의식’ 함양 교육은 모든 사대부 가문의 우선적 과제였다. ‘권학’은 수기의 근간이자 치인의 기본으로 가문의 번성과 연결된 삶의 과정으로써 중시되었다. 권학은 이치를 밝혀 성인으로 나아가는 준거를 세우는 것이었기에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내용은 인간의 근본배양을 충실히 하여 인격적 지식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내용을 배우는 것이 가문의 유지와 번영의 주체적 인간이 되는 길이며,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소양을 함양하는 것이었다.

둘째,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방법은 일상에서의 실천을 통해 뿌리내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모방’과 ‘역행’이 기본적 교육방법으로서 중시되었다. ‘모방’은 성인의 본모기를 전제한다. 조선시대의 교육은 동몽기부터 보고 들어 행한 것이 인성의 토대가 되는 사람됨을 지향하는 교육이었기 때문이다. 모방의 대상은 가족과 친족으로부터 증시조, 현조, 성인 등이 학습모델이 되었다. ‘역행’은 배움의 목적을 일상에서의 바른 실천을 위한 행위임을 가르치는 것으로, 인간교육의 핵심이었다. 즉 앎과 행함의 일치를 지향하는 것이다. ‘예시’는 미리 제시하는 것으로 잘못된 습관형성을 방지하여 올바른 예절습득을 위한 선조들의 지혜였다. 미리 제시하여 가르침으로서 ‘체벌’은 부모의 사랑을 전제로 일상에서 행동교정을 통해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는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자질을 고려한다는 ‘여질’은 배움의 주체를 가르치는 자가 아닌 배우는 자를 중심에 두는 것으로,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본성을 헤아려 가르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독서’는 자녀들의 심신을 수양하는 방법으로 다독보다는 숙독과 정독을 강조하였다. 또한 선비가 독서를 충실히 하면 자신과 가문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다고 하여 사대부 가정에서 특히 중시하였다.

## 2.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발달 시기별 차이

『양아록』에는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격대교육으로 구현되었다. 이문건은 손자를 가르침에 있어 발달 시기별로 질적인 차이를 두고 격대교육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격대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영아기(0-4세), 유아기(5-7세), 아동기(8-12세), 청소년기(13-16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양아록』의 격대교육의 내용에 있어 태교의 제3자인 할아버지에 쓰여졌기 때문에 부모와 가족구성원들의 기원으로서의 ‘태교’만이 나타나고 있다. 기원으로서의 태교는 부모가 부모됨을 준비하고, 온 가족들이 이에 협력하는데, 부모됨의 준비도 이문건이 온전히 주도하고 있다. ‘보양’의 경우에는 가문의 내력과 손자의 병약함으로 영유아기에 집중되고 있다. 총 49편의 일기문 중 32편이 쓰여졌다. 주된 내용은 손자의 신체성장과 치병에 집중되었다. 발달시기에 따른 격대교육의 내용을 살필 수 있는 것은 효, 예절, 성역할, 가문의식, 권학의 내용이다. 특이한 것은 각각의 내용들에서 이문건은 특정 영역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효는 임신, 예절은 절제, 성역할은 남자의 처세, 가문의식은 가문의 재건, 권학은 군자인이 그것이다. 모두 근본에 초점을 두면서 이를 바탕으로 명문가로서의 명맥유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문건의 열망을 엿볼 수 있다.

‘효’는 영아기에는 전반적으로 가르치며 요구하기 보다는 손자의 존재가 기쁨이 되면서 유아기에는 손자에게 자신의 몸을 온전히 보전해야 함을,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마음의 수양을 강조하고 있다. 이문건이 수봉에게 요구하는 효는 스스로 자신의 심신을 잘 보전하려는 마음과 자세이다. ‘예절’은 영아기에는 이문건 스스로 양육자로서의 절제를 다짐하고 손자와의 관계와 환경조성을 통한 적절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에 집중한다. 유아기에는 일용지사에서 조급함과 지나친 자기중심성을 경계하면서 삼갈 것을 강조한다. 아동기에는 수양을 통해 자기조절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한다. 청소년기에는 술이 관계의 손상을 야기하게 되자 술을 경계하고 절제할 것을 가르친다. ‘성역할’은 영아기와 유아기에는 할아버지와 집안의 접빈객을 통해 아동기에는 대외적인 관계에 동참시키면서 남아로서의 역할을 배우도록 한다. 청소년기에는 사대부

로서 중덕의 원리를 지키는 음주를 강조하면서 손자의 상황에서는 절제해야함을 강조하였다. ‘가문의식’에서는 이문건이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절실한 이유였다. 가문의 계승에 관해서는 운명론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어려서는 손자의 심신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부지런히 잘 배우고 익히는 것이 명문가로서 이름을 떨치게 되는 기반이 됨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친친의 관계이기 때문에 충정을 앞세우게 됨을 손자가 이해하기를 소망한다. 그리하여 손자도 이문건처럼 개인보다는 ‘가문’이라는 공동체의 테두리 안에서 사고하고 모든 일을 도모하며 계승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권학’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보면 손자의 게으름과 할아버지의 고식적인 태도가 걸림돌이 되었다. 영아기에는 자신과 종손 친택을 따라 글 읽는 흥내를 내거나 돌상에서 필묵을 집어든 것에 학자로서 대성할 것을 예견하면서 만족한다. 스스로 학문을 하리라 기대하며 자유롭게 양육한다. 유아기에는 손자의 수준에 맞추어 시작하지만 아동기에 이르자 공부에 태만한 손자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독려한다. 청소년기에는 손자의 저항에 할아버지는 ‘당혹감→분노→염려→수용과 관조’라는 감정의 흐름에 따라 가르침에 충실하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초연해지려 노력하고 있다.

둘째, 『양아록』의 격대교육의 방법은 발달시기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방’은 영아기에는 환경조성을 통해 보여줌이 두드러지며, 유아기와 아동기에는 할아버지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과 성현을 제시하며 따라하도록 이끌고 있다. ‘역행’은 영아기에는 특별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유아기에는 실천을 위해 정신과 식견의 성장, 즉 알아야 실천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맹목적 실천보다는 수양과 성찰을 통한 내면화된 실천을 요구한다. ‘예시’에서는 철저히 일상의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 영아기에는 걸음마를 시작하자 예의를 지키는 것을 걸음마를 시작할 때의 조심스러움을 빗대어 제시한다. 유아기 때에는 선성의 보존을 ‘신체의 자리 찾기’를 통해 이해하도록 제시한다. 아동기에는 연회에서 체질을 생각하지 않고 먹은 불고기로 인해 연속적인 궂병으로 오랜 기간 고통당한 것을 통해 무절제함의 결과가 예상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가르친다. 이어 인생의 모든 일에 우환이 있기 때문에 매사의 깊은 사고의 과정이 필요함을 이른다. 청소년기에는 술의 폐해를 새

씩이 서리와 우박의 재해를 당한 것에 빗대어 이 시기의 절제가 이 후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준다. ‘체벌’의 경우에는 영아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체벌의 강도가 높아지고 가족이 참여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체벌의 주된 원인은 유아기에는 언행, 아동기에는 학업, 청소년기에는 학업과 폭음이다. ‘여질’은 영아기에는 손자의 요구에 따듯한 수용과 대응으로, 유아기에는 손자의 지각을 시험해 본 후 그에 맞게 글자를 가르친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나타나는 현상은 불만족스럽고 부정적 모습이지만 그 중에서도 손자의 긍정적 자질을 신뢰하며 때를 기약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문건은 ‘독서’의 경우 손자가 유아기 후반부터 관심이 없음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균자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독서는 그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했기에 이문건은 열심히 가르쳤다. 독서의 방법에서 조손간의 갈등과 불만이 심화되고 청소년기에는 관계의 손상으로 이어졌다.

### 3.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의 교육적 의미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의 교육적 의미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정교육의 복원과 양육을 위한 가정과 사회의 연대 필요성 및 영유아교육의 방향성, 그리고 양육자(교육자)의 자질로 귀결된다.

첫째,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정교육의 복원이다. 이문건과 온, 온과 수봉의 부자관계는 지나친 엄격함과 방임으로 극단적인지만 관계 맺기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닮아있으며, 현대의 가족관계의 양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문건과 수봉의 조손관계는 함께하며 인격적 만남이 전제된 관계였다. 함께하며 서로를 잘 이해했기에 할아버지는 손자의 신호를 잘 인지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사랑을 느끼며 기꺼이 따를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가정 안에서 일상을 통해 진정으로 만나고 정서를 공유하는 관계의 전형을 보여준다.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은 소통을 통해 인격적 만남을 전제한 가르침이 자녀의 인격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양육을 위한 가정과 사회의 연대 필요성이다. 이문건은 손자의 교육을

전담하면서 양육함에 있어 부인, 며느리, 종손, 노비 등의 도움을 받았다. 조선시대는 대가족 사회였기 때문에 교육과 양육에 가족 내에서의 연대가 가능했다. 이러한 연대는 양육과 교육에 있어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기 때문에 책임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부담이 감소된다. 이는 현대의 급속한 핵가족화로 인한 양육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 내에서의 연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부모의 양육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출산기피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는 가정을 넘어선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부모가 소유한 양육에 대한 유능함을 사회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양육부담을 감소시켜 부모됨을 기꺼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가정을 넘어선 연대는 노인세대-부모세대-자녀 세대가 양육을 통해 세대 간의 간극을 줄이고, 서로 도움을 통해 인구절벽과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다.

셋째, 영유아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문건은 유학적 신념에 따라 손자를 양육함에 있어 지적교육보다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을 우선시하였다.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은 영유아기는 일상의 삶에서 관계를 통해 가르치고 배워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문건의 가르침은 철저히 손자의 경험에서 시작되며, 일상이 곧 교육이 되었기에 수봉은 잘 배울 수 있었다. 과도한 인지중심의 교육적 압력을 받고 있는 지금의 아이들에게 부모와 교사들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재조망하게 해주고 있다.

넷째,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은 양육자(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다. 양육자(교육자)는 육아 및 교육의 지향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문건은 손자를 양육함에 있어 근본이 바로 서야 입신양명도, 가문의 번성도 실현될 수 있음을 배움과 경험을 통해 터득하였다. 이문건의 이러한 신념은 16년간의 양육의 과정 속에 흔들림 없이 지속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다. 그리고 자녀의 자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문건은 손자와 함께 하며 주의 깊은 관찰력으로 손자의 품성과 자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가르침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었다. 또한 양육자(교육자)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끊임없



이 성찰하며 객관적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문건은 유학자로서 수양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교육적 행위를 교정해 나갔다. 그는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글쓰기를 활용하였다. 이문건은 『양아록』을 통해 흘러가버린 자신의 양육 및 교육의 과정과 대면할 수 있었다. 이것이 자신의 양육과 교육의 지향점을 유지하면서 양육과 가르침에 근원적 문제를 찾아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문건이 성찰을 통해 자신의 교육적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은 양육자(교육자)의 성장이 곧 자녀의 바른 성장과 연결된다는 순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을 연구함에 있어 조선시대 교육의 특징인 발달 시기별 교육이 16년간 어떤 차이를 보이며 구현되었는가에 주목한 것으로 큰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처럼 큰 의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적 제약과 자료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이문건의 유학적 지식과 체화를 통해 실천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점과 이문건의 격대교육을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하기에 미진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격대교육을 시행한 문헌들을 폭넓게 탐구하여,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의 독특함과 한계에 대해 입체적 규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 참고문헌

### <원전>

『擊蒙要訣』  
『啓蒙篇』  
『論語』  
『東國李相國後集』  
『童蒙先習』  
『東文選』  
『東醫寶鑑』  
『明心寶鑑』  
『默齋日記』  
『孟子』  
『士小節』  
『三灘集』  
『宋子大全』  
『小學』  
『禮記』  
『朝鮮王朝實錄』  
『中庸』  
『退溪集』

### <국내 문헌>

- 강두호 (2003). 도덕 교과서에서 강조된 연대성의 의미. 도덕윤리과교육, (16), 45-58.
- 강보승 (2017). 정암 조광조의 공부론. 한국철학논집, 55, 69-96.

- 강봉수 (2001). 삼강오륜 「행실도」 유서에 함의된 전통 도덕교육의 방법과 원리. 윤리연구, 46, 1-29.
- 강수연 (2015). 이문건의 아동교육관과 그 의의 - 『養兒錄』을 중심으로 -. 역사와 교육, 20, 137-171.
- 강순화 (2009). 幼兒教育과 保育體制의 統合 方案 研究.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내익 (2006). 茶山 ‘行事’의 교육인간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병현 (2011). 삶을 위한 교육 - 교육은 ‘만남’을 통해서 그 ‘희망’을 꽃피운다-. 늦게 피어도 아름다운 꽃 2011 국제 유아교육심포지엄. 225-241.
- 고정자 (2003). 청소년의 개인변인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변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1(7), 121-143.
- 곽금주, 김연수 (2014). 영아발달. 서울: 학지사.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 구정화 (2006). 가정 내 성차별이 초등학생의 성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기전문학연구, 33, 53-79.
- 구혜진 (2017). 세대별 조부모 이미지와 손자녀 육아에 대한 연구. 고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순미 (1984). 현대사회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아동양육방법의 문제접근. 사회사업논집, 8(1), 93-116.
- 권정원 (2012). 『士小節』의 초학교재로의 변화과정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34, 43-65.
- 권혁내 (1985). 兒童의 道德性 發達과 家庭教育 : 構造的 發達論 中心. 논문집, 25, 101-123.
- 김경철, 강민정, 이정미, 김은정 (2017). 유아교육과정. 파주: 양서원.
- 김경호(2007). 진정성 회복을 위한 수양론의 두 유형 : 이이와 주희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28, 101-124.
- \_\_\_\_\_ (2011). 동아시아 유학적 전통에서 권학의 문제-전통의 계승과 변용-. 유학연구, 24, 357-384.

- \_\_\_\_\_ (2014).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유학에서의 사랑의 기획. *인간·환경·미래*, 12, 33-61.
- 김경화, 신혜경, 이임복 (2011). 아동건강 및 안전. 고양: 공동체.
- 김고은 (2015). 조손가정 영유아의 행동양상과 지원방안에 대한 보육사의 인식-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5(4), 329-346.
- 김광호, 조미진 (2012). 오래된 미래, 전통 육아아의 비밀. 서울: 라이온스북스.
- 김근희, 황혜익 (2007). 해강 최한기 교육사상의 유아교육적 함의. *생태유아교육연구*, 6(1), 201-226.
- 김기현 (2012). 천작-선비의 삶에서 사람의 길을 찾다. 서울: 서해문집.
- 김남희, 주소현, 오현희, 이경민 (2016). 취업맘들의 와글와글 양육분투기-일을 하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 *월간 복지동향*, (211), 43-49.
- 김도진, 송성순, 최현철 (2015). 교육학개론. 서울: 창지사.
- 김명운 (2012). 전통과 현대의 효교육 비교-가정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의 청소년문화*, 20, 131-185.
- 김미라 (2012). 韓國 傳統 어린이 教育觀 研究.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라, 이미림 (2017). 「격몽요결(擊蒙要訣)」에 나타난 인성교육론. *사회사상과 문화*, 20(2), 1-30.
- 김미영 (2006). 신주(神主)를 통해본 유교의 영혼관. *비교민속학*, 32, pp. 489-527.
- \_\_\_\_\_ (2009). 관혼상제에 투영된 유교적 세계관. *비교민속학*, 39, 331-360.
- \_\_\_\_\_ (2010). 조손(祖孫) 관계의 전통과 격대(隔代)교육. *실천민속학연구*, 16, 55-84.
- 김미영 (2013). 영아발달. 서울: 정민사.
- 김병희 (2010). 전통태교의 현대 교육적 함의-『태교신기』를 중심으로-. *교육철학*, 41, 69-92.
- \_\_\_\_\_ (2012). 전통태교의 특성과 교육적 위상. *아동교육*, 21(3), pp.169-180.
- 김선경 (2013). 16세기 성주 지역 사족의 교유 공간과 감성. *역사연구*, (24), 7-34.
- 김성수 (2014). 조선 전기 태교론(胎敎論)의 수용과 전개. *인문논총*, 71(1), 51-82.
- 김성욱 (1997). 가족환경이 청소년 골프선수의 역할 학습 정도에 미치는 영향. *한*

- 국스포츠행정·경영학회지, 2(2), 64-87.
- 김성희 (2008). 공(공)과 사(사)의 경계: 조선시대와 현대사회의 일 가정 양립.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8년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 학술대회, 184-184.
- 김소은 (2003). 16세기 성주지역 사족의 교유와 서원 건립 계획-. 정신문화연구 26(2), 157-186.
- 김수경 (2002). 조선시대 독서론의 특성에 관한 고찰.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3(2), 243-263.
- 김수정, 정익중 (2017). 유아의 반항성 행동 문제 발달 궤적이 부모의 양육 스타일과 유아의 자기 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49-150.
- 김신숙 (2013). 할머니의 꽤 괜찮은 육아. 고양: 예담.
- 김애자 (2003). 조선시대 장훈의 아동교육관과 초학교재 내용에 관한 연구. 미래 유아교육학회지, 10(4), 281-298.
- 김연순 (2007). 조선시대 교화(教化)의 성격과 사대부의 수신서(修身書)보급. 한국문화, 13, 7-50.
- 김영선 (2014). 『양아록(養兒錄)』을 통해 살펴본 조선 중기 사대부가의 출산 관련 문학. 온민학지, 22, 165-200.
- 김영실, 윤진주, 인정이 (2015). 우리가 함께 하는 인성이야기. 고양: 공동체.
- 김영옥 (2007). 유아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세대 간 통합교육의 방향과 과제. 교원교육, 23(3), 125-136.
- \_\_\_\_\_ (2014). 유아인성교육의 이론과 실제. 고양: 공동체.
- 김영옥, 백혜리 (2000). 조선 시대 아동 양육 방법에 관한 문헌적 탐구. 유아교육학논집, 4(1), 5-25.
- 김영진, 현남숙 (2017). 자기성찰에 기반한 자전적 글쓰기 교육- 체험 서술과 그 의미 해석에 대한 벤 매년의 이론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1(2), 149-174.
- 김예지, 김애선, 주장진, 신영섭 (2016).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포럼보고서, 1-135.

- 김옥희 (2018). 유아발달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9), 517-538.
- 김왕규 (1999a). 조선시대 독서법과 한문교과 활용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9b). 조선시대 독서법(讀書法)에 관한 소고. 한자한문교육, 5, 137-154.
- 김용기 (2011). 出生談을 통해서 본 <蘇賢聖錄> 家門意識의 발현 양상. 고전문학과 교육, 21, 309-348.
- 김용재 (2004). 조선시대의 유교교육-유교사상의 “자식교육”과 “전인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26, 231-261.
- \_\_\_\_\_ (2005). 전통 儒家哲學에서의 자녀교육론. 양명학, (13), 405-433.
- 김윤정, 문순영 (2009). 영유아 돌봄 유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8(2), 221-259.
- 김은경 (2006a). 조선시대 독서론과 한문교과 활용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6b). 조선시대(朝鮮時代) 독서(讀書) 방법론(方法論) 연구(研究). 한문고전연구, 13, 303-346.
- 김은경, 권대원 (2014). 양아록(養兒錄)의 생태적 함의. 생태유아교육연구, 13(2), 153-170.
- 김은주, 전정미 (2012). 한국 산속(産俗)의 변화 과정 탐색을 통한 유아교육적 의미 고찰. 아시아교육연구, 13(3), 203-232.
- 김익수 (2013). 한국사상(韓國思想)철학(哲學) : 공자의 효도관(孝道觀)의 심층연구(1) -한국의 인성교육원리탐구를 위하여-. 한국사상과 문화, 69, 191-230.
- 김일옥, 이정은 (2005). 아동안전관리. 과주: 양서원.
- 김정섭, 안경식, 윤채영 (2015). 칭찬에 관한 간학문적 연구. 교육사상연구, 29(3), 73-93.
- 김정화 (2017). 『노자』에 나타난 교육자의 자질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덕 (2013). 식치(食治)와 체질식이요법에 대한 문헌고찰. 농업사연구, 12(1),

- 91-124.
- 김중숙 (2002). 현대사회의 가족변화와 조부모의 역할. 수원대학교논문집, 20, 1-11.
- 김중현 (2002). 안채, 사랑채의 재해석을 통한 職住統合型 住居 開發에 관한 研究. 건축역사연구, 11(1), 21-32.
- 김준혁 (2014). 조선시대 선비들의 탁주(濁酒) 이해와 음주 문화. 역사민속학, (46), 131-158.
- 김향은 (2003). 조선시대 아동교육서를 통해 본 전통아동교육원리. 민족문화연구, 39, 403-438.
- \_\_\_\_\_ (2007). 교육고전을 통해 본 전통사회의 부모역할과 자녀교육 원리. 한국학논집, 34, 383-425.
- 김현철, 권성호 (2014). 소통의 대칭성과 비대칭성. 학습과학연구, 8(1), 175-200.
- 김홍미리, 최정은영 (2005).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및 담론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발간자료, 2005(1), 1-112.
- 남은경 (2010). 『논어』를 통해 본 전통적 말하기와 글쓰기. 동양고전연구, 38, 7-31.
- 노병성 (2007).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독서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출판학연구, (52), 117-158.
- 노우정 (2013). 주희의 도연명의 시가 수용과 인격 비평-주희에 의한 도연명의 충신으로서의 전범화-. 온지논총, 35, 139-172.
- 노혜경 (2011). 영조(英祖) 어제첩(御製帖)에 나타난 영조(英祖)의 생애인식. 인문학연구, 82, 161-189.
- 노희연 (2010). 1세 영아 “놀이”의 의미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4(4), 165-188.
- 대한한의진단학회 (2014). 한의진단학 실습. 서울: 군자출판사.
- 도광순 (1995). 栗谷思想의 教育方法論的 本質原理. 율곡학연구, 2, 327-371.
- 도민재 (2000). 한국의 전통 가정교육과 유교. 종교교육학연구, 10, 29-48.
- 류근성 (2015). 관계 중심적 유가 윤리와 개인. 철학논집, 42, pp. 365-389.
- 류인욱 (2012). 조선시대 어린이 교육용 교재분석을 통한 효 교육방안 모색: 『小學』 『明心寶鑑』 『童蒙先習』 을 中心으로.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류점숙 (1984). 조선시대의 아동교육관 연구 : 아동교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1), 241-265.
- \_\_\_\_\_ (1989). 조선시대의 인간 발달 단계 및 그 교육 내용. 아동학회지, 10(2), 1-18.
- \_\_\_\_\_ (1992). 조선 시대 동몽 교육의 방법적 원리. 아동학회지, 13(2), 113-128.
- \_\_\_\_\_ (2003). 전통사회 아동의 가족관계 교육. 퇴계학보, 114, 177-232.
- 류점숙, 김경아 (2005). 전통사회 아동의 처세교육. 퇴계학보, 117, 113-163.
- 류정월 (2010). 조선 초기 양반의 술 문화 : 조선 초기 잡록의 술 관련 일화를 중심으로. 동방학, 19, 335-364.
- 목영해, 양진건, 이항재, 한규원 (2010). 교육의 역사와 철학. 과주: 교육과학사.
- 문정애 (2017). 화랑·선비정신과 격대교육의 재조명. 교육철학, 63, pp. 23-47.
- 문혜경, 양진건 (2017). 유배육아일기 『양아록(養兒錄)』에 나타난 격대교육(隔代教育)의 의미. 인문연구, 81, 161-194.
- 박관성 (2008). 한국남자대학생의 성역할과 진로타협.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균섭 (2010). 가정교육의 범주와 지향 : 정약용의 가훈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41, 93-120.
- 박명규 (2017). 청소년의 신체활동 참여가 체중조절 관리 및 정신건강의 관련성 연구.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상빈, 배문조 (2012). 남자 청소년의 아버지 역할기대 및 수행과 아버지-아들관계 지각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4(3), 161-187.
- 박상연, 전영미, 성정혜, 이선희 (2013). 노인의 역할활동과 자아존중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간호학회지, 15(1), 43-50.
- 박선영, 김희용 (2012). 퇴계(退溪)와 듀이(Dewey)의 지식공부론 비교를 통한 현대 지식공부의 방향 탐색. 대동철학, 61, 439-459.
- 박연호 (1990). 조선중기(朝鮮中期) 동몽교육과정(童蒙教育課程)의 변화(變化). 교육사학연구, 3, 47-64.
- \_\_\_\_\_ (2013). <누항사>에 나타난 ‘가난’과 ‘우환’의 의미. 한민족어문학, 64,

341-364.

- 박영관 (2002). 아정 이덕무의 《사소절(士小節)에 나타난 전통 가정교육의 현대적 의의》.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논문집, 3(2), 281-298.
- 박영미 (2015).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의 유아 사회 정서발달 측면의 양육에 대한 탐구. 열린부모교육연구, 7(4), 1-18.
- 박영순 (2003). 조선시대 자녀교육에 대한 고찰-정약용과 신사임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태, 하수연, 임경순 (2009). 조선시대 『동몽선습(童蒙先習)』 과 제7차 『유치원 교육과정』 비교 연구. 석당논총, 44, 279-320.
- 박일영 (2000). 한국의 전통 가정교육과 무교 : 현대 사회의 가정교육 정립을 위한 무교의 역할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10(1), 219-235.
- 박장호 (2015). 육구 조절과 도덕적 치유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 윤리교육연구, 38, 203-233.
- 박정하 (2001). 체벌의 정당성 문제에 대한 윤리학적 접근. 대동철학, 15, 157-180.
- 박종덕 (2012). 인성교육과 가정교육. 도덕교육연구, 24(3), 153-174.
- 박찬옥, 서동미, 엄은나 (2015). 유아사회교육. 파주: 정민사.
- 박팽식 (2013). 조선시대사 연구의 성과와 국사교육. 역사교육, 125, 337-360.
- 방성혜 (2013). 엄마가 읽는 동의보감. 서울: 리더스북.
- 방진희 (2008). 주자 『소학』의 내용 분석을 통한 교육방법 연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영미 (2013).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의 아동체벌연구. 가족과 문화, 4, 214-245.
- 백두현 (2006). 조선시대 한글편지: 한글편지에 나타난 관례(冠禮)와 혼례(婚禮). 선비문화, 9, 57-64.
- 백정화 (2015). 조선시대 <서연>의 독서 교육적 의의 탐색-정조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혜리 (2001). 조선중기 양아록(養兒錄)을 통해 본 아동 인식. 아동학회지, 22(2), 205-218.
- \_\_\_\_\_ (2004). 묵재일기(默齋日記)에 나타난 조선 중기 아동의 생활. 유아교육연

- 구, 24(5), 63-100.
- 서명원 (2007). 한국 전통사회 아버지 상(像)에 대한 고찰 -왕족, 문헌 속 인물, 소설 속 인물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연구, 5(2), 101-121.
- 선우미정 (2011). 사서(四書)를 통해 본 유교(儒敎)의 교육론(敎育論). 동양철학연구, 65, 251-281.
- \_\_\_\_\_ (2017). 조선시대 유교의 자녀교육론. 양명학, (47), 251-287.
- 성미정 (2004).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승남 (1998). 가다머(H. G. Gadamer)의 철학적 해석학에 입각한 교육해석학의 가능성 탐색. 교육철학, 19, 165-181.
- 손승영 (2005).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가족관계의 변화. 젠더연구, (10), 5-25.
- 손예진 (2013). 브루너의 표상이론을 바탕으로 한 ‘음악적 표현’ 지도 방안 : 아동 피아니스트를 중심으로. 경북대원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우정 (2012). 배움의 공동체. 서울: 해냄.
- 손인수 (1991). 한국인의 가정교육. 서울: 문음사.
- 송석재 (2008). 도덕성 분석을 통한 절제교육 방안 연구. 윤리교육연구, 15, 285-306.
- \_\_\_\_\_ (2016). 가정에 대한 교육적 성찰 : 율곡을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30(2), 103-126.
- 송순, 이진인 (1994). 유교 아동교육의 현대적 조명. 원광대학교 논문집, 28(1), 293-317.
- 신경일, 이정지, 최순옥, 김숙남 (2003). 노인의 생의 의미 : Q방법론적 접근. 상담학연구, 1(4), 631-648.
- 신동선 (2014). 보편적 고령화시대, 자기완성, 그리고 평화. 평화학논총, 4(1), 5-42.
- 신동원 (2014). 조선의약생활사. 서울: 들녘.
- 신명호 (2005). 조선 왕실의 자녀교육법. 서울: 시공사.
- 신배화 (2017). 결국 인성이 이긴다. 인천: 오리진하우스.
- 신백경 (2008). 초등 미술교과에서 해석학적 접근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감상 지

- 도 연구. 미술교육논총, 22(1), 313-338.
- 신양재 (1995). 조선시대 교훈서에 나타난 아동 연령 기대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6(1), 183-195.
- 신재한 (2015). “뇌교육”적 관점의 인성교육 방안 탐색. 뇌교육연구, (5), 25-44.
- 신지은, 박정훈, 임호준, 강경희, 전병근 (2009). 세계적 미래학자 10인이 말하는 미래혁명. 서울: 미래를 준비하는 글들.
- 신창호 (2007). 동양의 교육전통에서 ‘배움’의 의미-원시유학의 논의를 중심으로-. 교육철학, 33, 141-166.
- \_\_\_\_\_ (2011). 『동몽선습(童蒙先習)』에 나타난 아동교육과정의 특징. 한국교육사학, 제33권 제3호, 25-41.
- \_\_\_\_\_ (2012). 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동문사.
- 심미옥 (1998). 초등학교에서의 학생 역할과 성역할의 비교. 교육연구, 15, 161-181.
- 심성경, 송화진, 변길희, 김나림, 박주희 (2013). 영아발달. 고양: 공동체.
- 심승환 (2010). 공자의 교육사상에 나타난 “배움(學)”과 “사고(思)”의 관계에 대한 고찰. 교육철학, 47, 79-108.
- 심정렬 (2008). 이덕무의 『사소절』 「동규」편을 통한 교육방법 연구. 한문학논집, 27, 153-186.
- 심호남 (2011). 勸學文 양상 비교 연구. 한국문학과 예술, 8, 227-259.
- 안경수 (2012). 교육목적으로서의 자율성과 정서성의 통합에 대한 정당화.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경숙, 유수정, 정영실, 신애선, 유지은 (2016). 영유아발달. 고양: 공동체.
- 안경식 (2003). 우리 조상들의 아이 키우기: “집안”에서의 유아교육. 생태유아교육연구, 2(1), 21-39.
- \_\_\_\_\_ (2004). 구비설화에 나타난 한국 전통교육. 서울: 문음사.
- \_\_\_\_\_ (2005). 한국 전통 아동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 안세희, 김은주 (2018). 『조선왕조실록(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한국 전통육아의 실제 고찰-영유아기를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32(1), 59-85.
- 안영석 (2014). 청소년 人性教育에 대한 유학적 시론. 유교사상문화연구, 58,

- 149-176.
- 양옥승, 이정란 (2003). 유아의 자기조저력 관련변인간의 관계 분석. *교육방법연구*, 15(2), 145-161.
- 양정혜 (2012). 초등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변화에 대한 연구 : 한국청소년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5(1), 185-204.
- 양진건 (1991a). 제주교육행정사. 제주: 문화.
- \_\_\_\_\_ (1991b). 조선조 제주 교육사상사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2). 제주유배길에서 만난 사람들. 제주: 제주대학교출판부.
- 양진건, 김유리, 현은선 (2013). 유배양육일기 『양아록(養兒錄)』의 교육적 의미, *교육사상연구*, 27(1), 147-162.
- 양천수 (2009). 철학적 해석학과 법해석학: 해석학의 법철학적 수용과 관련한 試論. *동아법학*, 44, 1-35.
- 엄은진 (2010). 옛이야기 들려주기의 가치. *우리말교육현장연구*, 4(1), 65-89.
- 여태철 (2006). 전생애발달이론의 관점에서의 아동발달과 교육.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논총*, 26(2), 157-178.
- 오선명 (2001). 韓國 傳統 産俗의 教育的 意義.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현선 (2007). 자기대면을 통한 자기성찰교육. *신학사상*, 137, 265-288.
- 우남희 (1999). 조선시대 아동용 교재들 속에 나타난 정서지능. *아동학회지*, 20(1), 3-14.
- 우영희 (1991). 傳統 韓國家庭의 어린이 養育 - 敬身을 중심으로. *교육논총*, 10, 77-95.
- 유강하 (2005). 幼兒犧牲祭祀와 尸童에 관한 小考- 문자학적 접근을 통한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35), 351-372.
- 유안진 (1986). 한국의 전통교육방식.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1990).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유한구 (1996). 인성교육의 한국적 전통. *초등교육연구*, 10(1), 135-151.
- 육수화 (2008). 조선시대 왕실의 유아교육. *동양고전연구*, 32, 311-362.
- \_\_\_\_\_ (2011). 조선시대 왕위 계승교육의 변화양상. *동양고전연구*, 44, 313-350.

- 윤옥자 (2000). 구연동화의 교육 방안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완석 (2011). 조선시대 초학교재 연구 -공부론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용섭, 김미영, 장윤수, 정재걸, 최효찬, 장정호, 이창기 (2015). 노인이 스승이다. 서울: 글항아리.
- 윤재홍 (2012). 한옥에 반영된 구별의 질서와 그 교육적 작용에 대한 해석: 담과 울타리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4(2), 77-98.
- 윤지원, 도현심 (2017).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11-212.
- 이경희 (2015). 아동 인성 형성에 미치는 영·유아기 양육환경의 영향력. 동광, 110, 79-115.
- 이계학 (2000). 한국의 전통 가정교육과 종교. 종교교육학연구, 10, 7-28.
- 이계학, 유혜령, 손직수, 이홍우 (1994).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금숙 (2018). '소학'의 미발 함양교육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숙, 김정원, 이현숙, 진선옥 (2017). 영유아교육과정. 고양: 공동체.
- 이기숙, 장영희, 이윤경, 정미라, 심성경, 손순복, 김영아 (2015). 유아발달. 파주: 양서원.
-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엄정애 (2002). 유아교육개론. 파주: 양서원.
- 이기원 (2015). 공자의 인인시언적 방법과 철학상담-『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문답법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75-108.
- \_\_\_\_\_ (2017). 『소학』을 통한 주체의 형성. 한국동양정치사상연구, 16(1), 29-55.
- 이문건. 양아록 (이상주 역, 1997). 서울: 태학사.
- 이병래, 나성식, 박용석, 이대균 (2015). 행복한 삶을 위한 관계지향 유아교육의 방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0(1), 833-855.
- 이복규 (1999). 『목재일기』에 나타난 조선전기의 민속. 서울: 민속원

- 이부미 (2009). 조기교육의 그림자 : 환상과 두려움을 넘어서. 늦게 피어도 아름다운 꽃 2009 국제유아교육 심포지엄.
- 이상돈 (2013). 공동체와 개인 : 주자의 존양성찰론(存養省察論). 한국철학논집, 38, 39-62.
- 이상익 (2016). 조선시대의 童蒙教材와 道德教育. 동양문화연구, 24, 201-234.
- 이상주 (1996). 이문건의 『양아록』 -16세기 사대부의 자손양육의 체험적 시편. 한국한문학회연구, 19, 477-507.
- \_\_\_\_\_ (2015). 한국 고전에 나타난 기원 : 자손(子孫)의 출산(出産)과 번창(繁昌)에 대한 기원(祈願). 온지논총, 45, 68-96.
- 이상필 (1997). 『默齋集』 解題. 南冥學研究, 17, 275-288.
- 이서영 (2014). 자기이해를 위한 인문적 사회과교육.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석주 (2015). 『양아록(養兒錄)』 과 묵재(默齋)의 노년관. 한국사상과 문화, 77, 225-255.
- 이숙인 (2006). 조선시대 교육의 젠더 지형도. 정신문화연구, 29(1), 333-368.
- 이순형 (2000). 한국의 명문종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승국 (1999). 체벌의 의미와 정당화. 아동교육, 8(1), 1-11.
- 이용수 (2016). 가족, 사회 그리고 평화적 변화, 평화논총, 6(1), 63-84.
- 이원수 (2005). 사씨남정기, 가문의 운명과 규문의 역할. 어문학, 90, 293-315.
- 이원호 (2002). 조선시대 교육의 연구. 서울: 문음사.
- 이은지 (2014). 조선시대 왕세자 교육에서의 학습동기 유발 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교육학연구, 20(1), 175-199.
- 이은화 (2017). 조부모 보살핌의 의미에 관한 존재론적 탐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철 (2007). 퇴계(退溪)의 자녀교육론(子女教育論)-기안도손(寄安道孫)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33, 167-203.
- 이재인 (2006). 노동권과 부모권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보육정책. 가족과 문화, 18(2), 67-88.
- 이정덕, 송순 (1993). 『小學』 에 나타난 童蒙期 禮節教育에 關한 研究. 대한가정



- 학회지, 4, 157-168.
- 이정미 (2000). 조선시대 아동교육에 대한 연구 -조선시대 풍속화를 중심으로-. 대구미래대학 논문집, 18(1), 279-294.
- 이정행 (2002). 茶山 丁若鏞의 人性教育論.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목 (2006).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삶과 시(詩). 한국한시작가연구, 10, 419-453.
- 이주영 (2014). 욕구만족이론을 통한 아동기 삶과 죽음의 통합. 학습자중심교과교육 욕구, 14(9), 107-122.
- 이주영, 권동택 (2013). 학습자중심교육에서의 발달이 갖는 교육적 의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6), 69-85.
- 이창일 (2014). 『격몽요결』의 가정학,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원칙과 방법. 유학연구, 31, 55-82.
- 이학당 (2015). 이덕무의 유가(儒家) 동몽교육(童蒙教育) 사상(思想)에 관한 연구(研究). 한국실학연구, 29, 279-3131.
- 이현지 (2011). 한국사회의 가족문제와 『주역』의 해법. 한국학논집, 4, 207-226.
- 이호근 (2016). 체벌에 대한 불교적 고찰. 불교연구, 44, 159-185.
- 이홍우, 유한구, 장성모 (2003). 교육과정이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희재 (2007). 조선시대 몽학교재의 분석과 현대교육적 방안.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9). 조선시대 유교의 동몽(童蒙) 교육. 공자학, 16, 87-106.
- 임민혁 (2008). 조선후기 영조의 세손교육과 왕권의식. 역사와실학, 37, 37-69.
- 장성덕 (2008). 「默齋 李文樞의 流配時期 交遊樣相」.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성옥, Patricia M. Burbank (2000). 노인의 생애의 의미에 대한 연구.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0(2), 259-271.
- 장승희 (2010). 품격 있는 사회를 위한 유교의 인성교육 담론. 동양철학연구, 62, 301-332.
- \_\_\_\_\_ (2014). 공자사상에서 ‘사랑’의 의미 고찰 -‘인(仁)’의 개념사와 철학적 인간학-. 윤리교육연구, 34, 195-221.
- 장우심, 황혜정, 주영주, 구정아 (2013). 아동간호학, 서울: 학지사.
- 장윤수 (2015). 편지를 통한 퇴계의 손자교육. 사회사상과 문화, 18(3), 69-109.

- \_\_\_\_\_ (2016). 오래된 미래, 유교의 가족관과 탈현대적 의미. 철학논총, 86, 329-353.
- 장정호 (2005). 유학교육론의 관점에서 본 『태교신기(胎敎新記)』의 태교론. 대동문화연구, 50, 475-502.
- \_\_\_\_\_ (2006). 조선시대 독자적 동몽 교재의 등장과 그 의의 - 『훈몽자회』와 『동몽선습』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0(1), 167-187.
- \_\_\_\_\_ (2011). 묵재(默齋) 『양아록(養兒錄)』의 교육학적 이해 : 전통 육아의 교육적 의미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18, 101-128.
- 장지원 (2014). 『법률』에 나타난 플라톤의 유아교육론. 교육철학연구, 36(3), 67-84.
- 전남련, 이은임, 김기선, 남궁기순, 백향기, 이재영, 원종순, 김정화, 손권희, 박주선, 박연순, 김행숙, 김혜란 (2015). 영유아 인성교육. 과주: 양서원.
- 전병술 (2016). 유교 음식문화에 나타난 조화의 태도. 환경철학, 21, 145-169.
- 정기선 (2017). <우화>의 작품세계와 의미. 국문학연구, 36, 157-176.
- 정무곤 (2010). 독서교육의 전통시대 교수법 활용 탐색. 교육연구, 49, 133-164.
- 정보배 (2017). 인성교육을 위한 고소설 교육내용 연구. 교사교육연구, 56(3), 292-308.
- 정상봉 (2015). 공존(共存)과 공감(共感)의 근거: 인(仁). 한국철학논집, 46, 93-115.
- 정순화 (2014). 정서발달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의 전통태교-태교신기를 중심으로. 52(1), 1-10.
- 정시열 (2013). 묵재 이문건의 『양아록』에 나타난 조손 갈등에 대한 일고. 동양고전연구, 50, 179-209.
- 정아란, 김영철 (2014). 조손(祖孫)가정의 격대교육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인식. 한국보육학회지, 14(2), 103-132.
- 정영숙 (2011). 한국 여성노인의 잘 나이 들기: 성숙한 노화 개념의 탐색.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5-56.
- 정옥분 (2012). 영아발달. 서울: 학지사.
- \_\_\_\_\_ (2016). 유아발달. 서울: 학지사.

- 정유리, 권귀엽 (2017). 유아들의 젠더 개념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22(5), 351-379.
- 정재걸 (2015). 격대교육과 인성교육. 새한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11), 109-130.
- 정정기 (2012). 朝鮮時代 家族의 食色教育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주영 (1997). 가정교육의 중요성. 사학, 79, 10-12.
- 정진영 (1998). 朝鮮時代 兩班들의 日常生活.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학술대회, 35-52.
- 정철영 (2015). 가정 기능 회복을 위한 부모와 자녀의 역할. 효학연구, 21, 91-113.
- 정함문 (2014). 공자의 효사상 연구 - 『논어』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린, 방희정 (2014). 관찰 학습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모방특성 : 인과적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2), 39-58.
- 조기제 (2011). 조선에서의 유교적 아동관과 아동도덕. 초등도덕교육, 35, 349-388.
- 조남욱 (2016). 이퇴계의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 퇴계학논총, 27, 63-91.
- 조민지 (2013). 브루너의 표상양식이론을 적용한 초등학교 5.6학년 장단지도 방안.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유나, 최윤이 (2010). 유아의 식습관이 자기 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9(1), 137-156.
- 조윤경 (2011). 조선중기 재지사족 가문 아버지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검토. 인문학연구, 82, 191-213.
- 조은숙 (2014). 『養兒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희, 이영순 (2013). 노인의 향유 신념과 향유 방식이 삶의 의미와의 관계 :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0(3), 565-585.
- 조창규 (2007). 儒家 冠禮의 文化解釋. 대동한문학, 27, 415-440.
- 조해훈 (2013). 조선시대 독서론 소고(小考). 교육과학연구, 19, 152-171.

- 조현설 (2008). 16세기 일기문학에 나타난 사대부들의 신이담론과 소설사의 관계. *한국어문학연구*, 51, 259-285.
- 조현주 (2017). 전통 가정교육의 현대적 조명 : 태교신기와 소학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성수 (2014). 유교경전에서 술[酒]의 상징체계 연구. *양명학*, (37), 271-302.
- \_\_\_\_\_ (2015). 유학에서의 아동교육. *한국철학논집*, 44, 113-148.
- 천은영, 김경신 (2014). 유아발달. 서울: 동문사.
- 최기영, 이정미 (2002). 조선시대 회화에 묘사된 아동의 양육과 생활. *아동학회지*, 23(1), 105-119.
- 최명선 (2005). 해석학과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최명희 (2013). 아이와 통하고 싶다. 고양: 공동체.
- 최미숙 (2014). 유아 사회적 유능성의 변화양상 및 관련 변인의 영향력에 대한 단기 종단적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13(1), 221-240.
- 최봉영 (1998). 조선시대 儒學教育과 '敎學'의 의미. *교육사학연구*, 8(1), 1-25.
- 최양규 (2007). 中國 宗譜와 朝鮮 族譜의 比較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영진 (2014).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위한 법제연구-양육기의 아동수당제도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2(3), 207-233.
- 최예린, 구수연 (2009). 영아를 위한 북스타트 프로그램 경험의 의미. *어린이미디어연구*, 8(1), 69-89.
- 최예린, 박찬옥 (2010). 1세 영아의 그림책 읽기 행동 변화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5(3), 425-450.
- 최정원 (2015). 고전을 통한 자녀교육의 현대적 적용.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종찬 (2013). 19세기 초학교재에 나타난 아동교육관의 특징.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준하 (2016). 『朱子家禮』의 受容과 韓國 傳統禮法의 轉變 및 現代的 定立을 위한 모색. *인문학연구*, 103, 335-371.
- 최혜순, 양은호 (2010). 한국의 전통육아. 서울: 신정.

- 최효숙 (2013). 자기조절력이 낮은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 대학생활연구, 19(1), 133-151.
- 최효찬 (2005). 5백년 명문가의 자녀교육. 고양: 예담.
- 팽영일 (2013). 교육사상의 연구 방법에 관한 한 시론. 교육사상연구, 27(2), 215-232.
- 하수경 (2003). 조선시대 가정교육과 문자도, 종교교육학연구, 17, 223-243.
- 하중현 (1994). 通過儀禮의 樣相과 그 機能-A. V. Genep의 이론을 중심으로-. 국문학논집, 14, 193-219.
- 한미경 (2013). 조선시대 독서론의 전개 양상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56, 249-273.
- 한창덕 (2017). 지혜로 쓴 오랜 편지. 고양: 좋은땅
- 허경진 (2016). 조선시대 유배지의 글쓰기. 다산과 현대, (9), 45-71.
- 허영주 (2008). 전통적 교육방법과 구성적 교육방법의 통합 활용 가능성 탐색: Whitehead의 “교육리듬”을 중심으로. 교육방법연구, 20(2), 91-107.
- 현용수 (2013). 인성교육학적 측면에서 본 한국 가정 해체의 과정과 문제점 및 대안 연구. 웨마교육학회 학술논문발표회, 2013(2), 6-32.
- 홍선주, 김태은 (2010). 맞춤형 학습의 효과적 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 초등교육연구, 23(2), 309-334.
- 홍성훈, 조은정 (2010). 유아의 기질 및 자기조절력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9(3), 167-185.
- 홍순례 (2001). 祈子信仰研究 -禁忌와 傳承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순옥, 박순호, 김인순 (2013). 영아발달, 과주: 양성원.
- 홍순정, 강경희, 박정자, 오윤례, 이숙희, 전방실, 정미자 (2013). 전생애 인성교육. 과주: 양성원.
- 홍원식 (2005). 한국인의 ‘우리’로서 관계 맺기와 그 철학적 배경. 동양사회사상, 12, 219-237.
- 황금중 (2002). 성리학에서의 소학, 대학 교육과정론 - 주자, 퇴계, 율곡의 견해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17, 353-391.

SBS스페셜 <그들에겐 특별한 것이 있다: 격대교육> 제작팀 (2013). SBS스페셜  
격대육아법의 비밀. 서울: 경향미디어.

EBS 역사채널©, 국사편찬위원회 (2013). 역사 e: 세상을 깨우는 시대의 기록. 서  
울: 북하우스.

### <국외 문헌>

Berk, L. E. (2012). 아동발달(이종숙, 신은수, 안선희, 이경옥 역, 2015). 서울:  
시그마프레스.

Bruner, J. S. (1966). *Toward A Theory Of Instruction*. New York: Norton.

Bueb, B. (2012). 왜 엄하게 가르치지 않는가(유영미 역, 2014). 서울: 뜨인돌.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09). *California Infant/Toddler Learning  
& Development Foundations*.

Comenius, J. A. (1657). 대교수학(정확실 역, 2007). 서울: 교육과학사.

Croft, Doreen J. (1979). *Parents and Teachers : A Resource Book for Home,  
School, and Community Relations*. Belmont: Wadsworth.

Dewey, J. (1910). *HOW WE THINK*. Boston: D.C. Heath & Co.

\_\_\_\_\_ (1916). 민주주의와 교육(이홍우 역, 1987). 서울: 교육과학사.

\_\_\_\_\_ (1934). 경험으로서의 예술(이재언 역, 2011). 서울: 책세상.

Dilthey, W. (1883). 정신과학 입문(송석량 역, 2009).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Ellen K. S. Key. (1900). 어린이의 세기(정혜영 역, 2012). 서울: 지식을만드는지  
식.

Fromm, E. (1956). 사랑의 기술(권오석 역, 1990). 서울: 흥신문화사.

Garcia, J. L. (1995). Freud's Psychosexual Stage Conception: A Developmental  
Metaphor for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5),  
498.

Goubet, N., Rochat, P., Maire-Leblond, C., Poss, S. (2006). Learning from  
others in 9-18-month-old infant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5(2),

- 161-177.
- Kail, Rebort V. (2009). 아동과 발달(권민균, 김정민, 최형성 역, 2016). 서울: 시그마프레스.
- Klein, H. (1990). Adolescence, Youth, and Young Adulthood: "Rethinking Current Conceptualizations of Life Stage". *Youth & Society*, 21(4), 446-472.
- Korczak, J. 야누슈 코르차크의 아이들(노영희 역, 2002). 서울: 양철북.
- Lidelloff, J. (1985). 잃어버린 육아의 원형을 찾아서(강미경 역, 2011). 서울: 양철북.
- Meissner, William W. S. J. (1970). Erikson's Truth: The Search for Ethical Identity. *Theological studies*, 31(2), 310-320.
- Meltzoff, Andrew N., Kuhl, Patricia K. (2016). Exploring the Infant Social Brain: What's Going on in There?. *ZERO TO THREE*, 36(3), 2-9.
- Mitchell, W. (2008). The role played by grandparents in family support and learning: considerations for mainstream and special schools. *Journal compilation*, 23(3), 126-135.
- Montessori, M. (1949). 흡수하는 마음(정명진 역, 2014). 서울: 부글북스.
- Neill, A. S. (1953). 자유로운 어린이(정세화, 전제아 역, 1998). 서울: 서원.
- Piaget, J. (1972). *The Principles of Genetic Epistemology*. New York: Basic Books.
- Platon. 법률(천병희 역, 2016). 파주: 숲.
- Platon. 국가(이향만 편저, 2006). 서울: 타임기획.
- Redcliffe Brown, A. R. (1940). On Joking Relationships. Africa.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frican Institute*, 13(3), 195-210.
- Research Team University of Hertfordshire (2009). *DO GRANDPARENTS MATTER?*. Centre for Research in Primary and Community Care.
- Reasoner, R. W., Lane, M. L. (2007). 목적 있는 육아(한은정 역, 2010). 서울: 이론과실천.
- Rogers, C. R. (1980). 사람-중심 상담(오제은 역, 2007). 서울: 학지사.



- Rousseau, J. J. (1762). 에밀(안인희 역, 1999). 과주: 양서원.
- Steingart, I. (1997). Erik Erikson's Work: Clinical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The Psychoanalytic Review*, 84(3), 349-363.
- Van Manen. M. (1986).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정광순, 김선영 역, 2012). 서울: 학지사.
- Yawkey, Thomas D. (1974). Piaget, Parents and Young Children: Some Ideas That Work With Youngsters. *CONTEMPORARY EDUCATION*, 45(4), 282-289.
- 陳璐, 張躍飛, & 陳傳鋒 (2014). 幼兒隔代教養的利與弊: 對祖輩, 和孫輩的影響究概述. *幼兒教育: 教育科學*, (4), 52-56.

#### <인터넷자료>

- 경향신문. [송혁기의 책상물림] 우랄한 질문. 2016. 04. 19. 송혁기.  
<http://news.khan.co.kr>.
- 구조론연구소. 학문의 역사. 2008. 12. 30. 김동렬. <http://gujoron.com>.  
깨달음의 대화. 2011. 08. 30. 김동렬.
-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 국제신문. [인문학 칼럼] 논어에서 배우는 살기 좋은 도시. 2012. 08. 29. 강영조.  
<https://www.kookje.co.kr>.
- 다음백과사전. <http://100.daum.net>.
- 울산제일일보. 격대교육과 당대교육. 2012. 10. 25. 박종덕. <http://www.ujeil.com>.
- 중앙일보. [어어령의 한국인 이야기] - 돌상 앞의 한국인⑤. 2009. 04. 20. 이어령.  
<http://news.joins.com>.
- 한국고전번역연구원. <http://db.itkc.or.kr>.
-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aks.aks.ac.kr>
- EBS 집중기획. 조부모의 재발견- 격대교육을 아십니까? 2013. 05. 27.  
<http://www.ebs.co.kr>.
- Parenting Exchange. *Adjustmint: Life Changes are "Teachable Moments" for Kids*. 2015. 01. 25. Karen Stephens. <http://www.ParetingExchange.com>.

Parenting Exchange. *Grandparents Are Not All Created Equal*. 2016. 12. 23.

Karen Stephens. <http://www.ParetingExchange.com>.

<Abstract>

Educational Significance of Alternate-Generation Education in Lee  
Mun-Geon's *Yangarok*

Hye - Kyung Moon

Departm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Jin-Geon Yang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educational significance of alternate-generation education in the Joseon Dynasty era by analyzing Muk Jae Lee Mun-geon's *Yangarok*, the record of raising his grandson. In Joseon Dynasty era, it was the family that was responsible for the basics of "human formation." Grandfathers and fathers would make books themselves or use common textbooks for children to teach their descendants at home when they became five years old.

Based o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nalyzed common textbooks for children that were used universally during the Joseon Dynasty era and identified the contents(prenatal education, protection and upbringing, filial duty, manners, gender roles, family consciousness, and encouragement of learning) and methods(mimicry, striving, example, corporal punishment, difference among personal qualities, and reading) of home education in the Joseon Dynasty era.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in the Joseon Dynasty era was to give children different education by the stages of development. Based on previous studies, development theories, and curriculum of national level, stages of development were divided into four stages(infancy, early childhood, childhood,

and adolescence).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in the contents and methods of home education in the Joseon Dynasty era in *Yangarok* according to stages of development.

Alternate-generation education in *Yangarok* was intensified and differentiated even in the same content and method by the stage of development. The focus of the education was on proper environment and fosterers' consistent parenting attitude in infancy. In early childhood, grandfathers would eat and sleep with their grandsons in full scale, educating them with a free and generous attitude rather than forcing them. In childhood, grandfathers would become more active in education for their grandsons emphasizing psychological self-control and moderation to cultivate qualities of Sadaebu, the Confucian scholar-gentry class. In this period, Lee Mun-geon's "temporizing love" made some problems in childcare and education for Subong, his grandson and he corrected his educational acts by introspective thinking. In adolescence, he and his grandson conflicted each other and the conflict became more and more serious. When the situation reached a critical situation, Lee Mun-geon maintained a contemplative attitude and accepted that the subject of learning was his grandson.

The characteristics of alternate-generation education in *Yangarok* can be examined in the aspects of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In the aspect of educational contents, he worked on education of basics and character education through the learning of daily moral standards with a focus on protection and upbringing and family consciousness. The training of the body and mind was emphasized throughout all the areas of contents due to the history of his family. In the aspect of educational methods, there was a shift from letting the grandson go free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through teaching him directly with a specific plan and clear intention in childhood to "setting him free" by expecting his voluntary changes in adolescence. The significance of alternate-generation education resulted in a clear perception of

intention points in childcare and education, accurate understanding of his grandson's talent, and objective viewpoint as a fosterer.

Based on those findings, this study presented a couple of educational significances including the restoration of home education provided respectfully, need for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in the society for childcare, and an orientation for infanc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Key words: *Yangarok*, home education, alternate-generation,  
alternate-generation education